

인물이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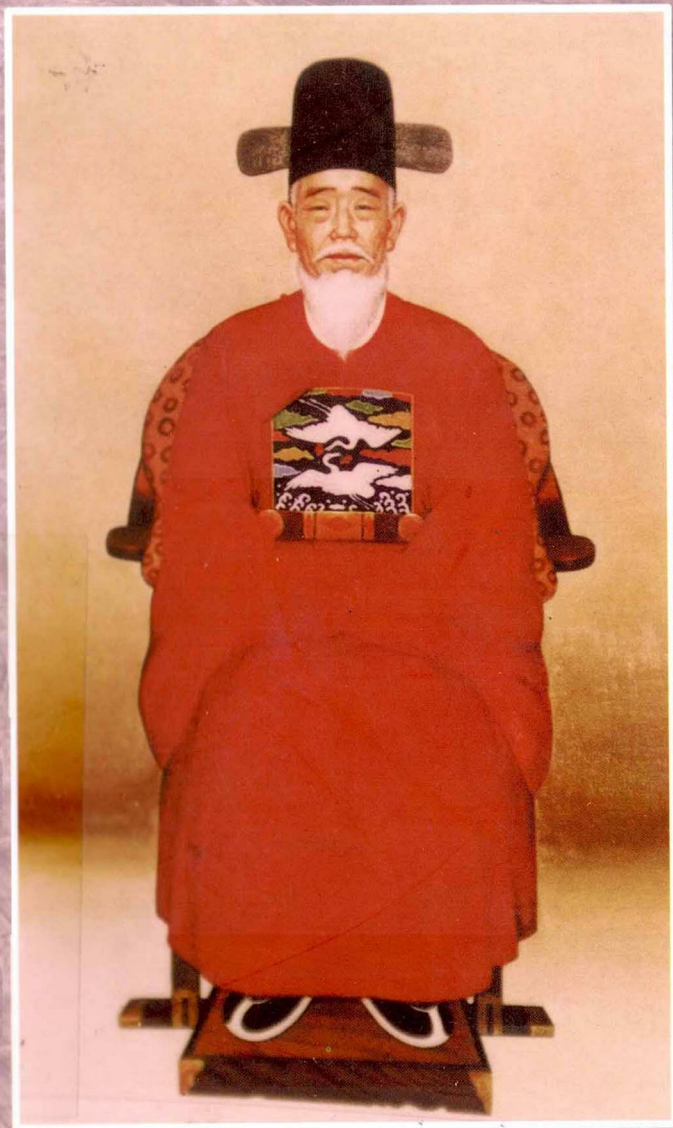
충의공

정문부

鄭文孚

안국승 지음

의정부문화원




여

백

■ 향토사 자료집

# 임란 의병장 충의공 정문부

안 국 승

 의정부정보도서관



EM007280

의정부문화원



여

백



충의공 정문부 영정



송산에 있는 충의공 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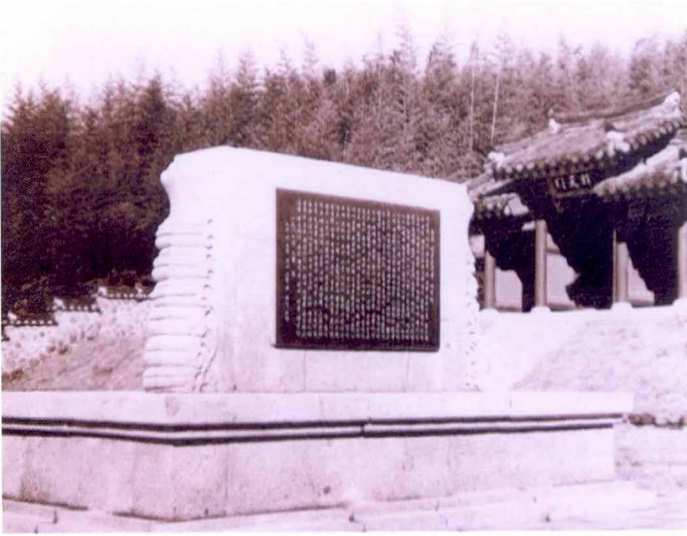
송산에 있는 충의공 묘



경남 진주에 있는 충의사



충의사 축문



충의사 경내에 있는 사적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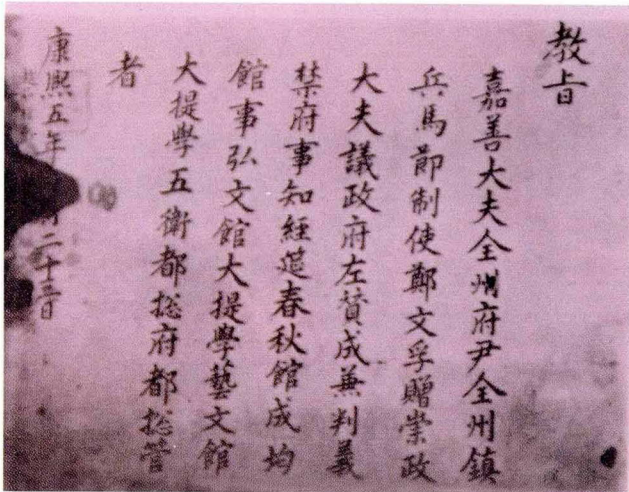


의정부시 용현동송산묘역에 있는 신도비





북관대첩비(北關大捷碑)  
일본동경 야스쿠니(靖國)신사  
(神社) 경내에 있는 이 비는  
1707년 함경도 길주 임명에 세  
웠던 우리나라의 귀중한 문화재  
이다. 러일전쟁 당시 일본군에  
의하여 반출되어 현재 야스쿠니  
(靖國)신사 후미진 곳에 외로이  
환국을 기다리고 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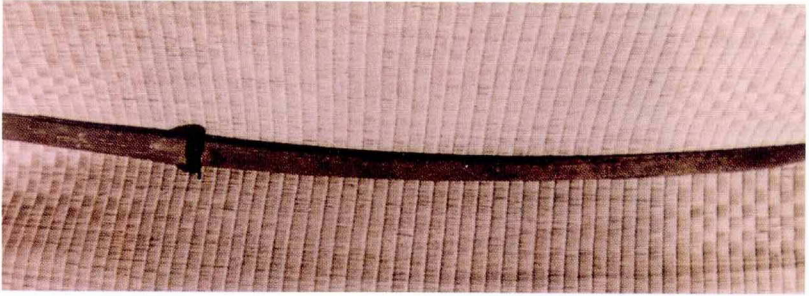
충의공에게 내린 교지(教旨)



충의사 원경(遠景)



중손이 소장했던 두루마기(독립기념관 소장)



검(劍) : 종손이 소장했던 칼(독립기념관 소장)



충의공의 유묵(遺墨)



충의사 전경



충의사 측문



충의공 기념관

## 서 문

---

유사이래 잔인하고 참혹하기 이를데 없는 민족수난인 임란에서 해전(海戰)에서의 이순신의 승리와 육전(陸戰)에서는 경성(鏡城)에서 기병하여 의병대장에 추대된 정문부(鄭文孚)가 가장 뛰어 났으니 관군의 도움없이 왜적과 싸워 육진함관령(六鎭咸關嶺) 천리땅을 회복하는 전공을 세웠다.

다시 관직에 돌아와서는 영달에 연연하지 않고 시(詩)와 같이 효도를 근본으로 청렴결백한 生活을 하였으며 公職에서 벗어나면은 先塋이 있는 松山에서 山林과 벗삼아 살아온 偉大한 人物 農圃 鄭文孚에 대하여 筆者는 97년에는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人物 義兵將 鄭文孚」의 略史를 썼고, 98년에는 「壬亂 義兵將 鄭文孚 研究」라는 論文을 發表하였다.

그러나 鄭文孚를 理解하는데 未盡한 점이 많아 또다시 이번에는 「壬亂 義兵將 忠毅公 鄭文孚」를 내놓게 된 것이다. 嶺南, 湖西 地域에서 活動한 義兵將에 대하여서는 歷史적으로 많이 알려져 國民的 推仰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研究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關西關北地域에서 活動한 義兵에 대하여서는 研究가 부진한 편이다. 특히 義兵將 鄭文孚의 뛰어난 義兵活動에 대하여서도 歷史의 뒤안길에 숨겨져 國民들의 推仰은 고사하고 研究 또한 부진한편으로 最近에 刊行되는 壬亂 文獻에서도 이를 볼 수 없는 死角地帶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日本의 文獻에서 더 많고 正確한 史料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一般化되어 있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本地域에서 조차 農圃의 선영이 이곳 松山에 있고, 이곳에서 시묘살이를 비롯하여 公께서 官職 生活를 除外하고는 서울집보다 이곳 松山에서 많은 生活를 하시었으나 公에 대하여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公의 墓所 또한 이곳 송산에 모셔져 오늘에 이르고 있어 公의 실질적인 故郷은 松山이라고 하여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이에 鄭文孚의 義兵活動을 理解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壬亂이 일어나기 전후의 우리나라의 歷史的 背景과 우리나라와 明나라, 日本과의 關係, 當時의 朝野의 態度와 國防事項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高句麗의 하늘을 찌르는 높은 氣象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高麗의 姜邯鄲이 興化鎭과 龜州에서 거란 10만 大軍을 大破한 우리 民族의 強靱하고 自主의 이고도 躍動하는 氣魄을 보여준 역사적 쾌거에 반하여 朝鮮王朝에 들어와서는 儒敎를 바탕으로 自主性이 상실된 崇明事大 依賴精神에 빠져 지나친 名分과 理論에 얽매인 文弱한 병폐는 執權을 위한 東西黨爭으로 腐敗되어 平素에 至上으로 여기던 君臣有義는 武力 앞에 힘없이 무너진 것을 살펴보았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公卿士大夫들과 官軍인 守令 方伯들의 二律背反的인 행동은 倭敵과 싸움다운 싸움하나 제대로 안하고 連戰連敗 逃走하기 바빠 급기야 官軍은 潰滅되고 政府는 崩壞 直前の 國家의 危機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반해 城主를 위하여 죽는 것을 榮光으로 아는 倭敵들은 攻城 敗走하는 우리 國토를 無慘히 짓밟아 버렸다. 그러나 우리나라 각지에서 수많은 참된 선비가 草野에서 일어나 義軍을 이끌고 목숨을 바쳐 倭敵과 싸워 후방을 교란하는 등 이들에게 莫大한 打擊을 주어 戰意를 상실케하고 이들의 銳鋒을 꺾어 급기야 撤軍에 이르게 한 義兵들의 뛰어난 血戰은 民族正氣를 발휘한 壬亂의 勝利요 金字塔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우리는 壬亂 三大 大捷으로 李舜臣의 閑山島

大捷과 權慄의 幸州大捷 그리고 李廷翰의 延安大捷 등 官軍의 勝利를 들고 있으나 幸州大捷과 延安大捷은 다같이 單回守城戰에 不過한 것이다. 그러나 義兵들의 官軍에 버금가는 赫赫한 戰功을 세운 것이 많으니 특히 鄭文孚는 連戰連勝 威關嶺 千里 땅을 回復시킨 것으로 壬亂 三大 大捷은 李舜臣의 閑山大捷과 鄭文孚의 吉州大捷 그리고 權慄의 幸州大捷으로 是正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와 같이 鄭文孚는 壬亂에서 赫赫한 戰功을 세우고 청렴한 官職생활을 했음에도 晩年에 朴弘耆의 逆謀에 무고되어 억울한 죽음을 당하였다. 그러나 사필귀정이라 사후 41년만인 顯宗6年에 伸冤되어 많은 사람의 推仰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忠毅公 鄭文孚의 나라를 위한 빛나는 偉大한 功績을 살피 民族의 精氣를 바로잡아 後孫萬代의 師表로서 推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글을 썼다. 워낙 薄識淺才에다가 시간에 쫓기다 보니 잘못된 점이 많으리라 믿으며, 이를 是正하도록 忠告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補完에 힘쓰겠다.

1999년 12월

안 국 승

## 발간사

---

“어떻게 이만한 시인(詩人)이, 이만한 영웅(英雄)이, 이만한 공신(功臣)이, 이만한 지절(志節) 높은 인물이, 대중에 회자(膾炙)되지 않고 문서의 더미 속에서만 묻혀 있을까”

저 유명한 역사가이자 소설가인 이병주 선생은 정문부 장군을 이렇게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병주 선생은 더 나아가 정문부 장군은 ‘다산 정약용이 말하는 목민관(牧民官)’이라고 극찬 하면서, ‘해전(海戰)에서 이순신이라면 육전(陸戰)에서는 정문부’라고까지 비유하고 있습니다. 노산 이은상 선생 또한 “임란 때 것처럼 기이한 공적을 세운 이가 극히 드물다”고 하면서 ‘위대한 인물’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松山(용현동)에는 장군의 산소와 선영,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3년간 여막살이를 한 데서 유래한 효자봉이 있습니다. 장군은 임진왜란 때 조선시대 6진이 설치된 함관령(咸關嶺) 천리땅을 회복한 혁혁한 공을 세운 의병대장입니다.

마침 경기도에서 새천년을 맞은 첫해의 경기도 역사 인물로 정문부 장군을 선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병주 선생과 이은상 선생의 평대로 정문부 장군은 의정부만의 인물도 아니요, 경기도만의 인물 또한 아닙니다. 이만한 인물을 한국사, 더구나 의정부에서 찾기로 쉽지 않습니다.



---

니다. 이처럼 정의를 위해 살다 가신 분이, 이렇게 혁혁한 공을 세운 분이 역사의 뒤안에 묻혀서는 정의가 숨쉴 수 없습니다.

부끄럽게도 우리 의정부에 이런 훌륭한 인물의 유적지가 있음에도 널리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오랫동안 의정부 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면서 정문부장군에 대해 깊은 연구를 해오신 안국승(安國承) 소장의 정문부 장군 전기를 펴내어 가려진 정문부 장군의 진면목을 널리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1984년에 이병주 선생이 펴낸 「길따라 발따라 - 이병주의 역사기행」에 실린 ‘**智·勇·仁** 겸비한 名牧民官 정문부’를 부록으로 실어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이 책의 발간을 계기로 정문부 장군을 기리는 활발하고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이 우리 지역 향토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문화적 자긍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1999년 12월

의정부문화원 원장 조 한 영

## 축 사

---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감하고 희망찬 경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정부문화원에서 집필한 「정문부 장군 전기집」을 발간하게 된 것을 전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동안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조한영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가슴벅찬 새 밀레니엄의 문이 열리는 지금 우리는 지난 날의 외세의존적이고 모방적인 문화에서 벗어나 우리만의 전통향 그윽한 문화를 가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우리 고장이 낳은 의병장 정문부 장군을 2000년 1월의 문화 인물로 선정하여 다양한 선양사업을 구상중에 있으며 그와 때를 같이하여 발간되는 「정문부 장군 전기집」은 매우 뜻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溫故而知新이라고 했습니다. 전기집을 통해서 정문부 장군의 의로운 정신을 우리 모든 후세들이 이어받아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한층 더 드높이기를 기원합니다.

---

아울러, 그 위대한 공적에 비해 그늘에 가려져 있던 정문부 장군의  
열이 다시 시민들의 가슴속에 새겨져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많이 읽혀져 우리  
고장 향토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향토문화 발전을 위하여 힘  
써오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1999년 12월

의정부 시장 김 기 형

## 축 사

---

먼저 경기북부의 중심도시, 자랑스러운 우리 고장 의정부 역사 인물인 의병장 정문부장군의 자료집 발간을 34만 의정부시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의병장 정문부 장군이 경기도가 지정한 2000년의 첫 인물로 지정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자료집 발간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는 우리 민족 반만년 역사의 중심무대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역사인물과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속의 인물은 단순히 우리의 옛 모습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밝고 희망찬 미래를 밝혀줄 수 있는 소중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국난의 위기에 처하여 결연하게 맞선 선조들의 위대한 기상과 호국정신은 새로운 천년을 맞아 총체적인 국가개혁의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정문부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서 왜군을 대파한 전과는 오히려 권율장군의 勝捷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의병장 정문부장군 전기집」은 의병들만으로 六鎭威關嶺 1,000리 땅을 회복하는 혁혁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한

---

정문부 장군에 대한 평가를 새로이 하고, 의정부시민들에게는 큰 자긍심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국가나 개인에게 있어 지난 세기를 교훈으로 삼아, 새 천년을 희망을 열어가야 할 때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의미 깊은 시기에 「의병장 정문부장군 전기집」을 발간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어려운 가운데도 자료집 발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조한영 의정부문화원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9년 12월

국회의원 홍문종

## 축 사

---

희망찬 새 천년에 우리 지역의 자랑스런 역사의 인물 ‘의병장 정문부 장군’이 경기도에서 지정한 1월의 인물로 지정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전 시민과 더불어 축하합니다.

우리 지역출신의 역사적 인물이 새 천년에 경기도를 대표하는 인물로 선정된 것은 우리 시민의 자람이며 긍지일 뿐 아니라 의정부 문화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동안 우리 지역에는 많은 유 무형의 문화재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개발이나 관심이 부족하여 우리의 문화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결과 경기북부의 중심지라는 이미지에 걸맞지 않게 문화가 활성화 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분출되고 이에 발맞추어 의정부문화원에서 시민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에 앞장서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濫故而知新이라 했습니다.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이듯 옛것을

---

알아야 새로운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도지정 ‘문화의 인물’에 때맞춰 장군에 대한 자료집을 발간함은 의정부 문화를 더욱 성숙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문화의 성숙은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의하여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때 가능하다 생각하며 이 자료가 의정부의 문화를 꽃 피우는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새로운 천년 조한영 원장님을 비롯한 문화 가족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리면서 만사형통 하시길 기원합니다.

1999년 12월

의정부시의회 의장 박 세 혁

여

백



# 차 례

화 보	1
서 문	9
발간사	12
축 사	14

## 제1장 農圃 鄭文孚의 소년 시절

1. 家系	27
2. 農圃의 생애	28
3. 어린 시절	29
4. 14세에 과거에 급제하다	32
5. 岳飛를 추앙하다	35
6. 松山은 農圃의 고향이나 다름없다	37
7. 과거에 급제하다	37
8. 벼슬 길에 나서다	38
9. 함경도 兵馬 評事를 자청하다	38
10. 부임길	39

11. 평사의 어진 처사에 감복 .....	40
-------------------------	----

## 제2장 壬亂이 일어나기 전의 우리나라의 실정

1. 일반사항 .....	43
2. 壬亂을 전후한 역사적 배경 .....	44
3. 豊凶秀吉의 삼국통일의 야망 .....	46
4.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하다 .....	48
5. 명나라에 사신 파견을 둘러싸고 동서간의견 대립 .....	52
6. 壬亂前夜의 우리나라 모습 .....	54
7. 우리나라의 국방대책 .....	55
8. 일본의 군사력 .....	57
9. 일본의 침공을 사전에 막지 못한 집권층 .....	59

## 제3장 전국에서 벌어진 왜적과의 싸움

1. 부산진 싸움 .....	62
2. 동래성 싸움 .....	62
3. 패주하는 관군인 수령 방백들 .....	63
4. 선조의 西行 길 .....	68
5. 三道官軍의 마지막 항쟁 .....	78
6. 전국방방곡곡에서 일어난 의병의 항쟁 .....	79
7. 전국에서의 왜적과의 대표적 싸움 .....	81
8. 일본 문헌에 기록된 의병의 활동 .....	92
9. 명나라와 일본과의 講和 .....	97
10. 일본의 패전과 漢陽 철수 .....	107
11. 宣祖의 漢城 歸還 .....	107

12. 제2차 晋州城 싸움(선조 26년(1593)6월 19일) . . . . .	109
--	-----

#### 제4장 의병장 정문부 장군의 왜적 격퇴와 六鎭咸關嶺 千里땅 회복

1. 왜적의 咸興침입 . . . . .	122
2. 臨海 順和 二王子 회령에 들어오다 . . . . .	125
3. 北兵使 韓克牽의 海汀倉 싸움 . . . . .	126
4. 鏡城 官奴 鞠世弼 등의 반역 방위 . . . . .	127
5. 鞠景仁이 두 왕자를 결박하여 加藤清正에게 바치고 항복하다 . . . . .	128
6. 鄭文孚 武溪에서 李鵬壽, 崔配天 池達源과 같이 起兵하여 의병장에 추대되다 . . . . .	130
7. 의병장 정문부의 의병구성 . . . . .	137
8. 鞠世弼을 बे기 위한 의병장 정문부의 計策 . . . . .	139
9. 鄭文孚는 吳允迪과 도훈도 申世俊을 파견하여 鞠景仁과 鄭末秀를 베다. . . . .	140

#### 제5장 六鎭咸關嶺 千里땅의 왜적격퇴

1. 일반사항 . . . . .	143
2. 경성싸움 (선조 25년(1592) 임진 9월16일) . . . . .	143
3. 吉州 長坪 싸움 . . . . .	145
4. 감사 尹卓然이 鄭見龍을 절도사겸 병사로 임명하고 의병대장을 오웅태로 바꾸다 . . . . .	148
5. 六鎭을 순시하여 女眞族 순무 . . . . .	150
6. 鄭文孚가 다시 의병장에 복귀하다 . . . . .	152

7. 吉州 雙浦(臨瀛) 부근 싸움(선조 26년(1592) 12월 20일) . . .	154
8. 길주성 남문밖에서의 싸움(선조 26년(1593) 1월 23일) . . .	157
9. 端川 부근의 싸움(선조 26년(1593) 계사 1월 28일) . . . . .	159
10. 白塔郊 싸움 . . . . .	162

## 제6장 六鎮咸關嶺 千里땅 수복 후 관직에 돌아가다

1. 공을 영흥부사에 제수하다 . . . . .	167
2. 온성부사에 제수되다 . . . . .	171
3. 길주 목사에 제수되다 . . . . .	174
4. 공주목사에 임명되다 . . . . .	174
5. 목사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오다 . . . . .	178
6. 장예원 판결사를 제수받고 이어 호조참의에 임명되다 . . .	178
7. 부호군에 전직되고 호판결에 임명되었으나 나아지지 않다 . .	178
8. 가산 대부에 승진되다 . . . . .	178
9. 중추부 동지에 임명되다 . . . . .	180
10. 松山 용현동 선영에서 시묘살이를 하다 . . . . .	180

## 제7장 정문부에 대한 재평가

1. 선조 수정실록을 살펴 본다 . . . . .	183
2. 수정실록기사에 나타나는 정문부 관련 기사 . . . . .	183
3. 광해조 1년(1690) . . . . .	187
4. 聖節使에 발탁되어 연경에 다녀오다(광해조 2년(1610)) . . .	187
5. 남원부사에 임명되다 . . . . .	199
6. 형조참판에 임명되었다 . . . . .	200
7. 길주목사에 임명되었다 . . . . .	200

8. 길주에서 벼슬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오다 . . . . .	201
9. 松山の 선영과 서울을 오가며 자연과 시주를 벗삼다 . . . . .	202
10. 松山 등지에서 산림을 벗삼아 시주로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공에게 부총관을 삼았다 . . . . .	204
11. 松山墓하로 내려오다 . . . . .	204
12. 광해 9년(1617) 4월 10일에 직급을 높여 예조참관을 삼았다 . . . . .	207
13. 광해군 7년(1617)과 동왕 10년에 전직으로 부임하라는 조정의 부름이 있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 . . . .	207
14. 창원부사에 취임하다 . . . . .	208

## 제8장 인조때의 農圃先生

1. 仁祖가 즉위하였다 . . . . .	211
2. 원수에 추천되었으나 노모를 뒤흔었다고 사양하다 . . . . .	211
3. 전주 부윤을 제수받다 . . . . .	212
4. 朴弘耆의 옥사에 연루되다 . . . . .	213
5. 鄭文孚의 伸寃 . . . . .	219
6. 사당을 세워 그의 공적을 기리다 . . . . .	222
7. 神道碑銘 . . . . .	222

## 부록

智·勇·仁 겸비한 名牧民官 鄭文孚 / 이병주 . . . . .	237
------------------------------------	-----

여

백

## 제1장 農圃 鄭文孚의 소년 시절

### 1. 家系

始祖는 鄭肅으로 高麗 神宗(1198~1204)때에 문과에 급제하여 典法正郎을 역임하였다고 하였는데 일설에는 中顯大夫(중3품), 客署丞 또는 侍中平章事を 지냈다고 한다.

제1대조는 王言으로 司僕寺 小府小尹을 지내고 正憲大夫 吏曹判書에 追贈되었고, 제2대조는 允珪으로 精勇郎將에 崇政大夫 議政府 左贊成에 追贈되었는데 일설에는 三重大匡判禮儀司事上護軍을 지냈다고 한다. 제3대조 易은 大匡輔國 崇祿大夫 議政府領議政兼 領經延書 雲觀事, 諡貞度에 추증되었다. 제4대조는 忠碩이고, 제5대조는 枕으로 文科 22人에 등과하여 禮文館 直提學을 지냈고 通政大夫(정3품)에 戶曹參議에 추증되었는데 文宗의 부마이며 端宗의 매부가 되는 惊과는 從兄弟間이다. 고조는 延慶으로 通政大夫에 鐵原府使를 지내고 嘉善大夫(중3품)에 都承旨를 추증받았고, 고조는 希儉으로 진사가 되었으나 형인 希良이 문과에 급제하여 檢閱에 올랐으나 戊午土禍(1498년)에 연루되어 의주, 김해, 고양 등지로 유배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라 希儉 역시 대과를 보지 않을 뿐 아니라 벼슬길에 나서지 않고 桂陽山中에서 山林과 벗삼아 일생을 보냈다.

할아버님은 호를 孤竹齊라고 하며 문과에 급제하여 전라, 경기, 경상 감사와 호조참판을 역임하고 예조판서에 증직되었다. 그러나 명종 2년(1546)년에 일어난 丁未土禍가 孤竹齊가 고한 良才 벽서사건에서

연류되었다고 많은 물의가 일어났으며 아버님 愼은 분과에 급제하여 대사헌 내자시정(內資寺正) 청송부사를 역임하고 예조판서에 증직되었다. 백부 愴은 호를 소村이라고 하며 대과에 급제하고 세자번객 홍문관 제학 우승지를 역임하고 이조참판에 추증되었으며 숙부 愾는 벼슬길에 나서지 않고 해주에서 살았으며 좌승지에 증직되었다. 農圃는 형님 文과 동생 文益 등 삼형제 가운데 둘째이다.<sup>1)</sup>

## 2. 農圃의 생애

이상과 같이 農圃는 누대에 걸쳐 벼슬을 한 명문대가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할아버지 孤竹齋彦懿의 良才 벽서사건으로 사림들에 물의를 일으켜 선조10년(1577)에는 급기야 삭탈 관직되었다. 이런 연유로 해서 公은 밝은 앞날이 내다보이는 內職을 선조 24(1591)년에 자진하여 사임하고 멀리 떨어진 변방의 함경도 병마 평사로 내려갔다. 그러나 선조 25년(1592) 4월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기병 의병대장에 추대되어 왜적과 싸워 많은 전공을 세웠으나 공이 올린 장계는 하나도 채택되지 않고 감사 윤탁명이 변조 축소 모함하여 올린 장계만이 채택되어 논공에서 제외되었다.

관직생활에서도 선조에 의한 잠재적 편견으로 탁연의 장계만 인정된 듯 임란때의 전공이 무시되어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북방에서 불우한 고을살이를 하다가 말년에는 박홍구의 역모에 포함되어 억울하게 생을 마치는 불행을 가져왔다.

그러나 사필귀정이라 공께서 돌아가신지 41년만인 현종6년(1665)

❧ ❧ ❧

1) 해주정씨 대동보 권 2.



에 신원되어 壬亂 때 세운 偉大한 戰功이 滿天下에 밝혀져 「忠毅」의 시호를 받게 되어 崇政大夫에 議政府 左贊成 등에 증직되었다.

### 3. 어린 시절

#### 1) 출생

명종 20년(1565) 2월9일에 판서에 추증된 아버님 愼公과 어머니님 張孀 김씨의 둘째 아들로 서울 남부 반송방(盤松坊) 남소동(南小洞=현 오장동으로 추정)에서 태어났다.

#### 2) 뛰어난 담력

5살 때에 글을 배우기 시작하였는데 성품이 과묵할 뿐 아니라 아이들과 같이 적과 서로 싸우는 전쟁놀이를 할 때에는 항상 중앙에서 지휘하였으며 만일에 이에 따르지 않거나 규율을 어기면 엄히 문책하여 기강을 세웠다. 6살 때의 어느날 어른을 따라 동대문 밖에 나가서 범잡는 구경을 하였는데 범이 큰소리를 내어 울부짖자 구경하던 모든 사람이 혼비백산하여 도망갔는데 農圃께서는 평소와 같이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미소를 짓고 앉아 있어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할 정도로 담력과 침착성이 대단하여 모두들 감탄하여 말하기를 앞날의 대장감이라고 하였다.

#### 3) 총명한 천재

그는 한번 읽기만 하면은 외우고 그 뜻을 깨우치니 수년동안 기초가 되는 글을 거의 이곳에서 배웠으며 8살때에는 5언절시를 지을 수 있었다.

### (1) 農圃 鄭文孚의 詩

誰斷崑山玉 磨成織女梳이요  
牽牛離別後 愁擲碧空虛이라

#### 초생달

누가 곤륜산의 옥을 따서 직녀의 머리빗 만들었나  
그립던 견우 직녀 서로 만났다. 오작교에서 이별하니  
슬픔에 젖어 푸른 하늘 은하수 허공에 빗을 던졌다

소년의 눈에 비친 초생달을 보고 읊은 시인데 그 시상이 뛰어나고 응대하여 당시 선비들의 칭찬이 대단하였다. 옛날 명인들이 남긴 소년시를 더러 볼 수 있는데 이는 그 재주를 보기 위한 것이다. 이 시를 가지고 앞날의 명운도 내다 보았던 것이다.

### (2) 栗谷 李珥의 詩

이 시는 율곡 이이(李珥)가 8살 때인 9월 10일에 화석정에 올라서 읊은 5언 절시이다.

#### 花石亭

林亭秋已晚 驛客竟無窮이요  
遠水蓮天碧 霜楓向日紅이라

山吐孤輪回 江含萬里風이요  
塞鴻何處去 聲斷幕雲中이라

숲속의 정자에 이미 가을이 깊었는데  
시인의 감회는 더 함이 없어라  
저 멀리 강물은 하늘에 닿아 푸르고  
서리 맞은 단풍은 해를 맞아 붉어라  
산은 외로운 달을 토하는데  
강은 만리나 불은 바람을 머금었구나  
변방의 저 기러기 어디로 가나  
울음소리 저녁 구름속 사이로 끊어지누나

여기에서 농포가 지은 초생달의 오언시(五言詩)는 8세의 소년 시로서 놀라울만큼 뛰어난 시라고 할 수 있으나 끝부분의 “슬픔에 젖어 푸른 하늘은 허공에 빗을 던졌다”의 구절이 상(祥)스럽지 못한 감이 있다. 이것이 농포의 말년의 비운을 예시한 것 같다고 하는데 이때 허공에 던진 것이 빗이 아니라 빗(梳)과 같이 생긴 초생달을 던졌기 때문이다. 즉 말년에 모함을 받아 원통하게 최후를 맞게 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얼마 안가서 사실이 밝혀져 신원된 것은 물론이요 춘추만세에 걸쳐 그의 위대한 공적이 후세에 길이 빛나고 추앙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율곡의 시에서도 엿볼 수 있으니 「산은 외로운 달을 토해내고 변방의 저 기러기 어디로 가나 울음소리 저녁 구름속 사이로 끊어지누나」가 율곡이 수를 다하지 못하고 그 뜻을 제대로 펴 보지 못한 것을 예언한 것 같다고 평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본 것이다. 어찌 되었던 농포는 壬亂에서 위대한 전공을 세웠으나 이에 상응하는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만일에 벼슬길에 올라 순탄한 길을 걸을 수 있었다면은 그와 같은 불행한 생애를 마지 하지 않았을 것이며 관직이나 학자로서 대성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은 불행을 가져 온 것은 조부 고축제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닐지 인생의 운명이란 타고난 총명한 지혜가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운명인 것인가. 소년때의 시는 이를 예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 4. 14세에 과거에 급제하다.

農圃는 소년시절에 부친으로부터 소학을 배우며 사람의 도리는 효도와 형제간의 우애를 으뜸으로 하는 「孝」와 나라를 위하는 「忠」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고 하신 말씀을 교훈으로 새기고 더욱 학문에 힘썼다. 14살까지 사서강목 사기 등을 읽고 산사(山寺)에 들어가 삼경(三經)과 춘추좌전(春秋左傳)을 공부하였으며 이해에 초시에 응시하여 시제 월명화락(月明花落)으로 장원하였다.

#### 月明花落又黃昏

簾垂金屋燕舞罷	日落紗窓初掩門
住人眉斂簿慕愁	獨倚雕欄含淚痕
思君不忍見月明	落花何更飄黃昏
花辭故條似妾身	月有盈虧同主思
圓光一虧幾時盈	落紅辭條難可掇
離心觸物結長想	脈脈暗銷相思魂
窓前久斷鳳釐來	玉階蓼落青苔繁

今宵還對昨夜月 去年花發今年園  
 花開無限月明多 幾度孤房悲雙鳳  
 銀瓶誰引斷繩後 畫燭恨殺殘生存  
 前度歌吹後度舞 別有何人隨至存  
 看花赫月樂未央 深院誰知孤妾冤  
 那堪門外度金與 悵望空自臨高軒  
 瑤琴彈羅夜又除 落月依依花不信

<14세 陸補壯元>

「달 밝고 꽃 떨어지니 다시 황혼이로다」  
 염수금옥치마 밑에는 제비 나르는 것 그만두고  
 사창에 해저무니 이제 문 닫아야겠구나  
 미인 눈썹 찌푸리며 날 저무는 것을 근심하고  
 아로 새긴 난간에 기대어 눈물 짓는다  
 그리운 마음 참지 못해 밝은달 쳐다보니  
 떨어진 꽃 다시 황혼에 나부끼누나  
 가지에서 떨어진 꽃 누가 막을 것인가  
 떠나가신 님의 마음 길게 이어져  
 맥맥이 나의 가슴에 높여 드는구나  
 창밖에 봉연이 그친지 오래되었고  
 옥돌 계단은 적막하여 청태만 깊어라  
 어제 뜬 달은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고  
 작년에 피던 꽃은 올해 또다시 피는 것이니  
 짝 잃은 새와 같이 외로운 밤 얼마나 지낼까  
 운명의 끈 끊어지니 누가 올릴 것인가  
 촛불도 한을 품고 이제 꺼지겠구나

앞뜰에서 노래하고 뒤 뜰에서 춤을 추니  
그 누가 지존을 모시는가

꽃과 달 보는 즐거움 끝나지 않았는데  
깊은 곳의 내 원한 누가 알아주랴  
문밖에 금여가 지나감을 어찌 참을 것인가  
창창하게 높은데서 바라보니 거문고 타는 것  
이제 끝나고  
밤은 깊어가는데 달은 서산에 희미하고  
꽃은 또한 말이 없으랴

시제를 과장(科場)에서 내어 준 것인지 농포께서 임의로 택한 것인지 알길이 없다. 그 내용이 너무나 유창하고 애절하게 표현했는지 마치 중국역사의 어느 궁전을 배경으로 소외당한 후궁의 애절한 신세를 표현한 시상이라고 생각된다. 14세의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소년답지 않은 화려한 궁중연시(宮中戀詩)를 지어 장원한 農圃의 깊고도 뛰어난 시상에 그저 놀라울 뿐이다.

옛날에는 15세에 호패를 찬다고 하지만은 너무나 완숙된 시상으로서 이것으로 보아 선생께서는 이때 이미 학문이나 체력으로서 크게 성숙한 장부의 풍모를 갖추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 시는 명나라 사신이 와서 우리나라의 과거제(科擧體)의 글을 보여 줄 것을 조정에 청하였을 때 백사 이항복(白沙 李恒福)이 지은 「泣送歸時在腹兒」 {이별할 때 배속에 든 아이를 울며 보낸다}라는 시와 함께 농포의 시를 함께 보여줄 정도로 백사에 버금가는 뛰어난 시인 것이다. 또한 농포는 글 공부를 하면서 여가를 이용하여 무예를 연마하였으며 아울러 천문학에도 통달하였다.

## 5. 岳飛를 추앙하다

농포는 16세때에 이미 남송의 岳飛를 추앙한 것으로 보인다. 악비는 남송의 장군으로서 금나라가 양자강까지 쳐들어오자 송나라의 고종은 항주(杭州)로 후퇴하여 여기에서 남송왕조를 세웠다. 이때 금나라 태종 「누르하치」는 한민족(漢民族)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자기들 힘만 가지고는 안될 것을 알고 송나라의 진사인 유여(劉予)를 제나라의 황제로 세워 황하(黃河) 이남에서 위수 이북까지를 통치하도록 허수아비 나라를 세웠다. 이로서 송나라는 남북조 대립이 격화되어 드디어 송나라 장군 岳飛와 한세충 등이 하남으로 진격하여 회수(淮水) 이북까지 송나라에서 잃어 버렸던 땅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金나라에 포로가 되었던 진회(秦檜)가 돌아와서 아직도 잡혀 있는 송나라 고종의 생모 위씨(韋氏)와 휘종(徽宗)을 구출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고종에게 간하여 평화조약을 맺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금나라에 많은 공물을 받치고 신례(臣禮)로서 무릎을 꿇고 죽은 희종의 관과 생모 위씨를 송환하였으나 이것은 금나라에 행복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에 송나라의 장군 학자 언론들이 굴욕적인 화평을 반대하고 군부(君父)의 원수를 무력으로 물리쳐야 한다고 맹렬히 반대하자 진회(秦檜)는 권력으로 억압하여 “악비”를 위시하여 그밖의 장군들의 병권을 박탈하였다. 그뿐 아니라 “악비”가 역심을 품고 있다고 고종에게 무고하여 결국은 죽음을 당하였다. 그러나 죽음을 당한지 얼마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 밝혀져 고종은 그를 신원하고 시호를 무목(武穆)이라고 내려 그 이름이 春秋 萬代에 빛나는 충절을 다한 영웅으로서 중국은 물론 한국, 일본 등 동양 3국에서 추앙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추앙을 받고 있었고, 농포께서도 “악비”를 추앙한 나머지 16세때에 표문을 지었다. 그러나 말년에 지은 것으로 추측되는 영사시(詠史詩)에도 악무목(岳武穆)의 충정을 그리는 시가 있다.

秦詔班辭人或疑 自知亡宋實天爲  
假令不下金牌子 星落應回滑水旗  
武穆精忠草木知 墓前松柏盡南枝  
高宗陸上無椎樹 空有悲風自北吹

군사를 이끌고 황제의 조서를 받으니 사람들은 의심하나  
송나라가 망한 것은 이때 이미 알았으니 이는 하늘이 하는 일일 것이로다.

가령 금에 패자를 내주지 않았다면  
웅당 위수의 땅을 회복하고 송나라 깃대를 꽂을 것을  
무목(武穆)의 충성을 초목도 아는지 묘앞에 송백은 남쪽을 가리키고  
고종의 능에는 나무 하나 없고 공연히 쓸쓸한 바람만 북에서 불어  
오누나

이 시는 農圃가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때 “악비”의 산소를 참배하고 지은 詩인 것 같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충절을 다한 위인에게는 시기와 모함이 따르는 것이니 “악비”는 진실로 송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다가 간신진회(秦檜)에 의하여 반역의 뜻이 있다고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것이다. 농포도 악비를 추앙한 듯 글과 시를 남겼으니 이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농포 역시 임란에 많은 전공을 세웠으나 모함을 받아 악비와 같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였기 때문이다.



## 6. 松山은 農圃의 고향이나 다름없다

농포는 선조 10년(1581) 17살 되던 해에 성종의 부마인 고령신씨(申氏) 고원위 항(沆)의 증손녀와 결혼하였다. 이곳 松山은 고령신씨의 집성촌으로 농포의 선영이 또한 이곳 松山에 있으며 부친판서공이 별세하자 이곳에서 3년동안 시묘살이를 한 것을 비롯하여 관직생활에서 벗어나면은 서울집보다 이곳에서 생활하였으며 사후 이곳 송산에 모셔져 있어 農圃의 사실상의 고향이다.

## 7. 과거에 급제하다

가. 금양정사(衿陽精舍)에서의 수학

- 1) 선조 17년(1584) 나이 20살 때 금양정사에서 김정수(金廷叟), 김백후(金伯厚)와 같이 글 공부를 하였다는 것이 유문회록(有文會錄)에 있으며 김정수는 대사헌(大司憲)에 이르렀고 김백후는 수찬에 이른 것이 아울러 기록되어 있다.
- 2) 선조 18년(1585) 나이 21세때 생원시 11명과 진사시 21명을 급제시켰는데 공께서는 생원시와 진사시험에 모두 급제하였다.
- 3) 선조 21년(1588) 24세때 가을에 명경갑과(明經甲科)에서 2위로 급제하였다.

이때 김시헌(金時獻)이 과방을 내걸고 시관(試官)은 동원 김귀영(東園 金貴榮)과 지천 황정혹(芝川 黃廷或) 맡았었는데, 서로 축하하면서 나라에서 인재를 얻었다고 기뻐하였다.

## 8. 벼슬 길에 나서다

선조 21년(1588) 나이 24살 때 명경과 급제와 함께 승문원(承文院)의 부정자(副正字)를 제수받은 것을 시작으로 11월에 正字에 승격되고 12월에 한성부 참군(參軍=정7품)이 되었다. 그리고 선조 22년(1589) 나이 25살되던 봄에 승정원 주서(注書=정7품)가 되고 여름에는 춘추관, 기사관(記事官=종9품에서 정6품까지)에 오르고 겨울에는 홍문관 수찬(정6품)을 거쳐 사간원 정언(正言=정6품)과 중학 교수를 겸하였다.

이어 선조 23년(1590)년 26살 때 여름에 지제교(知製敎)를 제수받아 중전의 환후로 전국에 특사령을 내리는 글을 짓는 등 통정(通政) 이하의 내직을 띠고 궁중에 경사가 있거나 상서로운 날에는 임금의 분부로 글을 지었고 외교문서나 궁중의 주연같은 것은 농포의 손에서 많이 나왔다. 겨울에 사헌부 지평(정5품)을 제수받았다. 이와 같이 農圃는 실력을 인정받아 승승장구 승진하여 밝은 앞날이 내다 보였다.

## 9. 함경도 兵馬 評事를 자청하다

그러나 이 때 農圃는 자주 선비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정미벽서 옥사인 丁未土禍가 조부인 고죽제 언각(彦愷)에 의하여 일어났다고 비방하며 수근거리는 말들이 있어 듣기에 거북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고민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農圃는 이와 같은 참을 수 없는 조부인 고죽제에 대한 비방으로 내직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지라 앞날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북방으로

가서 조용히 지내기로 마음먹고 선조 24년(1591) 27세 되던 8월에 앞날이 촉망되는 사헌부 지평(정5품)의 벼슬을 버리고 품계도 한계단 낮은 정6품에 해당하는 함경도 병마평사(兵馬評事)를 자진하여 제수 받았다.

## 10. 부임길

농포는 8월29일 동대문 밖에서, 형님 봉사공 文升을 비롯하여 젊은 선비 李伯起 등 20여명의 전송을 받으며 부임지로 떠났다. 정치 상황에 몰려 먼 타관으로 떠나는 심사가 자못 쓸쓸히 읊어져 있는 한편의 詩를 통해서 당시 젊은 정문부의 감회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抱川路中」  
驛路逢秋雨  
蕭蕭腸斷聲  
今宵眠客舍  
鄉夢定難成

「포천길에서」  
나그네길에서 맞은 가을비  
부슬부슬 애끓이는 소리로구나.  
오늘 밤은 객사에서 잠을 자리니  
고향꿈 꾸기도 어렵겠구나.

「立岩」  
孤危勢欲仆  
正直影無斜  
神明之所護  
野水莫相磨

「선바위」  
위태롭다 외롭다 너머지겠네.  
곧고 발라서 그림자도 비김이 없네.  
저바위 신명이 보호하거니  
들물아 너 부디 부딪치지마라.

「萬景登高」

「만경 높은 곳에 올라서」

危峰高插天	위태롭다 저 봉우리 하늘 뚫었네.
頭上星堪摘	산마루에 오르면 별도 따질네.
百步九回折	백걸음에 아홉번 꺾어 도는 길
柱尋方直尺	꼬불꼬불 길은 열자 받은 한 잘세.

「到淮陽馬上有吟」 「회양에 다다라 마상에서 읊다」

北路之難古所云	북행길이 어렵다는 것은 옛부터 일러왔는데
今來經過愜前聞	지금 지나보니 과연 듣던 바와 같구나.
緣崖細逕蒼山遠	가파른 언덕에 가는 길은 푸른 산 멀리 뻗어있고
坳地深川廣野分	갈라진 땅 깊은 내는 들판을 갈라놓았네
穿樹鳥飛大嶂錦	수풀을 뚫고 나르는 새는 하늘 높이 반짝이며
步虛人踏半天空	걸어 가는 사람이 마치 반공에 떠 있는 것 같고
此身不學隨陽雁	이 몸은 기러기를 따름을 배우지 못하였으니

## 11. 평사<sup>2)</sup>의 어진 처사에 감복

농포는 선조 24년(1591) 신묘년 9월에 함경도 임지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우선 자기가 관할하여야 할 여러 진을 돌아보며 그곳 실정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그는 전임자들이 이 지방의 백성을 무시하고 교만하여 교생들을 예로서 가르치지 않을 뿐 아니라, 시험을 볼 때에는 감독을

❧ ❧ ❧

2) 병사를 보좌하는 무관직이기는 하지만 실상은 그 지방의 학교를 통솔하고 민심을 순화시키는 선무를 책임지었다. 특히 함경도는 호지(湖地)에서 가까워 인심이 험악하고 문물이 뒤떨어져 있어 왕화(왕화)의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실정을 고려하여 유능한 수재를 골라서 보냈다. 평사는 평안도와 함경도 두 곳에서만 두었다.

심하게 하여 교생들의 절반 이상을 탈락시키어 의도적으로 사대부의 반열에 오르는 것을 막아, 軍籍에 충당되는 자를 절반이 넘게하여 이곳 북도 사람들의 원망이 대단한 것을 알게 되었다.

農圃께서는 「이곳 관북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국경지대라 국가의 문교시책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르게 퍼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이곳의 교생들을 영호남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가」 하면서 강(講) 받는 규정을 쉽게 고쳐 교생들이 음과 해석만 통하게 되면 낙제를 면하도록 시정하여 선비의 반열에 오르는 사람을 많게 하고 군적에 오르는 사람을 줄이게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진을 순찰하여 군정을 살피고 성곽을 수축 보수하여 빠진 곳을 보충하는 등 여러 가지 폐단을 시정하자, 질서가 바로 잡혀 이곳주민들이 대단히 기뻐하였다. 심지어 여러 곳을 순행하고 늦게 관아에 들어오면 은 저녁식사도 못하고 수직하는 경성부 아전(京城府吏) 鞠世弼 등을 위시하여 다른 아전을 볼 때마다 측은히 여기고 저녁 식사를 주선해 주기도 하여 아전들이 농포의 어진 처사<sup>3)</sup>에 감복하였다.

이에 鄭文學의 義兵活動에 앞서 壬亂이 일어나기 전후를 살펴보기로 한다.

\*\*\*

3) 農圃文集 卷七年譜

鄭奎燮

鄭文和 編著 壬辰倭亂과 忠毅公 農圃 鄭文學 96. 1. 16. p.38.

여

백

## 제2장 壬亂이 일어나기 전의 우리나라의 실정

### 1. 일반사항

日本の 豊臣秀吉이 100년간이나 계속되던 日本의 戰國을 統一하고 이어 조선과 명나라 三國통일의 야망을 품고, 우선 우리 나라에 明나라를 치겠으니 길을 빌려 달라고 強要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豊臣秀吉이 우리나라에 쳐들어 오느냐, 안오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東西間에 의견이 갈리어 옥신각신 分黨 政爭을 일삼는 가운데 선조 25년(1592) 4월13일 갑자기 小西行長이 거느리고 온 18,000여 명의 대적은 우리나라에 쳐들어 오자마자 부산진을 함락하고 이어 4월15일에는 동래성을 빼앗았다.

4월 25일에는 李鎰을 상주에서 격파했으며 이어 4월 28일에는 申砬이 지키던 忠州城 방어선을 돌파한 왜군은 파죽지세로 공세를 취하여 급기야 5월 2일에는 도원수 金命元이 서울을 내주고, 5월 27일에는 역시 김명원이 임진강에서 패배하여, 6월 13일에는 평양을 점령하는 속공을 계속하였다. 이때 선조는 4월 29일에 한성을 떠나 개성을 거쳐 6월 11일에 평양에 머물렀다가 다시 6월 24일 의주로 가서 명나라에게 구원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한편 서울을 점령한 왜군은 진격 방향과 작전지역을 분할하였는데 제비를 뽑아 小西行長은 平安道 方面을 맡아 북상하여 6월 13일에는 평양을 점령하고 이를 지키는 동안 加藤清正이 咸鏡道를 맡게 되었는데, 이들은 6월 12일에 철령을 넘고 18일에는 안변부에 입성하니 이

로서 함관령 1,000리 땅이 왜적의 손에 들어가 이로서 우리나라 국토는 거의 왜적의 손에 점령되었다.

특히 小西行長과 加藤清正 이들 두 將領은 침략군 가운데 가장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중추적 인물이요, 또한 평안, 함경도의 공취는 그들의 조선 침략을 완성하는 것이 1차 목표였다. 그러나 이때 鄭文孚는 이에 맞서 起兵하여 義兵將에 추대되어 六鎭 咸嶺千里 땅을 수복하였다. 이에 鄭文孚의 義兵活動을 살펴보기에 앞서 丁亂의 시작으로부터 끝날때 까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鄭文孚의 義兵活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를 살펴본다.

## 2. 壬亂을 전후한 역사적 배경

1) 연산군때의 4대사화인 무오(戊午), 갑자(甲子), 을미(乙未), 정미(丁未)사화(士禍)에 이어 선조 즉위 이후 성리학자가 정치상의 승리자로 등장하면서 이번에는 인사 문제를 가지고 東西로 갈라지더니 다시 남북으로 분열되었고 鄭汝立의 반란을 계기로 파벌싸움이 싹트기 시작하여 결국 東西老少로 갈리어 당파싸움을 시작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결국 丁亂과 胡亂을 막지 못하고 나아가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는 庚戌國恥를 당하였다.

2) 선조 16년(1583) 4월에 병조 판서 李珥는 왜적의 침입을 예견하고 경무(輕武)사상과 국방에 대한 안일성을 지적하면서 양병 10만을 주장하였으나 柳成龍 등이 有事時에 계획하면 된다고 하여, 실

▲ 李珥의 필적



행되지 않았다.

3) 선조 19년(1586) 10월 20일에 공주 교수 趙憲이 栗谷과 成渾을 추대하면서 四大不備論<(1) 敎導非人 (2) 激動無方 (3) 禁防無術 (4) 輔翼非官>을 들어 시정 개혁과 倭敵의 侵入을 막아야 한다고 여러번 상소하였으나 당시 집권당인 東人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

4) 선조 24년(1591) 11월에 부제학 金誠一이 도성에서 일본이 침입할 것이라고 미리 겁을 먹고 성지(城地)를 보수 강화하는 것은 백성의 원성을 살 뿐 아무 도움이 안된다고 세번이나 상소하여 중지하였다.

5) 숭문정치(崇文政治)를 위주로 한 輕武政治

조선 왕조는 창업초부터 유교를 기본으로 명나라와 일본과는 평화 정책을 취하고 여진 동북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였다. 즉 태조는 동북의 요지인 갑산에 성을 쌓았고, 태종은 경성, 경원에 무역소를 설치하였으며, 세종은 김중서로 하여금 6진을 개척하여 여진족의 침입을 막았으며, 신숙주는 여진의 소굴을 치고 성종은 명나라 요청에 따라 건주위를 치는 등 역대에 걸쳐 초무(招撫) 정책을 썼다.

그러나 연산군 이후 정치가 문란해지며 수차에 걸쳐 土禍가 일어나 경무정치가 시작되어 무비(武備)가 전무(全無)하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 무병(無兵) 상태가 되었다. 심지어 고려말에 발달하였던 무기를 계속 연구할 생각보다 귀족화된 관료들은 세력을 독점한 후 백성을 착취하여 치부할 생각에 눈이 어두워 일본의 침입에 대비하자는 栗谷의 양병 10만이 무시되고 조헌을 길주로 유배시키고 의주 목사 金如峴이 성을 보수하고 군사훈련을 시켰다고 투옥하는가 하면 병조판서 황정홍 등 26명을 西人 鄭澈에 속한다고 삭탈관직 유배하는 등 정계에서 몰아내고 金誠一의 주장에 따라 各道에 「官民之禁」을 시달하여 왜적의 침입에 대비하려던 성지 수리를 금지하는 명령을 각도 감사에게 내리니 임란이 일어나기 4개월 전인 선조 24년(1591) 12월 1일

이었다.

이것은 권력을 독점하기에 눈이 어두워 일본의 침입을 예견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주장한 사람들이 자기편이 아니라 西人 鄭澈에 속한다고 이들을 모두 제거하였으니, 東人들이 왜적의 침입을 수수 방관한 것은 정권을 독점하기 위한 소행으로 이는 「不意의 變」이 아니라 「豫見된 戰亂」으로 東西分黨이 가져온 것으로 끝내 왜란을 이겨내지 못하고 史上: 유래가 없는 참화를 자초한 것이다.

### 3. 豊臣秀吉의 삼국통일의 야망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동서로 갈리어 피를 흘리는 사화에 이어 당쟁을 벌이고 있을 때 일본에서는 영지를 중심으로 제후(諸侯)들인 군웅(群雄)들이 각지에 활거하며 서로 죽이고 죽는 피비린 내 나는 처절한 약육강식(弱肉強食)을 하던 100년간의 戰國時代(1478 · 성종 9~1585 · 선조 18)를 豊臣秀吉이 이를 통일하였다. 그리고 무가(武家) 정권의 정상보다 더 높은 문무백관을 지배하는 關白職에 올랐다. 그리고 그는 太陽의 아들이라고 선전하며 神으로 제사 받기를 원하며 1585년(선조 18)에 명나라의 정벌의지를 밝히고 大阪城에서 선교사(KOERUHO)에게 신식무기 등 군사원조를 요청하였다.

#### 1) 豊臣秀吉의 삼국통일 주장

우선 당시의 천황(後陽城天皇)을 명나라 수도 북경에 옮기고 영지 10개국(번)을 진상하고 군신에게도 통치권을 주어 그곳의 관백직은 양자인 秀次를 임명하고 영지 100개를 그에게 준다. 그리고 일본 본토의 제위(皇帝)는 八條殿이 계승하고 관백은 羽柴秀吉(宇喜多秀家)

를 임명한다. 京都의 유수직은 미정이다.

朝鮮八道는 자기가 직할령으로 하여 대리 지배를 행하고 자기는 명나라의 寧波에 거소를 정한다. 이곳은 동아시아의 교통요충지대와 무역기지로서 번영하기 때문에 수길이 삼국을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세계를 지배할 생각이었다. 즉 天竺(인도), 티벳등 남만(南蠻)까지 정복하고 後陽成天皇을 中國의 皇帝에 오르게 하고 조선국왕인 선조대왕은 일본 본토에 옮겨서 충분한 생활을 보장한다는 것이 豊臣秀吉의 三國統一의 꿈이었다.

## 2) 豊臣秀吉의 명나라 정벌을 위한 통로 강요

豊臣秀吉이 명나라를 쳐들어 가야 할 터이니 길을 빌려 달라고 강요하며, 세번에 걸쳐 사신을 우리나라에 보냈다.

1차는 1587년(선조 20)에 대마도 도주 宗義智가 가신 橋康宗廣을 일본 사신이라고 하면서 보내며 일본 국왕 織田信長이 혼미하여 이를 폐하고 신주로 豊臣秀吉을 세웠다고 하며 화친을 요청하자, 우리나라에서는 「華外の 미개한 나라에서 보냈으니 관례에 따라 접대하라」고만 하였다. 이때 일본이 보낸 수교문에는 「이제 天下가 朕의 한줌 손에 들었다」라는 오만 불손한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때 우리나라에서는 「주를 폐한 왜를 접수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일본이 보낸 사신을 억류하고 명나라에 이 사실을 알리어 왜나라를 정벌해야 한다」고 별좌 李命生(중5품)이 말하자 黃滙이 이는 「우리나라에 길을 빌려 달라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고 아뢰었다. 그러나 洪麟祥이 「이제 국운이 불행하여 군사와 백성이 병들어 근본이 흔들리고 있으니 큰 적이 쳐들어 온다면 여러 가지 환난이 많을 것이다」라고 걱정하였다.

1589(선조 22)년 6월에 일본에서 두번째로 사신을 파견하여 응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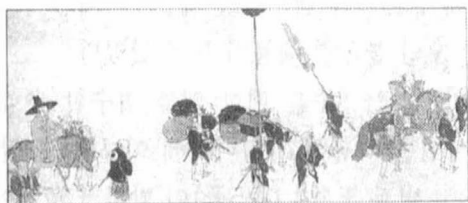
할 것을 강박하자, 우리나라에서는 1555년(명종 10)에 일본이 쳐들어온 乙卯倭亂의 주모자를 잡아 보내면은 사신을 보내겠다고 통고하자 일본은 진도반민 沙乙同과 賢時要羅 등과 같이 일본에 잡혀갔던 金大璣 등 160여명을 돌려보냈다. 이에 沙乙同 등은 성밖에서 처형하고 잡혀갔던 사람들은 석방하였다.

#### 4.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하다

##### 1) 수길의 통신사에 대한 박대

1590년(선조 23) 3월에 정사에 黃允吉(西人) 부사에 金誠一(東人)과 서정관 許箴 악공 등 총인원 350여명을 일본에 보냈다. 이들은 떠난지 8개월만인 11월 7일에야 우리 일행은 호각(胡角)을 앞세워 불며 가마를 타고 당당히 경도(京都)의 취락제(聚樂第)에 들어가 수길을 만났다.

이때 豊臣秀吉은 사모를 쓰고 도포를 입고 국서와 방물을 받았는데



▲ 조선통신사 행렬도

일본측은 豊臣秀吉과 大名(諸侯), 재상등 4명이 줄지어 앉아 있고 정면에 우리 통신사 일행 4명이 앉아 있는데 연희의 자리는 마련하지 않고 다만 탁자위에 떡 한그릇에 탁주로서 간단하게 접대하였으니, 우리나라에서의 일본 사신에 대한 환대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처사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때 방물로 선조께서 말안장 갑옷 호피 25장 표피 25장 백미 200석등 토산물 등 많은 것을 보냈다. 수길이가 조금 있다가 변복으로 갈아입은 채 어린애를 안고 나와서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악공이 노래를 연주하는데 안고 있던 어린애가 오줌을 싸자 시녀에게 애를 들여보내고 옷을 갈아 입는 등 우리나라 국사일행을 안하무인 경멸하는 태도가 역력하였다.

## 2) 수길의 인상

이 때 그를 쳐다보니 키는 작고 얼굴빛이 검은 것이 보통사람보다 위엄이 없어 보이거나 눈빛이 힘있어 사람을 쏘아 보는 예기(銳氣)가 넘쳐 흐르고 있었다.

## 3) 수길의 오만과 불손한 답서

그것보다 더 오만불손한 것은 우리 국사 일행이 돌아가려 하였으나 답서를 주지 않고 먼저 돌아가라고 하였다. 이에 金誠一이 말하기를 「내 사신이 되어 왔거늘 답서를 받지 않고는 돌아갈 수 없다」고 하자, 4일만에 답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불손하기 짝이없으니 몇구절만 보면은 「朝鮮國王 殿下」라고 하지 않고 「朝鮮國王閣下」라고 하였고 보내준 예폐(禮幣)를 방물이라고 하였고 一朝直入大明이라고 하고, 또 「貴國先驅而入朝」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大明을 빼앗고 朝鮮을 자기 나라에 入朝시키겠다는 위협적인 내용이다. 이에 여러번 金誠一이 수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자, 玄蘇와 義智는 글을 잘못 썼다고 사과

하면서 이들은 자기 멋대로 「閣下」를 「殿下」로 “방물”을 “예폐”로 四字만 고치고 나머지는 고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위조한 국서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사실을 고하지 않고 그대로 국서를 국왕에게 받았으니, 이것은 국왕을 기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때 일행은 국사에는 마음이 없고 市利를 탐내어 물건을 사려고 법석을 떠는데 黃暹만은 「왜가 명년에 반드시 쳐들어 올 것이다」라고 하며 왜병을 쳐부시겠다고 보도(寶刀) 두 자루를 사자 일행들은 이것을 보고 객기를 부린다고 비꼬았다(선조실록권 24. 선조 23년 정미조).

#### 4) 正使와 副使의 상반된 귀환보고

1591년(선조 24) 3월에 통신사 일행이 돌아왔다. 한심한 것은 선조께서 정사 黃允吉에게 물어보니 「왜적이 반드시 쳐들어 온다」고 하였고 부사 김성일은 「군사를 일으킬 기색이 보이지 않으니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며 允吉이 과장하여 아뢰어 인심을 동요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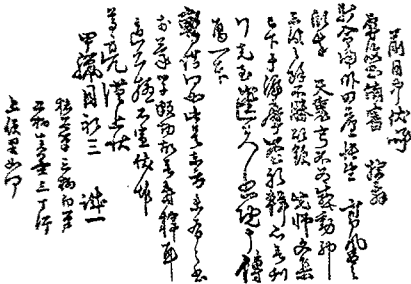
선조께서 豐臣秀吉의 인상을 물으니 윤길이가 「사람을 쏘는 듯한 눈빛이 담력과 지략이 있는 사람 같다」고 하였는데 성일은 「그 눈이 쥐는 같으니 두려울 것이 없다」고 상반된 보고를 하였다. 서정관 許箴은 그 중간을 잡아 允吉의 말을 약간 두둔하였다.

유성룡이 이때 말하기를 「豐臣秀吉이 쳐들어 온다하여도 그 행동과 모양을 들어볼 때 두려울 것이 없을 것 같으며 수길이가 보낸 국서는 협박에 불과한 것으로 이 사실을 명나라에 알리면은 오히려 소란만 일으킬 것이라고 하며 대수롭지 않다고 명나라에 알리지 말라고 하였다.」宣祖實錄卷 二十五(宣祖二十四正月庚戌).

그러나 유성룡이 김성일에게 「자네 말이 윤길과 틀리는데 만약에 왜놈이 쳐들어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넌들 왜놈

이 오지 않으리라고 기필 하겠는가마는 윤길의 말이 너무 심하여 민심이 흉흉해지므로 이렇게 대답한 것이다」하였다(懲愆錄).

5) 각도에게 명령하여 방비를 거두어 드리라 하였다.



▲ 김성일의 필적

선조는 김성일의 말을 믿고 그를 善使라고 하여 堂上官에 올리고 이에 앞서 각도 관찰사에게 명령하여 성지를 수축 왜군의 침입을 막고자 하던 것을 중지시켰다. 이것은 성일이 집권당인 동인에게 속하고, 윤길이 西人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처사를 하였다. 이는 민족과 국가보다 당리당략을 위하여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로 그 결과는 우리 민족에게 엄청나고도 참혹하기 짝이 없는 처참한 비극을 가져온 역사에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을 범한 결과가 된 것이다. 사실 우상 유성룡과 영상 이산해는 황윤길이 서인이라고 그 의견을 무시한 당리당략이 빚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명나라에 보고하자는 尹斗壽의 주장을 반대하고서도 懲愆錄에는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은 것은 壬亂에 대하여 공평하지 못하다고 하며 그 잘못을 尹斗壽에게 돌려 공을 앗아갔다고 한 尹斗壽의 말은 오늘 의 현실에 비추어 깊이 생각할 교훈이요 역사적 과오라고 본다.

6) 金誠一의 또 한번의 과오

일본의 승 “玄蘇”와 “宗義智”가 1591년(선조 24) 1월에 세 번째로 왔다. 이때 그들은 豊臣秀吉이 명나라를 쳐들어가는데 “항도”가 되지 말고 다만 길만 빌리자는 「假道 借道」로 양해를 구하여 왔다. 이때 선

조는 황윤길과 김성일에게 이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라고 하였다. 이때 현소가 김성일에게 말하기를 「명나라가 오랫동안 일본과 국교를 끊고 조공하겠다는 것도 허락하지 않아 豊臣秀吉이 분하고 치욕스럽게 생각하고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 가려는 것이다. 귀국에서 이 사실을 명나라에 알리어 일본이 명나라에 조공하도록 길을 터주면은 반드시 무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일본의 백성도 전쟁을 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겠지만은 만일에 이를 반대하면은 豊臣秀吉이 반드시 大兵을 거느리고 쳐들어 올 것이다. 이것은 매가 참새를 덮치는 격이 될 것이다」라고 하자 김성일은 이것은 안된다고 하며 오히려 현소일행을 타일렀다. 그러나 현소는 말하기를 1274년 원나라가 일본을 쳐들어 갈 때 고려 충열왕이 군사를 인도했기 때문에 그 원한을 갚기 위한 것으로 사리와 형편에 당연한 것이라고 하자 성일이 말을 못하였다. 성일은 이때 宗義御에게 명나라에 이와 같은 서신을 보냈다고 하며 그 서신을 주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大明國은 우리나라가 臣으로 섬기는 나라인데… 신으로 섬기는 나라를 범하는 것은 곧 손을 이웃나라에게 빌려서 그 몸이 머리를 때리게 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나라 뒤에는 명나라가 버티고 있다」고 위협하였다. 그러나 4월 29일에 선조께서 다시 일본을 달래고자 향연을 베풀고 平調信에게 嘉善大=夫人(중2품)을 내렸다.

## 5. 명나라에 사신 파견을 둘러싸고 東西間의견 대립

1591년(선조 24) 4월에 선조는 대신과 비변사 등을 불러 놓고 일본의 명나라 정벌을 위하여 길을 빌려 달라는 사실을 알리는나의 여부를 물었다. 병조판서 黃廷域은 「적의 침입을 방지하는 길을 깊이 생각



해야 된다」고 하고 대사헌 尹斗壽는 「...어찌 감히 숨기고 덮어 둘 수 있겠느냐고」하자 黃廷或이 이에 동조하였으나 영의정 李山海는 「알리고 난 다음의 뒷일이 걱정이니 ... 피하는 것만 같이 못하다」하니 좌의정 유성룡이 「영상이 말이 옳다」고 하자 尹斗壽가 다시 말하기를 「무릇 일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을 그대로 할 수 있겠느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서로 의견이 맞섰다. 5월 4일에 유성룡이 반대 의견을 선조에게 알리자 金睟가 이에 동조 明나라에 알리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黃廷或이 이에 반대하였다.

다시 선조께서 좌승지 柳根에게 물으니 「大義가 그러니 알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하자 5일에 영의정 李山海, 좌의정 柳成龍, 우의정 李陽元에게 의론하니 「가볍게 秦聞하자는 從輕陣奏」를 내놓아 비로서 明나라에 알리기도 하였다. 이렇게 日本의, 大攻勢를 눈앞에 두고 守護對策을 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서로 東西로 갈리어 李山海, 柳成龍, 金睟 등은 東人이요, 黃廷或, 尹斗壽 등은 西人이기 때문이다. 이는 집권파인 東人에서는 자기 과인 金誠一의 보고 내용만 믿고 西人인 黃允吉의 보고 내용은 一考의 가치도 없다고 거들떠 보지도 안했기 때문이니 이는 오히려 왜를 불러 드리는 결과가 되었다.

西人の 주장대로 明나라에 알리어 대책을 세웠다면은 平調信의 말과 같이 豊臣秀吉의 朝鮮侵略을 막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시의 집권자인 東人은 이에 따르지 않아 3천리 강산이 왜적에게 짓밟히고 全國民이 참혹한 수난을 당하였다. 심지어 서울 장안 인구의 ½이 죽어 시체가 산을 이루는 것을 필두로 전국을 시체로 덮고 경복궁을 위시한 서울 장안과 전국토가 불타 폐허가 되었으니 이것은 상호간에 타협 양보로서 화합하지 못한 결과로서 이는 千秋萬代에 걸친 민족과 역사에 대한 크나큰 罪惡이요 후세에게 주는 경고요 교훈이 아닐 수 없다.

### 1) 사신을 받아들인 명나라의 반응

聖節使에 金應南 서정관에 황치경과 역관에 홍순언을 임명하여 보내고 다시 동지사 이유인을 보냈다. 이때 琉球世子 尙寧이 日本情勢를 보고 하였는데 유독 조선에서만 보고 하지 않은지라 일본과 결탁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을 때 金應南등이 와서 명나라에 그간의 사정을 보고하자. 모든 의심이 풀릴 뿐 아니라 명나라에서 勅<sup>1)</sup>까지 받아 가지고 돌아왔다. 이에 선조께서는 모화관까지 나가서 이를 맞이하고 백관의 품위를 높여주는 한편 死罪이하 죄수들에게 특사령을 내렸다.

### 2) 집권당인 東人들 반대파인 西人 제거

명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자고 주장한 소위 주문파(奏聞派)인 병조판서 황정홍, 좌승지 유근, 우승지 황혁, 호조판서 尹斗壽, 황해 감사 이산성, 병조좌랑 김권, 사간 오억령, 우찬성 윤근수 등을 西人인 정철에게 붙였다고 삭탈관직하고 尹斗壽와 관중추 부사 홍여민은 삭탈관직하여 유배시켰다. 이때 일본의 豊臣秀吉이 전국을 통일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조선을 침범하려고 호시탐탐하고 있을때, 이에 대한 대책은 안중에 없고 한가하게 명나라에 그 사실을 알린 것을 이유로, 이들을 西人 鄭澈의 派라고 하며 尹斗壽 등 13명 이외 13명을 더한 26명을 제거하였다(西涯集卷三, 亂中雜錄卷一, 宣廟實鑑卷七七再造藩邦志一).

## 6. 壬亂前夜의 우리나라 모습

명나라로부터 의심이 풀리고 황제로부터 상까지 받은 우리 조정에서는 말하기를 수길의 「명나라를 취하기는 손바닥을 엮는 것과 같이

쉽냐」고 하며 明나라의 황제가 되기 위하여, 우선 우리나라를 쳐들어 오겠다고 버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안중에 없고 우리나라와 明나라는 君父之間의 두터운 사이라고 하며 明나라가 우리 뒤에 버티고 있고 북방 오랑캐를 무찌른 범과 같이 무서운 명장 申砮과 李鑑이 있으니 섬 오랑캐 따위는 그리 걱정할 것이 없다고 천하태평이었다.

그러나 1592년(선조 25) 4월 9일 유성룡이 자기 집에서 신립에게 말하기를 조만간에 변란이 날 것 같은데 오늘의 어려운 정세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묻자 신립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그리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 왜병은 단병전을 잘하고 조총이 있다고 하니까 신립이 말하기를 쓴다고 다 맞겠느냐고 하였다(懲愆錄).

이때 서울 장안은 선비라는 자들이 한가하게 태평성대를 만난 듯 왜병이 조만간에 쳐들어 온다는 것을 公卿 士大夫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명나라를 믿는 탓인지 그들 자제들은 때를 지어 돌아다니며 미치광이나 괴물같은 모습을 하고 여자를 껴안고 노래하고 춤추며 웃다가 울며 놀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도깨비나 무당의 흥내를 내면서 북치고 팽과리를 치며 돌아다니니 그 꼴이 가관이라 흉하고 놀라워 말할 수 없었다.

이는 胡舞로서 이름하여 등등곡(登登曲)이라고 하였다. 명가의 자제들 가운데 김효성, 백성민, 유극신, 김득남, 이경희, 정협, 김성정 등 30여명이 주동이 되었다.

## 7. 우리나라의 국방대책

문헌에서 찾아보면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독립된 주권국가로서는 믿기지 않은 국방대책이다. 중종이후 몇가지를 살펴본다면은

1) 전라감사 柳希存이 도내 군민간의 투석(投石)을 장려하며 庚午倭變때 안동투석전이 많은 공을 세웠다고(중종 5년 5월 10일) 하였다.

2) 영의정 權轍이 무용있는 자를 뽑아 금군에 배치시키어 궁궐 수비를 강화하였다(선조실록 12권 선조11년).

3) 비변사에서 영호남지역의 문관수령을 무관수령으로 교대 배치하고 파직되었던 무관을 다시 기용하였다(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12월).

4) 순무어사를 보내서 도내군기를 점검시켰다. 경기도 許筠, 강원도 李滉, 황해도 金誠이였다(선조 16년 윤 2월, 鶴峯集 附錄 卷1年譜).

5) 원수와 방어사로 기용될 자격있는 사람을 추천하라고 비변사에 명령하고 경회루에서 궁술대회를 열어 우수자를 가렸다.

6) 戍兵使 “김지”가 “승자총통”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 공을 칭찬하여 병조판서에 증직하고 그 아들을 임용하였다(선조실록 권20 선조 20년 10월 29일).

7) 선조께서 왜란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비변사에 명하여 죄를 짓고 있는 무장 가운데 기용할만한 사람을 사면하여 뽑도록 하였다.

8) 북병사 李鑑이 制勝方略을 바치자 비변사와 의논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제송방략 권2).

9) 權徵이 선조에게 건의하기를

(1) 積糶善兵할 것

(2) 마천령과 마운령에 關을 만들 것

(3) 여러 읍 가운데 넓은 곳에 둔전을 개설할 것

10) 노쇠한 수령을 연소한 문관으로 교대할 것

李慶祿과 李舜岳을 起用하였다(선조 22년 7월).

이에 김성일이 세 번이나 시폐를 올리어 金睟가 성지를 수리하기

위하여 군사를 뽑아 노역시킨 것과 李舜臣을 정읍 현감에서 전라 좌수사로 발탁한 것은 옳지 않다고 상소하였다(鶴峯集 권3).

11) 병조판서 鄭宗榮이 武人을 東班의 正郎과 佐郎에 임용하고 四館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건의하였으나 반대하는 등 무인을 천대하였다.

12) 지방백인 감찰사의 변신 발호를 염려하여 보통 임기를 1년으로 하여 군사 문제에서 군기와 풍기가 문란하여 하극상이 예사이고 소년 병과 老兵이 섞이고 군대검열도 제대로 안되어 사기가 저하되고 감사의 빈번한 교대로 六鎮卦防을 꺼렸다.

이상과 같이 國防對策이 全無상태로서 國內外 정세를 제대로 내다 볼 능력이 없는 性理學을 신봉하는 公卿 士大夫들의 自主國防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하고 明나라를 君父의 나라로 의뢰 맹신하는 선비답지 않으면서도 밖으로는 명분을 내세워 화합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상호이전투구로서 공리공담 명분과 허구에 찬 선비를 가장한 처사가 壬亂의 참화를 가져왔다.

## 8. 일본의 군사력

### 1) 병력수

이에 반하여 일본의 병력수는 1592년(선조 25년) 3월 1일에 大明 征伐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1번에서 16번대까지 출동 준비에 착수하였다. 이에 따라 1번에서 16번대까지는 육군이고 따로 수군이 있고 그밖에 1, 2번 대인 수길의 본영을 수호하는 병까지 합하여 총병력이 28만 8,400여명이 되었다. 수길이 3월 18일에 일반 병력을 동원하였는데 1번에서 9번까지 15만 8,700여명이었고 名護屋을 비롯하여 일본

국내에 배치한 병력 11만 8,300여명이었다.

이 가운데 8번대 1만명을 대마도에 9번대 11,500명을 嶺岐 섬에 배치시키니 실지로 조선에 불법 침입한 병력은 13만 7,200여명이 있었다. 여기에서 직접 침입에 투입된 병력은 1번에서 18,700여명과 2번대 2만 2,800여명 3번대 11,000여명 도합 5만 2,500여명이었다.

## 2) 일본군의 작전참모

豊臣秀吉이 한손에 병권을 감아주고 호령 한마디로 천하병력을 움직일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

### (1) 豊臣秀吉의 통수 지휘에 참석한 참모

徳川家康(병력 5,000 51세) 前田利家(병력 1만명 55세)  
 伊遠政家(병력 500 28세) 上杉景勝(병력 3,000 38세)  
 佐竹義宣(병력 2,000 23세) 石田三成(병력 2,000 33세)  
 大谷吉繼(병력 1,200 34세) 淺野長吉를 참모로 하였다.

### (2) 五人老

徳川家康, 前田利家, 上杉景勝,

### (3) 朝鮮侵攻分割地域

宇喜多秀家(병력 1만명 경기도 담당 침략군 총대장 21세)

毛利輝元(병력 3만명 정도 대구 담당 40세)

9번대	羽柴秀勝	8,000여명	長岡忠興	3,500여명
10번대	宮部長熙	2,000여명	木下重賢	8,500여명
	垣屋恒徳	400여명	龜井眞矩	10,000여명
	南條元清	15,000여명	齊林廣英	800여명
	明石則實	1,500여명	別所吉治	500여명
	中川秀政	3,000여명		

1~2번 종전대로

3번대	黑田長政 <황해도>	
	毛利吉成 <강원도>	25,000명
4번대	福島正則 <충청도>	
	戶田勝隆 <충청도>	8,700명
5번대	峰須賀家政	7,200여명
6번대	長曾我部元親(근 5번대)	
	生驅親正(근 5번대)	
	來島通總(근 5번대)	9,200명
7번대	小早川隆景(근 6번대)	15,700명(영풍, 괴산, 천안, 죽산)
8번대	중전대로하고 구 7번대 毛利輝元은 후방배치한다	
합계 병력 13만명(毛利輝元의 군사 합치면 16만명)		

## (4) 일본군의 재배치

평양지구	2만명	小西行長	봉산지구	6천명	大友吉統
백천지구	5천명	黑田長政	개성지구	4천명	戶田勝隆
강원방면	2만명	毛利吉成	충주지구	7천명	峰須賀家政
경기방면	3만명	宇喜多秀家	금산지구	1만명	小早川隆景
부산방면	1만명	羽柴秀勝			
함경도방면	2만명	加藤清正			
		鍋島直茂			

(이형석저 임진전란전, 1976. 3.1. p.133~p.148)

## 9. 日本의 侵攻을 사전에 막지 못한 집권층

당시 우리나라 집권당인 東人들은 일본이 전국(戰國)을 統一한 豊臣秀吉의 호령 한마디로 막강한 군사력을 움직여 三國統一을 하겠다는

수길의 야망과 군사력을 알아보겠다는 생각과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안목과 능력이 없었다. 더욱이 국내외 정세에 눈이 먼 性理學을 내세워 실천을 뒤로하고 공리공담 독선에 홀려 국가운명이나 백성보다 명분과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운 무능한 집권자들의 독선과 아집이 입난을 막아내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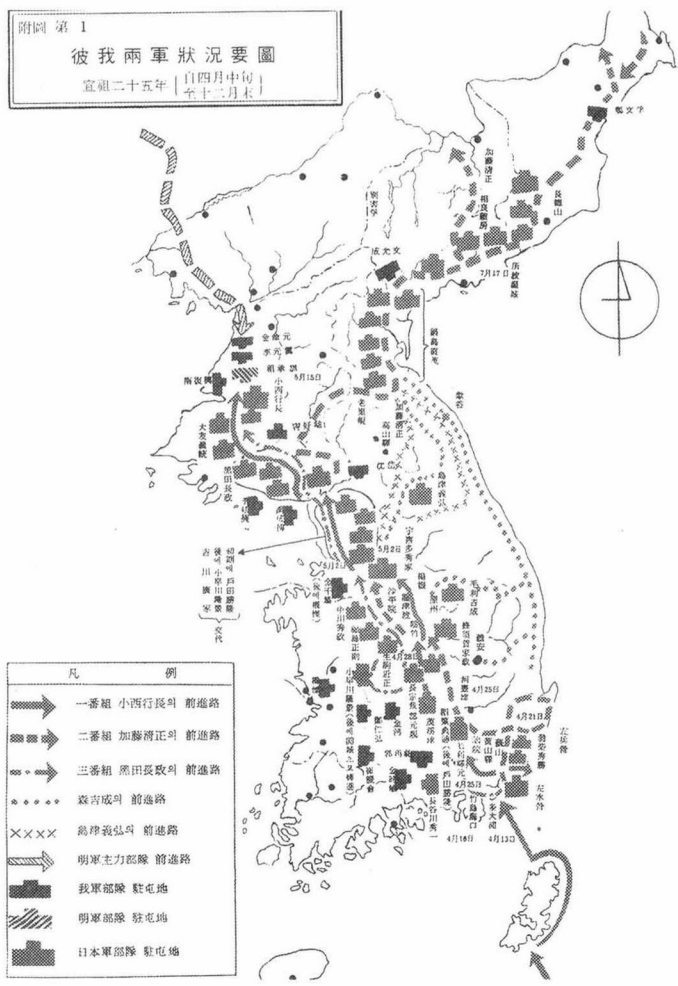
특히 속선비들은 仁義禮智를 들어 孝를 내세워 忠을 경시하고 심지어 국가위난을 당하여도 「孝」를 내세워 國土守護를 외면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심지어 명나라를 父母之國으로 생각하고 依賴 事大하는 것을 자랑으로 국민 앞에 군림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심지어 왜적의 침공 4개월전인 1591년(선조 24) 12월 13일에 전국 감사에게 왜적 침공에 대비하기 위한 성지수축을 금지하라는 「各道 害民之禁」을 내릴 정도로 집권당의 무능과 무책임은 정상적인 정신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와 같은 처사는 결국 왜적에게 3천리 강산을 짓밟히고 전국의 남녀가 유린되는 처참한 비극을 초래한 것이니 이를 직시하고,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한을 후손에게 넘겨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 제3장 전국에서 벌어진 왜적과의 싸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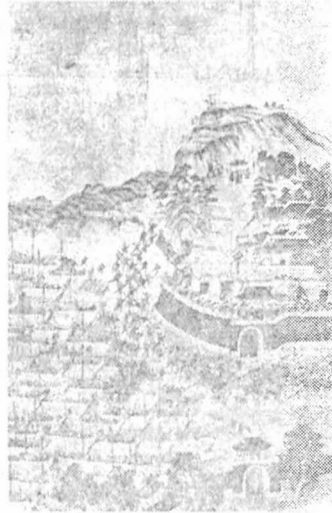
附圖 第 1  
 彼我兩軍狀況要圖  
 宣祖二十五年 [自四月中旬  
 至十二月末]



전국에서 왜적과 싸운 대소전을 들기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어려움이 많아 여기서는 임란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싸움 몇곳만을 소개하여 임란의 전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 1. 부산진 싸움

선조 25년(1592)년 임진 4월 13일 새벽에 小西行長은 18,700여명을 700여척 병선에 태우고 부산 앞바다에 쳐들어왔다. 이때 부산 첨사 鄭撥이 3척의 배를 거느리고 대적하자 왜적이 「길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반대(固守死城)하고 혈전에 혈전을 거듭하였으나 중과부족 鄭撥을 비롯한 부장 李延憲과 같이 전장병이 장렬히 전사함으로써 부산이 왜적에 함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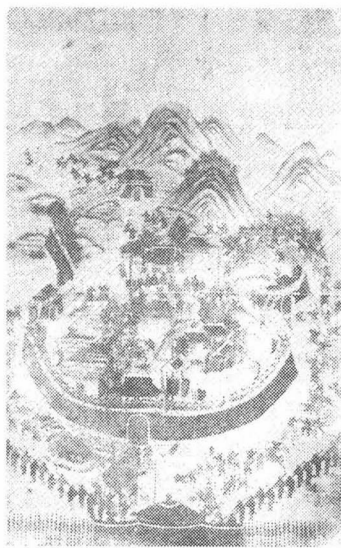


▲ 정발의 부산진 싸움

이때 경상 좌수사 박홍이 좌병사 이각과 같이 경주로 도망치고 우병사 金誠一 「적은 배 400여척에 1만여명을 태우고 침입하였다」고 조정에 장계하였다. 그리고 우수사 원균이 여후(廬候)에게 거제도 우수영을 지키게 하고 자신은 비장 李英南, 李雲龍과 같이 4척의 배를 타고 곤양(사천면 소재)으로 적을 피하여 도망쳤다.

## 2. 동래성 싸움

부산을 함락한 小西行長은 이어서 4월 15일 동래성에 들어 닥쳤다. 이때 동래 부사 宋象鉉이 이와 맞서 싸웠다. 이때 적은 「싸우려면 싸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길을 빌리라<戰則戰矣不戰則假道>하자. 「싸워서 죽는 것은 쉬운 일이나 길을 빌리기는 어렵다」 <戰死易 假道難>라고 조총을 가진 왜적 2만여명과 싸우다가 부사 송상현이 가지고 있던 부채에 「孤城月彙 大鎮不救 君臣義重父子恩輕」와 「외로운 성 겹겹이 에워싸 포위 공격 당하니 대진 구할 길



▲ 송상현의 동래성 싸움

없도다(이웃 고을에선 편히 누워 돌보지 않도다) 군신과의 더욱 무겁고 부모의 은혜 이보다 가볍도다」라고 血詩를 쓰고 왜적의 칼에 맞아 장렬하게 순국 전사함으로 동래성이 함락되었다. 이때 경상 감사 金陞와 같이 경상좌수사 朴泓, 경상좌병사 李珪, 경사우수사 元均은 왜적과 싸우기 전에 도망치니 왜적은 이에 우리 군사의 저항다운 저항하나 받지않고 조수와 같이 북상하였다.

### 3. 패주하는 관군인 수령 방백들

#### 1) 국방의 무방비 상태

조정에서 김수의 패보 장계를 받고 비로서 사태가 심상치 않은 것을 알고 대신과 비변사가 같이 이 사실을 선조에게 아뢰어 이에 조정에

서는 순변사에 李鎰, 경상 좌방사 성용길, 경상우방어사 조경, 죽령 조방사 유극양, 조령 조방장 변기, 경주 부윤 변응성 등을 보내 왜적과 대적하도록 하였다. 이때 李鎰이 거느리고 갈 군사 300여명 가운데 군사훈련을 받지않은 시장건달과 관복을 입고 시권을 들었거나 평정건을 쓴 아전들로서 거느리고 갈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것도 명령받은지 3일만인 4월 20일에 겨우 마련하여 이일이 우선 떠나 보낸 다음에 병장 유옥을 시켜 뒤따라 보내야 하는 허술하기 보다 국방력이 전무한 한심한 상태이었다.

뒤이어 신립을 삼도 순변사로 삼아 전의주 부사 김여물을 옥에서 풀어 종사관으로 삼아서 충주로 보냈다. 그러나 4월 18일 아침에는 적의 2, 3번대가 동시에 부산 앞바다에 들이 닦쳤는데 2번 주력부대인 가등청정이 부산에 상륙하여 양산을 거쳐 언양을 점령하고, 이어 경주 방면으로 진격해 들어왔다. 이어 3번대의 黑田長盛은 13,000여명을 이끌고 김해성에 쳐들어가자 부사 徐禮元이 성을 버리고 도주하였다.

이에 앞서 창원 군수 장의국, 병마우사 이협, 창녕현감 이철용, 현풍군수 유덕신도 도망쳐 행방불명이 되고 경상좌병사 조대신도 대군을 거느렸으나 이도 역시 도망쳐버렸다. 이때 黑田家記에서 전과를 말하기를 「斷殺萬人」이라고 한 것을 볼 때 당시전쟁의 참혹성을 알 수 있다.

## 2) 李鎰의 패배

4월 24일에서 25일에 걸쳐 상주에서 小西行長이 거느린 18,700여명과 李鎰이 현지에서 급히 모집한 800여명의 오합지졸을 가지고 맞서 싸웠으나 조총으로 무장된 왜적을 중과부족으로 당해내지 못하고 패배 도주하였다. 이에 앞서 李鎰이 상주에 도착하기 전에 상주 목사 김선이 달아나고 군관 권길이가 혼자 城을 지키고 있다가 같이 싸웠다. 이때 小西行長이 동래를 칠 때 울산군수 이연신을 잡아서 서신을 보

내기를 조선에서 만약에 강화의 뜻이 있으면 이공(덕형)을 보내어 28일에 충주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 3) 申砮의 패배

4월 26일에서 28일에 걸쳐 충주에서 小西行長이 거느린 18,000여명 왜적과 현지에서 급히 모집한 8,000여명과 싸웠다. 이때 싸우기에 앞서 신립이 종사관 金如叻과 의논하였는데 金如叻이 말하기를 「적은 대병이고 우리 군사는 적어서 정면으로 싸우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조, 령 좁은 길목을 의지하고 싸우면 일당백으로 전략상 유리할 것이다」라고 하자 이에 충주 목사 李宗吉도 이에 따랐으나 신립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우리 군은 전투경험이 없는 급히 모집한 오합지졸이라 달천을 배수진으로 하고 싸워야 도망가지 못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것이다. 또한 우리는 기병이니 넓은 벌판에서 싸워야 보병인 왜병을 이길 수 있다」고 하며 충주 넓은 벌판에서 싸우기로 하고 이곳에서 싸웠으나 논과 습지로서 돌격이 불리할 뿐 아니라 전쟁으로 일생을 보낸 초총으로 무장된 백전노장들인 왜적과 싸우고 또 싸우는 혈전을 버렸으나, 이들의 적수가 안될 뿐만 아니라 중과부족으로 패배하였다.

이에 신립이 金如叻과 같이 충주목사 이종길, 조방장, 변기 등과 함께 탄금대 높은 벼랑에서 단천에 몸을 던져 투진 장렬이 전사 순국하였다. 이때 金如叻이 詩 한수를 남기니,

#### 金如叻의 詩

三道徵兵無一人至 吾輩只張空拳  
男兒死國固其所也 但國恥未雪  
將心成灰 仰天噓無而已



▲ 문경새재 제1관문

삼도에서 병력을 뽑았으나 응하는자 없고  
 우리들은 맨주먹만 휘두를 뿐이다.  
 남아 대장부 나라 위해 죽는 것 바라는 것이지만  
 치욕 못 씻고 장한 뜻만 품고 죽으니  
 하늘 우러러 긴 한숨 쉴 뿐이다.

선조 25년 4월 28일 순국전 탄금대에서

그후 李如松이 조령을 넘으면서

申砬의 背水陣  
 島嶼嵯峨百里長 公明天作護韓邦  
 有險如此而不知守 申摠兵可謂無謀矣

조령 하늘 높이 백리에 우뚝 뻗음은  
 한나라 지키라는 분명한 하늘의 뜻이로다  
 이 험한 가지고도 이를 지키지 못하니  
 신총병 어찌 무모타 말하지 아니리오

선조 26년봄 새재를 넘으며 이어송

이때 李鑑은 상주에서 도망쳐 충주 싸움에 참가하였으나 여기에서 싸우다가 또다시 도망쳐 사람을 시키어 조정에 「패배의 장계」를 올리자 선조께서는 하늘 같이 믿었던 李鑑과 申砬의 패보를 접하자, 이에 대한 선후대책을 강구하기보다 漢城을 버릴 차비에 바빴다.

#### 4) 日本軍의 漢城 進路 決定

이때 북진하던 2번째 가동청정과 충주를 점령한 小西行長이 4월 29

일에 比安방면에서 조령을 넘어서 만났다. 여기에서 小西行長은 여주를 경유하여 동대문쪽으로 진격하고 가증청정은 죽산 용인을 거쳐 남대문쪽으로 쳐들어갈 것에 합의하고 4월 30일에 동시에 출발하였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4월 27일 再造藩邦志 권1 4월 26일)

### 5) 우리나라 조정의 대책

(1) 4월 20일 신립이 떠난 뒤에 병조판서 홍여순을 파직시키고 심충겸을 임명하고 23일에는 선조께서 활 잘쏘는 사람 200여명을 뽑아서 대궐을 지키게 하였다. 이때 우상 유흥과 좌찬성 최광은 자기 가족을 미리 피난시키고 24일 조정에 나와 선조의 피난 길을 천연스럽게 막았다.

(2) 이때 영의정 이산해와 유성룡의 「護國之罪」를 들어 목베어 백성에게 사과할 것을 청하였으나 선조께서 허락하지 않고 종친들이 수도를 버리지 말 것을 상주하고 4월 25일에는 궁궐에 들어와 경비를 강화하였다.

(3) 4월 26일 이조판서 李元翼이 결사대 10여명만 주면은 적장의 목을 베어 오겠다고 왜병의 실태도 모르고 허황된 소리를 하였으니 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어린애 같은 소리를 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 6) 光海君을 王世子로 삼다

4월 28일 인심을 수습하기 위하여 영의정 李山海 좌의정 柳成龍 등과 협의하여 장남 임해군을 제쳐 놓고 光海君을 왕세자로 삼고 백관이 조하(朝賀)를 올렸다. 그러나 교서도 인장



▲ 유성룡의 필적

도 없이 초라하였다. 이와 같은 결정이 후에 많은 말썽을 일으켰다.

#### 4. 선조의 西行 길(선조 25년(1592) 4월 29일)

##### 1) 서행길 결정과 유도대장 임명

4월 29일 종실 하원군 하능군이 사죄한 가운데 대신들이 아뢰기를 상께서 평양으로 가서 명나라에 구원을 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며 좌의정 유성룡을 유도대장으로 삼았다. 그러나 도승지 이항복이 아뢰기를 「명나라에 구원을 요청하려면 그 주선과 응대에 유성룡이 없을 수 없으며 성룡이 유도대장이 된다하여도 성을 지킬 수 없으니 그리 되면 패장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하며 다른 사람을 택해 주기를 주청하여 우의정 이양원을 대신 임명하였다.

##### 2) 초라한 서행길

###### (1) 흐터지는 백관들

4월 29일 선조께서 피난 길에 나서자 백관들이 새떼처럼 흩어져 호종하는 사람이 100여명에 불과하였는데 벽제관을 지날 때 또다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많았다. 임진강변에 당도했을 때에는 30일 날이 저물어 어두운지라 이항복이 강남쪽에 불을 피워 강을 건널 수 있었다. 이때 대각과 문관 가운데 낙오된 자가 또다시 늘어났다.

###### (2) 초라한 수라상

4월 30일 二更(밤9시~11시새)이 되어도 저녁 수라를 못 올리고 있다가 내의원 용운이 상투속에 숨겨두었던 사탕 반덩어리를 강물에 타서 받쳤을 정도로 초라하였다. 다음날인 5월 1일 4更(새벽 2시에서 4시)에야 동파관에 도착하여 파주 목사 허진과 장단목사 구효연이 좁



쌀을 가져와 저녁식사를 올렸는데 사람들이 함부로 먹어 버려 세자이하 모두가 굶었다. 이때 유성룡이 쌀 서대를 얻어와 겨우 아침식사를 했다.

### (3) 유배되었던 尹斗壽의 사면

이때 선조께서는 연안 적소에서 급히 달려온 尹斗壽를 불러 국가위기를 구할 수 있는 대장이라고 하며 사면하고 정포로 차고 있던 청염량을 풀어 주었다.

## 3) 무력 앞에 무너지는 君臣有義

상께서 5월 1일에 가마를 타고 개성으로 가는데 점심때가 되었으나 수라를 드리지 못하고 군부 또한 모이지 않아 병판 김응남이 독촉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장단부사 구효연이 도망쳐 숨어 버리고 경기감사 권징을 불렀으나 드러눕고 나오지 않아 승지 등이 노하여 꾸짖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200년 내려오던 왕조와 사직이 무력 앞에 이토록 무력하였다. 이와 같이 公卿 士大夫인 선비를 사처하던 수령 방백과 임금을 호종하던 속선비들의 추태를 볼 때 君臣有義와 三綱五倫을 생명을 다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변의 危機에 처했을 때 이는 空理空談에 불과할 뿐 참선비를 제외하고는 실제에 있어서 체면유지와 권력을 잡기 위한 허울좋은 名分이요, 허장성세가 현실로 나타난 君臣有義가 무너지는 비극의 한 장면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 4) 北行에 대한 분분한 의견

### (1) 피난 길에 대한 의견 대립

5월 1일 동과관에 도착하자 선조께서 어디로 갈 것이냐고 묻자 이항복이 의주로 가서 8도가 적중에 들어 가기전에 명나라에 구원병을 청하자고 하자, 유성룡, 尹斗壽는 이를 반대하고 함흥이나 경성으로 가

자고 하였다. 선조는 「명나라에 내부하는 것이 나은 듯이다」라고 하였으나 영의정 이산해는 묵묵부답 앉아만 있었다. 개성까지 가는데 또 다시 이졸이 도망쳐 호위하는 사람이 얼마되지 않았다. 순흥부사 남의가 군사 수백명과 말 5~60필을 가지고 왔으며 황해 감사 조인득은 초견리에서 천막을 치고 기다려 판문점에서 점심을 먹은 후 풍덕군수 이수형이 음식을 마련해 주어 비로서 쌀밥을 먹어 굶주림을 면할 정도이었다.

## (2) 영상 李山海 파직

5월 1일 저녁에 개성에 도착하자 눈물을 흘리는 사람과 김공량 부자의 말만 듣고 후궁을 총애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다고 하며 돌을 던지는 자까지 있었다. 이에 선조께서 성중 부로에게 희유하려 하였으나 말이 도망가서 못하였다.

5월 2일에 3원에서 영상 이산해가 김공량과 서로 교통하며 홍여순, 이흥노 등과 같이 국정을 그르쳤다고 하며 왕도를 떠날때에도 중지하라는 말 한마디 안하고 속히 떠나자고 아침하여 이 지경이 되었으니 이산해 등을 벌주어 왕법을 바르게 해달고 하였다. 그러나 선조께서 불허하며 산해만이 아니고 성룡과 최이상이 같이 있었다고 하였다. 성룡이 울면서 산해와 같이 오국지죄를 받고자 한다고 하자, 병조판서 김응남이 대신들도 똑같다고 아뢰어 다음과 같이 인사를 단행하였다.

이산해를 파직하고 유성룡을 영의정으로 하고 우의정 최홍원을 좌의정으로 어영대장 尹斗壽를 우의정으로 삼고 이산해를 강원도에 유배시키고 김공량은 이미 달아났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 이때 파직된 정철을 부르라고 하였다.

## 5) 金命元이 한성 수호 실패

5월 2일에 도원수 김명원이 한강방어에 임했으나 조총을 연달아 쏘아 대는 위력 앞에 김명원과 장병들이 이에 맞서 싸울 생각보다 떨기만 하다가, 싸움 한번 제대로 못하고 군기 자제 일체를 그대로 강물에 쳐놓고 김명원이 변복을 하고서 임진강으로 달아나자 小西行長이 힘안들이고 한강을 건너 한성을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 6) 해우령 승리와 申恪의 억울한 죽음

5월 2일 도원수 김명원이 변복으로 임진강 방면으로 도망치자 부원수 신각이에 따르지 않고 도성에 들어가 유도대장 이양원을 만나 양주산골로 들어가 흐트러진 군을 수습하였다. 이때 함경도 남병사 이혼을 만나서 이와 합동하여 해우령(경기 양주군)에서 식량을 약탈해가지고 한성으로 들어가는 왜병을 급습하여 70여명을 격살하는 육상에서의 첫 승리를 거두었다. 이는 연전연패하던 우리도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큰 교훈을 주어 땅에 떨어진 우리 군의 사기를 북돋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러나 申恪 장군은 도원수 김명원의 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우의정 유흥의 제의에 따라 해우령의 승첩의 장계가 올라 오기전에 대탄(한여울 경원선 한탄강 철교 근처)에서 억울하게 참수되어 효수되었다.

## 7) 性理學의 명분론과 왜병의 節義

그러나 김명원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신각에게만 책임을 물어 극형에 처한 것은 형평에서 어긋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 관군의 수령방백은 백성과 성을 버리고 자기 목숨하나 살기 위하여 연전연패하고 도망쳤는데 이들은 평소에 君臣有義 節介를 至上으로 여기고 위엄을 지키던 대소과, 무과, 출신들인 士大夫와 선비를 자

처하던 백성 위에 군림하여 존경을 받던 인물들로서 신의를 버린 일  
울배반적인 節義를 버린 행위라는 것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이에 비하여 일본의 장병들은 전국시대의 守城將領들로서 성주를  
위하여 목숨을 받치는 것을 영광으로 아는 이들의 절의가 승리로 이  
끈 근원이 된 반면에 우리나라 일부 참선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정  
주학을 이상으로 성리학을 명분으로 내세울 뿐 실천에서 인식한 것이  
패전의 원인으로 보아야 한다. 더욱이 목숨을 받쳐 나라를 지키는 충  
보다 생명의 위협이 따르지 않은 「衆」를 내세워 그곳에서 선비의 명  
분을 찾는 비굴한 명분론이 임란과 호란 그리고 日本에게 國權을 奪  
取당하는 庚戌國恥를 막지 못한 근원이 되었다고 보아 그리 큰 잘못  
은 아닐 것이다.

#### 8) 해전에서의 李舜臣의 연전연승

그러나 전라 좌수사 李舜臣장군은 5월 7일 옥포 해전을 비롯하여 6  
월 8일 함포해전 6월 2일 당포해전 7월 7일 한산도 해전 등 크고 작은  
11개 해전에서 연전연승하여 왜적의 해상 교통을 완전히 차단하여 왜  
군의 진격을 막아 전세를 역전시켰다.

#### 9) 평양감사의 당황하는 모습

##### (1) 초라한 선조의 피난 길

5월 3일 이산해를 귀양보내고 선조는 이날 개경을 떠나 4일에 보산  
역(황해도 평산)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역대 태묘신주(太廟神主)를  
남겨두고 온 것을 안 尹斗壽의 령에 따라 5월 10일에 평양에 피서 왔  
다. 선조 일행은 5월 5일에 황해도 서흥에 왔으나 저녁을 드실 곳이  
없어 초경(저녁 7시부터 9시까지)에 봉산에 도착하였으나 이곳에서  
역시 굶어 가지고 5월 7일에 평양에 들어가 평양 감사 宋言慎이

3,000여기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大駕 맞이하였다.

## (2) 金命元의 임진강 패전

이때 임진강에서 왜적을 막을 것으로 믿었던 金命元이 5월 2일에 또 다시 이곳에서 패했다는 장계가 올라왔다. 이에 감사 宋言愼과 병사 李潤德이 이때서야 얼굴빛이 하얗게 되어 허둥지둥 하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꼴이니 이와 같은 위인들을 임명한 집권자들을 믿던 억조창생이 더욱 불쌍하다.

## (3) 尹斗壽의 평양 사수 주장

### ① 평양 사수논쟁

6월 1일 정철이 大駕를 피시고 의주로 피신하고 평양은 대장하나로 하여금 지키게 하자고 하자 심충겸, 이덕형 등 모두 이에 따랐으나 尹斗壽와 박동호(병조좌랑)는 만일에 상계서 압록강을 건너게 되면 나라 일이 틀어 질 것이라고 하며 반대하였다. 이때 선조께서는 나라 일은 경에게 맡겼으니 왕세자에게 성을 지키게 하고 자신은 평양을 먼저 떠나겠다고 하였다. 尹斗壽가 말하기를 명나라에 청병하였음으로 심희수를 접반사로 하여 의주에 가게하고 이조좌랑 허담을 강원도에 보내 군사를 순무하게 해달라고 상주하자 이를 허락하였다. 그리고 우의정 유홍에게 평양을 지키라고 하자 당황하여 어찌할 줄 모르는 추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6월 2일에 이일이 장계하기를 「신이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행재소에 가서 목숨을 다하여 지키겠다」고 하자 상하가 평양 사수를 결심하였다. 부제학 沈忠謙, 李德馨이 자기 의견과 같다고 하며 과연 진정한 장수라고 칭찬하였으나 尹斗壽는 실성한 사람이니 말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

## ② 선조의 평양 떠남

6월 6일에 우의정 유흥과 좌의정 최광 등에게 명하여 함흥으로 왕후 일행을 모시고 가게하고 卍卍는 김명원을 거느리고 세자와 같이 평양을 지키기로 하였다. 그러나 대가가 떠나가는데 세자가 지킨다고 한 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하자 세자도 大驚을 따라가기로 했다. 6월 8일 왜적이 대동강변에 나타나자, 명나라 요동순안사가 이를 보고 유숙하지도 않고 돌아가버렸다. 이때 명나라의 책망을 걱정하여 예조판서 윤근수를 명나라에 보내고 일본군에서 한음 이덕형을 만나 보기를 원한다고 하기에 6월 9일 대동강 배에서 왜장 평조신과 현소를 만났으나 별 효과 없이 돌아왔다. 이 소식을 들은 승지 윤여경과 노목 등이 병이라고 핑계하고 성에서 떠나가자 사대부 가운데 이를 따라 도망친 사람이 늘었다.

6월 10일 백성들이 도끼와 몽둥이를 들고 나와 평양을 지킬 것을 주장하며 대가의 출발을 막고자 시위하던 중에 한성 관윤 홍여량(전 병조판서)이 말에서 떨어져 상처를 입었으며 더욱 한심한 것은 평양감사 송언신과 병사 이운덕이 싸울 생각보다 겁에 질려 어찌 할 줄을 몰랐다. 이때 상하가 李鑑을 믿을 정도로 국내의 정세를 모르면서 명분을 내세워 사수를 주장하였다. 유성룡, 이원익이 명나라의 구원병을 기다리면서 평양에서 물러나가는 것을 반대하며 비록 父母之國이라도 義가 아니면 가지말아야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선조는 길을 막는 군중 가운데 셋을 목베고 가마를 버리고 말을 타고 가는데 입고 있는 옷이 진흙이 묻고 모두 젖어 있는 초라한 모습이었다. 때는 6월 11일이었다.

## (4) 명나라의 遼東派兵 주장과 신료들의 분분한 의견

### ① 초라한 大駕 길

6월 11일 선조는 영의정 최홍원과 정철 등 노신을 대동하고 평양성

을 떠나고 좌의정 尹斗壽, 도원수 김명원, 순찰사 이원익, 평양감사 송언신, 평안 병사 이운덕 등이 평양을 지키게 하였다. 이때 대사간 이덕형을 청원사로 삼아 홍순언을 같이 명나라에 보내 청변하였다. 6월 12일에 안주 땅에 대가가 도착하였으나 백성들이 모두 도망가서 결석하였고 13일에 영변에 가서도 상하가 역시 결석하는 초라하고 외로운 피난길이었다. 이때 왜적의 일부가 강동에 쳐들어와 이와 대치하고 있었다.

### ② 大駕의 의주행 결정

선조께서 군신을 몰아 놓고 「내가 세자와 같이 간다면 가망이 없을 것 같아 따로 가는 것이 좋겠다」하며 어디로 가는 것이 좋겠느냐고 하자 승지 李石國이 아뢰기를 「상국이 부증지망이라고 하지만 의주로 가서 구원을 청하였다가 일이 불리하면 군신이 다같이 압록강에 빠져 죽어 천하에 대의를 외치는 것이 좋겠다」하자 이항복 이하 모두가 옳다고 하여 의주로 가기로 결정하였다.

이대 선조께서 「일이 급하여 내가 명나라에 내부하겠는데 세자와 같이 가면 나라의 주인이 없어지니 세자는 大廟神主를 받들고 사방에 호소하도록 하라」고 하자 영의정 등이 왕을 호종하여 요동에 가려하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은 신료의 수가 많아 병들지 않은 사람만 大駕를 따르게 하였는데 이때 허준(전 호조판서)에게 따르라고 분부하였드니 말에서 낙상하였다고 핑계를 하며 성에서 나가 버리는 불충하는 자까지 있었다.

### ③ 尹斗壽의 반대와 내부 고집

6월 20일에 평양에서 급히 달려 온 尹斗壽 일행은 왕의 말 고삐를 잡고 「累代百姓을 누구에게 맡기고 필부와 같은 행동을 하시고자 하

느냐」고 말씀드리자 선조께서 안절부절 하며 卍斗壽에게 의주행을 애원하는 것 같았다. 卍斗壽는 「의주로 갈수는 없습니다. 요새 적세가 누그러져 가는데 2~3일만 기다리셔 달라」고 하였으나 상께서는 묵묵무답 요동에 가시려는 결심에 변함이 없는 것 같았다.

16일에 가산에서 결심한 「도요내부」의 뜻을 급하지 않고 駱尙志를 명나라 부원병 修義正을 통하여 요동순무어사 작결에게 통보하여 명나라 조정에게 보고하자 병무상사 石星이 황제에게 알리기를 「조선국왕이 병력이 부족하여 내부를 원하는데 진실이 의심되어 요동진에서 적당한 사람을 보내서 명나라의 뜻을 가르쳐 주어도 본국에서 달아나 명나라에 오면은 나라를 수복할 수 없으니 끝까지 나라를 고수하면은 후방으로부터 원병을 모을 수 있어 왜병이 스스로 패하여 돌아 갈 것이다. 이에 천병을 기다리게 하는 동시에 근왕지절을 호소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만일에 도망쳐 들어오면은 10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그리고 神宗皇帝는 칙령을 내리기를 「~원병을 보낼 것이니 그들로 하여금 진충(盡忠)하여 나라를 지키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6월 24일에 선조께서 요동으로 건너가려 하였으나 대신들이 말하기를 왜적이 쳐들어 와도 下三道가 완전하고 강원도와 함경도가 병화가 없을 뿐 아니라 또한 명나라에서 구원병이 오면은 이를 향도하는 군사가 있어야 합니다. 의주에는 1,000여명 사병이 있어 하루 아침에 소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근 피난민이 몰려들고 있으며 또한 무과를 설치하였으니 무과에 급제한 많은 무인들이 모여들어 성안이 안정되기 시작하였다고 아뢰며 선조께서 요동으로 건너가는 것을 반대하였다. 이로서 선조께서 의주에 머무르고 명나라 요동에 건너가는 것을 중지하고, 국왕을 되시고 국토를 지키게 되었으니 나라를 위하여 多幸한 일이다.



선조의 압록시

國事蒼黃日이요 誰能李郭忠이라  
 去邪在大計이요 恢復仗諸公이라  
 痛哭關山月이요 傷心鴨水風이요  
 朝臣今日後에도 尙可更西東하라

나라는 갈팡질팡 어지러운데  
 뉘라서 나라 건질 충신이 될꼬  
 서울을 떠난 것은 큰 계획이요  
 회복은 그대들께 달려 있나니  
 국경이라 달아래 소리쳐 울고  
 압록강 강바람에 마음 상하네  
 신하들아 오늘이 지난 뒤에도  
 또다시 동인서인 싸우려느냐

喜來常早起幽  
 亭燈相閣帖石  
 何新岩閣林出  
 意山一丘藏曲折  
 緩步吾躋攀  
 僮僕來城市瓶  
 中得白酒 早起  
 遶上雲山石徑斜  
 白雲深處有人家  
 停坐坐聽松林晚  
 霜葉紅於二月花

▲ 선조대왕의 필적

이 詩는 선조께서 의주에 피난했을 때 그의 심중을 읊은 시이다. 이

때 우리나라 조정에서는 일본이 전국(戰國)을 통일한 막강한 병력을 가지고 豊臣秀吉이 一國統一을 하겠다는 야망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선견지명과 해안이 없었다. 「예견된 전란」을 무시하고 병약(兵弱)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부국강병(富國強兵)과 병마지책(兵馬之策)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명나라를 父母之國으로 맹종적 사대주의에 빠져 의뢰심을 가지고 일본의 침입 야욕을 동한시하고 오로지 권력을 유지 독점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東西로 패를 갈라가지고 국익을 외면하고 이전투구(泥田鬪狗)처럼 싸우다가 마침내 나라를 잃은 처량한 처지에 놓인 것을 뼈에 사무치도록 느끼고 그의 처량한 심정을 읊은 우리에게 역사적 교훈과 경고를 주는 詩이다.

## 5. 三道官軍의 마지막 항쟁

왜적이 경상, 충청도를 짓밟고 북침을 계속하고 있을 때 남쪽에서 전라순찰사 李洸이 이를 구원하려 하였으나 이미 서울이 함락된지라 전주로 되돌아와 있는데 충청도, 순찰사 윤국성과 경상도 순찰사 金臍가 이에 합류해오자 호왈 그 세가 10만이라고 호언장담하니 그 길이가 4~50리에 달 하는지라 크게 이를 기대하고 믿었다. 이때 전라도만이 왜적의 점령에서 벗어나고 있었는데 이미 왜적은 개성을 넘어 서고 6월 3일에 선조는 평양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에 북상군은 이날 수원 토산성과 용인의 문수산에 진을 치고서 있는 왜적을 앞잡아 보고 이광이 막하인 광주목사 權樞의 「소적을 버리고 바로 북상하여 대적을 무찔러야 한다」고 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고 선봉장 백광연 등으로 하여금 문수산의 적을 치게하였다. 그러나 도리어 이들의 기습을 받고 일전에 10만을 호언 장담하던 삼도관군은 싸

움다운 싸움한번 제대로 못하고 궤멸 패배당하였다. 이에 관군의 일부는 의병에 합류되어 각지에서 소규모의 저항을 하는데 그치고 이후 관군의 항쟁은 별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 6.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난 의병의 항쟁

### 1) 일반사항

왜적의 평양성 함락으로 국왕과 관군은 사실상 왜적에게 완전히 패배되어 해체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국왕과 조정은 백성으로부터 외면당하여 의지할 곳이라고는 중주국인 명나라 밖에 없어 왕과 조정에서는 필사적으로 명나라에 매달렸다. 지금까지 관군은 왜군의 부산포 기습상륙에서부터 평양성이 함락될 때까지 5차례에 걸쳐 싸웠으나 모두 참패하였다. 이로서 관군은 궤멸되고 국왕과 조정은 백성들로부터 외면 당하였다. 이렇게 왜적의 주력부대가 단시일내에 함경도까지 조선을 석권하자 각지에서의 참된 선비들을 중심으로 병들이 벌떼같이 일어나 왜적과 목숨을 받아 싸워 이들을 격멸시키는 한편 보급로를 차단하는 등 왜적의 복상을 관군을 대신하여 왜적을 격퇴 지지하였다.<서필량 임진왜란 1994. 9. 30. pp.230-231.>

### 2) 전국에서 일어난 의병

경상도 의령에서 4월 20일에 郭再祐가 기병하여 관군의 방해를 받아가며 낙동강 유역인 함안, 창녕, 영산에서 도강해 오는 왜적을 막았으며 5월에는 협천의 전장령 정인홍과 고령의 金沔을 비롯하여 朴愷, 郭, 趙, 朴, 孫, 金 등이 기병하였고 7월에는 三嘉에서 朴恩齊 형제가 900의 의병을 들어 일어났다. 丹城에서 권세춘, 권제,

노힘이 일어났으며 함안에서 유승인, 이정 등 관군의 일부가 함께 김해, 창원에서 왜적을 막았다. 또한 창원에서 郭楫, 成文禧, 성안의, 곽잔, 조열, 오영 등이 기병 곽재우 휘하에 들어가 왜적과 싸웠다. 8월에는 金沔의병과 김해부사 徐禮元의 관군과 협동하여 知禮에서 小川隆景의 군을 막아 싸웠다. 9월에는 예안에서 金垓가 안동에서 기병하는 등 경상도 의병의 활동이 활발하였으며, 이들은 왜군의 전라도 진입을 견제하였다.

충청도, 옥천에서 조현이 1,700여명을 들어 기병하고 홍주에서는 신간수, 장덕개 등이 1,600명 공주 청연사에서 증 영규가 승병 500여명을 들어 합세하여 8월에 청주성을 수복하고 금산에서 小川隆景이 이끄는 왜군과 싸우려다 관군이 이를 방해하여, 조현이 이끈 의병 태반이 해산되고 700의사가 죽기를 맹서하고 같이 금산성에서 최후의 일인까지 싸우다가 조헌부자와 증 영규와 같이 700의사가 장렬히 전사하였다.

경기도에서는 7월에 수원에서 홍언수, 홍수남 부자와 박춘모와 8월에 우성전이 기병하였으며 호남의병 金千鑑과 호응하여 12월에 강화에서 나와 황해도로 들어 갔다. 전라도에서는 5월에 장흥에서 고경명, 박팽노 등이 기병하였으니 고경명은 아들 고종후와 함께 호서, 경기, 해서에 격문을 전하고 7월 9일에 2차로 금산에서 왜적과 싸우다가 고경명과 아들 고전후가 장렬히 전사하였다. 이때 전부사 최경회는 將으로 계속 활동하였으며, 이때 김덕령의 형 김덕홍은 금산에서 전사하였다. 또한 김덕령이 남원에서 활약하였으나 이몽학의 난에 「四日 遲留 觀望成敗」 8자로 「평정하라는 명을 받고 성패를 관망하였다」는 것을 구실로 무고되어 權慄이 보낸 밀사 성윤문에 의하여 억울하게 杖死되

令領長  
宗察鳴閔  
石涯浩言  
育浩培  
上浩培  
于浩培  
并祐  
蒼東閣  
蓬依

▲ 박재우의 필적

었다. 그러나 숙종 7년(1681)에 「의열」이라 시호하고 형 덕홍과 동생 덕진과 같이 사당에 모시어 형제들의 나라를 위한 충성을 기리고 덕령에게는 다시 좌찬성에 忠壯이라고 시호를 내렸다. 「진단학회 한국사 의군과 관군의 항쟁 1976. 3. 5. p.619~p.627 김충장 유사기)

강원도에서는 원호가 향병을 모아 가지고 기병하여 신록사 구미포 김화 등지에서 싸웠으며 황해도에서는 조득인의 공격을 받아 黑田長政이 백천으로 물러 났으며 초도사 이정암이 성민과 같이 연안성을 死守하였다. 평안도에서는 평양 함락후 양덕녹과 조호인이 평양 부운 남북흥의 관군을 도와 싸웠다. 함경도에서는 경성에서 鄭文孚가 이봉수와 같이 기병 義兵大將에 추대되어 경성부사 정건용, 경원부사 오웅태를 차장으로 삼아 왜적을 물리쳐 함관령 1,000리 땅을 회복하였다.

불교계에서는 묘향사의 중 휴정인 서산대사가 선조의 부름을 받고 7월에 기병하였고 그의 제자 유정인 사명대사가 금강산 유점사에서 중 처영은 호남에서 승 영규는 호서에서 일어나 전공을 세웠다. 이와 같이 4월 20일에 광재우가 의령에서 기병한 것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나 왜적과 싸우고 바다에서 李舜臣 장군이 왜적을 격퇴하여 전세를 호전시켰으며 이때 대표적인 의병활동은 광재우와 조헌, 고경명, 鄭文孚로서 특히 鄭文孚의 전과가 가장 컸다<貫井正之 豊臣政權 海外侵略と 朝鮮義兵研究 1996.11.25. p.77>.

## 7. 전국에서의 왜적과의 대표적 싸움

### 1) 權慄의 梨峴 싸움의 승리

우리 나라 관군은 육전에서 申砬의 해주령 승전을 빼고는 연전연패 공성패주하는 가운데 7월 8일 관군으로서는 權慄이 이현에서 비로서

승리하여 그 전공으로 나주목사를 배하였다가 전라도 감찰사겸 순찰사를 제수 받았다.

## 2) 李廷穉의 연안수호

8월 28일에 黑田長政이 연안성을 공격하였으나 배천에서 김덕성과 박음영이 기병하고 연안부에서 송덕남과 조광연 장덕기 등이 역시 이에 호응하였으며 이에 이정암이 기병하여 우준민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부녀자까지 합세하여 黑田長政의 왜적을 격퇴하였다. 이때 왕세자 광해가 전투소식을 듣고 이정암을 황해도 초토사를 삼았다.

## 3) 제1차 錦山싸움

선조 25년(1592) 5월 29일에 고경명이 60세 나이로 의군을 일으켜 조정으로부터 공조참의 지제조겸 초토사를 제수받았다. 그는 7,000여 의병을 가지고 왜장 小早川隆景이 7월 8일에 槧岬에서 權慄에게 패하고 금산으로 도망쳐 온 것을 고경명이 이를 공격하였으나 이를 이겨내지 못하고 고경명이 종사관 박팽노, 안영과 같이 장렬히 전사하였다. 이때 고경명과 차남 전후 부자가 같이 전사하였으며 장남 종후는 「복수군」을 편성하여 적과 싸웠다. 이에 조정에서는 고경명에게 의정부 영의정 차남 전후에게 예조판서를 내렸으며 충렬이라는 사호를 내리고 장자 종후에게는 이조판서를 내리고 유송, 박팽노, 안영과 같이 광주에 사당을 짓고 모셨다<壬辰日錄 三 壬辰八月閔氏·壬辰錄 卷二壬辰七月宣祖中興誌上壬辰七月 亂中雜錄卷七>

義兵將 趙憲의 追悼文

東上豹貅百萬歸 加何無術濟難矣

荊江有約人何在 擊楫秋風獨渡時

동녘땅 용맹한 백만장병이  
 형강 건너며 토적을 기약했는데  
 어떻게 이 위난 구할길 없나  
 가을바람 부는데 그대 지금 어디가고  
 나 홀로 노지어 강을 건는다

이 시는 조현이 형강을 건너 고경명과 같이 적을 치자고 하였으나 조현이 미처 도착하기 전에 순절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홀로 형강을 건너며 그의 충절을 그리며 지은 너무나 처절하고 애절한 시로서 조현 역시 두달여만에 그의 뒤를 따라 2차 금산싸움에서 전사 순국한 우국지심이 넘치는 시이다.

#### 4) 제2차 錦山城 싸움

선조 25년 (1592) 8월 17일 금산성을 지키고 있던 왜군은 梨峴과 熊峙 싸움에서 權慄에게 큰 타격을 받았으나 금산 싸움에서 고경명과 남두 현감 한순의 순절로 관군은 적극적으로 진격하려는 사람이 없었는데 유독 의병장 조현이 7백의사만이 8월 17일부터 금산성을 쳤다. 조현은 이우, 이강, 김경백 등과 같이 1,000여 의병을 거느리고 북상하여 근왕코자 하였으나 충청감사, 윤선각이 이를 시기하여 의병을 모두 관군에 편입시키어 자기의 지휘를 받도록 요구하자 서로 의견이 충돌되었는데 이때 감사는 북상조현군을 막으려는데 뜻이 있고 合力討賊에도 자기의 공을 세우려는 데에만 정신을 썼다. 이에 감사는 의병에 가담하는 사람의 부모처자를 잡아 가두는 동시에 별읍에 공문을 보내어 의병들에게 협력하는 것을 막자 의병이었던 관군이 모두 본대로 돌아가 700 의병만이 조현과 행동을 같이하게 되었다.

이때 조헌이 전라감사겸 순찰사 權慄에게 금산성 공격기일을 8월 17일로 결정할 뜻을 밝혀 양군이 협력하기로 하고 15일 공주에서 유성으로 진출하여 승장 영규가 거느린 승병 수백명과 통합 지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때 별장이 말하기를 조총으로 무장된 「적의 정예부대가 만여명인데 반하여 우리 군은 오합지졸이라 당해낼 수 없으니 기회를 기다리거나 행조의 명에 따라 거취와 진퇴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별장의 말이 옳으나 「군부가 지금 어디계시는지 일각을 헛되어 보내 成敗利鈍만을 따져 눈앞의 원수들의 기고만장한 것을 눈뜨고 볼 수 없으니 主辱에 臣死라 하였으니 나에게 한번 죽음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조헌이 말하자 모두 감동되어 같이 죽기를 맹세하고 이에 따랐다.

승장 영규도 출사기일을 확실히 약속받지 못한채 개별적으로 금산성을 치는 것은 경거가 되지 않겠느냐고 하자, 權慄에게 제기한 기일을 어길 수 없다고 하며 「생사는 재천이요 의에 따라 순할 따름이라」라고 하자 승장 영규도 이에 따랐다. 1,300명의 군이 權慄이 오기를 기다렸으나 끝내 오지 않자 단독으로 금산성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전쟁으로 뼈가 굵은 조총으로 무장된 만여 왜병을 「의기」로만 가지고 당해낼 수 없는 것이다.

力戰奮鬪 必死無退로 싸웠으나 중과부족 결국 조광윤 조완기(조헌의 아들) 임정식, 이려 김절, 변계, 양응춘, 김인남, 정원복, 박봉서, 강인서, 이인현, 박춘년, 박찬, 한기, 박사진, 김선복, 변응길, 신경일, 서응시, 윤여익, 김성원, 박훈 조경남, 고명조, 강경직 등 조헌의 문하생들이 조헌과 같이 의를 위하여 끝까지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 순국하였다.

秋效子猶  
佳馥不  
重菊郁學  
峰之又桃  
媚不李

▲ 조헌의 필적



얼마후 조헌의 문인인 박정양과 김승절이 義體를 모아 무덤을 만들고 칠백의총이라고 하니 그 충절 우러러 되시는 마음 천추만대에 길이 빛나는 그 충절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에게 뼈아픈 경고와 교훈에 준다.

鄭澈이 벗의 죽음을 애도하기를

「吾又汝式學孔顏而慕誼原欲死

於直汝而竟死於節吁嗟乎汝式」

「내 벗 汝式이어 그대는 공자와 안자의 글 배워

德과 義를 사모하여 본시부터 곧게 죽고자 하더니

마침내 충절 위해 죽었도다 아! 슬퍼라 여식이어」

하고 趙憲이하 700의사의 전사 순국을 애도 슬퍼 하였다.

## 5) 제1차 평양싸움

선조 25년(1592) 7월17일

### (1) 명나라 원병

선조 25년(1592) 7월에 명나라 요동 부총병 祖承訓이 우리나라를 돕기 위하여 3,000 군사를 거느리고 비로서 압록강을 건너왔다.

### (2) 평양싸움의 패배

이어 조승훈이 명군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쳤으나 지리에 익숙하지 않는데다가 장마까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군을 앞잡아 그들의 전법을 모르고 호언장담 하다가 왜적에 패하였다. 7월 17일 조승훈이 평양성을 빼고자 단숨에 평양성을 쳐들어 갔으며 김명원 또한 판병과

의병을 합쳐 3,000여명을 이끌고 평양성에 쳐들어 갔다. 그러나 왜적들이 쏘아대는 조총을 막아 내지 못하고 명나라 유격장 兪儒와 載朝 變 천총 洪國忠이 또한 말을 타고 대도를 휘두르다가 왜병이 쏜 조총에 맞아 장렬히 전사하고 천총 馬世應 또한 부상하여 말에서 떨어져 죽었다. 이와 같이 명나라 군사가 대패하자 조승훈이 하루 밤사이에 200리나 달리어 숙천을 지나 안성천에 도착하여 「天時가不利하여 왜적을 모조리 못 죽인 것이 한이 된다. 내 반드시 군사를 증원해 가지고 다시 진격하려고 한다」하며 유성룡 등에 명하여 절대로 동요하지 말도록 하고 부교를 철거하지 말라하고 부탁하고 자신은 청천강을 건너 요동까지 퇴각하였다. 이때 3000여명 군사 가운데 10여명만이 살아서 돌아갔다고 한다.

### (3) 黃允吉의 國書

이에 승리만을 기다리던 행재소에서 실망한 것은 말할 수 없으며 더욱이 조선군이 왜적과 협조하였다고 무고하여 에를 먹었다. 그러나 병조판서 이항복이 전통신사 황윤길이 가지고 있던 국서를 명나라측에게 보이자 오해가 풀리었을 뿐 아니라 크게 감동되었으며 이 말을 들은 石坡이 이 말을 듣고 역시 감동하여 발병 구원하기로 하였다<再造藩邦志 권2>.

### 6) 제1차 晋州싸움 선조 25년(1593) 10월 5일

가동청정이 거느린 2만 병력이 9월 24일에서 27일에 걸쳐 노현과 창원성 그리고 진주성 밖에서 우리 군을 무찌르고 10월 5일 진주성을 포위 공격하였다. 이때 진주 목사 김시민의 3,800여 병력과 곤양군수 이광악과 본주판관 성수경 등 관군과 전만호, 최덕량, 전관, 이참중등과 협력하여 적을 격멸하기로 하였다. 이때 의병장 곽재우, 최경희, 임

계영 등이 호응하여 군사 2,000여명을 거느리고 왔으며, 성중 여자가 남북을 입고 싸우는 등 성민남녀노소가 한덩어리가 되어 비격진천뢰를 쏘고 낫과 도끼를 가지고 싸우고 쇧물을 가지고 성벽 여장에서 부어 대는 등 혈전에 혈전을 벌였다. 이때 또다시 의병장 김준민, 정기룡, 조경순, 조경희, 임계영 등이 각각 2,000의병을 거느리고와 혈전 끝에 적을 격퇴 대승하였다. 이때 왜적은 많은 사상자를 냈을 뿐만 아니라 가등이하 7장만이 목숨을 건졌는데 이를 수길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없어 거짓 보고 하였으니 「명나라 20만군이 지리에 능숙하고 날로 증가하여 적은 우리 군사로써는 대적하기 힘든줄 알면서 시험삼아 진주성을 공격하였다가 빼앗지 못하였다」고 하며 앞으로 명나라를 쳐들어가는 것은 그리 힘든 것이 아니라고 보고 하였다. 이와 같은 거짓에 속아 넘어간 豊臣秀吉이 毛利輝元으로 하여금 2만군사를 이끌고 바다를 건너가려 하였으나 경도와 나고야(各護屋)를 지킬 군사밖에 없어 이를 중단하고 탄식하기를 「내가 불행하게도 소국에 태어나 군사가 부족하도다 장차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하고 한숨지었다고 한다.

김시민이 전상으로 순국하자 그에게 영의정을 추증 상낙 부원군에 추증하고 충무라는 시호를 내리고 충렬사에 배형하였다<학봉집 권 3 선조수정실록 권26 선조 26년 10월 재조변방지 권2>.

#### 7) 명나라의 二次援兵 선조 25년(1592) 10월 5일

예조판서 윤근수가 요동으로 가서 원병을 요청하자 유격장 葛逢夏가 군사 2,000여명을 거느리고 查大受와 같이 압록강을 건너와 선조가 계시는 행재소의 경호를 받아 보게 되었다. 16일에는 명나라 神宗皇帝는 提督同知 李如松을 제독계요보정산동등처군무방해어왜총병관(提督薊遼保定山東等處軍務防海禦倭總兵管)를 제수하였다. 「~소탕을 기할 것입니다. 하루를 빨리 소탕하면은 조선의 걱정거리가 하루

동안 멸망하는 화를 면할 것이요, 하루를 늦추면 하루동안 더 걱정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勅使 薛藩이 아뢰자 황제께서 石星에게 물으니 역시 같다고 하자 經略 宋應南에게 군사를 진격시키라고 명하였다. 명나라는 군사출동에 앞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 이여송의 필적

- ① 왜병수와 그 정형
- ② 왜선의 수와 정박 항구수 및 평양정박수
- ③ 조선이 가지고 있는 군량의 수
- ④ 현재 조선이 가지고 있는 명마의 수 등

#### 8) 沈惟敬의 평양 철수 요청

11월 26일 심유경이 小西行長에게 평양에서 군사를 철수하지 않으면 백만군사로서 쳐부수겠다고 하자 행장이 말하기를 「함경도에는 각각 장관에 있음으로 二王子의 환부에 대하여 말할 수 없으나 평양만은 상국에 양도할 것이며 대동강 이남에 대하여서는 내가 주관할 것이다.」라고하여 서로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다만 전략을 재확인해 가지고 이를 이여송에게 보고 하자. 이여송은 왜적의 3배수를 잡아서 군사를 편성 토벌하기로 하였다.

#### 李如松의 군제와 병력수

左協大將 楊元	11,700명(그 가운데 마병 6,200명)
中協大將 李如栢	12,500명(그 가운데 마병 7,000명)

右協大將 張世爵	11,500명(그 가운데 마병 5,500명)
계	35,700명(그 가운데 마병 8,700명)
그밖에	8,000명
도합	43,700명 이었다.

12월 25일에 이여송이 양원과 이여백, 양세작과 같이 대병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오자, 선조께서 의순관에서 이여송을 만났으며 28일에는 이여송이 의순관에서 출발하였다.(선조실록 권3)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관군이 연전연패 하면서도 명나라에 통보한 병력수를 보면은 관군 241,600명이고 의군수는 39,300명 총 28만 800명으로 아무리 유동적이라고 하지만 관군의 수를 지나치게 과장하고 의군수를 축소한 것은 국가의 위신상이라고 하지만 왜적을 당해 내지 못하고 청병을 하는 처지에서 해도 너무한 것이라고 본다. 이것은 관군이 주도권을 쥐고 견제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본다.

### 9) 第二次 平壤城 싸움

선조 26년(1593) 1월 6일에 명나라 군대가 평양성에 도착하여 공격을 시작하자 왜장 小西行長이 1만 병력을 거느리고 와서 우리나라 군사를 잡아다가 부역을 시키는 한편 조총을 쓸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難攻不落의 자세를 가지고 모든 장병이 명나라 군사를 기다리니 그 위세가 당당하였다. 더욱이 모란봉에 2,000여명의 적이 청백기를 세우고 조총을 쏘면서 명군을 위협하였다. 이에 이여송이 부총병 오유충을 시키어 모란봉의 왜적을 치게 하였는데 우리 나라 승군도 여기에 합세하여 승리로서 많은 전과를 얻었다.

다음날(새벽 3시에서 5시까지)에 3,000여명의 왜적 기습부대가 부

총병 양원과 이여백 오세패의 대장영에 쳐들어왔다. 明軍은 이를 격퇴 하였으나 우리 군의 좌방어사 정희현과 우방어사 김응서 등이 8,000 여 병력을 거느리고 대동문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왜적의 기습을 받아 많은 사상자를 냈다. 7일에서 8일에 걸쳐 공방전이 벌어졌는데 왜장 小西行長이 사수를 주장하면서 끝까지 대항하였다.

이때 명군은 장창궁전 대봉패창 등의 무기를 손에 쥐고 한편으로 호 존포 대장군포 위원포 자모포 연주포 불당기 포벽력포 등을 적진에 쏘아 대는 한편 화전과 장전을 쏘아대니 왜적이 조총으로 도저히 대항할 수 없었으며 이때 명나라 참장 駱尙志, 대장 장세작, 楊元 부총병 오수충, 查大受, 祖承訓 등이 대공격을 강행 적진에 쳐들어가고 우리나라 승장이 지휘하는 승병 2,200여명이 이에 따랐으며 우리나라 순변사 이일과 방어사 김응서가 거느린 8,000여명이 명나라군과 합세 하여 성문을 일제히 쳐들어가자 왜적은 기세에 질려 아무런 반격도 못하고 도망치자 마침내 칠성문 보통문과 외성을 점령하는 것을 비롯해 중성을 쳐들어갔다.

이때 이여송이 친병 200여명을 거느리고 직접 최선두에 서서 독전 하여 주작문과 장경문을 점령하고 을밀대에 쳐들어가 독화전 신화전 등의 불화살을 쏘아대자 小西行長이 굴하지 않고 소총으로 대항하여 많은 희생자를 냈으나 이여송이 그대로 돌격을 감행하는 한편 대장군 포 위원포 벽력포 등을 동시에 집중적으로 쏘아대니 이에 맞아 죽는 왜적의 수가 1만여명이 넘는 격전을 버렸다. 이때 참수가 1,285급이요. 빼앗은 전마가 2,985필로서, 왜적에 잡혔던 우리나라 남녀 1,105 명을 탈환하는 대승리를 거두었다.

적은 1월 8일에 평양성 싸움에서 패하자 봉산, 배천, 개성 등지에서 모두 한성으로 철수하였다. 다만 왜적은 백제관 싸움에서만 승리했을 뿐 감이 임진강 이북을 넘보지 못하고 한성방수에만 급급하였다. 또한

함경도에서는 의병장 鄭文學가 거느린 의군에게 연전연패 많은 타격을 입고 급기야 관북지방에서 철수하였으며 한편 행재소에서는 수도 수복의 소망이 간절하였다.

#### 10) 幸州山城의 大捷

선조 26년(1593) 2월 12일 權慄이 한성을 탈환하고자 행주산성에 진을 쳤다. 선조 26년(1593) 2월 12일 새벽에 守喜多秀家を 총대장으로 한 장령 小早川秀吉, 小早川隆景, 吉川廣家, 黑田長政, 小西行長, 石田三成 등 우리나라를 점령한 장령들이 3만대군을 거느리고 총공세를 취하니 천지를 뒤흔들 듯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했다. 즉 제1대장 小西行長을 필두로 제2대장 石田三成 제3대장 흑전장정 등 역전을 자랑하는 장수들이 조총을 앞세워 인해적으로 총공격을 감행하는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우리 장병들은 이에 맞서 수차석포 진천되 총통 강궁을 쏘아 용전분투 적을 물리쳐 왜적이 괴멸 상태에 빠지게 되자 총대장 守多喜秀家は 22세의 청년 장군으로 제4대장이 되어 총공격을 감행하자 權慄이 직접 앞장서서 총지휘 이에 맞서 싸우자, 마침내 宇多喜秀家는 부상을 입고 퇴각하였는데 石田三成도 이때 부상을 입었다. 이와 같이 전진후퇴 격렬한 적의 대공세를 우리 군은 남녀노소가 한덩어리가 되어 잘 막아냈으며 승장 처영은 1,000여 승병을 거느리고 인해전술로 쳐들어오는 적을 물리쳤으니 적은 이때 제1대에서 6대로 나누어 총공격을 감행했으나 마침내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말도 못타고 도망하기 시작했다.

우리 군은 최후의 전법으로 「재주머니 던지기」를 단행하니 적은 눈도 못뜨고 물리나게 되었다. 이때 우리 군은 수차석포를 연달아 쏘아 돌을 날리고 활을 쏘아대니 적은 총한방 제대로 못쏘고 달아나기에 바빴다. 싸움은 2월 12일 묘시(오전 8시에서 10시사이)에서 유시(오

후6시에서 8시까지) 12시간 동안 적의 공격이 계속되어 權慄이 동으로 만든 솔을 머리에 쓰고 지휘하다가 적의 총탄이 끼치면 이 솔에 물을 담아 군사들에게 먹여 주었다. 더욱 아군에서 화살이 떨어져 투석전으로 맞서 싸울 때 여자는 앞치마에 돌을 날라 장병과 같이 싸웠다. 이때 경기 수사 李巖이 수만개의 화살을 가득 실은 배 2척을 몰고 통진에서 한강을 올라와 적의 후방을 찌를 기세를 보이자 겁에 질린 적은 많은 사상자를 그대로 남겨두고 철수하니 이는 육전에서는 가장 큰 대승으로 우리는 이를 두고 행주대첩이라고 한다.

### 전과

- 가. 적의 머리 130급
- 나. 버리고간 시체 200이상
- 다. 버리고 간 기치와 갑주 다수
- 라. 중요 노획품 727건

이에 나라에서는 權慄에게 자선대부에 도원수를 제수하였다.

## 8. 일본 문헌에 기록된 의병의 활동

日本과의 講和를 알아보기에 앞서 義兵活動에 있어서 嶺南, 湖西를 중심으로 한 研究資料는 많으나 關東西를 중심으로 한 資料가 거의 없어 日本의 史料를 들어 그 실적을 알아본다.

### 1) 의병들의 활동

조선은 관군의 패배에 낙담하지 않고 일본군에 맞서 대결한 세력이



있으니 해상에서는 이순신이 이끈 조선 수군이요, 육상에서는 義兵이 있었다. 의병 활동이 활발하여 수길에도 義兵의 무서움을 알기 시작하여 9월에는 함경도에 재진하고 있는 加藤清正에게 편지를 보내 「毛利輝元과 협력하여 漢城 釜山間의 義兵을 진압할 것」을 命하고 있다. <加藤文書>

선조 25(1592) 8월에 총대장 宇喜多秀家の 후견 黑田孝高(長政의 父) 軍奉行 石田三成, 増田長盛 등과 상담하여 각지에서 싸우고 있는 小早川隆景, 黑田長政, 小西行長, 島津義弘 등의 주된 장령을 漢城에 소집하였다. 일본군은 부산에 상륙한 이후 일제히 수도까지 들어 빼앗았으나 그후 전국이 처음에 시도했던 豊臣秀吉의 의도와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경상도의 毛利진은 의병의 창궐에 고전하고 전라도를 침공하려던 小早川군은 충청도 금산에서 의군의 저항을 받고 평안도의 小西군으로 평양이북의 진격을 중지하고 함경도의 清正과 直茂군은 鄭文孚가 이끈 義兵에게 연전연패하는 등 각도 통치가 침체한 가운데 해상에서는 일본수군이 이순신에게 대패하고 또한 명나라의 대군내원과 동기대책 등 대응할 것이 산적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黑田孝高와 小西간에 열띤 논쟁이 있었다. 小西는 철퇴작전에 반대하여 평양을 지키자하고 黑田은 도성방위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이를 반대하였다. 이것은 장기전화되면서 군량병기의 불안으로 모든 장수는 黑田의 전선 축소를 따랐다(家譜).

## 2) 漢城會議

5월초순의 「八道國割」후 불과 3개월만에 조선통치에 파탄을 가져와 전선을 대폭 축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 漢城會談에 보낸 문서로 최근(1591) 발견된 석전삼성이 수길에게 보낸 편지로서 「전선의 일본군은 식량은 없고 수송로를 막을 병사도 없는 無人상태이다. 점령지는

안정안되고 있다. 진격을 중지하고 점령지를 굳혀 정부에 힘쓰는 것이 좋겠다.」(石川 成 文 書) 이것은 조선통치의 곤란함과 전군은 조선군이 우세하고 일본군이 열세하기 시작한 것으로 다음해 봄에 수길이나 바다를 건너서 명을 치겠다는 것도 후퇴하였다(黑川文書).

이때 加藤鍋島 등은 漢城會議에 不參하고 함경도 통치에 전념하였다. 그러나 9월중순 鄭文孚를 의병장으로 추대하고 함경북도 경성 등지에서 의병이 일어나 동성을 빼앗은 鄭文孚군은 淸正의 연계성인 吉州, 城津, 端川 등을 차례차례 공략하였다. 淸正과 鍋島 군은 한성으로 철퇴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城안의 병사를 죽일 수가 없어서 안변, 함흥성이 묶여 변경의 흑한지에서 탈출못하는 심각한 상태에 쫓겼다(農圃集).

### 3) 鄭文孚가 이끈 의병에게 패배하는 왜적의 참상

淸正은 8월에는 다른 도에 비하여 도내 통치가 진척되어 자부심을 가지고 철수를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재진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10월이 지나서 이번에는 조선 의병의 급속한 성장에 의하여 변경수성에 연계된 성군이 고립되어 철수의 시기를 놓친 淸正軍에게는 그들을 버리고 철수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이 되어 버렸다. 선조 26년(1593) 1월에 淸正 자신이 병을 이끌고 안변에서 直茂의 본영이 있는 함흥까지 출진한 直茂에게 두 왕자를 맡기고 다시 淸正은 直茂의 역지와 고전 가운데 연계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진격하였다. 이때 각성의 수비군사의 피로가 극심하였는데 눈에 타 수족이 상하고 눈은 안보인다고 적고 있다.

1월 28일 간신이 淸正의 본대와 길주성군의 성내외에서 지동으로 조선의병의 포위망을 뚫고 나왔다. 1월말에 한성으로부터 돌아와 재차 철수 명령을 청정에게 전하였다. 동군령은 청정의 조기 철수를 촉

진하며 「청정군의 함경도 패배가 명군에 알려져 명군의 사기가 왕성하여 명나라 군사가 평양의 소서군을 이긴 것이다.」<鍋島直茂譜考伸>라고 하며 질책을 받았다. 선조 26년(1593) 1월에 명나라 이어송에게 소서군이 참패한 것은 2월인 함경도를 고집하고 철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清正書狀>

여기에서 朝鮮義兵은 鄭文孚가 이끈 義兵을 말하는 것이다. 이때 함경도에서 清正直茂군의 철수의 고통은 극에 달하였으니 「2월 11일 함흥부를 떠나 한성으로 가는데 눈은 무릅까지 빠지고 사람은 걸을 수 없고 말을 앞으로 갈 수 없을 뿐 아니라 한양에 가는 새에 金剛山이 있으니 이는 금강산 제일 높은 산으로 산인지 눈인지 그 깊이를 알 수 없고 人馬가 모두 凍殺되어 雪月晦日에 입석하였다.

이와 같이 대륙의 엄동은 예상밖으로 「人馬가 거의 동살」되는 참상 아래 義兵의 기습을 막으면서 함경도에서 철령을 넘어 강원도에서 철수를 계속하였다. 여기에서 金剛山이라고 한 것은 금강산이 아니고 철령을 잘못안 것 같다.<朝鮮日記>

또 이때 일본군이 가지고 있는 식량을 살펴보면은 밥은 대두로서 하고 국물은 대두를 삶아야 했다. <直茂의 군승 是塚> 2월 중순 해주산성에서 조선군에게 뼈아픈 패배를 당하여 일본군대에는 염전기분과 철퇴원망이 충망하여 재경 17장수가 연서하여 수길에게 본영에 참상을 호소하였다. 이때 兵員 조사에 의하면 清正군은 출진할 때 1만명이었던 것이 5,490명이요, 小西行長은 1만 1천명이었던 것이 6천명으로 격감하였으니 1년에 兵員의 소모율이 40%에 가까운 숫자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군정과 전국으로 豊臣政權은 抗戰狂인 清正도 강화교섭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강화교섭은 석전삼성 소서행장의 주도아래 진행되었고 清正등 武將과는 주류에서 빠졌으니 이것은

조선도 같았다. 교섭은 11월에 진행되었는데 특히 사정을 모르는 沈惟敬 등이 암약한 교섭은 조선에게는 不安하고 신뢰할 수도 없었다. 선조 27년(1594) 조선정부에서는 의병승으로서 人匪이 두렵고 강직한 惟政(송운대귀-사명당)이 서생城에 머물면서 淸正에게 보내져 1년간 교섭이 진행되고 4차회담까지 갖게 되었다.<貫井正之 豊臣政權の侵略と朝鮮義兵研究 1996. 11.25. pp.201~204>

### 鄭文孚의 起兵

이럴 즈음인 선조 25년(1592) 9월 15일 함경도 경성에서 의군을 들어 기병하여 의병대장에 추대되었다. 정문부가 이끈 의군은 세필이 지키는 경성을 공략하는 것을 시작으로 북도의 육진을 공략하고 10월 30일에 일본군이 수비하는 길주성을 포위하자, 일본군은 고립상태에서 식량, 연료, 탄환이 떨어져 청정의 안병 본영에 구원을 요청하였다.

이때 성내에 있는 동포를 향하여 봉기한 주모자 세필 등 13명을 참형에 처하자 군세가 크게 일어남과 동시에 대륙의 동장군이 행동을 제한하였다. 11월 21일에 청정이 보낸 서장에 의하면은 길주군의 모든 자 낙담하였다. 그러나 언어도단이라고 하며 시정의 잘못이 의병을 일으키게 되었다. 수시들을 질책하고 있다.<九鬼文書 北島本所收>

이와 같이 관군이 연전연패한데 반하여 의병들이 각지에서 별떼같이 일어나 일본과 싸우자 豊臣秀吉 조차 예상밖의 의병들의 투쟁에 부닥쳐 선조 26년(1593) 3월에 우리나라에 건너오려는 것을 연기 중지하였다. 이에 비해 조선 조정 집권자들은 너무나 과소평가라기 보다 의병들의 투쟁사실을 숨기려는 경향마저 있다. 특히 함경도에 침입한 일본군을 격퇴 평정한 것은 관군이 아니라 鄭文孚가 이끈 義軍이 단독으로 감행하였다는 것을 이상에서 살핀 것과 같이 일본이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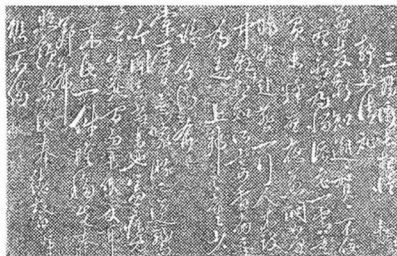
감사인 윤탁연이 鄭文孚의 전승 전공을 시기한 나머지 축소 변조 모

함하여 장계하는 등의 집권자들의 저질적 기본자세가 壬亂을 못막을 뿐 아니라 왜적에게 짓밟혀 전국이 폐허가 되고 그들에 의한 잔인한 행위는 서울 장안 인구의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참혹한 현상을 가져왔다.<貫井正之 豊臣政權の 海外侵略と朝鮮義兵研究 日本侵略軍に對する1996. 11.25. p.70, p.194.>(第四章 第五章 參照)

## 9. 명나라와 日本과의 講和

### 1) 대동강 회담 선조 25년(1592) 6월 9일

일본과의 강화는 부산성 동래성 싸움을 비롯하여 상무성 임진강 싸움에서 小西行長이 “和”를 들어 명나라에 쳐들어 가는데 길을 빌리라고 일방적으로 강요하였다. 그러나 형식을 갖추어 만난 것은 평양 침공전인 선조 25년(1592) 6월 9일 처음



▲ 이덕형의 필적

으로 대동강 배위에서 大司憲 李德馨과 왜측 柳川調信 玄蘇 등과 회담하였으나 “길을 빌라는 것”을 요구하여 거부함으로써 결렬되었다.

### 2) 2차 평양회담 동년 7월 17일

명나라 부총병 조승훈군이 평양싸움에서 패주하자 소서행장과 명나라 심유경과 같이 평양에서 시작하였으나 실패하였다.

### 3) 3차 안변회담 선조 26년(1593) 2월 15일

가등청정과 명나라 원황과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 4) 운산회담

## (1) 1차회담 동년 3월 7일

동년 2월 12일 행주산성 싸움에서 왜적이 대패하여 사기가 저하되고 군량미 부족과 풍신수길의 한양 철수를 기다리는 가운데 명나라 부총병 사대수가 보낸 김지관과 소서행장이 보낸 현소가 회합하였으나 실패하였다.

## (2) 2차회담 동년 3월 15일

명나라 유격장 주홍모, 심유경과 한성에서 소서행장 등을 섬유하여 다음 조건을 들어 요청하였으니

## ① 명나라는 일본에 대하여

- (가) 일본이 빼앗은 조선의 옛 땅을 모두 돌려줄 것
- (나) 잡혀있는 二王子와 배신을 송환할 것
- (다) 豊臣秀吉이 皇帝에게 사과문을 받치면 일본국왕으로 책봉하겠다.

## ② 일본은 명나라에 대하여

- (가) 대명국에서 강화사를 보낼 것
- (나) 명나라 군사를 빨리 요동으로 철수할 것
- (다) 두 왕자를 송환한다
- (라) 일본은 4월 8일에 한성에서 철수한다.

그러나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 (3) 3차 회담 동년 4월 8일

용산에서 소서행장과 심유경이 상기 문제를 다시 협의하였으나 결렬되었다.

## 5) 豊臣秀吉이 4월 12일 서울 철수 명령을 내리면서

- (1) 내(豊臣秀吉)가 조선에 건너가는 것을 보류한다

- (2) 증병보다 식량수용에 힘써라.
- (3) 제군이 협동하여 진주성을 함락하라.
- (4) 해안 요해지에 성을 쌓아 영구계획을 세울 것
- (5) 경상도를 확보할 것

6) 宣祖의 講和反對

- (1) 양주에 있는 康陵(명종릉)과 泰陵(중종계비 문종왕후)를 파헤쳐가다 미수에 그쳤다.
- (2) 선릉(성종릉)과 정릉(중종릉)을 파헤쳐 수의를 가져가고 옥체는 광중에 방치하였다.
- (3) 宗廟를 불살랐다.
- (4) 진주성민 6만명을 도륙했다.

이와 같은 왜적의 포악하고도 잔인한 행위는 조선국에 대한 모독이요 치욕으로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야만적인 만행으로서 조야간에 큰 충격을 주고 국민의 분노를 샀다. 하기야 王京(漢陽)을 싸움다운 싸움 한번 안하고 헌신짝 같이 버리고 간 국왕과 측근인 재신들 역시 한번 죽어도 마땅한 크나큰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진주성에서 김천일이 중심이 되어 성민남녀노소가 함께 싸우다가 도륙되고 심지어 개와 닭까지 죽음을 당하는 참혹하고 잔인한 학살행위를 그저 바라만 본 명나라의 장수 양원을 비롯 여러 장수와 특히 우리나라 김명원 등을 위시한 여러 장령들이 범한 죄악은 왜적보다 더욱 무거운 역사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때 화의여부를 놓고 의견이 있었으나 선조께서 이를 들어 강력히 반대하였으며 죄의정 윤두수와 병조판서 이항복이 이에 따랐다. 이와 같은 우리의 뜻을 명나라에 보냈으나 이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강

화협상을 진행시켜 나갔다. 그러나 선조께서는 왜적을 불구재천의 원수로 여기고 복수심에 불타 올라 그의 심정을 다음과 같은 시로서 나타내고 있다.

一死吾寧忍 求和願不聞  
如何借邪說 敗義或 三軍

한번 죽는 것은 내 차라리 참을 수 있으나  
和議를 구한다는 것 내 듣기조차 원치않노라  
그렇거늘 어찌 求和의 邪說을 부르짖어  
大義를 해치면서 三軍을 眩惑하라! :나

이때 명나라에서는 豊臣秀吉이 降表를 가지고 오면은 강화를 받아들이겠다고 하였으나 강화를 반대하는 측도 있었다. 한편 선조께서는 9월에 사은사로 정철을 삼아 북경에 보냈는데 이때 병부상서 석성의 일행에게 조선 사정을 물어 보고나서 더욱 일본과 강화에 힘쓰게 되어 관백의 표문이 오면은 이를 허락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정철은 선조가 죽을때까지 불신임을 받았다.<선조실록 권46 선조 26년 12월 병진>

## 7) 明日兩國의 강화의 필요성

### (1) 당시의 일본의 실정

- ① 식량부족 : 본국에서의 보급이 어렵고 현지조달의 곤란
- ② 병력부족 : 본국에서의 보충곤란에 비하여 8도분할지역이 넓어 배치 병력의 증가
- ③ 사기저하 : 초전의 왕성하던 사기는 북상함에 따라 강력한 의병의



저항에 부딪히고 또한 극심한 추위에 시달리는 한편 명나라의 대대적 원병파견과 일본의 패배

④ 제해권 상실 : 이순신에 의한 승전으로 제해권 상실로 보급곤란

이상과 같은 실정으로 전쟁수행의 극단적 난관에 봉착하였으나 체면상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내면적으로 강화를 촉구하였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주성이 함락되면 그 성주는 마땅히 할복자결하거나 항복하고 전투는 그것으로 끝난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성이 함락되면 성주가 자결하지도 않고 항복도 하지 않고 도망가고 관군이 무너지면은 이것으로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이 벌떼같이 일어나 義兵이 되어 죽음으로 이에 맞서 최후까지 싸우는지라 승리가 아니라 도리어 이때부터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는 것으로 전투수행에서 극심한 고전에 직면, 내면적으로 철수화의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서필량 임진왜란 그것은 그렇지 않았다. 평양성을 점령한 왜군의 책량 1994. p.30. pp.241~244)

(2) 명나라는 처음부터 내키지 않은 구원병의 파견이기 때문에 명분을 세울 수 있는 강화를 통하여 철수하려고 하였다.

8) 강화의 계속 진행

나고야 회담 (선조 26년(1592) 5월 24일)

선조 26년 4월 18일 왜군이 서울에서 철수하여 加藤清正, 黒田長政, 小西行長, 鍋島直茂 등 주력부대가 상주, 선산, 인동부, 대구부에 주둔하고 나머지는 해안따라 분포하였다.

이때 명나라 참장 사회재, 서일관은 소서행장과 석전삼성등과 같이

일본 “나고야”에 가서 5월 24일에 豊臣秀吉을 만났다. 이때 豊臣秀吉이 명나라에 요청하기를

- |                             |                 |
|-----------------------------|-----------------|
| (1) 大明皇女の 후비책봉              | (5) 왕자와 대신의 인질  |
| (2) 대명과의 우호통상               | (6) 양왕자의 반환     |
| (3) 양국내신의 명서교환              | (7) 조선대신의 맹서 증정 |
| (4) 四道(경기, 충청, 경상, 전라도)의 분할 |                 |

이에 따라 양왕자와 같이 재신이 돌아왔다. 그러나 김귀영이 죽지 않고 돌아와 “和”를 말했다고 선조는 노하여 희천(평북)으로 유배시켰는데 75세에 그곳에 죽었고, 황정홍은 길주에 유배시키고, 황혁과 이영은 국문하고 나중에 이영은 목베어 죽였다. 이와 같은 처사는 측근의 관군 폐장 장수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그대로 측근에 두고 국왕과 재신(宰臣)들 역시 수령 방백의 패배로 궤멸상태에서 의주까지 도피하면서 명분이나 분을 풀기 위한 수단으로 이들을 처단한 것은 옳은 처사라고 할 수 없다.



◀ 나고야쵸오에 도착한 명(明)나라 사신 심유경



▲ 명나라 유격장 팽신고(彭信古)

## 9) 관백의 항서요구 선조 26년(1593) 11월 8일

일본은 명나라에 제시한 7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서신을 요동에 있으면서 들은 심유경이 태천으로 돌아와서 소서행장과 회담을 하였는데 豊臣秀吉의 항표를 가져오지 않으면 봉공을 허락할 수 없다고 통고하였다. 그러나 수길의 항서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한 두사람은 12월 21일에 상의하여 항서를 위작하여 「關白降書」라고 하여 가지고 선조 27년(1594) 1월 20일에 일본사람 12명을 거느리고 요동으로 향하였다.

## 10) 西生浦會談 (선조 27년(1594) 4월 13일)

## (1) 1차회담

도원수 권율이 도독 유정의 요청에 따라 의승 유정(총대첩 사명당)을 서생포에 있는 加藤清正를 만나 화의로서 타이르는 한편 敵情을 살피게 하였다. 이때 清正이 제시한 것은

- ① 大明皇女와의 후비 책봉에 응할 것
- ② 조선 4도를 일본에 할양할 것
- ③ 전과같이 교린할 것
- ④ 왕자 한명을 일본에 보내 영주시킬 것
- ⑤ 조선의 대신 대관을 일본에 볼모로 보낼 것



▲ 권율 장군

이에 대하여 惟政이 조목조목 반박 반대하자 일본은 다시 명나라를 치겠다고 함으로서 결렬되었다.(亂中雜錄 2 갑오 4월)

## (2) 2차회담

7월 6일에 유정이 다시 회담을 요청하여 12일 저녁에 清正과 다시

만났다. 이때 다시 진주공격을 책망하고 만일 공격을 중지하지 않으면 수군 100만으로서 귀로를 막아 한명도 돌려 보내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淸正이 1차 회담때의 5개 조건이 어찌되었는가를 물으며 세 번째 속았다고 하고 하며 3차회담을 하기로 하고 돌아왔다.

### (3) 3차회담

惟政(사명당)이 한성에서 경주에 내려와 淸正과 12월 23일에 울산 성황당 강구에서 만나자고 하자 淸正이 경상우병사 김응서가 소서행장 중의지와 이미 강화하여 부산, 동래 등지에 통보하였는데 이는 惟政이 淸正을 꾀하려는 것이라고 하며 순화군과 사신 2~3명만 보내면 믿을만한 사람으로 하여금 關白에게 데리고 가게 하여 和議가 하루아침에 결정될 것이라는 글을 줌으로써 끝났다.

### (4) 4차회담 (선조 28년(1595) 3월 3일)

명나라의 譚宗仁이 경략 宋應昌의 명을 받고 熊川에 돌아와서 豊臣秀吉의 降表를 요구하자 소서행장은 小西如安과 같이 돌아와서 자기와 같이 의논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淸正이 성품이 고약하고 행실이 흉악 무도할 뿐만 아니라 小西行長과 사이가 나빠 강화를 깨뜨릴 염려가 있어 관권을 보내 淸正을 타일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淸正이 四道를 얻지 않으면 죽는 한이 있어도 本國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 11) 조선 조정에 대한 封貢 요청 강요 (선조 27년 4월 초)

명나라는 일본이 명나라에 封貢해 줄 것을 朝鮮을 통하여 일본에 주청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선조께서 不許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咸渾은 「국세가 위태롭기 · 髮 같으니 조금만 병봉(兵鋒)을 늦추게 한다

음 自強을 도모하면은 좋겠다」 즉 우리나라는 이미 싸울수도 없고 지킬수도 없는데 중국의 講和를 막으려는 것을 失策이라고 명나라의 顧侍郎(顧養謙이 말했으나 선조는 묵묵부답하였다. 豊臣秀吉의 降表를 小西行長이 북경에 가지고 들어가서 허락을 받자는 것이었다.

이에 皇帝는 封貢은 그만두고 封王으로서만 日本을 엮어 매자는 것이었다.

## 12) 咸安會談 (선조 27년(1594) 11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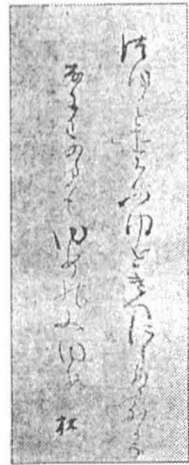
小西行長이 咸安에서 회담하자고 경상 우병사 金應瑞에게 제의하여 시작하였다. 이때 宗義智가 말하기를 우리들은 沈惟敬의 강화조건만을 들고 남하하여 여기(경상도 방면 주둔)에 와 있는데 아무소득없이 서로 대립하고 있어 언제 돌아갈지 기약할 수가 없다. 만일에 명나라에서 勅使를 보내 封爵을 허락하면은 철병하여 돌아갈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명년 1월에 關白 자신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명나라에 쳐들어갈 계책을 꾸밀 것이다. 淸正이 말하기를 명나라 조정과 결혼하고 조선 4도를 割地한 뒤에 돌아간다는 것은 關白의 뜻이 아니고 淸正이 和議를 깨뜨리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였다.

이에 金應瑞와 소서행장이 11월 22일 咸安땅 地谷峴(昌原郡 內西面)에서 만났다. 이때 조선의 조신과 현지 병사는 일본의 철퇴를 바라고 소서행장은 조선에서 封貢에 동의하고 皇帝에 주청해 주기를 바란 것으로 보며 소서행장과 장령들이 唐나라 冠을 쓴 것으로 보아 行長이 강화실현을 위하여 苦心焦思한 것을 엿볼수 있다. 이하 鄭文學가 이끈 義兵에게 敗北한 왜적의 慘狀참조.

## 13) 명나라 병무상서 石星 小西如安을 심문하다.

(선조 27년(1594) 12월13일~19일)

석성이 신종황제의 명을 받아 封貢을 들어 小西如安을 심문하였다. 예를 들면은 晋州 侵攻에 대하여서는 진주성은 원래 조선군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일본으로 돌아간 清正과 吉長(가공인물)의 군사를 죽였기에 서로 죽인 것으로 天兵을 보고 서로 돌아갔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또 天황이 國王인데 信長을 죽여 지금 日本에 國王이 없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關白豊臣秀吉을 日本 國王으로 封하고 처를 비로 삼고 아들(秀頼)를 神童世子로 삼고 養子 秀政을 도독으로 삼아서 關白으로 삼을 것을 들어 신문이었다.



▲ 수길의 필적

#### 14) 態川會談 (선조 27년 12월 30일)

神宗이 小西如安이 요청을 들어주고 小西行長을 선유하여 일본의 모든 장수가 모두 바다를 건너 본국으로 돌아가 封貢이 허락되기를 기다린다고 하였다. 선조 27년(1594) 12월 30일에 豊臣秀吉을 정식으로 日本國王으로 봉하게 되었다. 하여간 이와 같은 경로를 밟아서 마침내 선조 28(1595) 1월 21일에 책봉사를 보내 豊臣秀吉을 봉하여 日本國王으로 삼고 冠服과 金印과 고명을 내린다는 소문을 내렸다. 특히 惟政 四溟大師는 선조 37년(1604) 6월 22일에 孫文或과 같이 日本으로 갔다가 德川家康과 그의 아들 關白秀忠을 伏見城에서 接見하고 兩國의 和平을 매듭짓고 선조 38년



▲ 유정의 필적

(1605) 4월에 포로로 잡혀 갔던 남녀 3,000여명을 끌고 돌아왔다.

## 10. 일본의 패전과 漢陽 철수

왜군이 북침하여 점령지가 확대됨에 따라 그 점령지역을 전부 관찰할만한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각처에서 일어난 의병이 적의 보급로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의병에 의해 왜군이 다수의 피해를 입어 왜적들이 점령지를 다시 복구하는 것과 李舜臣의 해전 승리등으로 수륙양면에 걸쳐 병력의 증원과 물자의 수송을 차단 당하는 어려운 가운데 혹독한 추위에 시달려 小西行長이 지휘하는 제1군은 선조 26년(1593) 1월 6일에 이어송이 이끈 평양성 전투에서 대패하여 퇴각하였고 가등청정이 지휘하는 제2군은 함경도 길주 대전에서 선조 26년(1593) 1월 28일 鄭文孚가 이끄는 의군에게 패하여 퇴군하였으며 흑전장정이 지휘하는 제3군은 연안성에서 대패하여 퇴군하였다.

당시의 왜적의 피해 상황을 보면은 개전 당시 우리나라에 상륙한 왜적의 수는 16만 7,250명이 있었던 것이 53,000명으로 1/3로 줄었다. 즉 제1군 小西行長의 18,700명이 6,600명으로 줄었고 제2군 가등청정은 2만명이 있었던 것이 5,490명이 죽은 것으로 보아 이것은 왜적의 처참한 패전을 말하는 것이다<長崎縣史, 福岡市史>. 이에 한성과 와 있던 石田三成이 豊臣秀吉에게 서울 철수를 요청하여 허락을 받고 선조 26년(1593) 2월 19일에 서울에서 완전히 철수하였다.

## 11. 宣祖의 한성 귀환

### 1) 의주를 떠나 민정시찰

왜군이 선조 26년(1593) 1월 8일에 평양에서 철수하자 동년 1월 18일 선조께서 의주를 떠나 1월 20일에 정주에 머무르다가 3월 7일에 명군이 벽제 싸움에서 패하고 나서 퇴각할 생각만 하고 화의를 원하는 이여송을 만나 速進急擊의 이로움을 들어 앞으로 진격해 줄 것을 청하였다. 3월 13일에 숙천을 떠나 영유를 거쳐 3월 24일에 다시 와서 이여송을 접견하였다. 이때 이여송이 말하기를 왜적이 식량만 허락 해주면은 철군 귀국하겠다는 소식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선조께서는 이에 불응하고 왜적을 치겠다고 하며, 선조께서는 다시 영유로 되돌아와서 숙천, 안주, 가산, 박천을 돌아 민정을 살피고 4월 11일에 영유로 돌아왔다.

### 2) 한성으로 환도

4월 18일에 왜적이 한성에서 철수 하자 이여송이 20일에 한성에 입성하였다. 선조께서는 6월 17일에 영유행재소를 떠나 강서에서 50여 일을 머무르다가 8월 14일에 황주에서 이여송을 접견하고 18일에 해주에 와서 한달동안 계시다가 9월 22일 이곳을 떠나 26일에 연안부를 경유하여 25년(1592) 4월 29일 한성을 떠난지 1년 5개월만인 26년(1593) 10월 1일에 한성에 다시 돌아왔다.

### 3) 당시 한성의 모습

왜적은 4월 8일 서울을 철수할 때 항복한 백성을 모조리 참수하거나 효살하여 축골(살이 없어진 두골)이 동문밖에 岳陵같이 쌓이고, 또한 종로 승례문(남대문) 밖에도 산같이 쌓여 사람과 말씩은 냄새가 진동하여 코를 막고 다녀야 했다고 한다. 그리고 여자를 욕보이려 하자 항거하다가 죽음을 당했거나 목메어 죽고 물에 빠져죽고 칼로 자진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또 경복궁 근정전 강녕전등 궁궐등 8개 부



속건물과 성군관 거문사 등 장안 모든 건물이 타고 주출돌만 남고 심지어 선릉(성종능), 정릉(중종능)이 도굴되고 많은 문화재가 소실되거나 약탈되었다. 또 초근목피도 모자라서 사람이 사람을 서로 잡아 먹었으니(인상살식) 즉 기근이 심하여 사람의 고기를 먹기에 이르렀는데 이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였으며 길바닥에 굶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베어 먹는 것을 기이하게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사람을 도살하여 통채로 씹어 먹어 성밖에 백골만 쌓이는 참아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비극이 벌어졌는데 이는 선조 27년(1594) 5월에 더욱 심하였다. 이에 이를 막으려 하였으나 이덕형이 이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때 살아 남은 사람은 100명 가운데 1~2명에 불과하였다.<선조실록 권 28 선조 27년 1월, 선조실록 권 49 선조 27년 3월, 선조실록 권 39 선조 26년 6월>

## 12. 제2차 晋州城 싸움 선조 26년 (1593) 6월 19일

### 1) 일반사항

여기에서 진주성 싸움을 자세히 살펴 보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은 진주성 싸움은 임란의 총결산을 장식하는 싸움으로서 의군과 성민남녀가 한덩어리가 된 혈전으로 이때 관군의 주력부대와 명군의 속수방관 한가운데 의병이 주가 되어 고군분투 하였으니, 이것은 임란의 축소판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즉 진주성 싸움을 제대로 살펴야만 임란에서의 관군과 의군의 역할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豊臣秀吉의 진주성 공격 명령과 倡義使 金千鎰의 守城 力說

5월 20일에 豊臣秀吉이 진주성에 대한 공격을 명령하면서 「진주성

을 공격하는 것은 1차 진주싸움에서 패배한 원한을 풀고자 쳐들어 가는 것이니 성민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모두 도륙하라. 그 다음에 전라도와 경상도를 점령하라」고 광기 어린 가혹한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창의사 金千鑑이 말하기를 「적의 계획이 진주성만 공격하려는 것인지 아닌지 이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진주는 호남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만일에 진주성을 지키지 못하면은 왜적은 호남까지 쳐들어 올 것이다」라고 하며 「우리는 힘을 합하여 진주성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 3) 왜적과 관군과 의군의 대결

5월 20일에 수길이가 진주성의 공격 명령을 내리자 가등청정 小西行長, 守喜多秀家, 小早川隆景, 吉川廣家, 毛利秀元 등이 이끈 총병력 12만 600여명이 6월 15일 함안을 점령하고 이어 낙동장을 건너 의령을 점령했을 때 우리 관군과 의군의 일부가 함안 부근에 유진하고 있었다. 한편 창의사 金千鑑, 경상우병사 최경희, 거제 현감 김준민, 충청병사 황진 해미 현감 정명세, 사천현감 장운 등과 복수의병장 고종후, 복수의병부장 오우 의병장 이계련, 민여운, 강희보 적개의병장 이찬, 강희열, 연광의병장 심우신, 우의병 부장 고신래, 해남의병장 임희진과 진주 판관 성수경(경) 공조좌랑 양산수, 남포현령 송계화, 김해부사 이종인, 진주부사 서예원 등으로 관군 장령 9명과 의군장령 10명이 이끈 3,200명이 대결하였다.

### 4) 명나라의 호언장담

이때 명나라 총수인 부총병이 왜적의 진주성을 공격한다고 하자 가등청정에게 말하기를 「조선 8도 가운데 이미 7도를 파하여 전화가 참혹하기 이룰데 없거늘 무슨 원수가 되어 거미같은 진주성을 치려 하느냐. ... 만일에 다시 병을 일으킨다면은 우리는 백만대병으로서 양도

를 끊어 결전을 기다리지 않고 굽어 죽게할 것이다」 또 「명나라에서 보낸 백만병력이 압록강변에 머물러 있고 대장 이모가 이끈 만명 병력이 한양에 있으며, 각총병모는 20만 대군을 거느리고 요동에 유진하고 있으며 평양, 개성등지에 분산한 병력이 10만에 달한다」고 명나라 유격장 심유경을 통하여 小西行長에게 진주성의 공격을 중지하라고 이와 같이 통고하였다. 또 심유경이 한성에 오자 도원수 김명원과 경상도 순찰사 권효순은 심유경에게 「진주성을 구해 달라」고 하자, 말하기를 적은 작년에 진주에서 패한것에 원한을 품고 재침하였으니 다른 방법이 없으니 제장들은 「조선군은 싸우지 말고 진주성을 비우고 피하라」는 행장의 말대로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큰 소리만 치고 왜병 공격을 외면했다. 이것은 명일간의 강화를 조선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강화를 반대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해 달라는 명나라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설이있다.

#### 5) 우리 관군의 태도

한편 왜적이 한성을 철수하자 도원수 김명원과 순변사 이빈은 전국의 장수를 이끌고 적을 추격하여 남원과 선산부에 진을 치고 있었다가 6월 6일 감사 權慄과 김명원이 도원수 직을 교대하였다. 이때 이빈은 전라병사 선거이와 충청 병사 황진 전라방어사 이복남 등과 같이 각기 군사를 이끌고 의령에 왔으며 도원수 權慄은 신병을 거느리고 창영과 의령현에 주둔하였다. 그러나 6월 16일에 왜군이 함안에 이르자 도원수 權慄과 순변사 이빈 그리고 방어사 선거이 등이 함안에서 일시에 철수하자 왜적들이 함안을 무혈 점령하고 마음대로 약탈 분탕질을 하였다. 이렇게 되자 이빈이 말하기를 「왜적이 반드시 진주성을 함락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고군으로 성을 지키기 힘들터이니 의병을 보내야 할 것이다」라고 하자 權慄은 말하기를 「술자는 능히 용병하

고 지자는 선이 대적하는 것이다. 「적병이 강성하여 당할 수 없는 세에 있으니 심상고성을 어찌 지킬 것이요 모든 군이 성안으로 들어간다면은 내외의 구원을 잃을 것이니 재우 나는 밖에서 응원할 것이며, 성안으로는 안들어가겠소」하자 경상우 감사 김공이 노하여 말하기를 「장군이 대장의 명을 듣지 않으니 군율을 어떻게 하리오」하자 재우가 대답하기를 「내 일신의 사생은 아낄바 아니나 백전군졸이야 버릴 수 있겠소」 하자 이빈이 괘재우로 하여금 정안진을 지키게 하였다. 이와 같이 관군은 일선에서 싸우지 않고 의군에게 명하고 멀리 도망가서 바라만 본 것이 당시의 실상이었다. 사실 명군은 지금까지 대장 이여송을 비롯한 군을 통수하는 장령들이 직접 일선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기에 승리를 기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 관군은 일부 장령을 빼고는 수령방백들이 싸우지 않고 자기가 먼저 도주했기에 임란을 막지 못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 6) 權慄, 괘재우와 明將의 철수

김천일과 최경희가 도절제사가 되고 황진 이수성장이 되어 이 성에 들어온 일부 의병장등 모든 군사를 배치 대기시켰다. 6월 18일 왜적이 함안에서 정읍진으로 쳐들어 오자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괘재우군과 도원수 權慄과 순변사 이빈, 방어사 이복남군은 진주성을 내버려 둔채 퇴각하였다. 이여송이 백장 여상지와 유격장 송대빈에게 진주를 구원하라고 하였으나, 왜적의 기세가 큰 지라 명을 듣지 않았다. 한편 權慄은 산음으로 후퇴하였다가 함안이 왜적에게 점령되자 또다시 남원부로 후퇴하여 이곳에서 정식으로 도원수를 제수받고 다시 영남으로 향하였는데 순변사 이빈은 병사 선거이를 거느리고 함안에서 만나 멀리 운봉현으로 가서 주둔하였다. 이때 명나라 부총병 사대수도 군사를 거느리고 한성에서 남원으로 내려와 여상지, 송대빈, 서장이 진주

에 부임한 것을 책망하고 구례까지 와서 주둔하였는데 왜적은 9만~12만의 병력을 가지고 사마귀만한 적은 성 진주에 물밀 듯이 들어 닥치자 명나라군과 우리나라 관군 그리고 일부 의병이 대적할 생각보다 비겁하게 진주성을 버려둔채 山陰 쪽으로 피하기만 한 것이다.

## 7) 晋州城의 결사 항전

### (1) 관군과 명군의 애매한 태도

적과의 싸움은 6월 19일부터 6월 29일까지 무려 11일간에 걸쳐 쌍방의 죽음을 가져오는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다. 6월 19일에는 적군이 의령에서 진주성을 향하여 진격해 오자 우리 군은 곤양현과 사천현 쪽에서 적을 막았다. 이에 앞서 전라좌병사 宣居怡와 경기 조방장 홍수남이 군사를 거느리고 성안에 들어 왔다가 「적의 군세가 우리 군에 비해 너무나 격심하여 성을 피하였다가 기회를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김천일이 듣지 않고 노하여 성을 버릴 수 없다고 하였더니 이들은 군을 이끌고 함양으로 가서 도원수 權慄을 만나 운봉에 진을 친 것이다. 그리고 이때 상주에 주둔하고 있던 명나라 부총병 王必迪와 상주목사 정조룡이 진주성을 찾아와 남쪽은 큰강이고 북쪽은 능이 있어 하늘이 주신 침요한 성이라고 하며 총병 유진이 진주성을 응원하기 위하여 대구부에서 군사를 출동시켜 그 선견부대가 함양에 도착하여 우리들에게 먼저 와서 전하라고 했다면서 김천일과 같이 작전토의를 하였다.

### (2) 왜군과의 치열한 격전

6월 21일까지는 이렇다할 싸움이 없었으나 6월 22일 전투에서 적의 1차 공격이 있었는데 황진, 이종인, 장윤, 김준민, 오유이찬, 강희보, 강희열 등 여러 장수들이 적이 쏘아대는 조총에 맞서 철환과 불화살을 쏘

아 막아 내는 격전을 버렸다. 23일에는 김천일이 성루에 올라 전군을 지휘하여 싸우는데 곡성 의병장 최강과 이원이 진주성을 구원하러 왔다가 전세가 강하여 손을 대지 못하고 적진에 뛰어들어 약탈을 일삼는 적병을 물리치고 피난민 300여명을 구해내기도 하였다.

성안에서는 주간에 3전 3퇴 밤에 4전 4퇴의 격전의 격전을 벌여 전사자가 속출하였으나 원병이라고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는 고군분투를 하였다. 이때 명장 이여송의 참장 탁상지와 유격장 송대빈에게 응원하라고 명한 것도 이때 이었으나 적의 군세에 눌리어 듣지 않았으며 우리 관군과 일부의 병 역시 일신의 안위를 위하여 「戣」를 외면한 채 바라만 보고 있었다. 이것이 실제 임난에서 관군의 일반적인 태도이었다.

27일에는 적이 5,000~6,000여명을 일시에 동원하여 더욱 공세가 치열하였고 이들은 「龜甲車」를 만들어 그 안에 병사가 들어가 구갑차를 움직여 돌진해 오는 혈전을 벌였다. 이때 진주목사 서예원이 도망치려는 것을 김해 부사 이종인이 대노하여 배려하다 그만두고 김천일이 최경희와 상의하여 사천 현감 장운으로 하여금 임시 대신하게 하였다. 성주라는 자가 이와 같으니 기강이 설 수 없었다.

적과의 치열한 공방전이 25일, 26일 계속 되었으며 이때 성을 넘어 오는 적을 남녀노소와 병사가 한덩어리가 되어 병사와 삼전삼퇴 적을 물리쳤으며 거제 현령 김준민이 이때 전사하였다. 27일에는 더욱 치열하여 적이 쏜 수천발의 조총에 맞아 한꺼번에 300여명이나 전사하는 혈전이였다. 이어 적은 구갑차로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들어 닥치자 황진과 이종인이 강궁을 쏘며 숲에 불을 붙여 던져 이를 물리쳤으나 강희보가 전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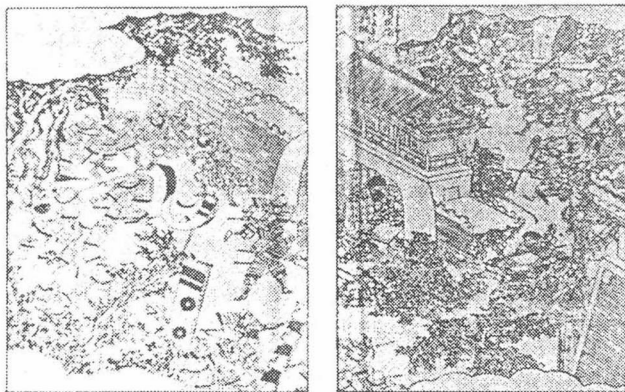
이때 적장 羽柴備前과 豊臣秀吉(守備多秀家)의 명의로 「만병이 입성하여 일시에 도륙하는 것은 참혹한 일이니 장수 한사람만 보낸다면은 나머지 백성은 성안에서 편히 살 수 있을 것이다. 강화하려면 전립

을 벗어 표를 하라」라고 하자 답서를 보내기를 「나는 본시부터 싸워서 죽으려 하며 명나라 군사 30만이 추격하여 너희들을 모조리 죽여 버리고 말 것이다」라고 하며 성중 장병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최후까지 싸울 것을 맹세하였다.

10일째인 28일에 서예원이 서문을 지켰으나 27일에 왜적이 숨어 들어 온 것을 알지 못하여 밀어닥친 적병과 이종인, 황진이 싸우다가 황진이 성위에서 누적된 적의 1,000여 시체를 내려다 보며 우리의 대승이라고 할 수 있게구나라고 하고 있을 때 적의 시체 속에 숨어 있던 적병이 쏜 조총에 맞아 아깝게도 전사하였다. 29일에 황진의 전사로 서예원을 대신 수성장을 삼았는데 그는 겁이나서 전립을 벗고 말을 타고 성문을 달려가다가 우병사 최경회가 이 모양을 보고 베려하다가 참고 사천 현감 장운으로서 정식 목사를 교대하였는데 장운이 순찰 도중에 적탄에 맞아 전사하였다.

### (3) 김천일을 비롯한 전장병이 장렬한 최후

이때 加藤清正과 黒田長政 등이 쇠가죽을 여러겹 덮어 씌워 불타는



▲ 진주성 싸움(일본 중군화가 그림)

것을 막게 하는 구갑차를 만들어 왜병들은 이것을 이용하여 우리 군사가 저항하는 것을 무릅쓰고 성벽을 넘어 오자 이를 뒤따라 卍利秀吉, 小早川隆景이 이끈 적들이 물밀 듯이 성안으로 쳐들어 오자 김해부사, 이종인을 비롯한 전장병이 최후로 죽음을 각오하고 단병전으로 싸우니 적의 시체가 길을 덮었다. 그러나 왜적이 벌떼같이 밀려드는지라 서예원이 먼저 도망치자 많은 병사가 이에 따랐으며 이에 왜병들이 조수와 같이 성안으로 밀어닥쳐 전장병과 남녀노소 성민들이 이에 죽음으로 맞서 싸우고 또 싸우는 혈전을 버려 화살이 다하고 칼날이 떨어지자 장수들은 피묻은 전복을 입은채 상건(천일의 아들)과 양산수는 김천일을 모시고 문홍헌은 우병사 최경회를 오비, 김린은 고경명을 복수의병장 고종후(고경명의 아들)을 모시고 최후의 일전을 버렸으나 중과부족 왜병을 당해내지 못하고 마침내 이들 장병들은 천추에 한을 남기고 남강에 뛰어들어 장렬히 순국 전사 최후를 마쳤다.

또한 김해부사 이종인, 의병장 강희열, 복수의병부장 吳衍, 적개의병부장 李濼 등 10여 장령들도 끝까지 왜적과 지상에서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 순국하였다. 이때 이종인은 격투 끝에 적병들을 양팔에 끼안고 「김해부사 여기서 죽노라」 크게 외치고 남강 푸른 물에 뛰어들어 장렬히 전사 순국하였다.

#### (4) 진주성민 6만이 왜적에게 도륙되다

왜적들은 진주성에 들어 닥치자 수길의 명에 따라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죽였으니 그 수가 6만이 넘었다고 한다. 심지어 닭, 개, 돼지까지 모조리 죽이는 등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참혹한 대학살을 감행하였다. 이때 도망쳤던 서예원은 宇喜多의 가신 岡木權之丞에게 잡히어 죽었으며 그 머리는 경상 우병사 최경회의 머리와 같이 수길에게 보내져 京都에서 효수되는 참화를 입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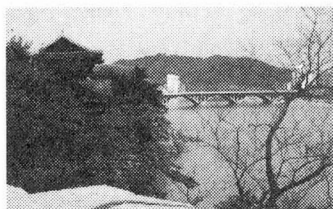
## (5) 진주성 함락당한 후의 관군의 태도

진주성을 점령한 왜군의 일부가 고부까지 쳐들어 오자 군수 왕경조와 전판관 노종령이 도망치고 명나라 참장 낙상지와 유격장 송대빈은 구례에 유진하였다가 남원으로 도망쳐 구례가 적의 손에 들어갔다. 7월 7일에 왜적이 남원부로 향하자 순변사 이빈과 경기 방어사 홍수남이 역시 철수하였으며 전 도원수 김명원과 도원수 權慄이 불과 60리 밖에 떨어지지 않은 의령에 유진하고 있으면서 적의 기세에 겁이 나서 진주에서 고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얼신도 하지 않고 보고만 있다가 호남으로 후퇴해 버렸다.

이와 같이 우리 관군과 명나라 군사가 바라만 보고 있는 가운데 외로운 항쟁 11일만에 전장병과 6만 남녀노소 성민이 한덩어리가 되어 끝까지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 순국 6만 시민이 도륙당하는 참혹한 최후를 마쳤다. 진주싸움이야말로 임난 전반부의 총결산으로 전쟁에는 비록 졌으나 정신적으로는 왜적을 이긴 민족의 자존심을 세운 위대한 전투이었다. 이때 순확한 장병을 살펴보면은

## (6) 남강에 투신 순국전사한 장령

倡義使	金千鑑	좌찬성겸 판의금부사증직
右兵使	崔慶會	이조판서겸 대제학증직
복수의병장	高從厚	高敬命의 아들
복수의병	金象乾	金千鑑의 아들
전공조좌랑	梁山壽	
의 병	文弘獻	
의 병	吳 批	
의 병	金 獐	
우의병부장	高敬文	



▲ 진주에 있는 흑석루와 남강

김해부사 李宗仁 호조참판겸 의금부 부사증직  
계 10명

(7) 육지에서 전사 승국한 장령

충청병사 黃進 우찬성겸 판의금부사증직  
사천현감 張潤 형조참판겸 동지의금부사증직  
거제현령 金俊民 형조판서겸 지의금부사증직  
평의의병부장 姜希輔  
의병장 姜希悅  
의병장 吳宥  
적개의병부장 李潛  
진주부사 徐禮元 도주하나 도피중 포로가 되어 피살됨

계 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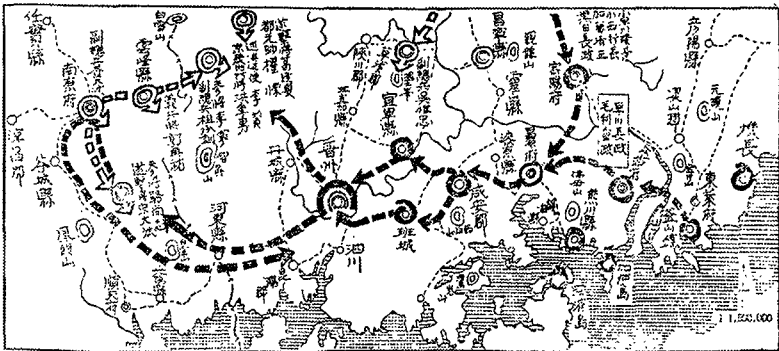
총 18명 가운데 관군 장령 7명이고 의군장령 11명

※ 崔慶會의 小室인 論介는 妓生을 가장하고 왜장 毛利村之助를 꾀안고 남강에 투신 자살하였다<懲愆錄>

8) 총평

이상과 같이 명군이 계속 방관하고 金命元, 權慄등 관군 주력군 역시 시종 일관 바라만 보고 있는 가운데 倡義使, 金千鎰을 위시한 전장령을 비롯한 전장병과 남녀노소 6만 성민이 최후의 1인까지 싸우다 玉같이 부서진 나라를 위한 忠節은 壬亂의 마지막을 장식한 자랑스러운 靑史에 빛나는 민족의 영원한 金子塔이요, 大光輝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로서 선조 25년(1592) 임진 4월 13일에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던 왜적은 후퇴하여 선조 30년(1597) 1월에 재침한 정유재란이 일어나기까지 전쟁은 중단되었다. 진주성 싸움은 의병이 중심이 되어 싸운 임난의 축소판이라고 하여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이상과 같이 6월 29일 진주성싸움이 끝날때까지 壬亂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것은 앞서도 말한 것과 같이 의병장 鄭文孚의 六鎮 咸關嶺 千里에 侵入한 倭敵을 擊退한 것을 理解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기 위해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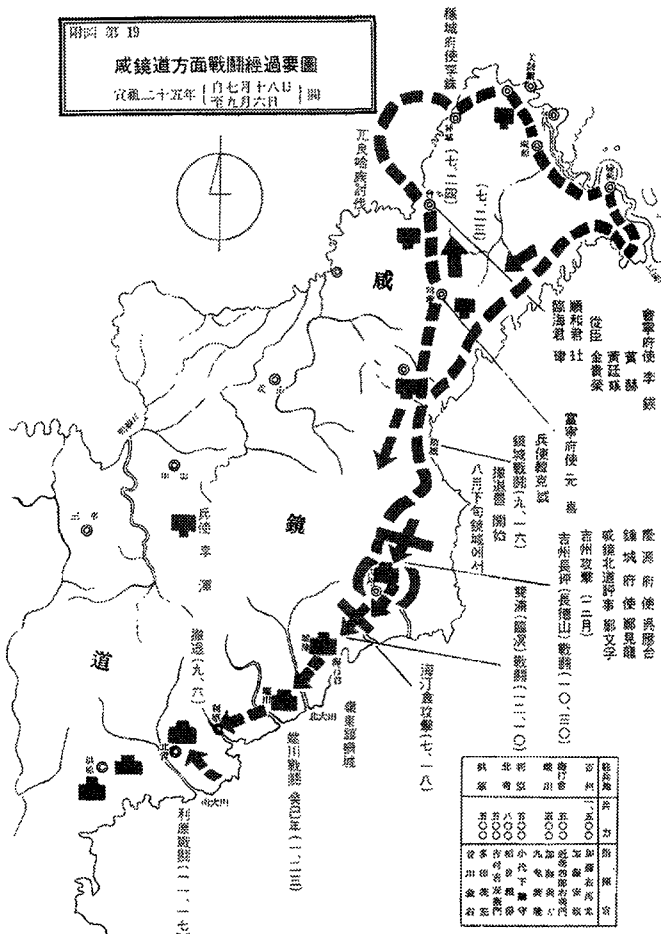


▲ 진주성 싸움 사항도

여

백

# 제4장 의병장 鄭文學 장군의 왜적격퇴와 六鎮咸關嶺 천리땅 회복



## 1. 왜적의 함흥 침입

### 1) 加藤清正의 함흥 침입

前章에서 巨亂이 일어나기 전후를 비롯하여 선조25년(1592) 4월 13일 왜적의 부산성 침입에서부터 선조 26년(1593) 6월 28일에 끝난 진주성 싸움까지를 살펴보았다. 이제 부터는 義兵將 鄭文孚 將軍이 義兵을 거느리고 官軍의 도움없이 倭敵을 擊退하여 六鎭咸關嶺 千里 땅을 回復한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조 25년(1592) 5월 27일에 임진강을 건너 개성을 함락한 왜적은 6월 1일 개성을 출발하여 황해도 안성에 이르러 제비를 뽑아 小西行長은 18,000여명을 이끌고 평양으로 향하고 加藤清正은 22,000여명의 대병력을 거느리고 금교(황해도)에서 1, 3번대와 갈리어 牛峰(황해도 금천군 소재)을 지나 보산(황해도 평산), 물개(평산군 안성면), 곡산(황해도 곡산군)을 지나 강원도 伊川으로 진입하고, 이어 老里嶺(함경도 덕풍)을 넘었다. 이에 함경감사 柳永立이 강원도에 침입한 왜적이 鐵嶺을 넘으려 하자 해우령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와 있던 남병사 李渾에게 정병 1,000여명을 주어 왜적을 칠 것을 명령하였다.

### 2) 鐵嶺싸움의 패배와 왜군의 함흥무혈입성

이에 李渾은 회안방면의 적(毛利吉成)만 생각하고 곡산방면에서 내려오는 加藤清正의 군대를 생각하지 못하고 鐵嶺의 정상에 진을 치고 적이 쳐들어 오기를 기다렸다. 이때 鐵嶺의 남쪽 산기슭의 적은 척후병만을 내어보냈을 뿐이고 毛利軍 4,000여명이 좁은 산길을 일렬종대로 쳐들어 오는데 깃발이 산에 가득하고 라각(뽕과리, 소라 등 악기)소리와 고함소리가 산 정상까지 뒤흔드느니라 철령을 지키던 군사들은 수만대군이 쳐들어 오는 것으로 잘못 알고 싸우기도 전에 사기가 떨어져 있는데 또다

시 加藤清正의 대군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리자 왜적이 접근도 하기 전에 군사들이 도망치자 남병사 李渾도 어찌하지 못하고 후퇴하자 毛利軍은 피한방울 흘리지 않고 鐵嶺을 넘었다.

이 소식을 들은 威鏡道 안의 여러 군읍수령방백들이 모두 성을 버리고 도망쳐 버리자 이에 따라 일반 백성들도 모두 산속으로 숨어 버렸다. 이에 加藤清正是 毛利軍과 서로 연락을 취하면서 6월 17일에 안변부에 무혈입성하고 후속부대인 鍋島直茂이 18일에 뒤따라 진주하였으니 이와 같이 鐵嶺이 맥없이 무너지고 老里嶺 方面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곧 파란을 일으켜 민심이 떠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왜군은 威興을 무혈 점령하고, 이어 7월 15일에는 북천, 이원, 단천, 성진, 길주를 역시 무혈 점령하니, 이로서 동북(東北) 일대가 고스란히 왜적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에 영중추부사 金貴榮은 패장인 李渾을 파직하고 후임에 李瑛을 임명해가지고 일행과 같이 북진하였다. 이때 감사 柳永立과 관관 柳希津은 모두 산속으로 피하여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

### 3) 왜군분할통치

이에 왜군은 동북지역을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점령하였는데 이는 방어 지역을 분담하는 것과 함께 이 지역에 대한 통치 체제를 강화할 목적이기도 하였다.

함흥이남지역	鍋島直茂
북청이남지역	相良頼房
단천이남지역	九鬼廣隆

이때 함경도 백성들은 오랜 세월동안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학대와 차별대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조세와 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과중하였고 또한 관찰사 수령 등 지방관의 극심한 수탈로 중앙정부에 대한 불만과 반감이 팽배하고 있을 때라 이 지역을 왜군이 진주, 점령하자 마치 해방군을 만난 듯이 반기고 기뻐하며 왜적을 환영하는 백성들이 더 많았다. 이들 가운데에는 평소에 수탈과 학대를 자행하던 수령 방백을 살해하거나 포박해 가지고 왜적에 바치는 자가 더 많았다.

이와 같은 시황을 파악한 “가등청정”은 민심을 회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고문을 발표하였다.

- (1) 피난 중에 있는 사람은 모두 돌아와서 생업에 종사하라.
- (2) 농민은 농사를 지을 것이며 동요하지 말라.
- (3) 우리 군사에 협력하는 자는 보호하고 나쁜 짓을 하는 자를 고해  
바치면 포상할 것이다.

또한 이때 일본군이 새 임금을 세워 새로운 정치를 편다는 유언비어까지 나돌았다. 일본군이 함경도 전역을 그렇게 쉽게 점령하고 한때나마 두만강 건너 여진(女眞)의 본거지까지 진입하였던 데는 이와 같이 새로운 시세에 편승한 일부 민중의 적극적 호응과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형편을 바탕으로 “가등청정”은 “안변” 본진에서 함경도를 지배하는 기본이 되는 조선국 조세장(租稅帳)을 만들었다. 그것은 “豊豊秀吉”이 일본에서 시행하던 태합검지(太閤檢地)를 본받은 것으로 이를 통하여 이 지역 민중의 고혈을 더 많이 착취하자 비로소 민중들은 왜군의 본심을 파악하게 되어 곡물 징수를 비롯한 각종 착취에 대하여 일제히 적극적으로 강력히 저항하고 반대하기 시작하였다.

\*\*\*

4) 鄭奎燮, 鄭文和, 丁辰倭亂과 忠愍公 農圃 鄭文孚 先生 함경도 함략 96. 1. 15. p.179.



#### 4) 민중들의 왜적과의 협조

다른 지역에서 의병들이 봉기하여 왜적과 싸우는 것과는 달리 동북 지역에서는 국왕이 평양으로 파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민심이 더욱 이반하여 명천부와 길주의 백성들은 왕자 일행이 간 곳을 썩 붙이고 사병들은 반란을 일으켜 주장(主將)을 죽이거나 사로잡아 적에게 넘겨주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檢地작업 역시 쉽게 이루어지자 가동청정은 「함경도 민중은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고 대단히 기뻐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檢地의 강행이 그 후의 의병활동의 도화선이 되었다.<sup>5)</sup>

## 2. 臨海 順和 二王子 회령에 들어오다

선조 25년(1592) 임진년 4월 29일에 조정에서는 光海君을 왕세자로 책봉하고 왕자들을 지방에 파견하여 근왕병을 일으키도록 하였는데 충주의 패보가 다다르자 한성 사수의 기운이 꺾이고, 마침내 棄城西行하기로 결의하고 함경도에는 영중추부사 金貴榮과 공계군 尹卓然이 臨海君을 모시고 가기로 하고 강원도에는 동지중추부사 李壑와 장계군 黃廷彥과 그의 아들 黃赫이 順和君을 모시고 가기로 하였다. 그 이튿날인 4월 30일에 임해군은 漢城을 떠나 양주(의정부)를 지나 축석령 고개를 넘어 포천과 김화 회양부를 거쳐 철령을 넘어서 咸鏡道에 들어갔다. 順和君도 역시 한성을 떠나 양주(의정부)를 지나 축석령고개를 넘어 철원부에 들어갔다. 그러나 왜적이 뒤따른다고 하기에 회양부에서 통천군으로 갔다가 또다시 왜적이 해상에 근접했다고 하

\*\*\*

5) 貫井正之 著 豊臣政權の海外侵略と朝鮮義兵研究(2) 漢城會談と 咸鏡道支配 1996. 11. 25. p.36~p.38.

여 안변부에 들어갔는데 鐵嶺에서 남병사 李淮이 패주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강원도의 모병을 단념하고 함경도로 들어와 양 왕자가 합류해 가지고 7월 21일에 회령에 들어갔으니 한성을 떠난 지 80일만이었다.<sup>6)</sup>

### 3. 北兵使 韓克謙의 海汀倉 싸움

6월 12일에 남병사 李淮이 철령에서 패하자 갑산으로 도망갔다가 그곳 반민에게 피살되어 그 머리는 적에게 보냈졌으며, 함경남도의 여러 군읍에 있는 군민들이 저마다 멀리에서 적을 바라만 보고 기만하면서 달아나 버리니 적은 7월 15일 새벽에 磨天嶺을 넘어 오게 되었다. 이에 앞서 영중추부사 金貴榮이 북도의 병력을 불러들이려고 하자 北兵使 韓克謙이 6진(회령, 경성, 온성, 경원, 경흥, 부령)의 병력을 모아가고 달려와 자신은 길주 임명에 유진하면서 사마등 판관 高敬民에게 정병 200명은 주어 함흥에 나아가서 돕게 하고 회령부사 李瑛은 정병 400을 거느리고 북청에 가서 적을 막게 하였다.

그러나 적의 세에 눌리어 싸우지도 않고 그대로 마천령을 넘어 두 왕자를 따라서 회령으로 들어갔다. 이에 北兵使 韓克謙이 철령 싸움에서 패주한 병력을 수습하여 7월 18일 오후에 海汀倉(함북 성진읍)에서 병력 1,000여 명을 거느리고 왜적과 격전을 벌였으나 조총을 당해내지 못하고 패하였는데 이때 부령부사 元熹는 적 7명을 베고 장렬히 전사하였으며 7월 19일 왜적의 일체공격을 받자 병사들이 그대로 도망쳐버리자 함극함이 간신히 혈로를 뚫고 鏡城을 향하여 달아나니 그를

❏ ❏ ❏

6) 鄭奎燮 鄭文和 편저

『壬辰倭亂과 忠愍公 農圃 鄭文孚 先生』 2, 반란전의 개황 96. 1. 15. p.181

따르는 병사가 하나도 없었다.

#### 4. 鏡城 官奴 鞠世弼 등의 반역 방위

이때 이틈을 탄 남병사 李渾은 갑산으로 도망갔다가 그곳 반민에게 피살되어 그의 머리는 적에게 보내졌으며, 명천의 사노 鄭末守(秀)는 守畝를 살해하고 스스로 대장이라고 칭하였고, 경성관노 鞠世弼은 관관 弘業을 잡아서 적에게 넘겨주고 禮伯검 本道兵使의 감투를 얻어 썼으며 府品官 南千壽와 行營 관노 貴石과 成仁孫은 일본군에 붙어서 우후 李範을 잡는 등 이와 같은 반역행위가 비일비재였다.

이와 같은 일을 土民만이 저지른 것은 아니고 철령을 넘어선 뒤 임해군을 모시고 오던 공계군 尹卓然은 북청까지 가다가 도중에서 병이라 피를 부려 두 왕자 일행을 내버리고 저 혼자 살겠다고 도망쳐 삼수갑산에 있는 別害堡(長津)로 깊숙히 들어가 숨어 있다가 철령 싸움에서 李渾이 맥없이 패하고 함경감사 柳永立과 관관 柳津이 산에 숨었다가 왜병에 잡히자, 이 사실을 행재소에 재빨리 알리어 尹卓然 자신이 함경감사에 임명되었고 북병사에는 成允文을 임명하였으되 이자들은 모두 삼수에 있는 산속에 들어가 숨어 있던 자들로서 행재소의 소문과 이상한 소문이 들려서 토착민들이 난동을 멈추었기 때문에 죽음을 면한 자들이다.

○ 宰臣尹卓然 陪王子入北轉入甲山至別害堡 行朝因以爲監司 至是卓然恥而外藩重臣未嘗 有擒一敵之功而 嫉先生聲綾(宣祖實錄 35卷 26年 2月條)

또 順和사를 모시고 오던 동지중추부사 李璣는 함경도까지 들어가 지 않고 고향 강위도에서 뒤떨어지니 두 왕자를 끝까지 모시고 회령에 들어간 사람은 金貴榮 黃廷彥 黃赫 文夢軒 李瑛 李燕과 그들의 가족과 종자들 수십명이었다. 그러나 金貴榮은 노인이라 혼미하고 黃廷彥 부자는 일처리를 잘못하매 같이 따라간 궁가(宮家) 노비들이 도처에서 토색질을 하여 크게 인심을 잃었다. 이렇기 때문에 반란이 빨리 일어났다고 본다.(선조 수정실록 26권 25년 임진) 또 중성부사 鄭見龍은 降衣를 만들어 관관 林恂에게 주어서 적에게 보냈으나 林恂이 이를 적에게 주지않고 찢어버리고 그대로 도망쳐 후에 그 공으로 甲山府使가 되었다. 그러나 鄭見龍은 뒤에 義兵大將 鄭文孚를 도와 반적을 물리쳤다.

○ 王子入北以文夢軒孚會寧府使 黃執金貴榮老昏黃廷彥父子皆不入宮家奴婢到處侵擾大失人心以此促其反亂 尹卓然以詭計落留南道朝廷不省其罪用以代柳永立又以成充文代瑛皆匿三水谷間既而行朝聲復通訛言漸息亂民頗戢故 二帥得勉(宣祖 修正實錄 26권 25년 壬辰)

## 5. 鞠景仁이 두 王子와 宰臣을 같이 結縛하여 加藤清正에게 바치고 항복

본부아전인 박역자 국경인은 본래 완악한 놈으로 평소 일불 때에는 온갖 못된 짓을 저질렀으나 그저 간용하였는데 왜적이 쳐들어오자 왜놈이 주는 벼슬을 받아 형조판서라 일컬었으며 또한 스스로 <회령사 관진무 鞠景仁: 대장>이라 자칭하고 甲騎 500으로 진을 쳤다. 이때에 고령첨사 柳擎天이 南兵使 겸 남북도 순변사 李瑛과 회령부사 文夢徵

에게 鞠景仁을 치자고 하였으나 李瑛은 원래 용렬하고 비겁한 위인이  
라 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나 국경인이 이 말을 엿듣고 반군을 시키어 군관과 역원 가운데  
장건한 사람을 베어 죽이자 柳擎天은 서문을 열고 나갔으나 적들이  
추격하지 못하였다.

鞠景仁이 도리어 객사를 포위하고 두 王子와 부인과 시녀 그리고 그  
일행의 노비들과 재산 金貴榮 黃廷彧 黃赫과 그 가족을 모조리 결박  
하여 한 칸 방에 짐짝처럼 처 놓었다가 淸正에게 넘겨주었다. 이때 김  
귀영의 후실 李氏는 나이 젊고 아름다운지라 적이 욕보이려 하자 목  
매어 죽고, 黃廷彧의 8살짜리 손자를 그의 父親이 보는 앞에서 사지를  
찢어 죽이자 순변사 李瑛은 갑옷을 벗고 적 앞에 꿇어앉아 두 왕자의  
석방을 애원하다가 국경인에게 체포되었다. 이때 적은 길주 명천부를  
맨손으로 점거한 다음에 경성에 들어왔는데, 북병사 韓克誠이 海汀倉  
싸움에서 패하고 경원에서 해상을 통하여 경흥으로 왔으나 이곳 주민  
에게 잡히어 淸正에게 넘겨졌다. 그러나 양주에서 다시 도망하여 행재  
소로 가자 적과 내통하였다고 사사되었다. 이때 한성에서 내려왔던 병  
조좌랑 약봉 徐滄도 잡혔다가 뇌물을 주고 도망쳐 나왔으며 희령부사  
이영은 변을 듣고 목매어 죽으려다 부하의 방해로 죽지 못하고 탈출  
하는 등 함흥을 중심으로 한 이지역은 反賊의 협조에 의하여 倭敵의  
손에 넘어갔다. 이로써 6진의 정병인 관군 1,000여 명이 이 싸움에서  
모조리 궤멸되어 수습할 길이 없었다.

국경인이 이때 편지를 가등에게 보내어 항복을 청하자 가등이 그날  
로 희령으로 달려와 두 왕자와 일행을 보고 국경인에게 말하기를 「너  
의 국왕의 친아들이고 너의 조정의 재신을 이같이 곤욕을 치루게 하  
느냐」고 책망하며 포박을 풀어 軍中에 두고 후하게 대접하게 하는등  
호의를 표하는 척 하였다.

경성품관 南千壽는 토호인데 부사 鄭見龍이 降表<sup>7)</sup>를 적장에게 보내고 도망치자 印符를 대신 쥐고 호령하였는데 이에 불복하는 자 5~6명을 배어 죽이자 감히 그 명령을 어기는 자가 없게 되었고, 마침내 적을 받아들여 항복하였다. 가등은 다시 종성부에서 두만강을 건너 깊이 여진(女眞)의 老上部落까지 쳐들어 갔으나 여진족의 치열한 공격을 받아 많은 사상자를 내고 다시 두만강을 건너와 온성부, 경원부, 경흥부를 쳐서 빼앗고 경성으로 돌아왔다. 이때 온성부사 李銖가 도망치자 토품관(上品官) 姜信이 李銖를 잡아서 적의 손에 넘겨주고 적은 넘겨받은 이수를 죽여버렸다. 경흥부사 羅延彦도 성을 지키지 않고 도망치는 등 완전히 함관령 1000리 땅이 왜적의 손에 넘어갔다.

## 6. 鄭文孚 武溪에서 李鵬壽, 崔配天 池達源과 같이 起兵하여 義兵將에 추대되다

### 1) 鄭文孚 전감사 李聖任과 같이 기병

선조 25년(1592) 7월 하순경이상과 같이 북계의 수장들이 모두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잡히어 왜장에게 넘겨지었는데 이를 피해 도망쳐 나온 수령 방백은 10명 중에 1~2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때 공은 在任중에 형장을 쓰지 않고 항상 교생들에게 힘써 글을 가르치고 그들을 보살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고, 이때 민심을 얻은 것이 공으로 하여금 전공을 세우는데 밑받침이 되었다.

鄭文孚가 처음으로 의병을 일으킨 것은 6월 12일에 남병사 李渾이 철

☞ ☞ ☞

7) 鄭見龍 降表: 撫我則后 虐我則仇 何事非臣 何事非君

「나를 사랑하면 곧 임금이 된 것이요 나를 학대하면 곧 원수가 된 것이어늘 신하로서 쓰지 못할 사람이 누 있으며 임금으로서 섬기지 못할 사람이 누 있으라」(靜齋雜記)

령을 지키지 못하고 7월 18일은 북병사 韓克誠이 海汀倉에서 패배한 후인 7월 하순경이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함경도 일대는 왜병과 반민이 가득하여 수령과 진장들이 모두 피신하고 있을 때 鄭文孚는 그 당시 그곳에 피난하고 있던 전 감사 李聖任을 찾아가 함께 창의 기병하기로 하고 경원부사 吳應台, 경흥부사 羅廷彦, 수성찰방 崔東望, 유배인 韓百謙, 羅德明과 같이 의병을 일으켰다. 文孚등이 의병을 이끌고 鏡城으로 쳐들어갔으나 반적 鞠世弼의 기세가 강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모두 흩어져 버렸다. 이로 인하여 鄭文孚는 적중에 빠져, 8월에 부령에서 적이 쏜 조총에 맞아 부상을 입고 단신으로 쫓기어 산야를 헤매며 여러번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우연히 용성에 있는 무당 韓仁侃을 만나서 그의 호의로 그 집에 숨어 있다가 다시 제자 池達源 집으로 옮겨가 숨고 있었다.

## 2) 鄭文孚를 義兵將에 추대하다

8월에 鏡城 사람 崔配天 池達源 등이 武溪 李鵬壽 집에서 鄭文孚를 義兵將으로 삼고 다시 일어서자, 鏡城人 前 萬戶 姜文佑가 맨 먼저 호응하여 府城에 이르렀다. 이때 鞠世弼은 우리 나라의 <兵使>에 해당하는 왜국의 벼슬인 <예백(禮伯)>이라는 벼락감투를 쓰고 兵使의 인부(印符)를 가지고 경성부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義軍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성문을 닫고 항거하다가, 鄭文孚가 화복(禍福)을 들어 위협하고 타이르자 마침내 성문을 열어 항복하고 병사인(兵使印)도 반납하였다. 鄭文孚는 「대소 병민이 예전에 범한 죄는 이를 문책하지 말라」하고 <세필>도 그대고 두는 한편, 마침내 동북의 남북 각급 수령과 백성에게 군사를 일으켜 왜군을 치라는 내용의 격문을 보냈다.

9월에 들어 鏡城人 부사 金嗣朱, 鏡城人 吳璞 등이 이에 호응했고, 鍾城 府使 鄭見龍, 鏡源府使 吳應台 慶興府使 羅廷彦, 고령첨사 柳擎天, 군관 吳大成 등이 이에 속속 호응했다. 이에 鄭文孚가 鄭見龍에게

大將 되기를 사양하였으나 見龍이 감히 말지 못하고 사양하였으며 또한 모든 義軍이 말하기를 「본래 의병으로 이쁨한 이상 諸事의 벼슬이 비록 낮다고는 하나 병사의 아관(亞官)으로, 많은 의군이 따르고 있으니 마땅히 의병장이 되어 통솔하는 것이 옳다」고 하여 “공”이 할 수 없이 이를 응낙하고 鄭見龍과 吳應台를 부장으로 삼고 이어 피로써 서로 맹서하니 사기가 충천하였고 격문에 호응한 자가 이때 100여 명에 이르렀다. 이에 인근 열읍에 의군이 되어 왜적을 치자고 격분을 보냈다.

### [檄文] 咸鏡北道 倡義討倭의 檄文을 들리다

檄文

倡義討倭 咸鏡道 到邑 守宰及士民檄云云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치자고 함경도 각읍 수령들과 백성들을 효유하는 격문

대개 듣건대 충신은 몸을 바쳐 임금께 보답하고, 지사는 때를 보아 공을 도모한다 하거니, 선조의 신민을 보라 누가 어지러운 오늘 충성을 다할꼬, 생각건대 나라를 세운 지 2백년이요, 보위를 전하기 열한님이라, 어진 임금이 많아 대대로 덕을 잃음이 없었고 문교를 숭상하여 사람들이 전쟁을 알지 못하니, 예악은 빛나고 무기는 쓸곳 없었거늘 어찌 뜻하였으랴. 왜적이 우리나라를 업신여길 줄.

처음엔 통신하자는 달콤한 말이 있더니, 나중에 길을 빌리라는 어려운 청을 내는구나. 이웃을 사귀자는 건 할 수 있는 일이로되 상국을 범하려는 건 어찌 따를 수 있으리요. 우리가 군사를 불러 들임 아니요 저들이 독을 냄이라, 이에 온 병력을 기울여 우리 강토를 침범하니, 만척



의 배가 고리처럼 이었고 길다란 창이 햇빛에 번쩍이누나.

교전한 지 한달이 채 못되어 화는 옛날 진나라 사람이 남으로 쫓겨 남보다 참혹하고, 파죽의 형세가 이미 도성에 미치매, 저 당나라 명황이 西蜀으로 들어감보다 급하고나.

都亭에서 군대를 버리고 간 夷甫같은 이는 있건마는, 雍丘에서 군사 일으킨 張巡같은 이는 없구나. 房太尉는 여러 군데 힘을 심고자 하여 왕자들을 각도에 분산시켰고, 岳少保는 일찍이 세자를 정하자 하여 민심을 동궁에 모았었네.

우리 북방은 왕업의 옛터요, 험준한 지역이라. 백성들은 아들같이 사랑해 주는 덕을 그리매 응당 임금 받들 줄을 알 것이요, 오랑캐들은 알처럼 품어주는 어짊을 느끼매 어찌 우리나라를 잊을 수 있으리요. 지리는 태산과 준령이요, 물산은 준마와 무사라, 이제 장성한 왕자가 오시매 늙은 재상이 보호하네.

郭子儀는 북방의 정병을 가졌거늘 어찌 감히 국란 구원을 게을리 할 것이며, 師道는 山西의 용장을 거느렸기로 마땅히 적을 침에 앞서야 했네.

한번 북쪽이 험지를 잃고 서쪽길이 통하지 않아, 각처 장사들을 모을 길 없으니 누랑함께 걱정할 것이며, 파천하신 임금을 위문할 이 끊었으니, 내 할 일이 무엇이라.

陳宜中은 도망을 갔고 華元은 병이라 청탁하니 말만 들어도 울겠거늘 그 어떤 심사던고. 위에서는 어진 이 능한 이를 뽑아 쓰고 문무를 숭상하여 나라 걱정을 오히려 즐거운 때에 더했고, 군사훈련을 항상 태평한 날에 익혔건만 장차 하늘의 뜻이 우리 국운을 끊으려 함인가, 아니면 사람 제가 타고난 본성을 잃었음인가.

눈을 떠보라! 험준한 산하라고 믿을 것 무엇이며, 마음 아프네! 허울 좋은 방백 수령 무엇으로 신하인가. 그대들은 혹은 왕실의 친척이요,

혹은 공신의 자손이며, 혹은 제상의 반열에서 감사된이요, 혹은 시종  
을 거쳐 원이된 이며, 총애 받은 고관으로서 쫓겨난 이는 아니요, 녹을  
먹은 신하가 몰라 준 일 없잖은가.

황금띠 빗겨 띠고 붉은 일산 세웠으니, 다시 없는 영광인데 붉은 충  
성 드러내고, 흰칼날 무릅쓰며 죽음인들 마달소나.

너희 군민과 부로들에게 깨우치노니, 조종의 끼친 은혜 사라지지 않  
았으니 반드시 단번에 적을 쓸려할 것이요, 군신의 대의가 엄연히 살  
았으니 저절로 소문듣고 따르는 자 있으리라.

진나라 맹명은 세 번 패한 나머지 공을 이루어 지나간 허물을 다 씻  
었고, 은나라 소강은 몇 안되는 군사로 나라를 중흥시켜 작은 고을에  
서 큰 공을 이루었었네.

저 왜적은 무도한 것으로써 우리의 어둠을 대항하는 것이라, 형세로  
말하면 저들이 객이요, 사리로 따지면 우리가 바르거늘, 비록 독사의  
독을 피울지라도 반드시 고래의 죽음을 받을 것이라.

天道로 말하면, 회오리 바람과 소낙비는 하루 아침을 다 못가고, 겨  
울 뒤에 봄이 옴은 제대로 차례가 있으며, 인도로 말하면, 무기만 믿는  
잔인한 짓은 제 망하는 길이요, 군사를 몰아 깊이 들어옴은 패할 형세  
니, 천도 인도 헤아려서 지고 이김 판단하고, 종이 한 장 던져 날려 동  
지들에게 고하노라.

임금수레 어디로 갔나 들어와 호위하는 이 안보이고, 우리 서울 누가  
지키나 군사 몰고 강을 건넌 이 듣지 못했다.

조정에선 신하 대접 어찌했기에 신하들 은혜 갚음 이 풀이온가. 귀한  
건 의리요, 사랑할 건 나라거니, 깊은 골 숲 속에서선 한때 목숨건질망  
정, 푸른 하늘 햇빛 아래 백년 신세 용납되랴.

어허! 너희 부로들아. 나라가 깨어지면 집인들 온전하며, 아버가 있  
는데 자식이 어디 가랴. 너희 자제들에게 간곡히 타일러서 우리 나라

를 저버리지 말게 하라.

공과 업을 이룰 수 있거니, 장수 재상 다로 있나. 하물며 이제 하늘이 재앙 내림 뉘우치고 절서는 첫가을이라, 북방이 일찍 차므로 남에서 온 적이 힘 못쓰는데, 말은 살찌고 활은 굳세어 군사들 용맹을 떨칠 때요, 학 울음 바람 소리에 적들은 기운이 꺾이리라.

우리들은 얼마 안될망정 충성된 이를 모아, 한쪽 지방에서나마 의열을 격려하노니 힘은 약하고 성은 의로와, 비록 만전의 형세는 없을지라도, 명분이 바르고 말이 옳으니 한번 승첩을 기약하리라. 서로 시기 들 말고, 부디 강개한 이 뜻을 살피주시라.

세공은 각각 병마를 거느리고, 쓸어버림 기약하라. 공정한 공로표창은 조정에서 잘 하리니 아녀자 생각으로 대장부 할 일을 그르치지 말라.

아! 무겁고 가벼운 것 판단하고, 취하고 버릴 일 결정하여, 처자까지 죽이는 일을 저지르지 말고 자손만대에 영화를 끼치시라. 나라의 법전은 엄하고 나는 두 번 말하지 않겠노니 모두들 일심 합력하여 이 격문을 어기지 말지어다.<sup>8)</sup>

#### 4) 관북 주민들 왜적을 환영

이곳 관북지역의 의병활동이 삼남지역에 비하여 시기적으로 늦고 그 규모를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지역 백성들에 대한 각종 차별 대우와 수령 방백들의 지나친 형벌과 수탈 등이다. 그 부분과 지나친 부역과 그리고 학대와 멸시 등이 중앙정부와 지방관에 대한 원망과 불만 불평이 누적되어 왜적이 침입하자 울분이 분출하여 왜군의 점령을 환영할 뿐 아니라 전기와 같이 二王子등 수령 방백을 잡아서 적에

※ ※ ※

8) 鷲山 李殷相 國譯 農圃先生文集 1970. 3. p.37 ~ p.41.

게 넘겨주거나 살해하는 등 적극적으로 왜군의 작전과 점령정책을 환영하고 협조하였다.

先是北土人苦武吏侵虐 怨國最甚 及聞訛言 倭國立新主國政 民間喧然傾向 爭縛將吏以近敵”

심지어 이덕형이 왕이 되고 김성일이 재상이 된다는 소문이 원근에 전파되어 북도 백성이 그 말을 믿었다고 하는데 이는 小西行長이 조선과의 강화 담판 상대역으로 이덕형을 지명하여 충주에서 회합하고자 한 것이 잘못 전달된 것이다.

“此後訛言肆行 言倭將遍擁德馨爲主 金誠一相 遠近傳播人心榮感 北邑兵民大信 向其特國家之不得於民情如此”<sup>9)</sup>

조선의 중앙행정 체제가 붕괴되자 함경도 지방으로 柳成龍의 老母를 비롯하여 士大夫들이 피난 소개된 지배계층에 대하여 북도 사람들은 노골적인 반감과 적개심을 가지고 대하였다.

“今朝臣家屬 皆避亂于東北 臣(柳成龍)亦有老母避亂東出 必流入於咸鏡之境 士大夫有脚力多輕寶者 皆送家屬于北土 多被干士兵”<sup>11)</sup>

\*\*\*

9) 宣祖修正實錄 권 26 선조 25년 임진 6월

10) 宣祖修正實錄 권 26 선조 25년 임진 4월

11) 宣祖修正實錄 권 26 선조 25년 임진 6월

## 7. 의병장 鄭文孚의 의병구성

이때 반격을 시작한 鄭文孚의 의병진 지휘부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sup>12)</sup>

### 1) 의병군 지휘부 구성요소

※ 의병의 성분표(1) (장령)

품 직				기 타	
현 직 자		전 직 자			
문 반	무 반	문 반	무 반		
부사 2(종3)	평사 1(정6)	감찰 1(정6)	만호 2(정5)	생 원 1	내금위 1
판관 2(정5)	첨사 3(정5)	직장 1(종7)	권관 1(종9)	급 제 1	정료위 7
학유 1(종9)	만호 3(정5)			유 학 5	우림위 1
	권관 3(종9)			교 생 1	별시위 11
				서 리 2	감 사 7
				좌 수 2	정 병 1
				충의위 3	보 인 7
				충순위 1	미 상 1
계5명	10명	2명	3명	16명	36명

이상에서 볼 때 의병의 성분에 있어서 삼남지역이나 기타 지역에 비하여 현직관리의 구성요소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의병 지휘부를 구성하는 관직의 품계가 정6품 이상이 14명인데 비하여 6품 이하가 6명으로서 현직 정6품의 품계를 가진 鄭文孚가 전체 지휘를 담당하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현직 감사와의 위상설정과, 전공에 대한 시기 등, 이후 鄭文孚가 당면하는 제반 문제의 원인이 여기에서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 ※ ※

12) 李章熙 論文「壬辰義兵의 性格」義兵特成分圖表(史學研究 8호)

더구나 병력에 있어서도 함흥부에 주차한 본도 절도사 성윤문이 5천, 경성부에 있는 의병장 鄭文孚가 5천이었으며 그밖에 안변부에 둔 전한 별장 김우호가 100명 조방장 김신원 100정도로서 관북에서는 의병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임란 당시 의병을 조직한 사람은 대부분 벼슬을 하지 않은 그 지역의 유생이나 전직 관리가 대부분이고, 현직관리로서 의병장이 되어 왜적과 싸운 사람은 현감 한사람과 평사 한사람의 두명 뿐이다.

鄭文孚가 함경도 북평사의 현직에 있으면서 의병대장으로 활약한 것은 철령, 해정창 등지의 싸움에서 남병사 이혼과 북평사 한국감 등이 패배하여 李自和와 감사 유영립을 비롯한 부사, 목사들이 반민의 손에 결박되어 적에 넘겨지거나 산속으로 도망갔기 때문이다. 심지어 왕자까지 적에 넘긴 반민이 적과 같이 이 지역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현직, 전직을 막론하고 수령이란 실제로 유명무실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 지역의 지방관이 일반적으로 민심을 잃어 원천적으로 구국을 위한 군사 행동의 구심점이 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평사 鄭文孚는 평소에 막관에게 형장을 쓰지 않고 글을 가르쳤기 때문에 왜적이 쳐들어왔으나 제자들이 지켜주었기 때문이다.

「評事鄭文學 以幕官無事不用刑杖 又常授書校生 故作變之後 弟子數人 庇護得脫」

## 2) 의병의 지역별 현황(II) (장령)

표에서 볼 때 경성인이 15명이고, 회령인이 9명, 길주인이 3명이며, 경흥인과 온성인이 각각 1명으로 총 29명이다. 경성인과 회령인이 많은 것은 경성에서 반적 국세필을 참수하고 회령은 반적 국경인을 처형하는데 힘입은 것이 큰 것으로 보며 경성을 의병의 근거지로 삼았

던 것도 그 이유의 하나였다.

여기에서 현직으로 鄭文學의 휘하에 있던 종성부사 鄭見龍, 종원부사 오응태, 중흥부사 라정언, 고령첨사 유경천 등은 제외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관군의 성격을 띄웠기 때문이다.

성 명	의병직책	출 신 지	성 명	의병직책	출 신 지
이 봉 수	창의별장	경성인	강 문 우	미 상	경성인
최 배 천	미 상	"	이 기 수	"	"
지 달 원	미 상	"	서 수	"	"
허 진	복병장	길주인	차 웅 진	"	회령인
김 국 신	미 상	"	박 극 근	"	"
김 여 광	미 상	경성인	박 희 연	"	"
허 대 성	미 상	길주인	박 희 발	"	"
박 은 주	미 상	경성인	김 진		
박 은 진	미 상	"	김 경	"	"
박 연 주	미 상	"	차 득 도	"	"
박 유 일	토적장	"	황 수	"	"
오 윤 적	토적장	회령인	김 사 주	"	경성인
원 충 서	중사관	경흥인	최 경 수	"	"
정 윤 길	미 상	경성인	여 정	"	온성인
정 은 성	미 상	경성인			

## 8. 鞠世弼을 बे기 위한 義兵將 鄭文學의 計策

의병장에 추대된 鄭文學는 평소부터 鞠世弼과 친분이 있는 최배천을 세필에게 보내어 우리 의군과 힘을 합쳐서 공을 세우면은 죄가 감면될 수 있다고 타이르자 세필이 이를 옹기 역기고 성문을 열고 의군을 맞이하였다. 때는 9월 16일이었다. 세필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兵符를 鄭文學에게 바치니 「이제부터는 대소민병들의 전죄를 묻지 않겠다.」하고 “국세필은 종전과 같이 병권을 행사하라고 허락하였다.

文學等脅以禍福 世弼知不敵開門 迎人納印<sup>13)</sup>

文學下禁曰 大小民兵 勿問舊犯 乃擒 世弼領兵如故<sup>14)</sup>

이에 측근들이 「반적 세필을 진중에 두고 어떻게 행동을 같이 할 수 있겠느냐」고 반대하며 빨리 참(斬)하자고 하였으나 이를 따르지 않고 기다리라고 하였다. 9월 18일에 길주에 진치고 있던 왜병 92명이 성 아래에 와서 한 왜장이 그 전과 같은 줄로 알고 성문으로 들어서는 것을 官奴 鞠生이 칼로 두팔을 찍자 그 아비 세필이 목을 베어 군중에 조리 돌리고 그 나머지 왜병에게는 우리 군이 활을 품고 쏘아 물리쳤다. 이와 같이 적병을 죽여 놓고도 “세필”은 항시 의심을 하고 심복을 시켜 공의 좌우를 살피게 하였다. 鄭文孚는 이때 행재소에 올리는 장계를 거짓으로 꾸미되, 국세필 부자에 대하여 완곡하게 써서 서안에 놓고 일부러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사이에, 세필이 몰래 이 글을 훔쳐보고 매우 기뻐하며 안심하였다.

鄭文孚는 사람을 회령의 鞠景仁과 명천의 鄭末秀에게 보내어, 세필도 의병에 가담하여 공을 세우고 있으니 너희들도 전죄를 씻고 의병에 들어온다며는 환영하겠다고 하였으나 교활한 鞠景仁은 듣지 않았다.

## 9. 鄭文孚는 吳允迪과 도훈도 申世俊을 파견하여 鞠景仁과 鄭末秀를 베다.

鄭文孚는 다시 회령의 오윤적과 신세준에게 「경인과 말수를 참하라」고 밀령을 내렸다. 그러나 “오윤적”의 거사가 발각되어 “경인”에

❖ ❖ ❖

13) 宣祖修正實錄 卷6 宣祖 25年 壬辰 9월

14) 宣祖修正實錄 卷26 宣祖 25年 壬辰 9月



게 잡히게 되었다. 이에 즈음하여 신세준이 큰 칼을 빼어들고 말하기를 「너희가 만일에 효순(效順)의 성(誠)을 다하지 않는다면은 반드시 멸족의 화를 당하고 말 것이다. 감히 여기는 자는 베라」하니 모두 이를 깨닫고 역사로 하여금 국경인을 때려죽이는 동시에 그의 일당이 언우와 전언국 등 6명을 함께 주살하여 수급을 의병장 鄭文學에게 바쳤다.

이어 명천의 鄭末秀도 그곳 사람들이 鄭文學의 연락을 받고 잡으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오촌권과” 구황(具滉)과 姜文佑에게 정기 60여명을 주어 鄭末秀를 참하라고 명하였다. 이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 명천에 도착하니, 정말수는 이 소식을 듣고 성을 버리고 도망갔다. 강문우가 이를 추격하여 마침내 잡아서 참수하고 그의 수급을 가지고 돌아왔다.

한편 경성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외곽을 의병에게 지키게 하고 국세필과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시켰는데 세필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에 문부는 대장기를 세우고 남문 문루에 앉아 있었는데 국세필도 여러 장수와 같이 행군례로 대장을 뵈었다. 예를 마치고 나서려는데 강문우가 세필을 붙잡고 문을 부쳤다. 이것을 본 세필의 부하가 달려오므로 대장 鄭文學가 활을 쏘아 이들 모두를 죽이고 이어서 국세필도 잡아서 참하였다. 이어 일당 13명을 모두 잡아 목을 베니 이것으로써 국세필 이하 모두 참하였으니 더이상은 동요하지 말라고 하자, 의군들의 사기가 비로소 하늘을 찌를 듯이 충천하였으며 이에 의군들이 구름과 같이 모여들어 그 수가 5,000명(농포집 6,000여명)에 이르렀다.<sup>15)</sup>

여

백

## 제5장 六鎭咸關嶺 천리땅의 왜적격퇴

### 1. 일반사항

#### 義兵將 鄭文孚 將軍의 倭敵 討滅

鄭文孚가 의병을 이끌고 경성에 들어간 것은 선조 25년(1592) 임진 9월 16일로, 이때부터 의병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제부터는 왜적을 토벌하여야 한다고 여러 부장과 상의하니 정견룡이 말하기를 「지금엔 아직 때가 아니니 경성만을 지키고 있다가 형세를 보아가며 치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의병장 鄭文孚가 말하기를 「내가 의병을 일으킨 것은 나라를 위한 일 뿐이요, 성만 지키고 나가 싸우지 않는 안방 여자의 흉내를 내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경히 말하며 「내일 중의에 따라 결정하겠노라」고 하였다.

鄭文孚는 우선 남문밖의 의군을 모아 놓고 왜적 토벌을 물으니 의군 모두가 「대장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였다. 이에 경성은 동관참사 이응성에게 군사를 주어 지키도록 명령하고 왜적을 토벌하기 위하여 출진하여 영강역까지 가는데 도중에서 길을 막고서 「왜적이 많아 싸우면 질 것 같으니 성을 지키며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자가 있어 「네가 왜놈을 위하여 우리 의군을 막느냐」하고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 깃대 위에 높이 달아 군율을 엄하게 하였다.

### 2. 경성싸움 (선조 25년(1592) 임진 9월 16일 )

#### 1) 將領

## (1) 우리나라

의 병 장 鄭文孚

경흥부사 나정언

종성부사 정견룡

경원부사 오응태

고령첨사 유경천 권만호 강문우

서부만호 고경민

군관 오대남

## (2) 적측

가등청정의 부장 가등우마윤(加藤右馬允), 가등안정(加藤安政)

## 2) 싸움의 전개

전쟁전 가등청정이 정병을 거느리고 북도를 침공하자 철령 싸움후 열읍 수령들이 모두 토민에게 잡혀 포로가 되었는데 그 수가 10사람 가운데 8~9명이 되었다. 북평사 鄭文孚는 적의 사격으로 부상을 당하였다. 이때 가등은 두만강변에서 안변부로 돌아가고 길주 이남에만 부대를 배치한 다음 반적 국세필을 경성부에 반적 괴수 국경인을 회령부에 배치하여 이곳 주민의 행정을 맡게 하였다.

## 3) 작전 실행

이때 의병장 鄭文孚는 성내에 있는 의병 3,000여명 가운데 정예한 병력을 뽑아서 선봉을 삼아 고령첨사 유경천에게 지휘를 맡겼다. 길주성에 1,500여명을 거느리고 있던 직장 가등우마윤 등은 경성부의 소식을 듣고 100여명의 순라병을 보내어 사실 여부를 확인시키기로 하였는데 성문을 닫고 들여놓지 않자 성안이 모두 소연하였다. 이때 강문우의 결사 기마대 20여기가 성문을 열고 돌격하자 적은 이에 대항하여 불시의

기습을 하여 많은 적병을 끌어냈으나 강문우 등이 돌아오지 않아 걱정하고 있을 때, 밤삼경 때(밤 9시부터 11시 사이)에 적의 머리 수십급을 허리에 차고 돌아오는지라, 의병장 鄭文孚께서 기뻐하며 이들을 맞이 하니 인마가 피로서 윈 몸이 물들여져 귀신같은 몰골들이나 적의 머리를 말한장에 매어달지 않을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적의 칼과 창 조총으로 무장하였으며 개중에는 적의 전마를 바꿔타고 부마를 끌고 온 의병도 많은 것으로 보아 그들의 용전분투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이들의 이와 같은 용전에 탄복하여 성안의 장병들의 사기가 크게 떨쳤다. 이어 국세필 이하 일당 13명을 벤 것을 들어 여러 군사들로 하여금 대의를 밝히게 하였다. 행개소에 반족 국세필과 그리고 국경인 정밀수와 함께 배었다고 장계를 올리고 10월 21일에는 三衛騎를 거느리고 명천에 들어갔다. 이로서 명천지역 일대를 수복하고 그 이북의 치안을 회복하였다. 10월 30일에는 길주, 장평 싸움에서 적을 크게 격파하였다.

### 3. 吉州 長坪 싸움(임진 10월 30일)

#### 1) 將領

##### (1) 우리측

의병대장 鄭文孚

중성부사	정견용	안원권관	강문우
고령첨사	유경천	옥련만호	안 욱
경원부사	오웅태	중 사 관	인원침
중 사 관	지충서	군 관	황사원
오천권관	구 황	군 관	박은주
방원만호	한인제	사철동권관	고경민



▲ 길주 장평 싸움

병력 1,000여명

(2) 적측 가등청정의 부장 가등우마윤과 가등안정

병력 1,000여명

## 2) 싸움전

鄭文孚의 의병진이 9월 16일에 경성싸움에서 100여명의 적병을 격파하고 여러 읍진을 수복하자 길주목사 정희적과 방원만호 한인제 그리고 유성찰방 최동망, 영진만호 정예국 동관참사 이응성 보화보권관 이연상 등이 응하여 그 병력이 수천명에 달하였다.

10월 21일에 이응성에게 군사 700여명을 주어 유진장을 삼아 경성 부성을 지키게 하고 鄭文孚는 1,000여명을 거느리고 출진하여 명천 현에 진을 치자 정희적과 최동망이 이에 합세하였다. 이때 적은 길주성에 1,000여명의 군사가 주둔하고, 300여명은 길주 남쪽 80리 영동 반 책성을 지키면서 영동지방과 서로 호응하였다.

## 3) 작전계획

의병장 鄭文孚는 다음과 같이 병력 부서를 정하고 적을 치게 하였다. 중위장 정건룡(병력 1,000여명)은 명천에 좌위장 유경천(병력 1,000여명)은 해정에 배치하고 우위장 오웅테는(병력미상) 서북부에 머물러 길주 동구에 잠복하며 특과원 원충서는 병력 200여명을 거느리고 길주 북방에 30리에 주둔시키고 고지에서 적정을 감시시켰다.

## 4) 싸움전개

10월 30일 아침에 적병력 1,000여명이 길주성문을 나와 해정 쪽을 향하여 진격하는 상황이 원충서의 감시대에 탐지되었다. 이에 우리 의

병진은 촌락에 불을 지르고 재물과 가축을 약탈하고 부녀자를 잡아 귀성하는 왜병을 급습한 후 일부러 패한 것처럼 후퇴하여 유인하였다. 한인제가 거느린 300여 보병과 원충서 군에게 총공격을 당하자 왜적은 400여명을 앞세우고 장령 5명이 중심이 되어 조총을 쏘며 맞섰다. 그러나 한인제가 앞장서 적을 칼로 치고 화살을 쏘아 적장 한 사람을 죽여 그 기세를 꺾으니 적병이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이에 좌우에서 적을 협격하여 구황과 강문우 안옥, 인원침, 황사원 박은주 등의 장령들이 의군을 거느리고 일제 공격하였다. 하오 4시경 해질 무렵까지 계속된 전투에서 패퇴한 적은 할 수 없이 길주 성동쪽에 있는 장덕산으로 퇴각하기 시작했다. 이에 고경민이 부하 장병과 같이 산 위를 막고 있다가 적을 포위 섬멸하였다.

##### 5) 전과

- (1) 군기 20 (2) 갑주의 50부 (3) 환도 100자루 (4) 토구 8부  
 (5) 창 16 (6) 총통 26명 (7) 총탄 646개  
 (8) 약통 15개를 노획하고 (9) 말 118필 노획  
 (10) 적의 머리 800여급을 베었고 그 가운데 825개의 원편 귀를 별봉하여 崔配天과 李長春등을 시키어 행조에 올렸다.

이상과 같은 대승은 임란 이후 육전에서 가장 큰 승리로 바다에서 李舜臣 장군의 대첩에 다음가는 대첩이다. 이와 같이 鄭文孚가 전승을 장계하였는데 宣祖實錄 권35 선조 26년 2월에는 적의 머리 100여급을 베었다고 기록하였는데 이는 순찰사 윤탁영이 축소 변조하여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의병장 鄭文孚가 장계를 올린 것은 상기와 같이 원편 귀 825개를 같이 별봉하여 보냈다고 하였는데 귀 825개는 실물이 지 모조품을 별봉하여 보낼 수 없는 사실 상 불가능하기 때

문이다.

#### 4. 감사 尹卓然이 鄭見龍을 절도사겸 병사로 임명하고 의병대장을 오웅태로 바꾸다.

평사는 한 막관으로서 마땅히 감사의 절제와 지시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자 鄭文孚가 세운 전공을 탁연이 정견용이 세운 것으로 거짓 장계하였고 나아가 문부의 병졸들이 적의 수급을 가지고 관문을 지나게 되면 그것을 모두 빼앗아 자기의 것으로 할 뿐만 아니라 단천 싸움에서 적을 격파한 것을 단천 군수의 공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공으로 하였다고 역시 순찰사의 직위를 이용하여 거짓 장계하였다. 심지어 감사의 직책을 빙자하여 선생을 굴복시키고자 군법으로서 처단하겠다고 국문하기까지 하였다. 이로써 鄭文孚의 함경도에서의 승첩의 위훈은 오랜동안 묻혀져 선조께서는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이것은 자기가 왕자를 버리고 삼수갑산에 숨었던 것과 왜적을 토벌하는데 전공을 못세워 평사인 鄭文孚의 전공을 시기한 데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 이에 여러 의병들은 죄없이 해를 당할 것을 염려하여 선생을 옹호하고 물러서지 않았다.

- 評事一幕官當受監司節制不當相敵而責之文孚不從故凡文孚前後戰捷功勞卓然  
皆反實以聞文孚麾下指首級過關而側皆奪取以與其軍且啓文孚所以不軌<sup>16)</sup>

\*\*\*



○以朝廷斷以戰功歸之鄭見龍陸拜兵便(宣祖實錄 27권 26年 癸巳 1월)

순찰사의 절제를 받아야 할 평사가 자청하여 순찰사 尹卓然<sup>17)</sup>과 동등하게 大將이라 하고 겸하여 중성부사 鄭見龍등 여러 부사를 종사관으로 거느리니 이는 해괴한 일이다. 이에 의군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의군 대장의 임무를 회령부사 정견룡으로 바꾸었다.

17) 이에 尹卓然의 人間性 참고자료와 王朝實錄을 조사해 보았더니 李滉의 문인으로서 사마시와 알선문과 병과에 급제 경상경기관찰사와 형조 호조판서를 지내고 선조 23년(1590)에 종계변무(宗系辨誣)의 공으로 光國功臣 3등에 칠계군(漆溪君)에 봉해지고 비변사 유사당상을 역임하고 선조 25년(1592) 임난때 함경도 관찰사 겸 순찰사를 지냈다. 함경도 창의사에 배형되고 시호는 헌민(憲敏)이다.

그러나 (1) 경상감사로 있을 때 사간원에서 윤탁영의 처사하는 모양이 물의가 많으니 본직에서 근신치 못하니 파직을 명하도록 하였으나 상께서 다시 묻자 얻는데 말을 들어 솔목감사라고 기용을 받고 사택을 크게 짓는 등 백성들의 원망이 자자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상께서 탁영이 재주가 있는 사람으로 관에 있으면서 잘 살필수 있을 것이니 풍문만 가지고 그 실상을 모를 것이다. 솔목감사라고 한 것은 어찌 자기의 사복만 채우기 위한 것은 아닐 것이니 더욱 근신한 말이 못되는 것이다. (선조실록 16권 선조 15년 6월) (2) 경기감사로 있을 때 저의 집에서 법도가 없어 행세함이 더러운 점이 많다. 첩과 종의 말만 듣고 ~ 무인들로부터 많은 뇌물을 받고 그들을 좋은 데로 전직시키며 영남에서는 죄인을 면해주고 받은 포목을 모두 실어오고 경기도에서도 백성들의 논밭을 빼앗기 위하여 그것만을 살피고 있으니 참으로 비루하게 탐하는 놈이라 하였다. (선조실록 19권 18년 4월).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함경감사 尹卓然이 국사는 돌보지 않고 오직 제몸만 보호하기에 힘쓰며 뇌물이 공공연히 행하여져서 출입하는 사람들이 죄가 있어도 이것을 과보호하여 후하게 대우하며 관아에서 쓰임새는 크게 남용하고 있어 열읍에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난리를 당하여 ~ 모든 사람이 참으로 통분하게 여기고 있으니 파직을 명하기 바랍니다.」고 아뢰었으나 상께서 답하기를 「풍문이 어찌 사실과 같을 것인가. 윤감사는 재간이 없지 않으니 파직할 수 없다.」고 하였다. (선조실록 47권 선조 27년 1월)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난리후에 탐오(貪惡)한 풍조가 있어서 사헌부에 이르기까지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자가 심히 많습니다. 함경감사 윤탁영은 평생동안에 탐오한 행동을 한 사실은 모두가 다 아는 바이나 (尹卓然平生行己之民衆所芝知) 북방의 중임을 맡은 이후 경사(京司)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기화로 많은 자기 기술을 데리고 와서 모두가 호구지책으로 구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저희들만 살기 위하여 오로지 힘쓰고 있습니다. 나라 걱정은 조금도 하지 않고 공공연히 뇌물만을 주고 받으며 청탁만 일삼으니 이것은 여러 고을의 호랑이같은 존재이며 무슨 소문만 들으면 백성을 무고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고 뒷사람에게는 아첨하기 위하여 주육(酒肉)이 낭자하며 취첩들은 자태만 가꾸는 것이 평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형벌은 가혹하여 군민들은 도탄에 빠져서 물속에 빠져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비록 탄핵한다 하여도 조금도 중지할 눈치가 없으며 조정은 기탄없이 앉아서 가볍게 처리하고 있으니 파직을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아뢰자 답하기를 “체직을 허락한다”고 하였다. (선조실록 50권 선조27년 4월)

「巡察使 節制內訐事自稱 大將兼從事官至爲 會亥怪是如遞臣大將  
之任會寧府使 鄭見龍」

鄭見龍이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왜적에게 降表까지 내어 항복하려는 것은 판관 林恂이 이를 찢어버려 항복하지 못하고 다행히 鄭文孚의 휘하에 들어가 왜적과 싸우는데 다소 전공을 세운것은 인정되나 윤탁영에게 아부하여 鄭文孚가 의병장으로서 장평 임명 단천 백담 등지에서 싸움에서 승리한 모든 전공을 鄭見龍의 것으로 하여 嘉善大夫 (중2품)로 오르고 북병사의 중임을 받게 되었고 公은 다만 鞠世弼 一黨을 誅殺하였다는 공으로 通政(정3품)에 올랐으며 선조 27년 (1594) 3월에 영흥부사 등 지방관에 임명되는데 그쳤다.

是月降通政階 尹卓然以公前後戰功歸放 鄭見龍 啓行在見龍遂大降  
懼而公以誅世弼功 有是命 明年初九月祇受

지금까지 왜적을 격퇴한 것은 勇將 鄭見龍이라고 하며 조정에서는 그 전공에 의하여 兵使에 승진하였다.

朝廷斷以戰功歸之鄭見龍降拜本道兵使 (宣祖實錄 권27 宣祖 26年 1월)

## 5. 六鎮을 순시하여 女眞族 순무

임진년 11월 21일 이런 통첩을 받고 鄭文孚는 곧 순찰사의 지시에

따라 수하 의병 6,000여명을 정견룡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절도사의 명을 받아 50여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6진(부령, 경성, 온성, 회령, 경원, 경흥)을 순시하여 여진족을 따뜻하게 어루만지고 각 읍의 죄있는 자를 배고 공 있는 자를 표창하니 여진족이 두려워 저희들끼리 서로 타일러 약탈한 우리 나라 사람들을 모두 돌려보냈다. 더욱이 공이 추장 등 100여명을 초청하여 따뜻한 말로 타이르니 지난 봄에 쳐들어갔던 雲頭 이남에서 동건(童巾) 多溫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의 여진족이 다시는 침범하지 않았다.

「十二月以評事本職巡行六鎮 公既遞大將北評事時 在南道遙令 巡行六鎮安集軍 民公乃率麾下若干人 冒險入歷遍諸鎮城堡搜誅叛 党招服蕃胡罰得 宣戰守有方民 夷畏悅不敢謀爲亂」

여기에서 여진족에 대하여 살펴 보면은 李仁榮의 저서에 이르기를 10세기말 발해가 망할때까지는 우리와 같은 혈연과 문화적으로 같은 겨레이었던 고구려의 후예이었다고 하였다. 더우기 12세기 大金國을 건설하여 만주, 몽고와 만주 북방 등지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도 흰옷을 입고 온돌에 거처하는 풍속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왕실의 조상은 고려의 황해도 평산(平山)출신이라고 자랑<sup>18)</sup>하였다고 한다. 어찌되었던 우리 나라에서는 야인으로 취급하여 고려때에는 尹瓘을 조선조 세종때에는 金宗瑞를 보내 6진을 개척하였으나 선조 16년(1587)에는 추장 누르하치가 2만여군을 이끌고 쳐들어와 함경도 경원부를 점령하고 종성에 쳐들어오자 온성부사 申砬등이 이를 소탕한 일이 있는

❖ ❖ ❖

18) 李仁榮 韓國滿州關係史의 研究 卷 p1 단기 4287<1954> 10. 10

平山郡誌 滅惡山條山川 滅惡山條 此謂之未居士 墓而或云 明始祖或云金始祖 傳說不同以居士之姓字觀之則必是明始祖以與地勝覽之則 平州僧說金俊入女眞 國爲金始祖云

항시 북방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지역이다. 이와 같은 지역을 鄭文孚가 평정하니 이는 尹暲과 金宗瑞에 이어 세번째로 북방의 六鎖를 진압한 위대한 공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 6. 鄭文孚가 다시 義兵將에 복귀하다

鄭文孚가 의병대장에서 물러나자 6,000의군이 흩어지므로 탁연이 할 수 없이 한달도 못되어 鄭見龍을 절도사겸 병사로 임명하고 경원부사 吳應奎를 대신 의병장으로 임명하고 文孚는 다시 평사직으로 돌아가 북병사 鄭見龍의 명을 받아야 하였다. 그러나 이에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북행 순시하였다고 허물을 뒤집어 씌워 鄭文孚를 신문까지 하였다. 이로서 각진의 군정이 문란해져 너도나도 같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토적(討賊)하였다고 장계하니 병졸들조차 장수가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군기가 무너지고 말았다. 文孚가 吉州 임명에서 왜적을 격파하고 의병장에서 물러난 후 육진을 순찰하며 민정을 조정에 장계하고자 하였으나 임의로 장계한다고 하여 죄를 얻게 된 것으로 감히 아뢰지 못하다가 먼저 올린 장계의 회송사연과 비변사의 공문에 답하지 않을 수 없어 이와 같은 북도군정까지도 아울러 장계하게 된 것이다. 선조 26년(1593) 1월 13일에 경원부사 吳應奎를 대장직에서 해임하고 鄭文孚를 다시 大將으로 임명하였다. 이와 같이 鄭文孚를 임명한 것은 文孚를 잃게 되자 의병들이 흩어져 반민여당(叛民餘黨)이 다시 일어날 기미가 있을 뿐 아니라 왜적이 또한 침범할 우려가 있어 탁연이 자신의 신변 안정을 위하여 할 수 없이 鄭文孚를 다시 임명하였다. 이에 공께서 필마단기로 길주에 들어서자 흩어졌던 의군 6,000여 명이 다시 물려들기 시작하여 사기가 충천하였다.

十三日 復爲大將 尹卓然 以鄭見龍 爲大將 未滿一月  
威鏡北道 評事 鄭文孚 啓曰 前年 十二月臣北行六鎭

(宣祖實錄 35권 農圃集 卷7)

특히 鄭見龍이 의병장 鄭文孚의 휘하에 있을 때에도 자기 마음대로 일을 독단으로 처리하여 대장과 의견충돌이 종종 있었다.

先是被掠 士大夫多就文孚求搜財寶 文孚擾民不許 又求於見龍聽許  
(李植撰撰記壬辰舉義事)

견룡이 윤탁영과 결탁하고 漢陽에서 피난하여 북으로 들어온 사대 부들에게 양식과 의복을 나누어주며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수사하여 돌려주었다. 그뿐 아니라 조정에서 함경도 실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보낸 관리들에게도 탁연이 후한 뇌물을 주어 환심을 사게 되었다. 이에 이들이 조정에 돌아가서 탁연을 옹호하고 칭찬하였으며 尹卓然이 올린 장계는 인정하고 의병장 鄭文孚가 올린 장계는 하나도 수용되지 않았으며 아울러 비겁한 행동을 일삼던 鄭見龍이 조정에서 본도의 절도사겸 병사에 승임된 것이다. 鄭文孚는 의병대장으로서 장평 임명 단천 백담 등지의 싸움에서 승리하였으나 왜적 토벌의 전공은 鄭見龍에게 돌아가고 文孚는 단지 국세필 등을 주살한 전공으로 선조27년(1594) 3월에 영흥부사 길주목사 등의 지방방백에 임명되는데 그쳤다. 후에 외제공(畏齊公) 이단하(李端夏)가 말하기를 「일찍이 권세에 아부하지 않으니 공을 아는 사람은 적고 공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이는 尹卓然이 일찍이 형조, 호조판서를 지내고 光國功臣으로서 칠계군에 봉해지고 비변사에서 유사당상을 역임하여 선조의 신임을 샀기

때문으로 본다. 한편 나라 걱정보다 뇌물을 많이 받쳤고 받쳤기 때문 이라고 본다.」

是月 降通政階 尹卓然以公前後戰功歸放 鄭見龍 啓 行在 見龍遂大 被降擢而 公以誅世弼功 有是命 明年初 九月 祇受教旨 曾不移附時勢當時知公者小 不知公者多 (農圃集 2권)

### 7. 吉州 雙浦(臨溟) 부근 싸움(선조 26년(1592. 12. 20)

#### 1) 장령

##### (1) 우리

의병장 鄭文孚

좌위장 유경천    충위장 정견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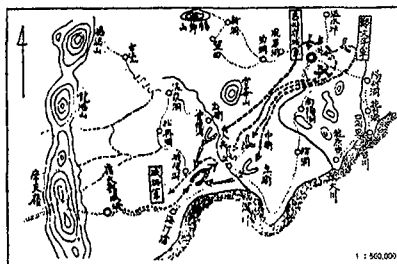
복병장 김국신    우위장 오웅태

병력 3,000여명

##### (2) 적군

加藤右馬允

병력 400여명



▲ 길주 쌍포 부근의 싸움

#### 2) 전쟁전

9월 30일에 길주 장평(장덕산) 싸움에서 크게 패한 왜군은 그동안 성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 이들을 포위하고 있던 鄭文孚는 12월에 병력 3,000여명을 동원하여 직접 길주성을 공격하였다. 왜병들은 결사적으로 성을 지키기에 힘쓰니 아군과 적의 사상자가 많았다. 이에 鄭文孚가 전략을 바꾸어 병력을 구분하여 4~5개 지점에 복병을 하고 주야로 적정을 살피게 하여 적이 성밖으로 나오면은 이를 포위 격멸

할 준비를 갖추고 기다렸다. 이때 왜병의 일부 병력은 마천령 밑에 있는 영동을 지키는 동시에 안원군과 연계하여 거점을 구축하고 있었는데 이에 鄭文學는 먼저 책성의 적을 쳐서 적 후방과의 연락을 끊는 동시에 길주성을 고립시키고 수성의 주력을 송두리채 공멸시킬 계획을 세우고 삼위의 주력군을 책성 방면으로 옮기게 하였다. 이때 책성의 수비병 400여명이 길주와의 연락을 위하여 책성을 떠나 임명촌으로 향하였다는 정보를 얻고 세워둔 전략대로 병력을 남쪽으로 돌려서 먼저 적을 치기로 하였다. 길주와 책성의 왜적들은 우리의 작전계획을 알지 못하고 길주를 굳게 지키면서 한편 책성 방면에는 마음놓고 복진하고 있었다.

### 3) 당시 鄭文學의 본부편성

의병대장 鄭文學

종사관 무산만호 이 란

종사관 유성찰방 최동망

종사관 유성찰방 이성길

각위의 북병 편성

중위장 종성부사 정건룡

종사관 훈련봉사 이계남

종사관 무산만호 오명수

종사관 오대남

좌위장 고령첨사 유경천

건원권관 김경복

종사관 훈련봉사 허대임

북병장 길주사병 김국신

우위장 경원부사 오웅태

종사관 아오지만호 최 암

### 4) 그밖에 본 싸움에 참가한 중요 장령

방원만호 한인재

혼 용 침 사 김 자 보화권관 이언보 적과권관 함이량  
 미 전 침 사 김범황 훈련봉사 황사원 아산만호 박근수  
 안 원 권 관 강문우 건원권장 차웅린 노지권관 유대남  
 신림과만호 한대방  
 급 제 한연세 사하북권관 정몽진  
 덕만동보권관 박명세 오촌부권관 이준문  
 옥련만호 안 옥 내 금 위 김천석  
 주을만호 김명신이였다.

#### 5) 싸움전개

최초 접전은 북병장 김국신이 거느리는 북병부대의 監視線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의병진의 배치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적은 방심한 상태로 길주를 향하여 북진하다가 우리 북병에게 집중공격을 받아 수명이 즉사하고 조직적인 대응을 포기한 채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본 김국신이 수습기를 거느리고 추격하여 적을 아군의 포위망 안으로 몰아넣고 총성을 신호로 삼위가 일시에 일어나 좌우 전후에서 일제 공격을 시작하였다. 김류와 한인제, 김범황 세사람이 먼저 뛰어들어 騎馬勢로 유린하여 적의 기세를 제압한 다음 활을 쏘며 저항하는 적병을 베어나가고, 함이량은 삼지창을 휘두르며 강문우와 함께 적을 보는대로 격살하고 李鵬은 장창을 휘둘러, 대도를 뽑아들고 저항하는 적장을 찢러 떨어뜨렸다. 이언보는 말을 탄 채 언월도로 적을 베는 등 일거에 적 100여기를 섬멸하자, 이어 제2진 200여명이 대열을 정비하고 조총과 활을 쏘며 저항하였다. 유대남이 탄 말에 적탄이 명중하자 적장 하나가 창을 가지고 돌진하여 위태로워진 상황에서 황사원이 흑각대궁을 쏘아 넘어뜨리고 다시 유대남이 재빨리 적장의 머리를 베었다. 한대방, 한연세, 박명세 역시 적의 기세를 제압해 나가고 한몽운도



그 뒤를 따라 적의 목을 베어나가니, 마침내 적의 제2진의 저항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대장 鄭文孚가 북을 울려 총공격을 명령하니 유경천, 허대임, 오웅태, 김경복 등이 돌격하고 안옥과 이능운이 피뎀은 칼로 적을 베어나갔다.

적의 마지막 일진이 최후의 돌격을 해오자 정견룡, 오명수, 이계남이 400여명을 거느리고 마주 쳐나가 드디어 적의 중앙을 돌파하니 피아간 치열한 백병전이 벌어지고, 김명룡은 철퇴로 김원석은 적장으로 부터 빼앗은 대도로 닥치는 대로 치니 시체가 산을 이루고 사상자의 피가 눈에 낭자한 가운데 적은 할 수 없이 물러나기 시작하였다.

## 6) 전과

적의 수급만 100여급에 이르러 적병의 왼편 귀를 함봉하여 승리의 장계와 같이 행재소에 보냈다.<sup>19)</sup> 宣祖實錄 8권에는 斬 60급이라고 되었으나 농포집 3권에는 「三衛斬及 城中留賊出沒 時捕斬 合百餘級」이라고 기록되어 이를 따랐다.

## 8. 길주성 남문밖에서의 싸움(선조 26년(1593) 기사 1월 19일)

### 1) 장령

우리나라

북병장 원충서(의병대장 종사관)

병 력 10여명

### 2) 적군

가등청정의 부장

\*\*\*

19) 北關誌 吉州編 農圃集 卷3, 宣祖修正實錄 卷 26 宣祖 25년 10월 李炯錫 壬辰倭亂史(上)

## 병 력 100여명

### 3) 전투상황

鄭文學는 지난해 12월 10일에 길주 쌍포(임명) 부근에서 적을 크게 격퇴한 후 계속하여 길주성을 포위한 채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에 이르러 적은 給水源과 보급선을 끊긴 채로 엄동설한을 견디며 사기와 군세가 거둬 침체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명의 구원병이 조선에 참전하고 마침내 평양성을 탈환했다는 소문이 돌리어 적의 기세는 날로 떨어졌다.

### 4) 싸움의 전개

1월 19일에 복병장 원충서는 수십기의 복병을 거느리고 길주성 남문 밖에 잠복시키면서 성안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는데, 적병 100여명의 일대가 불시에 성문을 열고 돌진하여 남문 밖 10리쯤 되는 곳까지 출격하였으나 아군은 이 적을 깊이 유인하여 그 퇴로로 끊어버리고 포위 섬멸하기 위하여 일부러 결전을 피하면서 남쪽으로 적과 접촉을 유지하며 유인하기에만 힘쓰고 있었다. 이때 적장이 단기로 직접 나와 아군사항을 정찰하려고 나오는 것이었다. 이에 복병장 원충서는 정기 10여명을 거느리고 적장을 그대로 둔 채로 일시에 고함을 지르면서 쳐 나오자 적장은 우리의 이와 같은 계획을 모르고 한꺼번에 날아드는 화살에 말이 놀라 내뿜자 그의 겹을 뺄 새도 없이 낙마부상하였다. 이것을 바라본 적병은 조총을 쏘면서 급히 돌진해오자 피아간에 조총과 화살의 접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를 본 적병이 급히 적장을 구출해가지고 도망치려는데 중성갑사 신수가 쫓아와 대검일격으로 군사 한명의 목을 베자 적장을 내던지고 도망치자 우리 군사들이 일제히 화살을 쏘아 넘어뜨리고 다음 가까이 가서 목을 베려고 할 때 적병 수

십명이 나타나 신수를 포위한 채로 생포하려 하였다. 이때 우리 북병수십이 활을 쏘아 중수를 위기일발에서 구해내고 적은 적장을 내버려둔 채로 도망쳤고 이때 다른 북병들이 뛰어들어 전후좌우에서 활을 쏘아 퇴로를 막으니 적은 저항할 새도 없이 남문을 향하여 도망쳐 들어갔다. 이로써 적을 놓치고 말았는데 적 역시 성문 돌파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감히 출격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5) 전과

이때 우리 의군이 올린 전과는 금의 3별, 안장 1개, 승마 1필, 적장의 왼쪽 귀 이번 싸움으로 성안의 적병의 사기가 떨어지기 시작하여 10일 후 백담교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도리어 길주성을 버리고 퇴각하게 하였다.<sup>20)</sup>

9. 端川 부근의 싸움(선조 26년(1593) 1월 23일)

1) 장령

(1) 우리나라 오촌권관 구황 조산만호 인원침

사촌동권관 고경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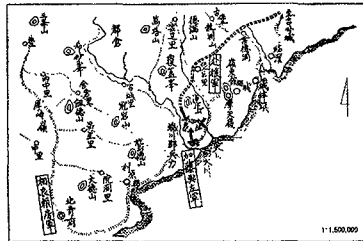
중성부사관사급제 박온주

단천군수 강 찬

병력 250여명

(2) 적군 상황

가등홍좌



▲ 단천 부근의 싸움

※ ※ ※

20) <農圃集 卷3, 宣祖修正實錄 卷29, 宣祖 26년 1월 북관지 상등>

구과광룡  
병력 800여명

2) 싸움 전

단천군에서는 가등청정의 부장 가등홍좌가 거느린 적병 900여명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단천군수 강찬이 의병대장 鄭文孚를 찾아와서 의논하기를 단천에 주둔하고 있는 왜적이 제멋대로 부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약탈과 폭행을 함부로 하고 있어도 단천의 우리 군은 겁을 먹고 싸우기를 기피하는 형편이므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으니 鄭文孚군의 응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鄭文孚는 여러 장령의 의견을 듣고 응원병을 보내기로 하였다.

3) 편성

鄭文孚의 의병진에서는 정병 200여명을 뽑아 이를 4개대로 편성하여 단천에 파견하였는데 이의 지휘부서는 다음과 같이 배정하였다. 파견된 각대 병력은 각각 기마병 50명씩이었다.

제1대장 구 황 제3대장 인원침  
제2대장 박은주 제4대장 고경민

4) 싸움 전개

1월 20일에 다신리를 출발하여 22일에 단천군에 도착한 의병 파견부대는 군수 강찬과 작전 협의를 끝내고 23일 일찍부터 4대의 장병들이 모두 성밖 20리인 마걸(단천군 파도면)에 잠복하고 단천 관군 20여명으로 하여금 성밖 5리쯤에 나가서 성안의 적에게 도전케 하였다. 적은 여러번 쉽게 이긴 경험이 있어 우리 군병을 가볍게 여기고 200여명이 일시에 성문을 열어제치고 뛰어 나왔다. 단천 관군은 거짓 패

한 듯이 철수하면서 잠복하고 있는 의병 파견군 쪽으로 유인하였다. 이때 뒤떨어진 일부 단천군이 적에게 추격되어 장렬하게 전사하자 기고만장한 적은 안심하고 마침내 우리 작전대로 구원군이 잠복한 지점까지 유인되었다.

적의 접근이 완료되자 4대의 복병이 일제히 돌진하여 앞뒤 끊고 공격하니 적은 졸지의 조직된 공격상황에 당황한 나머지 저항을 포기하고 다시 성안으로 그냥 도망쳐 들어가려 하였다. 그러나 치열한 공격을 받아 그 주력이 궤멸되어 겨우 30여명만이 부상한 채 입성하였고, 우리는 적의 시체 100여구를 전과로 수습하였다. <鄭文孚가 장계한 내용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 5) 확인된 의병진의 전과

제1대 원편 31 제2대 원편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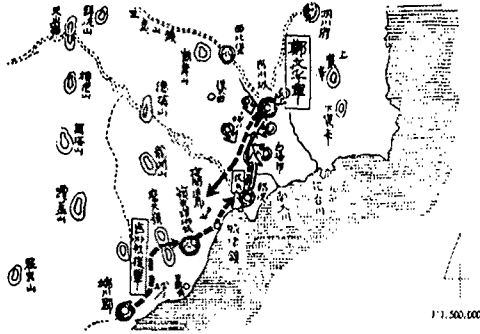
제3대 원편 15 제4대 원편 1 계 원편귀 61

이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구원군은 단천부근에서 적의 동정을 계속 하여 수색하면서 치안 확보에 힘썼다.

한편 가등청정은 길주 일대의 긴급 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구원하기 위하여 부장 佐佐政元 등으로 하여금 정병 수백명을 거느리고 북상케 하였으며, 鍋島直茂의 부장인 龍造寺家勝도 군사를 이끌고 같이 북상하여, 구원군은 이들과 접촉을 유지하면서 일단 명천으로 귀환하였다. 그리고 바로 5일 뒤엔 이들 북상하는 왜군과 우리 의병사이에 1월 28일 백담교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다.<農圃集 卷3 北路奇略 卷4 등>. 이상에서 본것과 같이 단천군수의 요청에 따라 의병장 鄭文孚가 병을 내어 왜적을 쳐 물리쳤으며 이때 단천군수는 관군을 20명밖에 못낸 것으로 보아 그 전과가 鄭文孚에게 있었으나, 尹卓然이 단천군수 강찬

이 이겼다고 변조 허위 장계하였다.

### 10. 白塔郊 싸움(선조 26년(1593) 기사 1월 28일)



▲ 白塔郊 싸움

#### 1) 장령

우리나라 의병대장 鄭文孚

고령첨사 유경천(좌위장)    경성부사 정견룡(중위장)

훈련판관 원충서(중사관)    경원부사 오웅태(우위장)

훈련원첨정 박은주            오촌권관 구 황(복병장)

길주군관 김국신(정찰장)    사동권관 고경민

관    관 인원침                  첨    사 강문우

별    장 이봉수                    만    호 이희당

북    우 후 한인제                학    유 이성길

#### 2) 적측

가등청정 군                    단천수장 가등여좌

길주수장 가등우마운        구원대장 좌좌정원

길주수장 가등안정            구원대장 용조사가등

### 3) 전투상황

鄭文孚의 의병은 길주성을 겹겹이 포위한 채로 임진년을 보내고 계사년(선조 26)을 맞이하였는데, 아직 성을 지키고는 있으나, 식량과 마량(말먹이), 연료, 식수 등 일체의 보급이 끊어진 상태에서 수성 적군의 상태는 점차 절망적인 것으로 되어갔다. 안변부에 본진을 두고 있던 가등청정은 이와 같은 길주성의 위급상황을 보고받고, 함흥에 주둔하고 있는 룡장(僚將) 鍋島直茂과 협의하여 본진의 군사를 이끌고 함께 길주의 부하들을 구원하고자 하였다.

이무렵 한양의 왜군 총사령부로부터 한양 방면으로의 전선 축소 방침과 함께 철퇴 명령을 받게 되고, 1월 초순에 평양으로부터 小西行長이 퇴각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이제 북방 전선에서 왜병이 장악하고 있는 곳은 함경도 일대 뿐이라는 사실에 당황한 가등청정은 우선 그의 부장 좌좌정원에게 정병 수백명을 주어 길주 구원에 나서게 하였고, 직무 의리상 과도직무 역시 그의 부장 용조사가등에게 약간의 군사를 이끌고 이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단 이와 같은 실상을 숨기고 겉으로느 가등청정이 함북지방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직접 북진한다고 선전하였다.

1월 23일에 단천싸움에서 패주한 적장 가등여좌가 북상해 오는 왜군과 합류하여 鄭文孚의 단천 파견군을 압박하자 아군은 서서히 후퇴하며 적과의 정찰 접촉을 유지하며 적군의 군세 전모를 완전히 파악하여 27일 경에는 마천령을 다시 넘어 명천의 鄭文孚에게 자세한 적정을 보고하였다.

이날 왜군은 살을 예는 모진 흑한에 시달리며 천신만고 끝에 마천령을 간신히 넘어 영동관 책성을 수비하던 적병을 길잡이로 하여 길주성 방향으로 북상하여 왔다. 이때 의병장 鄭文孚 본영에서는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고 삼위의 전 병력 3,000여명을 출동시켜 27일 저녁 무

렵에는 <임명>에 도착, 이곳에 정기 600여명을 복병으로 배치한 채 전투 포진을 끝내놓고 있었다.

왜병이 접근하자 복병장 구황이 일시에 강궁을 쏘아 선두에 섰던 적을 제압하였다. 왜병들은 이때 흑한으로 조총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고 급습에 놀란 마필을 제어하지 못하여 주력이 혼란에 빠졌는데다가 이를 틈타 박은주, 강문우, 인원침등이 적진에 뛰어들어 분전하고, 김국신 역시 기마로 적을 충돌하여 적을 궤멸상태로 몰아갔다. 백택교 근방에서 적의 진로를 차단하며 시작된 전투는 진시(오전 8시)에서 유시(하오 6시)까지 60여리의 전장을 따라 격렬히 진행되었고, 아군에서도 장수 이희당과 이봉수가 조총의 집중사격을 받고 장렬히 전사하였다.

원충서는 복병을 지휘하여 돌격을 감행하여 용명을 떨쳤고, 이성길의 분전이 돋보였다. 적장 좌좌정원과 용조사가승은 간신히 혈로를 뚫고 해질 무렵에야 겨우 길주성으로 들어갔다.

응원병력과 수비병력이 합세하여 적의 병력 증원되고 여러 차례의 거듭되는 전투로 지친 아군의 전투 역량 저하를 감안한 의병대장 鄭文孚는 왜병들이 길주성에서 대오를 정비하여 반격할 경우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 일단 길주성 포위를 풀고 명천으로 물러나 전투 태세를 정비하기로 하였다.

한인제 등이 「적은 반드시 퇴각할 것이니 여기에서 감시하면서 밤을 새워 적정을 살피다가 그들이 철수한다면 곧 그 뒤를 쳐서 모조리 격멸하는 것이 좋겠다.」며 강력히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으나, 鄭文孚는 군사와 장령을 모두 명천으로 물렸다가 다시 중성부에서 본진을 휴식하며 재편하기로 하였다. 이 사실을 오해한 명천과 경성의 백성은 대장이 쫓겨온다고 크게 동요하여 산으로 피난하는 일이 벌어져 흑한과 빙설에 일부 백성이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한인제는 보졸 30여명을 데리고 길주성을 바라볼 수 있는 지점에 잠



북, 적정을 탐지하고 있었는데, 이튿날 아침 29일, 척후가 돌아와 「길주성 안에서 불꽃과 연기가 충천하고 있다」고 보고하여 급히 성안으로 들어가니 적 수비병은 이미 하나도 없고 성안이 텅 빈 상태로 20여명 병약자만 남아 있어, 이들을 포로로 한 후, 불을 꺼 관서나 곡창을 온전히 보전하였다.

적병은 밤새도록 시체를 모아 화장하는 한편 황급히 서둘러 철수를 시작한 것으로 밤새 미처 취사를 마련할 새도 없었던 것 같다. 이와 같은 사실을 급보로 鄭文孚에게 보고하자, 그는 몇몇 장령을 거느리고 달려와 그의 손을 잡고 사과하면서 「그대가 이렇게도 신명처럼 적정을 판단하고 야간철수를 예언할 수 있었는가? 또 입성한 다음에 이렇게 적절히 조치하였다.」 하면서 칭찬하는 한편 「내가 북쪽으로 가는 것을 굳게 막은 장령이 어찌 없었는가?」하고 한탄하였다.

길주성을 수복한 한인제는 남쪽으로 퇴각한 적을 쫓아 일거에 잡아 남김없이 무찔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鄭文孚가 또다시 염려하여 말하기를 「북쪽에 있는 오랑캐들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고 하니 이제 전력을 다하여 적을 놓친다면 북관이 텅 빌 터이므로 이것이 걱정이요」하며 한인제의 군사만을 돌려주어 그로 하여금 적을 쫓아가게 하였다.

적은 이미 단천군, 이원군, 북청군, 통원군 등에 있던 주둔 병력을 모두 한양으로 철수시켰으며 이유일이 또한 적을 추격하려고 하였으나, 남병사 겸 대장이었던 성현문이 이를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병력을 빼앗아 과감한 추격을 하지 못하여 허둥지둥 남쪽으로 후퇴하는 적을 놓치고 말았다.<sup>21)</sup>

#### 4) 전과

※ ※ ※

21) <農圃集 卷3, 宣廟中興之卷 三 宣祖修正實錄 卷 27 北關誌(上) 吉州雜記, 海東名將錄 李炯錫 壬辰倭亂史(上)>

우리병사 25명이 전사하였으나 적의 머리 9를 베고 전마 15필을 빼앗았으며 성에 입성하니 적은 자기들의 시체 100여명을 불태우다 도주하였다.

이상과 같이 義兵將 鄭文學의 咸關嶺 地域에서의 活動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鄭文學가 올린 赫赫한 戰果가 사헌부에 의하여 여러번 파면이 상신된 부패한 것을 비롯하여 심지어 日本을 모시고 오다가 왜적이 침입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거짓병이라하고 삼수갑산으로 도망칠 정도로 忠義를 버린 감사 卍卓然의 변조 축소 거짓으로 올린 장계만을 믿고 의병장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등으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옳은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근래 日本에서 발견된 文獻에 따라 壬亂에서 義兵들의 活動의 큰 比重이 밝혀졌다.

더군다나 鄭文學의 咸關嶺 地域에서 우리나라 침략군 가운데 전쟁광(狂)으로서 이름 높은 李戰論의 제1자인 동시에 주력부대의 하나로 2만여 왜병을 鍋島와 같이 이끈 「인왕산 호랑이를 加服清正이 다잡아 갔다」고 할 정도로 우리 국민이 다 아는 加服清正와 싸워 連戰連勝한 戰果를 前章에서 언급한것과 같이 사실로서 밝혀졌다. 즉 일본 文獻에서 밝혀진것이 5,490여명의 凍殺者를 냈다는 것을 밝힌것으로 보아 鄭文學가 장계한 왜적의 참획수는 사실과 일치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으로 보아 宣祖實錄에 記錄된 鄭文學의 참획수(수급수)는 잘못 기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로써 鄭文學의 赫赫한 義兵活動은 李舜臣·權慄과 같이 앞으로 많은 研究가 이루어져 사실이 밝혀져 국민으로부터 推仰을 받아야 한다.

## 제6장 六鎭咸關嶺 천리땅 수복 후 관직에 돌아가다

### 1. 공을 영흥부사에 제수하다(선조 27년(1594)) 3월)

1) 공의 사실상의 고향은 松山이다.

선조 26년(1593) 1월 8일에 평양이 수복되고 동년 2월 12일에 행주에서 왜적이 대패하고 동년 4월 18일 왜적이 한성에서 철수하자 동년 10월 15일에 선조께서 漢城에 천도하였으며 6월 9일 제2차 晋州城 싸움이 있는 3년후. 선조 30년(1597) 1월 15일 정유재란이 일어나기까지 일시 소강상태가 계속되었다. 특히 선조 26년(1593) 1월 27일에 義兵將 鄭文學에 의하여 關北地域이 완전히 수복되자 동년 3월에 이 지역의 한 고을인 永興府使를 제수받은 이후 인조 2년(1624) 11월 19일 詩禍사건으로 억울하게 杖死될 때까지 선영에 있는 松山에서 시묘살이를 비롯하여 광해조 때에는 광해군의 패권을 반대한 나머지 세상을 멀리하고 선영이 있는 松山에서 시주를 벗삼아 세월을 보냈고 사후에도 역시 이곳 松山에 있는 선영에 모셔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선조 26년(1593) 1월 12일에 鄭文學에 대하여 藥峰(藥峰) 서성(徐省)이 아뢰기를 「...순변사 李瑛이 종사관으로 회령에 들어갔다가 왕자가 잡히고 諸臣이 사로잡혀 옥을 당하기에 이르렀는데, 유독 臣등 몇몇 사람은 화를 면하여 뻘뻘한 낮으로 살기를 탐하였으니 일반 사람

들의 반열에 있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지난번에 북평사 鄭文孚와 함께 군사를 일으켜 적을 토벌하였다는 이유로 신의 전후 죄를 살피지 아니하고 신의 직명을 회복시키고 신에게 召募使라는 호를 내리셨는데 … (略)…죄가 있는 사람이 죄를 무릅쓰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의직을 삭탈하고 신을 법관에 회부하여 형광을 바로 잡으소서」 하였으나 불허하였다. 이와 같이 徐潯이 鄭文孚와 같이 義兵을 일으켰다고 하여 간접적으로 鄭文孚의 大將 추대가 옳은 것이라고 한 것이라고 본다.

持平徐潯啓曰臣當初扈駕到碧蹄館聞隊水病重私歸省視將行化路出鐵原～同人會寧至於王子崗執寧臣庶民等而獨臣等數人免禍～北評事鄭文孚起兵討賊不察臣前後～以有罪人而出居乎請削臣直司答曰勿退府以正章侍物論(宣祖實錄 34卷 26年 1월)

○ 선조 26(1593) 2월<sup>22)</sup> 12일에 해주산성에서 權慄이 왜적을 크게 이기다.

○ 2월 19일 일본은 해주산성의 패전과 함께 한양에서 철수하였다.<sup>23)</sup>

\*\*\*

22)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함경감사 卍卓然이 ~ 이방면의 때를 당하였으니 마땅히 백성을 구휼할 것임에도 체면만 차리고 종전의 탐오하고 법잡한 행동을 버리지 못하고 붉은 칠한 옥교를 타고 다니며 각군현에서 무엇을 거두고 있으니 백성들의 원망이 노년에 가득합니다. 파직을 명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상께서말하기를 「감사가 비록 할 일이 없다고 하여도 어찌 이런 때를 당하여 주칠한 옥교를 타고 민간에 놀러 다닐 수 있겠느냐. 필시 거짓말일 것이니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해라」하였다.(선조실록 38권 선조 26년 5월)

23) 전감사 卍卓然이 도처에서 탐오한 것을 하였으니 경상감사로 있을 때도 크고 작은 죄를 지은 자로부터 목면(木棉)을 받고 그 죄를 모두 풀어 주었음으로 영남사람들이 말하기를 속목감사라는 별명 입습니다. 「前監司卓然 到處貪評曾慶尙監司??罪人大小人皆以木棉贖之 嶺南之人 謂之贖木監司」(선조실록 56권 선조 27년 10월)

## 2) 선조 26년 2월 27일

선조께서 말씀하시기를 「북도의 순찰사(尹卓然)과 평사(鄭文孚)의 사이가 좋지 못한 것 같은데 무슨 연유냐고 물으니까 심우승이답하기를 「당초 대장(의병대장) 칭호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자尹斗壽가 아뢰기를 「鄭文孚의 공이 큼니다.」고 하였으나 국왕께서 아무 말씀이 없는 것으로 반대하였으니 이것은 그간尹卓然의 그릇된 장계에 의한 것으로 본다.

## 3) 선조 26년 6월 6일

각전에서 승첩과 노획보고를 하였는데 단천군수가 115급이고공은 185급이라고 하였고 영흥부 절제사 이여량등 고원땅에서 185급 우후한인제가 65급 안변부사 최진이 관병을 시켜서 철령에서 95급을 빼었다고 선조실록 39권 26년 6월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尹卓然이 사실을 사실대로 장계하지 않고 변조하여 보고한 내용으로 본다.

○ 6월 28일 명나라와 일본과의 회담하다.

## 4) 선조 27년 2월 4일

북병사를 임명하는데 선조께서 「…장재를 가려 썼는데 우리나라에서 가리지 못하니 이는 그만한 사람이 없어서인가 아니면 있어도 몰라서 그런 것이냐고 묻자 유성룡이 말씀 올리기를 …강찬(옛 단천군수)같은 자는 … 왜적을 방어할만한 능력이 있다고 하나 鄭文孚 같은 자는 북도에 있을 때 일을 주관하는 재능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신은 그들이 실제로 장수의 재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애매하게 천거하자 상께서 이에는 대답없이 북병사(종2품)는 누가 할 만 하느냐고 간접적으로 鄭文孚를 반대하여 결국은 북병사에 임명되지 못하고 영흥부사(종3품)에 임명되었다.

## 5) 선조 27년 9월 3일

충청병사를 차출하는데 선조께서 누가 할만한 자가 있는냐고 물으며 무신이 없으면 문신도 좋다고 하기에 유성룡이 「…鄭文孚가 있다」고 하였으나 상께서 대답하지 않았다. 공께서는 한가한 때 시로서 풍류를 즐겼으니 영홍재임중에 지은 시 몇수를 소개한다.

諸葛前身子後身  
 莫時分作古今人  
 從古好爲梁甫詠  
 至今猶願見陽春

동망을 조롱하는 시  
 제갈양은 전신이고 자네는 후신  
 고금의 두사람으로 나누려 마소  
 옛적의 그이는 양보음 좋아 읊더니  
 오늘의 이 친구는 양춘이 소원이라.

## 6) 선조 27년 9월 16일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외방 진관의 법은 군정 가운데 가장 큰 일입니다. 근래에 흩어지고 기강이 없어져 끝내 1.崩瓦解되어 수습할 수가 없어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법규에만 얽매어서 개척과 진치가 부실하니 이를 진작시키지 못하여 근심입니다. 지금 길주목사 鄭文孚가 이미 내려갔습니다. 문부의 재기는 이 일을 감당할 만 하니 이 뜻으로 본도 감사에게 회유하여 문부로 하여금 전적으로 소속된 곳의 군정을 다스리고 퇴폐된 것을 정돈하게 하여 성취된 단서를 이루게 한 다음 열읍으로 하여금 본받아 행하게 하소서」하자 상이 이에 따르

니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선조는 鄭文孚의 능력을 익히 아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온성부사에 제수되다(선조 28년(1594) 6월)

### 1) 선조 28년 2월 2일

정탁이 아뢰기를 「鄭文孚는 북도에 있을 때에는 맨손으로 큰 공을 세웠는데 길주에 있을 때에는 백성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장계가 있습니다. 그 사이의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이같은 사람도 쉽게 얻을 수 없으므로 비변사에서 말한대로 그대로 재임시키고자 하였는데 일이 중대하여 그렇게 못하였습니다.」

선조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듣기에는 그렇지 않다. 북도의 일은 바로 정견룡 등의 공이요 鄭文孚는 남의 힘으로 일을 이룬 것이라고 한다」라고 하자 이항복이 말하기를 구황이 북도의 권관으로 있을 때 그 堡 토병을 많이 거느렸으며 인원심은 다년간 군관을 하면서 또한 토병을 거느렸으며 이 두 사람이 좌우척후가 되었고 거느린 군사도 모두 날쌔고 용감스러웠기 때문에 적을 벤 공이 크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항복까지도 윤탁영의 장계만 믿고 다른 재신의 의견을 안듣고 선조에게 올바른 직언을 못하니 이것은 임금을 충심으로 모신다고 하기 어렵다.

### 2) 선조 28년 6월 15일

함경도 관찰사 洪如淳이 선조에게 말씀드리기를, ‘신은 일찍이 북방에서 임무를 맡은 적이 없어 그곳의 일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오랑캐가 오래 머물렀기에 육진이 텅비고... 왜구가 승승장구하여

들어갔을 때 국경인이 나라를 배반하고 … 반민들이 입성을 강청하는 것으로 청정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부하 왜놈을 시켜 왕자와 제신이 구류된 곳에 들어가 즉시 풀어주게 하면서 왕자는 국왕의 아들이요 제신은 존귀한 사람인데 너희가 어떻게 구급하였는가 하였습니다.

또 胡敵들이 번번히 침략해 들어오자 국경인이 청정에게 군대를 동원하여 물리쳐 달라고 청하자 청정이 우리 나라 사람을 선봉으로 손수 검을 빼들고 들어가 싸웠는데 우리 나라 군사는 소문만 듣고도 무너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胡人들이 끝까지 맞서 싸우다가 끝내 경인에게 하소하여 성이 함락되어 거의 다 도산되었습니다. 왜적의 죽은 자도 많았는데 왜적이 도로 나와 해변을 향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적이 길주에 둔치고… 경성사람들이 의병을 일으켜 길주와 명천의 경계선의 장덕산 아래 복병을 설치하고 추격하여 남김 없이 모두 섬멸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관복이 대첩으로 큰 공로를 세운 것입니다.

이에 공론이 일어나 모든 사람의 말이 한결 같았는데 그 군중이 지금까지 수년이 되도록 조그만 상조차 없으니 이것이 장사들이 맥 풀어지게 된 원인입니다. 그때 정문부와 윤탁연이 서로 알력이 있어 화목하지 않았기에 정문부가 보고 한 것을 윤탁연이 고쳐 마련하고 덮어 두었으니 상이 고르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서 연유합니다. 라고 아뢰었더니 선조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은 오로지 감사의 성심이 어떠하나에 달려 있다' 하시고… 이 뒤로는 「남의 잘못을 말하지 말라」 하였다. 이 역시 선조께서 이에 사실을 조사할 생각보다는 윤탁연 하나의 장계만 믿는 데에서 진실을 잘못 파악한 데에서 나오는 국정 수행의 과오라고 할 수 있다.

○ 온성부사 재임때 지은 시



到穩城復甲前韻  
 侍劔鉤等臨萬城 烹龍炮鳳膾長鯨  
 滄溟水作一杯酒 倒向將軍胸裡傾

온성에 이르러  
 칼짚고 만리성에 올라왔거니 용끓이고 붕굽고 고래 회쳐  
 저푸른 바닷물을 술한잔 삼아 장군의 가슴속에 부어 볼거나

重到鐘城武溪哀李監察鵬壽  
 入門魂魄相僞位  
 有老兄存母亦違  
 千載長巡與許遠  
 遠九重泉路徇同歸

온성 무계에 들어 이감찰 봉수의 순국을 애도하다.  
 문에 들자 혼백이 눈에 선 한 대  
 늙은형만 남겨둔채 어머니도 저버렸네  
 천년을 통하여 오직 장순과 허원인데  
 저승길 행여 함께 갈 수 있으려나

3) 공께서는 임난때 기병한 경성(경성)으로 가서 어랑리에서 이봉수(이봉수=감찰에 추증)가 나라를 위하여 장렬히 전사 순국한 것을 애도하고 시를 지었으니 즉 선조 26년(1593)년에 백담 싸움에 봉수와 이희당이 먼저 전사하였기로 장순(장순)과 허원(허원)에 비겨 시를 쓴 것이다.

### 3. 길주 목사에 제수되다(선조 29년(1596) 병신 3월)

1) 온성에서 1년 9개월만에 길주목사를 제수받았다.

2) 조정에서는 임난후 인심이 안정되지 않아 공으로 하여금 관북 여러 고을에 옮기면서 이들을 어루만지게 한 후 다시 길주에 돌아가도록 하였다.

3) 부임할 때 지천(芝川) 황정육(黃廷戔)이 작별시를 써 선정을 칭찬하였으며 공께서는 한인간(韓仁侃) 부처를 관사에 초대하여 전날의 후의에 보답하였다.

4) 이 고을 재임 중에 조련당(操練堂)을 창립하고 정사 맡은지 1년만에 은혜와 위험이 아울러 현저하여 관리와 백성이 모두 두려워 하였다.

5) 어사 유인길(柳寅吉)의 선생의 치적을 조정에 장계하여 상께서 안팎 옷감 한 벌을 하사하여 포상하였다. 공께서 떠나자 유애비(遺愛碑)를 세웠다.

### 4. 공주목사에 임명되다(선조 29년(1596) 11월 )

1) 이때 조정이 지방 진관(鎭管)의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서애(西涯) 유성룡이 공의 통솔이 법도 있음을 들어 위에 아뢰어 군정을 정돈하게 하여 여러 고을로 하여금 본받게 하였다. 이때 공을 공주목사로 임명한 것은 정유재란이 일어나 왜적이 쳐들어 오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하여 북방에서 왜적을 격멸하는데 뛰어난 전략을 보고 이곳에 임명한 것으로 본다.

#### 2) 선조 29년(1591) 11월 17일

우부승지 우준민이 회령부사의 천거를 받아서 선조께서 전교하기를 이광악이 남방에서 쓸만하여 시킬 수 없다고 하니 어쩔 수 없지만 鄭文孚는 마음 쓰는 것이 간사하고 말만 잘한다. 전에 북방에 있을 때 남의 참획을 빼앗아 제공을 만들어 신보하여 후한 벼슬을 받았고, 길주 목사가 되어서는 터무니없이 조세를 거두어 들였다.

어떤가 어떤 사람은 鄭文孚가 북도에서 이긴 것은 남 때문에 이룬 것이고 본시 그의 지용이 아니라 하니 또한 어떨는지 모르겠다. 다시 헤아려서 아뢰라고 하며 공의 회령부사 임명을 반대하였다.

○ 1월에 또다시 왜적이 쳐들어오자 원균이 경상우수사겸 통제사가 되어 거제 칠원에서 싸우다가 패배 전사하자 다시 李舜臣을 삼도통제사로 임명하자 9월 16일에 노량 앞바다에서 왜적을 대파 크게 승리하였다.

#### 3) 선조 30년 1월 26일

선조께서 좌부승지 유명순에게 전교하기를 「지금 적세가…임진년과 다름없다. 북병을 더 뽑는 일을 다시 의논하여 속히 처리하라. 길주목사 鄭文孚에게 스스로 군사를 골라오게 할 것을 다시 의논해 처리하라」 「강찬은 아직까지 탈상하지 않았는가? 급히 기록시켜 다시 부를 것을 비변사에 말하라」 하시었다.

#### 4) 선조 30년 3월 28일

선조가 전교하기를 길주목사 鄭文孚가 뽑은 북병을 이수일에게 맡기기를 비변사에게 아뢰라고 하였다. 「길주 목사 鄭文孚는 북도에 오래 있어 북부 군병의 용병을 잘 알고 있으니 그로 하여금 군병을 뽑아 거느리고 오게 하였다. 그러나 鄭文孚는 일개 서생일 뿐 군사를 거느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따로 품계 높은 무신을 골라 장군으로 정하여 鄭文孚가 거느리고 온 군사를 거느리고 남하하게 하소서. 북병이 매우 허술하니 鄭文孚는 즉시 환임하도록 하소서. 그리고 회령부사 이수일이 군심을 얻었으니 그로 하여금 거느리고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하고 아뢰자 선조께서 그리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鄭文孚가 서생으로서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고 비변사에서 올렸는데 이것은 의병장 때 尹卓然, 정현룡으로 의병장을 바꿨다가 이를 감당 못하자 다시 鄭文孚에게 의병장을 환원시키어 그후 많은 전과를 올린 것을 尹卓然 변조 축소 모함하여 올린 장계를 비변사에서 그대로 믿었거나 아니면 尹卓然의 측근으로서 공모한 것이 아닌가 한다.

### 5) 선조 31년

명나라 장수 佚이 왜적을 추격하여 공주에 이르므로 공께서 마음을 다하여 공사와 아울러 편의를 보아 주자 명나라 장수가 이를 고맙게 여기고 시를 짓고 공이 그 음차를 따라 시를 지었다.

#### 次 天將韻(공주)

將軍才調武兼文 說鈞論詩兩絕群  
 玉節遙分遼寒日 金鞭直指錦江雲  
 皇家綏遠仁無外 海寇窮兵勢自焚  
 退却秦軍三寸舌 九重歸秦聖明君

<공주에서>

당나라 장수의 시에 차운한다  
 장군의 재주 문무를 겸하고  
 병술도 문장도 따를자 없도다  
 옥적은 멀리 요새의 달을 갈랐고  
 금편은 곧장 금강의 구름을 가리켰지  
 황제의 어진 정사 가이 없으니  
 왜구의 궁한 세력 스스로 사라지네  
 진나라군 물리친 세치혀로  
 성군께 돌아가 공을 아뢰소서

次 天將韻 公州將

城枕錦江流 錦江流不休  
 烟波橫一帶 風月自千秋  
 碧柳迎裊 青山入望稠  
 不妨形勝地 佳客作嬉遊

당나라 장수의 시에 차운하다<공주에 있을 때>

산성 밑의 금강 물  
 쉬지 않고 흘러만가네  
 연파는 한 지역에 비겼고  
 풍월은 만고에 변함이 없네  
 푸른 버들 봄을 맞아 하늘 그리고  
 푸른산 눈앞에 뻣뻣하게 보이네  
 나무랄데 없는 명승지에  
 고운님의 놀이를 즐기네

## 5. 목사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오다(선조31년(1598) 11월)

## 6. 장예원 판결사(정3품)를 제수 받고 이어 호조참의(정3품)에 임명되었다(선조 32(1599)

동년 11월에 증문과 증시에서 장원급제하였다. 시제(詩題)는 「백수 동야직」

「1편 부운장소전집」

「백수로 밤 숙직을 같이 하다」로서 한편 문단에서 많이 외우는 것이 되었다.

## 7. 선조 33년(1600) 용양위 부호군에 전직되었다

이때부터 호군 직에 발령되고 호판결사에 임명되어도 출근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다만 고을 사리로 부모님 봉양할 생각만 하였다.

## 8. 선조 34(1601)년 가선대부(가선대부)=종2품에 승진되다

이것은 복인(관북)들이 왜적을 파하여 이긴 공을 호소하여 제수받았다. 약봉(藥峰) 서성이 공에 대하여 교서를 지어 올렸다. 이때 조정에서는 공이 문학과 공적을 아는 이가 높은 자리를 주게 하고자 하였으나 공께서는 본시 명예와 이익에 뜻이 없어 일찍이 세류에 따르지 않고 아부하지 아니하여 크게 영진되지 못하고 관북(關北)에서의 임란 전공도 자랑하지 아니하여 남에게 말하지 않아 공을 아는 사람이 더욱 탄복하였다. 선조 35년(1602) 명나라 주지란과 같이 한강에서 배를 타고 고기잡이하는 것을 보고 같이 시를 지었다.

선조 35년(1602) 명나라 사신 주지란(朱之蘭)과 같이 한강에서 배를 타고 고기잡는 것을 보고 시를 지었다.

與天使朱之蕃 遊漢江

水藏蚊室千尋碧 山作雲屏幾壘張  
明月清風何用買 釣磯漁瀨卽爲鄉  
天教佳客舍收勝 物入新詩倍有光  
歸去九重青瑣直 也應飛夢到滄滄

물 밑에 교룡의 사는 곳은 천길이나 푸른데  
산을 두른 구름 병풍 몇겹이나 펼쳤던가  
밝은달 맑은 바람 무엇하러 사겠는가  
여울진 낚시터가 내고향이 되었는데  
하늘은 좋은 손님에게 아름다운 경치 거두게 하니  
모든 풍물 시에 담겨 배나 빛이나게 됐다  
대궐안에 들어가서 청쇠문에 숙직할 때  
응당 꿈속에선 이곳에 노닐겠지

出郭聊爲暇日遊 檐帳暫佳漢江頭  
瓊瑤猥荷新篇脫 稊稗翻將俚語酬  
同濟自慚非郭泰 此生何幸識荊州  
遙知聖主虛前席 肯爲東人作別愁

성곽밖에서 여가 날 즐겁게 노닐려고  
잠시동안 한강 머리에 수레 멈추었네  
칭아한 그대의 시는 구슬도 안았졌는데  
속된 나의 응답 모과로 갚게 되었네  
곽대가 못된 것이 무한히 부끄러우나  
다행히 내 평생에 그대를 알게 됐다

틀림없이 성주계선 앞좌석 비어두고  
동인을 위하여 하실 것이다.

## 9. 선조 36년(1603) 1월 중추부 동지(중추부동지=)에 임명되다

### 10. 松山(의정부 용현동)에서 시묘살이를 하다.

가. 선조 37년(1604) 8월 아버님이신 판서공께서 돌아가시자 10월에 양주밖에 있는 松山 선영에 모시고 시묘살이를 하다. 이때 지나치게 슬퍼하였다. 언제나 자제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다시 종아리를 맞고자 하나 때릴 할아버님이 안계시누나」하고 흐느껴 울며 이를 이기지 못하니 이것은 판서공께서 자제를 엄하게 가르쳤으니 조금만 잘못하면은 매로서 가르쳤기 때문에 공께서 아버님 그리워 하는 점이 한층 더 하였다. 이때 지으신 것으로 생각되는 시 몇수를 들어보면은

#### 營城深露 二首

秋草沒幽宮 瀼瀼零曉露  
偏霑孝子云 感物增哀慕  
芳草何萋萋 秋霜復看露  
行年五十餘 庶離終身慕

#### 산소주변에 내린 이슬

가을 풀에 유궁 묻히고 영농한 새벽이슬 떨어지누나  
산소찾는 아들 옷 이슬에 함빡 젖어 그리움만 더하고  
꽃과 풀은 이다지 우거졌을까 서리 내리면은 다시 이슬  
맺는걸

내 나이 50을 지났으나 생을 다할 때까지 사모함만 더하리



附次韻

風生宰木間點滴枝頭露  
孝思感秋聲區幾永慕

부차운시

재목(宰木) 사이로 부는 바람  
가지 끝에 이슬이 떨어지누나  
가을 소리에 느낀 효자  
몇번이나 슬퍼 하였던가

이와 같이 아버님을 그리워하는 효성이 지극한 나머지 3형제가 계시지만 유독효심이 강한 둘째 아드님이신 공께서 선조 39년(1606) 11월 4일까지 2년여 동안에 걸쳐 시묘살이를 극진히 하여 선영이 있는 곳을 효자봉이라고 하였으며 오늘에 와서도 옛 어른들은 그리 부르고 있다.

여

백

## 제7장 鄭文孚에 대한 재평가

### 1. 선조 수정실록을 살펴본다

이상과 같이 정문부를 둘러싼 선조 실록의 기록은 정문부의 업적이 과대 평가되었다는 선조의 기본 인식이 그의 관료 및 포상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상황을 행간에 깔고 기록되고 있으며, 특히 부정적인 부분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선조 실록은 광해조에 집권하였던 복인 세력에 의하여 역사적 사실들이 왜곡되었다는 평가에 따라 후에 집권한 서인 세력이 선조 년간의 사실을 재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고 이 결과 출간되는 것이 선조 수정 실록인데 이 수정 실록에 나타나는 정문부에 대한 재평가는 그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또 다른 시각과 몰랐던 다른 쪽의 저울대를 우리에게 제시한다.

참고로 1616년 기자헌이 편찬한 선조실록을 1643년(인조21)에 이석이가 수정하기 시작하여 1657년(효종 8)에 김육이 완성한 것이 수정 실록이다.

### 2. 수정실록기사에 나타나는 鄭文孚 관련 기사

#### 1) 선조수정실록 권 26(선조 25년 9월 1일)

함경북도 평사 鄭文孚가 군사를 일으켜 경성(鏡城)을 수복하였다. 당시 북계의 수장들이 모두 사인들에게 잡혀 왜장에게 넘겨지고 도망

하여 나온 자는 10명중 1-2명에 불과하였는데 鄭文孚는 형장을 쓰지 않고 校生에게 글을 가르쳤기 때문에 제자들의 비호로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지달원, 최배천 등이…(략)…鄭文孚를 추대하여 의병장으로 삼고…(략)…토병과 장사 수백명을 모았는데…(략)…강문우가 선두에 서서 경성에 이르렀다.

이때 국세필이 예백이라고 하고 병사의 인을 가지고…(략)…(府)를 다스리고 있었는데…(략)…군사가 이런 소식을 듣고 성문을 닫고 항거하였다. 이에 강문우 등이 화복(禍福)을 들어 위협하자 대처하지 못하고 성문을 열어 맞아들이고 인(印)을 반납하였다. 鄭文孚가 명하기를 예전에 범한 죄를 문책하지 말라하고 여전히 국세필에게 군사를 거느리게 하였다. 그리고 남북의 주보에 격문을 전하니 종성무사 김사동, 경성인 오박 등이 정병을 거느리고 모집에 응하였다. 경성 부사 정견룡, 종성부사 오웅태, 경흥부사 라정언, 고령첨사 유경천, 군관 오대남 역시 당초에 포로됨을 모면하고 산위에 숨어있다가 소문을 듣고 와서 모였다. 鄭文孚가 정견룡에게 대장되는 것을 사양하였으나 정견룡이 두려워하여 감히 받지 못하고 유생들이 말하기를 「본래 의병으로 이름을 삼은 이상 평사의 벼슬이 낮다고 해도 병사의 아관으로 많은 사람이 마음속으로 따르고 있으니 의병대장이라고 칭하며 통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으므로 鄭文孚가 애써 따랐다.

## 2) 宣修 卷26 선조 25년 10월 1일

북도 평사 鄭文孚가 길주 적병을 패배시키고 성을 포위하다.

## 3) 宣修 卷26 선조 25년 11월 1일

관북에서 역적 국경인들을 토벌하여 주륙한 공을 논하여 평사 鄭文孚의 직질을 통정대부로 승진시키고 나머지는 차등있게 관직을 포상

하였다.

4) 宣修 卷27 선조 26년 1월 1일

함경도 길주의 적이 성을 비워놓고 도망하였고 鄭文學가 관복을 평정하였다.

5) 宣修 卷27 선조 26년 1월 1일

鄭文學가 길주성을 1월이 넘도록 포위하여 왜적이 땀나무와 마초의 공급을 막아 민가를 들어 때는 등 그 행색이 궁색해지자 청정이 재차 관복을 평정하겠다고 큰소리쳤다. 이때 단천군수 강찬이 군사를 합하여 요격하자고 하자. “유경천”에게 기병 수백을 주어 돕게 하자 적을 만나 수십급을 참하고 청정이 대군을 이끌고 재 등을 넘어오자 유경천 등이 후퇴하였다. 문부가 영동책 외곽에서 싸웠으나 세 번 패배하여 경성으로 물러나 지켰다. 청정이 길주성과 영동책에서 철수시키어 밤에 재를 넘어 남쪽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문부가 날쌔 기병을 거느리고 추격하여 함흥에 이르렀으나 청정은 안변으로 돌아가버려 미치지 못하였다.

6) 문부가 육진의 반민을 베고 藩胡를 어루만져 북변을 복구시키다.

경성으로 돌아와 의병을 해산시키고 북쪽 6진을 순행하며 반민을 찾아내서 베고 번호를 어루만져 안정시켜 모든 보를 수복하여 장령을 파견하였으니 북변이 복구된 것은 모두 鄭文學의 힘이다.

7) 宣修 卷27 선조 26년 1월 1일

순찰사 윤탁영이 조정에 鄭文學의 공을 반대로 고하였으므로 크게 쓰이지 못하였다. 鄭文學는 처음에 직급이 낮은 신분으로 의병대장이

라 자칭하고 순찰사 卍卓然에게 세문을 보냈는데 卍卓然이 그의 공을 꺼려하여 평사는 일개 막관이니 마땅히 감사의 절제를 받아야 하고 서로 대등하게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하며 꾸짖었으나 鄭文'孚가 따르지 않았다. 이 때문에 문부가 전후로 세운 전공을 탁연이 모두 사실과 반대로 조정에 보고했으며 문부의 부하가 수급을 가지고 관남을 지나면 그가 모두 빼앗아 자기 군사에게 주었다. 그리고 문부의 행동이 불쾌스럽다고 조정에 아뢰었다. 이에 문부가 바로 군사를 해산시키려 하였으나 군졸들이 모두 흩어지지 않고 그의 곁에 있었으며 혹은 사잇길로 달려가서 행재소에 보고하니 조정에서는 의심하면서 둘을 무마시켰다.

문부가 적을 추격하여 함흥에 이르렀을 때 또 탁연을 만나보지 않았는데 탁연이 크게 노하여 영을 전해 문부를 뒤쫓게 하고 말하기를 「평사가 적을 놓아 내보낸 죄를 지금 당장 국문해야겠으니 속히 잡아오라」 하니 문부가 그 전령에 대응하여 판회하기를 “순찰사가 적을 놓아 돌려보냈기에 의병장도 적을 내보낸 것이니 국문할만한 이유가 없다” 하였다.

탁연이 또 鄭文'孚를 발호한 자라고 보고하였으나 행조에서는 또한 따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나중에 사신을 보내 그 실상을 조사하게 하였는데 탁연이 사신에게 후한 뇌물을 주어 스스로 변명하였다. 이때 사대부의 가속으로서 관남에 있는 자들에게 모두 탁연이 곡식을 흩어 주어 구제하니 사람마다 칭찬하였으며 조정에서 차출하여 북쪽에 들여보낸 자들이 모두 추위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들에게 모두 옷과 장비를 주었으므로 그들이 조정에 돌아와서는 모두가 탁연을 옹호하고 문부의 공은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다. 이에 남북의 군민들로서 분개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조정에서는 단안을 내려 전공을 정건룡에게 돌려 그를 본도의 병사

에 올려 제수하고 문부는 단지 반민을 주살한 공으로써 당상관에 올려 길주부사에 제수하였다. 북쪽 사람들은 문부가 재조해 준 공덕을 추앙하며 병사가 되기를 모두 원하였으나 문부는 강개한 성품에 교제가 적었으므로 끝내 크게 쓰이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기사와 논조는 鄭文孚가 시기와 음모에 희생되어 그의 전공이 바로 나타나지 못한 것을 동정하고 이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하는 의도가 그 저변에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아울러 선조가 승하하고 광해군이 임금이 되면서 鄭文孚를 일방적으로 오해하던 전 임금과는 다른 시각을 받게 되므로 鄭文孚에게도 다시 기회가 오는 듯하였다. 지방관으로 일관하던 그에게 중앙관계로의 복귀 기회가 다시 부여되었다.(수정실록끝)

### 3. 광해조 1년(1609)

월사 이정주가 말하기를 「정자허(鄭子虛)는 인격과 재주는 참으로 쉽게 얻지 못할 것이다. 다만 그의 강직함이 너무 지나친 것이 한이다.」고 할 정도로 강직하고 누구에게 아첨할 줄을 몰랐다.

### 4. 聖節使에 발탁되어 연경에 다녀오다 광해조 2년 12월 11일

#### 1) 성절사 일행

성절사 정 문 부 서정관 김 대 덕

천추사 황 시 서정관 김 종 남

그러나 관헌의 검사를 받지 않고 국경을 건너갔다고 하여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사은부사가 되어 연경에 다녀왔다.

이때 공께서 연경까지 가고 오면서 보고 느낀 것을 박지원이 “열하 일기”를 쓰듯이 시로서 읊은 것을 소개하여 389년 지난 오늘 우리들이 보고 느낀 것을 비교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쓰여진 순서와 장소는 자세히 알 수가 없어 이를 무시하고 소개한다.

次書狀官七月一日 見示韻

君懷冰鑑玉壺清 我視千金萬戶輕  
 傾蓋掃將塵廬去 披襟說到寸心明  
 匡衡抗疏稱遺直 東野鳴詩見不平  
 正值寒鴻南去日 北征同是客燕京

선장광 박지가 보인 시에 차운하다  
 그대의 마음 얼음판 유리병처럼 맑고  
 남 보기를 천금만호 가벼이 여겼지  
 일간가울일 제 세상 색각지워지고  
 흉금 털어 놓은 제 진심 드러냈지  
 광형은 항소로서 곧은 선비라 불리웠고  
 맹동야은 서로서 불평을 토로하였다.  
 기러기 남으로 나는 이 계절  
 똑같이 북으로 연경에 왔네.

形勝從來最壇雄 遼燕萬界此交衡  
 天連渤海三千里 地接陰山一萬重  
 聖代不勞秦築怨 豐功還陋漢封登  
 關門鎖鑰今誰是 見說兵藏小范盲



옛부터 경치로 이름난 곳  
 요와 연의 경계이기도 하지  
 하늘은 삼천리 발해를 이었고  
 땅은 일만점 음산에 닿았네  
 태평성대엔 만리장성 쓸데가 없고  
 큰 공새워도 봉선은 유치한 일이라네  
 오늘의 관문직이 그 누구이더냐  
 가슴에 수만갑병 품은 범중엄이라네

范仲庵 宋나라의 유명한 장수로서 군사를 하도  
 정예화하여 중엄의 군사가 출전하면 「범중없이 가슴엔 수만갑병이 들  
 었네」라고 하였다<宋名臣言行錄>.

#### 遼城有感

一片孤城當落暉 只今殘堞見鳥飛  
 若令仙鶴重來訪 不獨人非城亦非

#### 요성의 감회

한조각 외로운 성 석양이 비쳐주더니  
 지금은 무너진 성벽(여장)위 새만 나누나  
 선학을 다시올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사람뿐이라 성 또한 옛 성이 아닌 것을

#### 逢陝西人 其親爲遼東遊擊

君是山西第一流 儂家遼隔海東陬  
 遼陽城外同爲客 分占天涯兩地愁

협서 사람을 만나다<그의 아버지는 요동유격장관>  
 그대는 산서 지방의 제일류인지  
 나의 집은 저 멀리 동해의 한모퉁이요  
 요양성 밖에 함께 한 나그네 신세  
 두쪽의 하늘과 서로 나누었으니 향수 또한 두갈래다

遼館夜雨

殘燈孤館夢難成 更奈숙夜雨聲  
 不是令人鮮斷 只緣人自有離情

요동객관에서 밤비 만나다  
 가물거리는 등불 홀로객관에서 꿈 이루기 어려워  
 또다시 후두둑 밤비 오는 소리 어이할고  
 이것이 어찌 너만이서 창자 끊는 애절함이나  
 사람이 어이고 온 아쉬운 정 때문이다.

萬柳庄

王家池館夕陽邊 三世繁華未百年  
 尙有珉鐫存不朽 藤花木失平泉

석양이 비치는 주인집의 못과 정자  
 삼대의 변화 백년이 못되는데  
 옥돌에 새긴 글씨 썩지 않고 남었건만  
 등나무 꽃과 나무 세업의 모습 잃어었나

天摧地裂恨無邊 一死猶堪奈百年

賴有堂中眞面目 不知人在九重泉

하늘 무너지고 땅 꺼지듯 끝없는 한  
죽음이야 한번이지만 백년 세업 어이할까  
집안에 참면목 아직 남았고  
저승 가 있는 사람인 줄 모르겠네

早發沙河驛 有孤竹城首陽山孤竹君廟  
舊說西遊遂步奇此來邊思入秋悲  
傷心莫作關山曲 行到皇州別有詩

謁夷齊廟

傷心周是普天尊 舉目殷無尺地存  
若使當年 東渡海 箕封自有別乾坤

백이숙제 사당에 참배하고  
마음 아플사 주나라는 온천하가 우리렀고  
눈 들고 보아도 은나라는 한자의 땅도 안 남았네  
그 날에 만약 바다 건너 동으로 왔다면  
기자를 봉해 준 땅 별천지가 있었지만

榆關

際海連雲一望沙 不知胡騎幾經過  
黃榆舊擁防秋路 碧柳今遮賣酒家  
在野禾麻均雨露 滿城烟月摠笙歌  
邊關饒此昇平樂 待到神京更若何

바다 끝 구름 끝까지 모두가 사막  
 오랑캐 말굽 몇번이나 가르쳤던가  
 지난날 이 길에 느티나무 막아섰더니  
 오늘은 버드나무 주점을 가리웠네  
 들판에 오곡 비와 이슬 고루젖었고  
 성터의 저달 피리소리 어리었네  
 변관 이처럼 무사한데  
 연경 가기 무엇 어려우랴

謁夷齊廟

玄鳥遺墟杰欲生 岐山夷賸鳳來鳴  
 九州周有三分二 臣節殷餘弟反元  
 招馬孤忠松獨老 採薇清操玉雙成  
 要知扶植綱常力 讓國初頭人義明

현조의 옛터에 가장이 내려하고  
 기산엔 어느덧 봉황이 와서 우네  
 구주(九州)는 주 나라가 삼분의 이를 차지했고  
 신하의 절개는 은나라 형제에 남았구나  
 말고삐 잡던 그 충성 홀로 늙어 있고  
 고사리 캐는 맑은 지조 쌍옥을 이루었네  
 강상(綱常)을 심어준 힘 모름지기 알아야 할 일  
 나라를 사양할 때 대의 밝혀지었지

皇都

天上星辰箕尾躔 衆中疆界糞青蓮

被山襟海 皇都壯 聖繼神承寶錄綿  
壽城謳歌今萬曆 戰場汝雪古三邊  
秦城漢塞窮共地 文物衣冠二百年

황도

하늘의 성좌는 기성 미성에 하당하고  
기내의 지역은 기주 청주와 연하고  
산을 지고 바다 안은 황도의 모습 웅장도 하다  
지금은 만년토록 태평을 노래 부른다  
옛날엔 전쟁으로 모래 휘날리던 삼변이었는데  
진나라 성곽 한나라 요새로 군사지역인 이땅에  
도덕문화 이룩한지 2백년이 되었네.

贈魯臆

老仙筆下古韓文 子又能詩鯉有關  
才調少年名籍籍 蹉跎堯日鈇鈇  
天涯離恨傷音草 關外歸一望白雲  
莫道九門千里遠 急賢須時 聖明君

늙은 신선 붓만가면 한문공(韓文公)같은 문장인데  
아들도 시에 능하여 세상에 알려졌다.  
재주없는 소년은 그 명성 자자한데  
때를 놓친 늙은이는 말마다 분주하다  
하늘 끝에 떠난 온 한은 봄 풀보니 슬퍼지고  
관문밖에 가고픈 마음 흰구름만 바라본다.  
대궐문 천리이나 멀다 하지 말라

어진이 기다리는 성군(聖君)을 믿어야지

夷齊廟有感

· 諫君自分已嚴 兩逃兄弟德何謙  
至今孤竹清風在 可使遼東鎖撫廉

백제 숙제사당앞에서  
한번의 간언으로 군신의 구분 엄격해져  
형제가 함께 도망하지 그 덕 겸손도 하다  
오늘도 고죽엔 청풍이 남아있구나  
그 청렴 요동 땅을 진무할만하다.  
오늘도 고죽엔 청풍남아있구나.  
그 점령 요동 땅을 진무할만타

昭君西子相對圖 通州舟中贈人  
誰得昭君對西子 誰將筆法奪天成  
當年不有毛延壽 應使胡兵作越兵

왕소군과 서시 마주보는 그림  
(통주배안에서 누구에게 주다)  
왕소군과 서시가 마주보게 한 그림  
누구의 필법인가 그대로 앗아온 제모습  
그날의 모연수 있지 않았던들  
오랑캐로 월병을 삼고 말았겠지

天壇

對越心常在帝傍 南郊齊沐更壇場  
聖君自與天齊壽 却笑祈靈漢武王

마음은 언제나 상제 곁에 가 있어라  
남교에서 목욕재계코 다시 단에 올랐네  
성군이라면 스스로 하늘과 수명 같을지라도  
신령 앞에 기도하는 한무제 우습기만하구나

登白塔寺樓

十二欄倚半空 登臨南北要西東  
天連客路三千里 雲隔鄉山一萬里

아스라한 난간이 만공(창)에 솟아  
올라서니 남북이요 동서로구나  
하늘 닿은 나그네길 3천리 먼길  
고향산 만리겹 구름가렸네

黎陽次書狀韻

遼陽東山三韓道 無復呼兒牧邊草  
冠盖朝天二百年 往來惟有行人老

요양동쪽삼한길에  
다시는 없으리 호아의 목동  
이백년간 오간 중국의 사절  
남은건 늙은 길손뿐이라.

## 仲秋望憶先攜

仲秋望日如寒食 國俗家家登墓歸  
 歲歲松山攜上淚 燕京爲客倍沾衣

한가위날에 선영을 그리며  
 한가위날 보름달은 한식과 같아  
 나라 풍속 집집이 성묘를 하네  
 해마다 松山 선영에서 흘리던 눈물  
 올해는 연경 길손 옷깃 더 적시네

이 시는 연경에서 한가위 추석을 맞이하여 이곳 사람들이 집집에서 성묘하는 모습을 보고 松山에 있는 선영에 성묘 못하는 것을 탄식하며 지은 詩이다.

## 憶慈親 二首

裁書爲報慈親道 王事休來兒始歸  
 莫畏還家落歲暮 行裝猶有密縫衣

어머니 그리워 한다.  
 답장을 쓰려니 어머니 말씀 생각나  
 나라 일이 끝나야 우리 아이 돌아온다오  
 한해가 저물어도 돌아오기 두려워 말라며  
 밀봉한 옷도 행장 넣어주셨다.

日長夏五初爲客 月望仲秋尙未歸  
 爲報西風吹莫隱 寒來不復授寒衣



해긴 오월에 집을 떠나 온 나그네  
달밝은 추석에도 돌아가지 못하네  
가을바람 다구쳐 불어 오지 말라  
추위에 입은 옷 다시 보내지 않게

次書狀中秋月韻

去歲慈辰在故鄉 月明尊酒畫欄傍  
兄酒弟觀饒行樂 柵帳今是宵客堂

서장관이 한가위 달을 읊은 시  
지난해 이맘때엔 고향에서  
달 밝은 화란에 슬통 벌여놓고  
형과 같이 권커니 잣커니 마냥즐겼지  
오늘 밤은 쓸쓸히 객사에서 보낸다.

虞美人草

秦女化石蜀山中 帝子泣竹湘江頻濱  
精零託物竟不滅 一般哀怨千千春  
傷心亦有原上草 人道前身虞美人  
纖腰最被楚王憐 八載追隨戒冰馬塵

우미인 무덤의 풀

진녀는 남편을 기다리다 촉산에서 돌로 화했고  
제자는 상강에서 대나무에 눈물 뿌렸네  
정령이 물건에 의탁하여 끝내 없어지지 않으니  
일반의 슬픈 원한은 천년토록 되살아나네

또다시 언덕 위에 상심하는 풀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르기를 전신은 우미인이 있었다.  
 날씬한 허리가 초왕의 사랑을 독차지 해  
 팔년 세월 용마를 따라 다녔나.

西施圖

人言亡國枉西施 惟有君王醉不知  
 臺上已非薪土日 伍符何事強爭爲  
 西施本自越溪妹 來伴夫差爲破吳  
 誰識扁舟五湖上 功成不獨一陶朱

서시의 그림

사람들은 서시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지만  
 그것은 임금의 취해서 모른데 있다  
 대상이 벌써 신상에 눕던 날이 아닌데  
 오자서는 무엇하러 기어코 논쟁했던가  
 서시는 원래 월계의 여인이라  
 부차를 따라 온 것도 오나라 깨뜨리기 위하여서지  
 누가 알았으랴 오호위의 조각배가  
 그 공로 도루공만 혼자 이른 것 아닌 것을

娘娘廟 在河山

三次河上 娘娘廟 能爲行人美雨雲  
 如何 隔水仙宮在 猶作牽牛織女分

삼차하 위에 낭랑의 사당

뜬구름 되어 비구름 희롱할 수 있고  
어찌다 물건너 선관이 되어  
견우 직녀처럼 헤어져 있다.

蓮山道中

南人北去動離憂 北客南來歎旅遊  
自是人情各懷土 蓮山不必使人愁

연산도중

북으로 가는 남쪽사람 이별의 근심 설레고  
남으로 오는 북쪽 나그네 길손의 신세 개탄스럽다  
고향을 그리는 건 저마다의 심정인데  
연산까지 시름 줄 까닭 없을 걸

姜女石 在山海關

秦城盡處岩巍然 石爛城崩恨尙綿  
可使化爲精衛鳥 原溟從此使成振

감석녀(산해관에 있다)

진나라 성 끝은 곳에 우뚝선 바위  
으스러진 돌성이건만 한은 그대로 썼네  
정위조로 되게만 할 수 있다면  
이 길로 동쪽바다 메우고 말 것을

## 5. 남원부사에 임명되다

광해조 3년(1611) 8월 2일 부임후에 어진 선비들을 방문하여 예로

서 대접하고 크게 유학을 일으키는데 힘썼다. 이때 정동설(鄭東高)과 장세경(張世經) 등과 같이 학문을 토론하였다.

## 6. 형조참판에 임명되다

광해조 4년(1612) 4월 20일에 형조참판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이때 광해군이 새로 즉위하자 복인의 세력이 성하여 이이첨(李爾瞻)과 이경전(李慶全) 등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조카 정조가 복인에 가담한지라 공께서 타일렀으나 듣지 않았다. 공께서 이때 어머님을 봉양한다고 형조참판에 취임하지 않고 외직을 청하자 전교하기를 鄭文孚는 일찍이 임진연간에 복도의 수령이 되어 이문 공이 무장 보다 뛰어나고 인심을 얻었다. 길주목사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보냈다.

## 7. 길주목사에 임명되다

광해조 3년(1611) 10월 27일에 북도 감시시관이 되어 정동계와 평사 朴守結, 이윤우 등과 같이 학문을 토론하며 지냈다. 이윤우(李潤雨)가 공에게 시한수도 주니

문무를 겸전한 장상(장상)의 바탕  
20년을 변방에서 헛보냈구려  
이제는 어진 이들 갈망하자니  
웅담 대궐로 올라가리라

雪夜與 池參奉 達源口號  
客夜元無寂 如何雪月明

欲作還家夢 終宵竟不成

눈 오는 밤에 지참봉(參奉) 池達源과 읊다

나그네 밤이면 잠이 본시 없는데

눈위에 달조차 왜 이리 밝소

집으로 가는 꿈을 꾸고 싶건만

밤새도록 잠 한잠 못 들고 마네

이 시는 壬亂때 公을 의병대장으로 추대하고 목숨을 걸고 왜적과 같이 싸운 옛 부하요. 戰友를 만나 밤새워가며 옛 전쟁담을 말하며 읊은 시로 본다.

○ 광해 4년 12월 19일

길주부사 鄭文孚가 상소하여 변장의 일을 논하니 상소를 보고 그대 뜻을 잘 알고 매우 감탄하였다고하여 그대로 처리하라고 하였다.

## 8. 길주에서 벼슬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오다

광해조 5년(1613) 이이첨과 한마을에 살았으나 그는 생애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권문에 접근하지 않았다. 이이첨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근10년동안 만나지도 않고 공명정대하게 살았으며 심지어 당시의 세력가인 鄭仁弘의 청을 들어주지 않고 장대를 휘둘러 내몰 정도로 강직하였다. 조카인 정조(鄭造) 등이 찾아오면 줄음을 핑계삼아 말하지 않았으며 조정에서 청이 있어도 의리를 들어 참여하지 않자. 이들이 미워하는 바가 되었다.

## 9. 松山の 선영과 서울을 오가며 자연과 시주를 벗삼다

유유자작 세월을 보냈다. 즉 광해조 5년(1615)에서 광해군 7년 6월  
까지 松山과 서울 집을 오가며 지냈다. 삼촌 신과 함께 풍계동에서 즐  
기고 이호문과 같이 四寒亭에서 詩를 읊었다.

### 四寒亭

物我天地間 殊形而一節  
松寒鮮凌霜 竹寒宜帶月  
寒梅與寒土 精神西永<sup>1</sup>傳  
一寒如此哉 相對至白髮  
擬作四皓隱 不可無其一

너와나 천지 사이에  
모양은 다 달라도 절조는 같다  
솔은 차서 서리를 이끌길 알고  
대는 차서 달과 하냥 좋은 짝일세  
참매화 찬 선비  
정신은 들이나 눈어름이라  
찬 것이 그 바로 이와 같거니  
흰머리 나도록 같이 가보세  
우리도 비슷이 상산 사호라  
그 중에 하나도 없을 수 없네

### 後園拾栗

杖愁步後園 收栗霜林下  
稚子強來覓 引語警醉臥

뒷동산에서 밤을 주우며  
 막대 짚고 뒷동산 거닐 때  
 서리찬 숲 아래서 밤을 줍는다  
 어린 놈 소매답게 밤을 달라고  
 말걸다 취하여 누운 나를 놀라게 한다

하나는 절개를 지키고 살자는 굳은 의지요 하나는 모든 시름없고 유  
 유자작 대자연과 같이 생활하는 모습을 그린 시이다.

이때 시국이 달마다 달라져 공께서 벼슬에 뜻이 없고 날마다 명사들  
 과 만나는 한편 세월과 멀리하고 사람들과 만나지 않기 위하여 서울  
 집보다 松山에 와서 많은 시일을 보낸 것 같다.

이때 “급류용퇴부”를 지어 공의 뜻을 장쾌이 표하였다.

#### 急流勇退賦

浩浩乎陸海無垠名宦之場滔二者是在水中央  
 彼何人斯其退也勇志已決於色舉  
 吾何貪夫天寵鳳仙風之超世  
 所懷人兮華之山日復日兮拜往  
 何寶訣之是慳俗緣之未磨  
 空爛柯於桃源歸來宋日之中  
 夫于以隱乎金門慕赤松也之留侯  
 思綠野之晉公願宦遊若涉大水浮中流而遇風波

급류에서 용감하게 물러나는 것을 읊는다  
 넓고 큰 옥지와 바다처럼 끝없는 벼슬  
 거기에 휩쓸린 자는 물에 빠진 것 같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용감이 물러났구나  
 그 뜻은 벌써 동태를 보고 떠나기를 한 것이니  
 내 어찌 임금의 은총을 탐하랴  
 신선은 이 세상을 초탈하였나니  
 화산의 그 사람을 그리워 한다  
 날짜는 하루하루 자꾸만 가는데  
 어이하여 신선의 비결을 아끼겠는가  
 세속의 인연이 남아 있음을 슬퍼하면서  
 공연히 무릉도원에서 도끼자루만 썩혔네  
 송나라의 중흥시대로 돌아와서는  
 금문에서 은거하였네  
 적송자를 따라간 유후를 추모하고  
 녹야당에 은퇴한 진국공을 생각한다.  
 생각하면 벼슬생활은 큰 바다를 건넌과 같네  
 중류에서 풍파를 만나……

10. 松山 등지에서 산림을 벗삼아 시주로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공에게 부총관을 삼고 이어 병조참판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광해실록 99권 광해조 8년 1월 20일>.

### 11. 광해조 8년(1616)에 松山墓하로 내려오다

공께서 세상을 피하여 아주 松山에 내려 오시어 폐모 논의가 나오자 나라 일을 크게 걱정하고 우울함을 이기지 못하고 하는 일없이 시주



로서 세월을 보내니 공의 얼굴조차 보기 힘들었다.

醉題

老何能滿醉何時 詩不成章醉不知  
天地悠悠 一夢事 羊來狂處半來痴  
술에 취하여  
늡으면 어찌 술마시고  
취하면 어찌 시를 짓나  
시도 안되고 추한 것도 모르겠네  
천지는 아득할 싸 한갓 꿈일세  
반미추광이 반명청이 그게 좋겠네

山愁滿輕重倫

古人雖日山爲重 詩上唯云不勝愁  
愁重勝山 愁最重 滿能何力却消愁

시름과 술

옛 사람 산을 일러 무겁다 하건만  
시에선 무거운 시름 못이긴다고  
시름이 산보다 더 무겁건만은  
저 술은 어떤 힘으로 시름이기나

松山에 있는 선영아래에 은거하고 있을 때 어떤 권신이 그를 끌어내  
어 자기들을 돕게 해달라고 찾아가서 풍자하며 말하기를 「공의 빈곤  
한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공께서는 무엇으로

스스로 위로합니까」하고 묻자 공께서 대답하기를 「나는 앞으로 활을 가지고 깊은 산에 들어가 범을 잡아 생계를 이어갈까 하는바 분에 넘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공께서 벼슬을 버리고 돌아오면은 그날부터 끼니가 걱정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공께서 권력에 아첨하지 않고 평소에 청렴결백하게 살았다.

石橋濯足

晴窓宣講者 濯足來何晚  
塵上十年踪 臨流不盡沈

돌다리 아래서 발을 씻으며  
창밖아 글 읽기도 이리 좋은데  
발 씻으려 오는 걸음  
왜 이리 늦은가  
티끌세상 10년 묵은 발자취라  
넷물에 내 왔건만 모두 씻을 수 없어

雪夜

客夜元無寐 如何雪月明  
欲作還家夢 終宵意不成

눈 오는 밤

밤손 잠이 본시 없는 법인데  
눈위에 달조차 왜 이리 밝나  
집으로 돌아가는 꿈꾸고 싶건만  
밤새도록 잠 못이르네

風雪夜歸人

春滿荒村過者多 如何一犬吠  
定知山後梅花發 溪友壽香冒夜歸

눈 바람 지는 밤에

산촌엔 눈만 가득하고 길손 드문데  
개 이다지 사립향해 왜 저리 짖나  
아마도 정지산 넘어 매화꽃 피어  
마을 친구 거기 갔다 돌아오나봐

시상으로 보아 시를 여기에서 읊은 것으로 보고 소개한다.

**12. 광해 9년(1617) 4월 10일에 직급을 높여 예조참판을 삼았다<광해실록 114권 광해 9년 4월 10일>**

○ 동왕 9년(1617) 11월 25일

실록에는 폐비문제 협의에 참석했다고 되어 있으나 농포연보에는 취임하지 않았고 대비폐모 협의때에는송산에 있는 추하에 있어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時凶党日廢母之論大起公痛憤審念 遂代食放楸下居  
常縱酒人不得見有除拜皆就急流勇退賦以見志

**13. 광해군 7년(1617)과 동왕 10년에 전직으로 부임하라는 조정의 부름이 있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 14. 창원부사에 취임하다

광해 10년(1018) 7월5일에 결국은 집권층의 강요에 따라 松山에  
있든지 2년여만에 할 수 없이 창원부사에 취임하였다. 그는 성주까지  
가서 한강(寒岡) 정공(鄭空)등을 찾아가서 경서를 강론하는 등 유교  
진흥에 힘써 많은 칭찬을 받았다. 그는 사미정(思美亭)을 창건하고 이  
어 월영대를 징수하고 퇴계 이래 산책하며 사색 생활을 할 수 있는 곳  
을 마련하였다.

##### 月影台

太白山南知異東 還珠勝致臺蓬  
人家籬落千碧 客舍門庭百日紅  
天將候風行省度 崔仙玩月日古臺空  
只今猶漁樵唱 一半平分屬醉翁

##### 월영대 올라서

태백의 남이요 지리의 동쪽이라  
환주의 고운 경치 봉대산을 닮았구나  
인간의 울타리는 오래되어 퇴색하고  
객사의 뜰 안에는 한낮이 밝았구나  
원나라 장수의 고운 기풍 행성에 넘쳐 있고  
최지원의 달을 보던 옛 누대는 비었구나  
지금 어부의 뱃노래는 반쯤이나 아득히  
취한 나에게 들려오네

崔仙遠-崔致遠 2년 5개월 재직

10월에 부임길에 진주에 있는 축석루에 들어서 임란때에 진주가 참

혹한 피해를 입은 것을 생각하고 비감어린 심정으로 시를 썼다.

矗石樓次板上韻

龍歲兵炎捲八區 魚殊燿此城樓  
不非可轉乃成矗 江亦何心自在流  
起廢神將人共刀 凌虛天與地同溪  
循知幕府經營乎 壯麗非徒鎮一州

축석루

임진년 병화가 전국을 휩쓸어  
느닷없이 입은 참화 이 성루가 제일 컸다  
돌은 구를 수 없이 우뚝하게 솟았는데  
강물은 무슨 마음으로 흐르고 있나  
신명은 사람과 함께 퇴폐함을 복구하려 하고  
무한한 공간은 땅과 같이 떠 있네  
알겠구나 막부의 경영하는 솜씨가  
한 고을만 진압하지 않으려는 장한 뜻임을

또 공께서 광해군 10년(1618) 인조반정이 일어나기 5년전에 심심  
과적으로 영사시(泳史詩)를 지었다.

楚懷王

詠史 四首 詠史十首而六首逸  
楚地青山有九疑 懷王何事信張儀  
商於六百終難割 湘水空疏不盡悲  
楚雖三戶亦進入 未必南公說得當

一八武關民望紀 孱孫何事又懷王

岳武穆

秦詔班師人或疑 自知凶宋實天爲  
假令不下金牌字 星落應回渭水旂  
武穆精忠草木知 幕前松栢盡南枝  
高宗陵上樵無樹 空有悲風自北吹

초패왕을 생각하며

초나라의 청산구의산이 있는데  
희왕은 어찌하여 장의만 믿었던가  
상오의 육백리 땅 끝내 떼어주기 어려웠지  
부질없이 흐르는 상강물 못다한 슬픔인데  
초나라 삼호(三乎)만 남아도 진나라 망칠 수 있어  
남 공의 말이 굳이 필요 없었네  
무관으로 가고 선 백성의 희망이 끊겼는데  
잔손은 어찌하여 또다시 희왕이라 했는가.

조서를 받자 반사한 것 남들은 더러 의아해도  
스스로는 알았지 하늘이 실로 송나라 무너뜨림을  
금패 내려 부르지 않았다면  
목숨은 던지고 깃발만 들려 보냈으리  
무목의 정충 초목도 알았어라  
무덤 앞의 송백가지마다 남으로 뺏었다  
고종능 나무들 나무꾼이 다 베었구나  
구슬픈 바람만 북녘에서 불어 오네.

## 제8장 인조때의 農圃 先生

### 1. 광해 15년(1623) 3월 13일에 반정이 이루어져 仁祖가 즉위하였다. 인조 2년(1624) 1월 27일

- 1) 영의정 이원익이 임난에 鄭文孚의 공이 많다고 추천하다
- 2) 인조 2년 2월 6일

비변사에서 이르기를 「군사를 일으키는 일이 많으니 문관과 무관 가운데 쓸만한 인재를 모두 기록시키어 종군하게 하였는데 그 가운데 鄭文孚는 임란때 공로가 현저하고 군무에 익숙하여 기록시킬 것을 계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해조에서 본사의 뜻을 알지 못하고 상서에 따라 관례대로 소원을 들어주기를 청하였으니 궤초하여 숙배하게 하소서 하니 이에 따랐다.

비록 그의 공적에 맞는 대우를 하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정문부에 대한 억울한 오해는 이제 어느 정도 풀린 것으로 보인다. 그가 어머님을 모시기 위하여 사직함에 이르러 강제로 (궤초) 다시 기용하는 것은 이를 입증한다고 하겠다.

현종 7년 5월 23일, 정문부를 우찬성에 추증하는 기록을 보면은 「반정후 원수에 천거되어 조정이 크게 쓰려할 때 박홍구의 옥사에 무고되었다」고 하여 비로서 관복에서의 전공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 2. 원수에 추천되었으나 노모를 뒤흔다고 사양하다

인조가 즉위하자 조정에서 논의하기를 공께서는 광해군때 조금도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이 절의를 지켰다고 크게 쓰고자 元師에 추천하여, 앞으로 높은 자리에 두고자 하였으나 이 소식을 들은 정문부는 나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외곽으로 나가 노모를 뵈시겠다고 청하고 이를 사양하였다.

### 3. 전주 부윤을 제수받다(인조 1년 1623년 4월)

1) 朴堧의 간청을 물리쳐 원망을 사다.

이때 전주에 奸商이 있어 권세를 배경으로 하여 많은 관화를 빌려쓰고서 값지 않아 공께서 이를 구금하고 엄히 다루어 이것을 징수하자 권신(반정 3등공신) 박정이 10일동안에 세 번씩이나 편지를 보내 그 간상을 석방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공께서는 이를 듣지 않고 전액을 회수하자 박정이 이에 깊이 원망하였다.

2) 7월에 노모가 관사에서 세상을 떠나심으로 공은 喪事를 받들고 서울로 돌아와 9월에 송산의 先塋에 부친 판서공과 합장으로 뵈시었다. 그러나 墓下 廬幕에 계실 때 몸이 몹시 상하시고 아울러 아래 도리에 큰 중기가 나서 완치되지 않았다.



◀ 議政府 松山에 있는 선영



3) 인조의 청을 증기로 운신이 어려워 따르지 못하다.

인조 2년(1624) 갑자 2월에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인조는 공주로 피난하며 공에게 상중이지만 벼슬길에 나오기를 명령하고, 부총관을 삼아 난을 평정케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종기가 심하여 운신조차 어려운지라 할 수 없이 가마를 타고 용인까지 나아가 인조대왕을 뵈고 역적 토벌에 참전할 수 없음을 알리어 겨우 허락을 받았다.

#### 4. 朴弘齋의 옥사에 연루되다

1) 옥사가 탄로되다

인조2년(1624) 2월 장만이 조직한 반란 정탐조직에 걸려든 박윤장이 남이흥에게 광해군 제주대의 움직임을 발설하였다. 임란 이후의 사회 불안과 이괄의 난이 가져 온 혼란이 아직 수습되지 않는 상황에서 반정부 음모 사건의 여파는 클 수 밖에 없었고, 아직도 정권의 위상을 확고히 하지 못한 인조 반정 주체들에게 있어서 이는 엄청난 위기의식을 불러와 관련자 모두를 엄단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사건을 취재한 공초에 의하면 인조 2년10월 박홍구의 서질인 박윤장, 이대온, 이대윤, 이필현 등과 발의하였고, 박홍구의 아들 박지장, 박래장과 조카 박진장, 박성장, 박일장 등이 모두 참여하였던 것인데, 기찰하는 무리를 먼저 제거해야 성사가 가능하며, 성사 뒤에는 광해군을 상왕으로 받들어 인성군에게 전위하게 하고 광해군으로 하여금 중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인심이 광해군을 떠나 있어 광해군을 내세울 경우 혹시 인심이 따르지 않아, 마치 이괄이 홍안군을 세웠을 때처럼 도성 백성들이

복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먼저 인성군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폐주를 받들어오기로 하였다. 실제 거사에서는 박윤장과 심헌 등이 사전에 약간의 정예 군사를 4대장의 집 근방에 잠복시켜 놓았다가 정해진 시간에 일제히 서로 호응하여 제거하고 이를 통하여 대세를 장악하기로 하였다. 도감의 장관 중 일부는 이미 포섭되었다는 것이었다.<sup>24)</sup>

## 2) 鄭文孚 포함되다

무인 김정간, 이계종, 김원도 모의에 참여했고 무장 원수신과 문신 鄭文孚에 대하여서는 박래장이 말하기를 문무의 인재로서 대장을 삼을 수 있는데, 이대운이 그의 종기를 고치기 위하여 출입하는데 대검으로 하여금 앞으로 설득하여 참여시키려 하였고, 조정과 그의 제자와도 모의를 통하였다. 그리고 개성유수 최관에게는 사람을 보내 내통하여 그곳의 군사를 빌려쓰려고 하였는데 이것은 거의 거사 단계에서 시행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대운에 의하면 김재신, 정광척, 조여립 등도 음모에 가담했다. 단지 망기 사람 성여종이 너무 이르다고 만류하는데 성여종도 역시 우리들이 거사하면 반드시 참여하여 호응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처음에는 남이홍이 장만의 지시를 받아 병을 치료한다고 핑계를 대고 이대거를 속여 유인하여 이 음모를 알아냈다. 이에 김인 등이 이를 고변하려 하자 이윤장은 사실이 탄로난 것을 알고 아우 이대검과 함께 같은 날 먼저 고변하였고, 극청에서는 이 사건의 연루자들을 형신 하도록 청하였다.

박윤장, 이연종, 김원, 이대검, 박지장 등이 승복하여 결국 모두 정형

에 처하여졌는데, 이 중 이대검의 공초가 가장 자세하였다. 그 공초에 말하기를 「박내장이 鄭文孚에게 가서 설득하자 鄭文孚가 이를 허락하지 않고 말하기를 「오늘날 아래 있는 사람들이 모두 선하지 못하다 하여도 위에서는 대단하게 인심을 잃는 일이 없다. 만일에 인성군이냐 어느 사람의 후손을 세웠다가 죄짓고 유배되었던 사람들을 모두 놓아 주어 다시 예전과 같이 행동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거절하였다고 하였다.

### 3) 「楚懷王」의 詩로서 禍를 입다.

또한 이대윤과 대질하니, 이대윤이 말하기를 이와 같은 말을 박래장으로부터 듣기는 하였으나, 「한날 종기나 고치고 침이나 놓는 의원이 어찌 친분도 없는 재상(鄭文孚를 말함)에게 이런 중대한 기밀을 말할 수 있겠소? 鄭文孚는 실제로 이 말을 듣지 못하였을 것이요」 하여 정문부의 억울한 연루가 명백하게 되어 석방하려 할 때 「楚懷王詩」를 문제삼아 뒤이어 대간들이 국문을 간청하여 태 304번과 압술 5번의 모진 악형을 견디지 못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니 때는 인조 2년(1624) 11월 19일, 그의 향년이 60세였다.<sup>25)</sup>

그를 죽음으로 몰고간 그 문제의 시는 정문부 54세때인 광해군 12년(1620) 창원부사로 재직 중 파적 거리로 지었던 것으로 그 중 초회 왕에 관한 일구가 있었다.

그 詩는

「楚離三戶逆秦亡 未必南公說得當

❧ ❧ ❧

25) 朴弘耆 獄事 文書 4~5권.

一入武關民望絕 屏孫何事又懷王」

「초나라가 비록 진에 멸망하여 삼호밖에 안남았다 할지라도, 진나라 또한 망하고 말았으니, 진나라의 설객 張儀가 남쪽으로 초에 와서 거짓으로 설득시켜 600리 땅을 주어 제나라와 절교시키고 드디어 초왕의 재위 30년만에 죽고 말았으며 이런 일이 없나하여도 진은 시황제 통일 이후 18년만에 무관에서 패하였으니 이미 민심을 잃은 것 아닌가? 못난 손자 「心」을 세워서 그를 초희왕을 義帝라 하고 받들어 섬기니 이 무슨 어리석은 일인가?」라는 뜻이다.<sup>26)</sup>

#### 4) 詩의 지은 시기

광해군 10년 9월부터 13년 2월까지 창원부사 재임시에 지었으니, 이 시의 창작과 1623년 인조반정과는 최소한 2년이 시간이 격하여 이 시의 詩意와 인조 반정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만일 이 시가 비유의 뜻을 은밀히 지녔다 하여도 그 비유의 대상은 오히려 광해군이 되면 모를까 아직 왕위에 오르지 않은 인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인조를 풍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빙자하여 정문부를 무고한 것은 사람을 내세워 임난 공신을 이와 같이 제거한 것으로 이는 역사에 반역하는 무서운 처사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당시의 국청을 주관한 좌의정 윤방이나 우의정 신흘, 형판사 이정구, 동판사 김유, 대사헌 이수광, 동지사 이경함, 동지사 윤선, 형방승지 김덕성, 사간 이명환 같은 당시 조정 집권층신들의 상기와 같은 사항을 무시한 경솔한 처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26) 鄭奎燮 鄭文和 「亂과 忠教公 農圃 鄭文孚 先生 관복 평정후의 선생의 행로 1996. 1. 16. p.252.

더욱이 대간의 한 사람인 동지사 윤선은 박정과 같이 이를 고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간으로 있었으니 조사의 공정성이 처음부터 의심스럽다. 또한 증거조차 확실하지 않은 사안을 공평정대하게 판단하지 않고 이미 60세가 넘는 노인으로서 심한 중기를 앓고 있는 환자인 壬亂 功臣을 흑형으로 고문한 처사는 이후 두고두고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왜적을 물리치고, 호지를 평정하여 관북 천리 땅을 회복한 원로의 한 사람을 이와 같이 사감어린 고변과 문제의 시를 지은 시기 등의 검토조차 제대로 못한 잘못된 판단을 정당화 시키기 위하여 심한 고문에 의하여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써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다. 이것은 임란의병장으로 이름 높던 金德齡을 「四日遲留 觀望成敗」를 들어 李夢鶴의 亂에 가담했다고 무고되어 억울하게 杖死된 것과 같은 집권층의 壬亂 功勳者에 대한 경솔하고도 무책임한 처사라고 본다.

문제의 시는 모친상을 당하여 송산에 장사지낸 후 묘하에 여막을 짓고 그 여막에 벽지 삼아 바른 것이었는데 위문 왔던 최래길(반정 삼등공신)이 이 시구를 유심히 보고 외위가지고 돌아가서 동배들에게 퍼뜨렸다는 것이다.

##### 5) 무고를 당한 경위와 杖死

최래길은 농포의 큰아들 대영과 같이 익성군 홍성민의 사위 이형령과 같이 바둑을 두는데 대영보다 바둑이 떨어져 이를 시기하여 다투는 등 성격 자체가 경솔하여 장인 익성군으로부터 탐탐히 여기지 못하자 대영을 원망하고 있던 참이었다고 한다. 또 박정(반정 3등공신)은 농포가 전주부윤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관화를 빌린 간상으로부터 대출한 관화를 받기 위하여 간상을 옥에 가두었는데 박정이 여러번 이를 용서해 줄 것을 청하였으나 농포가 끝까지 들어주지 않자 농포를 원망하던 때라 이 시를 빙자하여 농포를 무고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정문부가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식과 조일 등이 이때 문사랑(죄인을 신문할 때<sup>27)</sup> 필기 낭독 등을 하는 임시직)이 되어 재판관인 좌의정 윤방과 우의정 신흙, 판사 이정구, 대사헌 이수광, 동지사 윤선에게 「시 짓는 사람이 史實을 시로 지은 것으로 깊은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니 무엇이 죄가 되겠소」하고 역정하였으나 문초관들은 「이 시를 재신들이 이미 보았으니 용서할 수 없다」고 자기들의 책임을 모면하고자 일방적으로 독단으로 심한 고문인 압술을 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sup>28)</sup>

때는 인조 2년(1624) 11월 19일이요 향년 60세였었다.

### 실록에 기록된朴堧

仁朝實錄(37권 10년 7월)을 통하여 朴堧을 살펴보면은 己未南原府使 朴堧 多數賊 有怨之者有盜夜入衛舍刀傷 其左足 備局啓請以爲 堧 有七十兩親在法當遞而初既特授不敢 呈狀今遭此變以難仍置其地上從之以陸長欽代之(仁祖實錄 23권 8年 10月條)

기미년에 남원부사 박정은 많은 무리의 적당이 그를 원망하는 자가 있어 도적이 되어 밤중에 관아를 습격하고 박정의 왼쪽 다리를 칼로 찔러 상하게 하였다. 비변사에서는 「박정이 칠십양친이 있어 당연히 체직할 것을 아뢰어야 하였음에도 처음 특별히 남원부사에 제수하였음을 고려하여 아뢰지 못하다가 이번에 이러한 변을 당하니 이곳에 그대로 머물게 할 수가 없습니다.」하였다. 상이 이에 따르기로 하고 목장흙으로 대신하게 하였다.

❧ ❧ ❧

27) 鄭奎燮 鄭文和 壬亂과 忠教公 農圃 鄭文學 先生 관북 평정후의 선생의 행로 1996. 1. 16. p.253.

28) 朴弘耆 獄事 文書 4. 5권.

인조실록에 朴炆이 남원부에서 도적을 토벌한다고 하여 25명을 살해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중에는 양민으로 무고히 죽음을 당한 자가 있어서 그것이 원한이 되어 기미년에 관아 습격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되어 있다.

朴炆大司諫 炆賊性 直而近於 剛嫉惡大過多惡之(仁祖實錄 24권 9年 3월조)

대사간 박정의 성미가 곧다고 하나 모질고 강해서 그 행패가 자못 심하여 사람들이 모두 그를 미워하였다.

錦州君 朴炆卒 炆爲人剛果曾在昏朝兼心守正不求榮達及反正參靖在 勳官至吏曹 參判至是卒 三十七 有七但其局量稍狹人或小之(仁祖實錄 23권 10年7月條)

금주군 박정이 졸하다. 박정은 위인이 강직하고 과단성이 있어 일찍이 혼조에서 마음을 바로하여 영달을 구하지 않았다. 반정때 참여하여 정사훈신이 되고 관직은 이조 참판에 이르렀다. 이때에 죽으니 나이는 37세였다.

## 5. 鄭文孚의 伸寃

### 1) 영의정 정태화의 신원 상주<sup>29)</sup>

※ ※ ※

29) 顯宗實錄 12권 현종 7년 5월23일.

정문부의 억울한 죄명이 신원된 것은 그가 죽임을 당한지 41년만인 현종 6년(1665) 12월 27일이었다. 영의정 정태화는 농포의 억울한 죽음을 신원하여 주도록 현종에게 상주하였다.

영의정 정태화는 신원의 소장에 대하여 아뢰기를

「이것은 정문부를 포장하여 卹職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란때 북도의 백성들이 왕자와 대신을 잡아 州郡에 응거한 채 반란을 일으켜 왜적에 항복했을 때, 문부는 북평사로서 의병을 창도하여 역적을 치고 주군을 회복시켰고 그 공으로 길주 목사애 초배되었는데 당국자의 비위에 거슬려서 끝까지 쓰여지지 못하였습니다. 광해조에 이르러서는 주현에 은거하고 있다가 반정한 뒤 곧바로 전주부윤에 제수되었고 얼마 후 모친상을 당하여 여묘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때 어느 훈신이 조문을 갔다가 그 여막의 벽에 쓰여져 있는 전에는 시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였는데 급기야 역옥에 연루되어 체포되었으나 무죄로 석방되려는 즈음 대간에서 그 시의 뜻이 지적할 것이 있다고 하여 다시 형신할 것을 청하여 저 끝내 杖下에서 죽었습니다. 상신 조익이 당시 문사 낭청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상세히 알고 있었는데 항상 억울하다고 말하였으며, 부제학 조복양은 현종 임금에게 이 사실을 아뢰기를 “문부가 혼조때 한찬남 등에 빌붙지 않았기 때문에 현직에 기용되지 못하였으며, 반정후 박홍구의 옥사에 그의 이름이 역적의 입에서 나와 체포되었는데 홍구의 아들 박지장 등이 공사애세 문부는 장재가 있기 때문에 뜻을 두고 찾아가 만났으나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신의 아버지 ‘贅’이 문사 낭청으로 있으면서 그가 억울하다는 것을 대판에게 극력 말하여 일이 거의 풀리다가 그만 詩語에 죄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신의 아버지가 늘 그가 억울하다는 것을 말하였으므로 신도 상세히 알게 되었다고 하고, 허적은 아뢰기를 「문부의 공열은 혁혁하게 사람들의 이목에 살아있고 임진년과



사이가 머지 않기 때문에 신들도 모두 듣고서 매양 상이 공에 걸맞지 않은 것을 탄식하였습니다.» 그 시는 문부가 창원부사로 있을 때 지은 것인데 그가 스스로 회포를 읊은 것으로 국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문을 받다가 죽었으니 어찌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하자 현종께서 이르기를 「그 시에 무슨 말이 있었는가」 하시기에 태화가 그의 시인 「초나라가 삼호만 남아 있어도 진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한 구를 외니 상이 이르기를 「詩語에 중대한 뜻은 없는 것 같다.» 하시었다.

## 2) 공적에 대한 추증 건의

태화가 아뢰기를 「그와 함께 일을 한 사람들은 이미 追贈되었으니 이 사람에게도 특별한 은전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고, 허적이 또 아뢰기를 「함께 일한 사람이 이미 2품에 증직되었으니 이 사람은 1품을 추증해도 됩니다.»하고 북양이 아뢰기를 “품계를 뛰어 증직시키고 자손을 수록해야 합니다.” 상이 말씀하시기를 「품계를 뛰어 증직시키고 자손들을 녹용하라」고 하였다.

현종 7년(1666) 5월 23일

정문부에게 「승정대부 의정부 우찬성 겸 판의금부사 지경연, 춘추관 성균관사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5위 도총관부 도총관」을 추증하고 임란때 의병으로서 정문부를 도와서 왜적을 물리친 오응태에게는 병조판서, 이유일 한인제에게는 병조참의, 강문우에게는 군기시정, 최배천에게는 사복시 첨정, 원충서에게는 군기사 부정, 이봉수에게는 지평, 지달원에게는 병조정랑, 허진 김국신에게는 의금부 도사를 각각 추증하였다.

이는 문부가 임란때 큰 공을 세웠으나 억울하게 죽어 모든 사람들이 가엾게 여긴다고 하며 함경도 감사 민정중이 문부와 같이 싸웠던 사

람들을 포상하고 추증할 것을 제청하였기 때문이며 '이단하'가 또한 자기의 부친 이식이 북평사로 있으면서 문부가 의병을 일으켜 적을 토벌한 것을 자세히 기록한 북관기를 들어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억울하게 여긴다고 아뢰었기 때문이다. 문부의 충절은 임란때부터 밝게 드러났으며 혼조때에도 옳지 않은 일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반정후 원수에 천거되어 조정이 크게 쓰러할 때 박홍구의 옥사에 무고되었으나 무죄로 판명되어 석방하려는데 그가 창원부사 때 지은 초희왕 시를 문제삼아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이 비로소 밝혀져 정문부를 받들어 임란에서 같이 싸운 의군 장령들이 추증되었으니 이는 너무나 당연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 6. 사당을 세워 그의 공적을 기리다

현종 6년(1665) 9월에 사당을 세우고 李鵬壽, 池達源, 崔配天, 姜文佑 내분을 보안하고 나라에서 彰烈이라 시액하였으며 현종 7년(1666)에 會寧에 사당을 짓고 선생과 申世俊, 吳允迪을 배향하고 顯忠이라고 시액을 내렸으며 이어 숙종 37년(1707)에 富寧에도 사당을 짓고 선생과 朴克謹과 申應鱗을 배향하고 崇烈이라는 시액을 받았다. 이어 최창대가 북평사가 되어 선생과 여러 의사의 공훈을 찬양하는 「北關大捷碑」를 세웠다. 그리고 송산 공의 묘앞에 神道碑를 세우고 진주에 忠毅祠를 세우고 공의 死後 90년만인 숙종 40년(1714)에 「忠毅」라고 시호를 내리고 그의 위대한 공적을 기려 오늘에 이르고 있다.

## 7. 神道碑銘

## (1) 松山墓 앞

「현종 6년 12월 무인에 大匡輔國  
崇祿大夫 議政府 領議政 領經筵  
弘文館 春秋館 觀象監 查 世子師 臣  
太和가 말하되

“왜놈 청정이 북방으로 들어가 성  
곽을 불태우고 소하강 동북의 말갈  
이 날랜 기병을 몰아 깊이 무산 부령

지방을 짓밟을 적에 병마평사 신 文部가 몸소 의병을 이끌고, 청정을  
쳐서 육진 밖에서 기르 거두고 백탑 아래서 피를 질벽거리며, 말갈을  
굴복시켜 변경을 평정시킴으로서 오랑캐들의 기운을 꺾고 빛나는 공  
로를 세운 것은 임진년 이래로 선무한 여러 장수들의 하지 못한 바 일  
입니다.

반정 때에 원수의 천망에 참여하였다가 남의 무고를 입어 하옥되었  
고, 또 이른바 역사 읍은 시로써 죄목에 얹혀 옥중에서 죽은 것은 신이  
저으기 슬피 여기는 바입니다.

행장이 서쪽으로 들어가자 신종황제가 대장군 이여송을 명령하여  
군사 5만을 거느리고 왜적을 평양성 아래서 무찔렀을 때 오직 북방은  
산천이 막히고 길이 멀어 이는 신종 황제도 구원하지 못했던 바요, 대  
장군 이여송도 능히 막지 못했던 곳입니다.

그런제 문부는 일개 평사로써 군사 6천을 모집하여 능히 힘써 싸워  
왜적을 물리쳐 쫓고, 다시 북방 22 고을을 회복하고도 큰 공로로써 봉  
작을 받지 못했을뿐더러 마침내 죄도 아닌 것을 가지고 형틀 앞에서  
죽었으니 어찌 원통하지 아니하리까.

신은 마땅히 맡은 이에게 명령하여 문부에게 작을 주어 북방 사람들  
의 마음을 위로함을 옳게 여기웁니다.”



議政府 松山の 墓 앞에 있는 神道碑閣

하여 임금께서 이에 崇政大夫 議政府 左贊成겸 判義禁府事 弘文館 大提學 禮文館 大提學, 知經筵, 春秋館 成均館事 五衛都總府 都總管을 贈職하였다.

공의 성은 정씨요, 자는 了虛요, 해주가 본관이다. 젊을 때 갑과에 급제하여 漢城府 參軍에 補職되고 지방으로 나가 함경북도 병마평사가 되었는데 만력 20년(선조 25년 임진년)에 卞秀吉이 반역하여 6월에 淸正이 북방에 들어가자 會寧府 아전 鞠景仁이 왕자 임해군 과 순화군 보와 南道兵馬節度使 李瑛 등을 잡아 군중에 가두어 두었다가 林珉을 시켜 청정에게 바쳤고 그런지 몇날에 경인의 숙부 세필이 경성에서 반역하고 末秀는 明川에서 반역하여 청정의 손발톱이 되어 북방이 크게 어지러워졌으며, 절도사 韓克과 우후, 李範 등을 묶어서 청정을 맞이하니 육진으로부터 咸關嶺에 이르기까지 천여리가 모두 왜놈에게 속해 버리고 말았다.

이때 공은 발분하고 나서서 비밀리 경원부사 오웅태, 경흥부사 나정언 등과 함께 경성으로 들어가 북방을 수복하기를 꾀했으나, 군중이 세필을 무서워하여 모두 흩어지고 다시 모을 수 없게 되므로 공도 이를 버리고서 떨어진 옷을 입고 얻어 먹어 가며 부령 정암산 속으로 들어가 나물을 먹고 오래 지내다가 용성에 이르러 무당 한인간의 집에 의지하니 인간이 자세히 보다가 「당신이 병마평가 아니오」하고 후히 대접하는 것이었다.

8월중에 공이 선비 최배천, 지달원, 두 사람과 함께 혹은 지고 혹은 이끌고 사잇길을 따라 남으로 무계에 대이니 무계처사 이봉수가 공의 용모를 보고 크게 기뻐하며 맞이하여 그의 집에 이르러 한달쯤 지내다가 공이 배를 타고 동남으로 내려가려 하자 봉수가 분개하며, 공을 위하여 말하되 「내가 왜적 칠 것을 건의하고자 몰래 열사로서 장수될 만한 이를 구했으나, 그 사람을 얻지 못하다가 이제 공이 오자 이것은

하늘이 우리 북방을 도와 주십시오」하고 공을 머물게 하며 의병을 불러 모으니 경성장사 강무우와 경성부사 정현룡이 앞잡이가 되고자 원하고, 서충숙공 성이 또한 찾아 왔었다.

붕수는 몸소 군량을 지고 사잇길로 길주에 달려가 왜적의 군중 허실을 엿보니 그때 청정은 안변에 진을 치고서, 세필과 더불어 첩보 심부름꾼이 연락 부절하므로 공은 그것을 걱정하여, 문우에게 명령하여 몇 사람의 기병을 지휘하여 도중에서 그자들을 맞아 모두 죽이게 하니 적의 첩보 심부름꾼이 끊어지고 말았다.

현룡 등이 공을 권하여 대장의 군호를 세우도록 했으나 공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다가 붕수가 눈물을 지우며 간청하므로 그제야 수락했었다. 모든 사람들이 공을 추대하여 대장을 삼고 현룡과 응태등은 차장을 삼았으나 공은 스스로 나이 젊고 지위가 낮은 것을 들어 현룡에게 양보하니 현룡이 굳이 사양하며, 감당할 수 없다 하며, 또 모든 장수들도 공에게 종속되기를 원하는 것이었다.

그 때 말강이 소하강으로부터 훈융·아산·무이·조산 네 곳의 진을 습격하여 인민을 죽이고 약탈하므로 공은 이로부터 의병의 주맹이 되어 곧 사자를 세필에게 보내어 힘을 다해 변경을 막을 것을 효유하였다.

9월에 공이 어랑리로부터 유정에 대어 또 사자를 보내어 세필과 부중에서 만나자고 청하니 세필이 군대를 늘여 세우고 경계하며 기다리는 것이었다. 공은 휘하에 있는 백여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부중으로 달려 들어가 이해를 들어 거듭거듭 효유하니, 세필이 두려워하며 감히 반동하지 못했다.

그리고는 친속을 시켜 공의 곁에 있으면서 그 변동되는 기미를 살피게 하자 세필의 목을 베자고 권하는 이가 있어, 세필이 그것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었으나, 공은 밤에 사람을 물리치고 세필과 함께

고을 안 일을 의논하며 의심하는 빛을 보이지 않으므로 세필은 매우 기뻐했었다.

얼마 뒤 왜적 90여명이 밤중에 성 아래로 육박해 오자 공이 장사들에게 명령하여 쳐부수게 했는데 세필이 그 아들과 함께 왜적을 사로잡아 오므로 공은 장차 그 공로를 기록하여 조정에 장계하려 하니 세필이 더욱 기뻐하며 마침내 안심하는 것이었다.

공은 또 고을 안 반역자로서 일찍이 자기를 소던 자를 용서하여 비장을 삼으니 6진의 장사들이 모두 감격하여 휘하에 속하기를 원하였다.

얼마 안되어 회녕 유생 중에 오윤적이 공의 의리에 감복하여 고을 향교에서 「경인은 목을 베어야 한다.」하고 말하자 의사 신세준이 이에 호감을 붙여 군사가 모두 모였는데, 유생 윤입 등 여섯 사람이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경인과 그 의자 최인수 등을 목베게 하였다.

겨울 10월에는 명천에 선비 2백명이 모여 말수를 치다가 도리어 패하였는데, 고을 안 의사 김천년이 말수와 그 부하 장우호 등을 사로잡으니 이로부터 남북이 통하게 되고 징발한 군병들이 차츰 모여 들었다.

다음날 공이 대장기를 세우고 남문루에 올라 세필등 13인을 묶어 모두 목을 베어 군중에 조리 돌리니 이때부터 그의 이름이 북방에 떨쳐 여러 고을 자제들로 응모해 오는 자가 6천명에 이르렀다. 공이 여러 장수들과 출병할 것을 의논하자, 현룡이 ‘왜적이 정예하므로 당적하지 못할 것이니 경성을 보전하면서 기회를 엿보자.’고 하는 말에 공이 분노하며 말하되 ‘문부가 본래 의병을 일으킨 것은 나라를 위함이다. 이제 한 성만 지키고, 나가 싸우지 않으면 안방에 있는 여자를 본받으려 하는 것이냐.’ 하였다.

그리고는 마침내 군사를 나누어 삼위를 지어 영강역을 출발하여 몇 리쯤 가자, 어떤 자가 달려와 고하되, ‘왜적의 군세가 드세기 때문에

공이 저들과 싸우면 반드시 불리한 것이니 성을 지키고 스스로 보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므로 공은 노하여 말하되, ‘네가 왜놈을 위해서 우리 군사를 막으려느냐.’ 하고 곧 그 목을 베어 깃대 위에 매어 달고 명천에 도착하여 방원 병마만호 한인제로써 복병장을 삼고 또 중사 원충서에게 명령하여 정병을 이끌고 길주 북쪽 30리에 진을 치고 왜적과 더불어 해정에서 싸워 그 선봉장수 두 사람의 목을 베니 왜적들이 도망하는 것이므로 충서는 승전한 기세를 타고 추격하여 장평에 이르러 왜적 직정이 장군도관여문과 함께 복병을 이끌어 죽음을 걸고 대항하는 것을 문우와 충서가 좌우로 나누어 기병을 놓아 돌격케 하여 쫓고 인제의 복병도 또한 앞을 찌르니 병졸들로 용기를 내지 않는 자가 없었다.

직정은 드디어 말에서 내려 걸으면서 싸우기를 신시(오후 3시)부터 술시(오후 8시)까지 했는데 사방에서 화살이 우박 쏟아지듯 하니 왜적이 힘이 다하여 비로소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데, 문우와 충서가 모두 말을 채질하여 앞뒤로 협격하면서 높은 언덕 위로 달려 오르자, 직정군이 드디어 패해 달아나는 것을 문우가 뒤쫓아 장덕산에까지 이르렀고, 도관여문도 또한 10여개의 화살에 맞아 도망하므로 복병이 사방에서 나와 적들을 깨뜨렸으며 그 괴수 다섯 명을 죽이고, 825급의 머리를 베었으며, 남은 무리들로 산속으로 도망해 들어간 자들은 불을 질러 태워 죽이고, 또 화살에 맞아 벼랑에 떨어져 죽은 자들은 이루다 헤아릴 수 없었으며, 전마 118필을 빼앗고 또 깃발·창·가바주를 얻은 것도 매우 많았다.

11월에 삼위의 군사가 모두 합세하여 길주를 에워쌌으나 왜적들이 굳게 지키므로 탈환하기가 어렵자 공은 말하되 「우리 군사가 급히 치다가는 주곡 상하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영동 적의 울타리를 치는 것만 같지 못하다. 울타리 안에 있는 적이 평정되면

길주는 형세가 외롭고 후원이 끊어져 우리들이 새장에 든 새와 같이 잡을 수가 있을 것이다。」하고 곧 군사를 쌍개포로 옮겨 직정을 만나 삼위의 정병이 분격하여 마침내 왜적을 압해정 아래서 깨뜨리고 백여 급을 목 베었으며, 죽어 넘어진 시체들은 종횡으로 15리나 뻗혔었는데 공은 또 진군하여 에워싸고 다음날 격문을 내어 만들어 성 안으로 쏘니 왜적이 겁내어 모두 도망가 버렸다.

12월에 공이 비로소 세필을 목 벤 공로로 특히 통정직을 가했는데 관찰사 윤탁연이 공의 공적을 시기하여 이에 공문을 보내어 대장직에서 파면하고 현릉으로써 대신케 했다.

그때 마침 절도사가 공에게 명령하여 6진을 순행하여 말갈을 무마하게 하므로 공은 부하 5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북쪽 고을들로 가서 죄 있는 자는 목을 베고 공있는 자는 표창하며, 어루만지고 막고 싸움하고 지키는 것을 모두 적당하게 하니 말갈이 겁을 내면서도 또한 사랑의 온정을 느껴 서로 경계하고 권유하며, 그들이 노략질해 간 우리 백성을 돌려 보내므로 공은 술과 밥을 차리고 그 추장 두 사람을 불러 먹고 부드러운 말로 개유하니, 선춘, 우두 이남으로부터 동건, 다운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부족들이 감히 다시 변경을 침범하지 못했다.

탁연이 공을 대장직에서 파면한 뒤로부터 인심이 평온하지 못하여 6천여명 자제들이 많이 흩어져 가므로 탁연이 비로서 두려워 하여 마침내 다시 공으로써 대장을 삼았다.

다음해 정월에 공은 단기로써 길주에 달려가지 6천의 자제들이 공이 오는 것을 보고 용기가 백배나 더해졌고 흩어져 갔던 자들도 모두 돌아와 모였다.

단천군수 강찬이 공에게 와서 말하되 ‘왜적들이 고을 안을 횡행하니 공은 군사를 나눠서 이것을 격퇴키서 주소서,’ 하므로 날랜 기병 2백명을 뽑아 4대를 구성하여 성아래 복병시키고 단천군사로 하여금 도



전케 하다가 짐짓 패하는 척하니 왜적이 뒤따라 와 영 아래까지 이르자, 4대의 복병군사가 일제히 나타나 공격을 가하니 왜적이 패해 달아나면서 대포를 쏘았으나 모두 맞지 않았으며, 공은 힘써 싸우되 혹은 그들의 앞을 막고 혹은 그들의 뒤를 끊으며, 160급의 목을 베었다.

그 뒤 닷새만에 청정이 군사 2만명을 이끌고 마천령을 넘어 직정의 군사와 합세하여 북으로 올라오므로 공이 곧센 기병 6백명을 이끌고 말을 채찍질 치며 나가면서, ‘우리는 국가를 위하여 싸우지 않고 죽으면 충신이 아니다.’ 하자, 장사들도 그를 따르며 감히 물러가는 자가 없었다.

종일 60리 길을 옮겨 싸우면서 백담교에 이르러 날랜 기병으로써 왜적을 바로 찢러 크게 깨뜨리니 흐르는 피가 들에 가득차고 화살에 맞아 죽은 자는 천으로써 헤아렸다. 왜적은 시체를 싣고 성 안으로 들어가 모두 불태워 버리고 밤중에 청정이 성을 버리고 남으로 도망하는 데 밥지어 먹을 겨를도 없었으며, 이로부터 북방이 비로소 깨끗해 졌는데 공이 배천을 보내어 대첩 장계를 올리니 선조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배천에게 조산대부를 내려주었으나 탁연이 불평하여 공의 과실을 잇달아 장계하여 평논했던 때문에 공은 등용되지 못했다.

3월에 영흥부사를 제수하고, 온성부사로 고쳤다가, 길주목사로 옮기고, 얼마 뒤에 장예원 판결사에 임명되었다가 북방 사람들이 상소하여 공로를 칭송함으로써 가선계제에 승직되었다.

광해가 직위하자 부사로서 명나라에 사신갔다가 다음해에 돌아와 오위도총부 부총관, 병조참판에 승진시켰으나 모두 취임하지 않았다.

공은 사람됨이 강직하고 근엄하며 과묵하고 또 크게 취하여 혼몽해져서 빈객이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기도 했다.

인조가 즉위한 뒤에 원수로 추천을 받자 공은 탄식하며, ‘내가 인제는 면치 못하리라.’ 하고 마침내 늙은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기를 구

하여 전주부윤이 되어 나간지 2년이 안되어 남의 무고를 입어 하옥되었으나, 죄가 없어 석방되었다가 공을 미워하는 자가 공의 역사 읍은 시 한 장을 가지고 또 중상하였다.

처음 광해때에 공이 시를 지어 초희왕을 슬퍼했는데, 대개 그 뜻은 '희왕이 한 번 문관에 들어가자 백성들의 소망이 이미 끊어졌는데, 그 손자가 또 무엇 때문에 희왕이라 일컫던고' 라는 것이었다.

그랬더니 뒤에 최내길이가 그 시를 보고 세상에 전파하였는데, 공이 그로 말미암아 죄목에 얹혀 고문을 당하여 천계(희종 연호) 4년(인조 2년 1624) 12월 기사 19일에 옥중에서 죽으니 향년은 60이요 다음해 어느달 어느날에 양주 송산 유좌원에 장사지내고 숙종이 이 시호를 내려 충의라 하였다.

7세조 정도공 역은 태조를 섬겨 충성하고 근실함으로써 들렸고, 백중조 희량은 벼슬이 예문관 봉교인데, 거짓으로 강물에 빠져 어떻게 끝마쳤는지 알지 못하며, 황고의 이름은 신인데 내자시정 증예조판서요, 공의 부인은 고려 신씨 봉사 예의 따님으로 증 정경부인이요, 아들 둘을 두었는데 맏이는 대영으로 생원이요, 둘째는 대용이며, 공이 별세한지 42년에 병마평사 이공 단하가 의논하기를 '북방은 윤공 관이 처음 9성을 됴으로부터 317년 뒤에 고을들이 몽고에 들어간 것을 김공 종서가 그 땅을 수복하여 드디어 진을 두었는데 김공이 처음 6진을 둔 때로부터 161년뒤에 고을들이 또 다시 왜적에게로 들어간 것을 정공 문부가 그 땅을 수복하였으니 이 세사람은 공로로써 국법에 제사 지냄이 마땅하다'고 제의하여 이에 북방 사람들이 공의 사당을 무계에 세우고 숙종이 이름을 창렬이라 하사하였다. 노래해 가로되

정씨의 드러남은 貞度公이 비롯이요.

멀고 멀다 7대 만에 공이 뒤를 이었도다.

처음엔 병마평사 북방 원수 보좌로서  
 변방 선비 값진 폐백 안 바친 이 없었더니  
 왜적들 쳐들어오고 오랑캐도 일어나자  
 세 반역자 내놓하여 범의 날개 되었고다.  
 아득하다 북방이여 왜적에게 무너지고  
 변방 신하 원수 기름 더 큰 수치 아닐런가.  
 공이 의병 이끌고서 무계에서 일어나니  
 네 동지 우뚝할사 북소리를 따르도다.  
 인과 예로 갑옷 삼고, 충성 신의 깃발 삼아  
 반역자를 무찌르고 큰 성에 육박했네.  
 장평에서 이르러선 완전히 섬멸했네.  
 산 오랑캐 어루만져 온유로 화평으로  
 되놈들 모두 따라 임금 덕을 기리도다.  
 북방을 안정시킴 그 누구 공로건대  
 슬프다 변방 신하 저 충성을 헐뜯던고.  
 아름다운 시호 내려 굽은 것이 바로되니  
 밝아진 외로움을 이 돌에 새기노라.

## 2) 북관(臨溟)대첩비

옛날 임진란에 힘써 싸워 적을 깨뜨려 일제를 크게 울린 이로 해전에  
 서는 이 충무의 한산대첩이 있고, 육전에서는 권원수의 행주대첩이 있  
 으며, 이월천의 연안대첩이 있어, 역사가가 그것을 기록하였고, 이야  
 기하는 이들이 칭송하여 말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지위가  
 있어 말과 부역과 군졸들을 낼 수 있음에 힘입은 것이다.

고단하고 미약한데서 일어나 도망하고 숨는 무리들을 분발시켜 충  
 의로써 서로 격려하여 마침내 오합지졸을 써서 완전한 승첩을 거두어

한쪽을 수복함과 같은 이는 관북의 군사가 제일인 것이다.

처음 만력 중에 왜의 추장 수길이가 강한 군사들을 밍고 중국을 침범하고자 엿보며, 우리가 길을 빌려 주지 않음을 성내어, 드디어 크게 쳐들어와 서울에까지 이르므로 선조는 이미 서쪽으로 거동하고 모든 고을이 무너졌는데, 적은 이미 경기도를 함락시키고 그 무서운 장수 두 사람이 군사를 두 길로 나누니 행장은 행조를 뒤밟아 서쪽으로 가고 淸淨은 북방 침공하는 것을 맡았었다.

그해 가을에 청정이 북도로 들어갔는데 적의 정예한 군대가 심히 거세었기 때문에 철령이북은 성을 지키지 못했다.

이때에 국경인 등이 반역하여 적에게 내놓하니 경인은 회령부의 아전으로 본성이 악하여 순존하지 아니하더니 적이 부령에 이르자 그 위기를 타고 난을 일으켜 피난해 온 두 왕자와 대신을 잡고 그리고 장수와 관리들을 묶어 적에게 주고 정서를 보였으며, 경성 아전 국세필은 그의 숙부요, 명천 사람 말수, 목남과 서로 무리를 지어 모두 아울러 적이 주는 관작을 받아 각각 고을을 웅거하고 성세를 벌여 죽이고 위협하기를 그의 지령대로 하니 여러 고을이 무너지고 겁내어 인민들이 스스로 보전하지 못했었다.

경성 이봉수는 의기있는 선비라, 분개하며 말하되 ‘비록 국가의 어지러움이 이에 이르렀으나, 흉도가 감히 저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최배천·지달원·강문우 등과 함께 의병 일으키기를 꾀했는데 여러 사람의 지위가 서로 비슷하여 장수 삼을 이가 마땅치 않았다.

평사 정문부는 문무의 재주는 있으나 군사가 없어 싸울 수 없으므로 몸을 빼어 산골에 숨어 있던 중 의병을 일으킨다는 소문을 듣고 즐거이 좃갔던 바, 마침내 정공을 추대하여 주장을 삼고 종성부사 정현룡과 경원부사 오웅태 등을 차장으로 삼고 피로써 맹서하여 의병을 모집하여 백여명을 얻었다.

그대 북쪽 오랑캐들이 또 북쪽 변방을 침범하므로 여러 장수들이 사람을 시켜 세필을 달래어 같이 힘을 합하여 오랑캐들을 막자하니 세필이 허락하고 의병들을 성 안으로 받아들였다. 이튿날 아침 정공이 기와 북을 세우고, 남문으로 올라오도록 피어, 그가 현신할 때에 문우가 그를 사로잡아 목을 베어 조리돌리고, 그의 위협에 못 이겨 따른 자들은 놓아 주었다.

그리고 곧 군사를 이끌고 명천으로 가서 말수 등을 잡아 목베고 회령 사람이 또한 경인을 쳐서 목 베어 의병에게 호응하니 군사가 점점 커지고 따라와 붙는 자가 더욱 많아졌으며, 길주 사람 허진·김국신·허대성이 또한 군사를 모아 성원하였다.

이때에 청정이 편장으로 하여금 정병 수천 명을 거느리고 길주를 응거케 하고 자신은 대군을 거느리고 남관에 진을 쳐 옹호하고 있었다.

11월에 적을 가피리에서 만나 싸우려는데 정공은 여러 장수들을 배치하되 현룡은 중위장을 삼아 백탑에 진을 치고, 오응태, 원충서는 북병장을 삼아 석성에 진을 치고, 모회, 한인제는 좌위장을 삼아 목책에 진을 치고, 유경천은 우위장을 삼아 날하에 진을 치고, 김국신, 허진은 좌우 척후장을 삼아 임명에 진을 치고 대치케 했는데 적들은 여러번 이긴 끝이라 방비를 허술하게 했다.

우리 군사들은 모두 함께 일어나 덮쳐 치며 기운을 얻어 밀고 나갔는데 고탈치며 앞서 나가지 않는 군사가 없어 적이 패하여 달아나므로 군사를 풀어 추격하여 그 장수 5명을 죽이고 목을 수 없이 베었으며, 그 말과 무기들을 모조리 빼앗았다.

그래서 원근이 진동하여 장수 관리들로 도망치고 숨어 었던 자들이 다투어 일어나 호응하니 무리들이 7천명에 이르렀으며, 적은 마침내 길주성으로 들어가 움추리고 감히 발돋하지 못했는데 길 옆에 북병을 두어 나오기만 하면 무찔러 버렸다.

이러고 성진의 적이 임명을 크게 침략하므로 정예한 기병들을 이끌고 습격했으며, 산에 기대어 복병했다가 적이 돌아옴을 기다려서 협공하여 크게 깨뜨리고 또 수백명을 목 베고 마침내 그 배를 갈라 창자를 행길가에 넣어 놓자 군사의 형세가 크게 떨치고 적은 더욱 두려워하였다.

12월에 또 쌍포에서 싸웠는데 싸움이 한창 어울리자 편장이 철기를 끌고 가로 찌르기를 풍추같이 빨리 하니 적이 세를 잃어 맞서보지도 못하고 모두 흩어져 달아나므로 이긴 기세를 타고 또 깨뜨렸다.

이듬해 정월에 단천에서 싸웠는데, 세 번 싸워 세 번 이기고 돌아와, 길주에 진을 치고 군사들을 쉬게 하자, 청정이 불리함을 알고 큰 군대를 보내어 길주의 적을 맞아 돌아오게 하므로 우리 군사들은 그 뒤를 쳐서 백담에 이르러 크게 싸워 또 깨뜨렸으며, 이 전쟁에서 이봉수·허대성·이희당은 전사했으나, 적은 마침내 물러가 다시는 감히 북쪽으로 올라오지 못했다.

이때에 명나라 장수 이여송도 또한 행장을 평양에서 깨뜨렸는데, 정공이 최배천을 시켜 셋길로 행재에 승첩을 아뢰니 위에서 불러보고 눈물을 흘리며, 봉수에게 사헌부 감찰을 증직하고, 배천에게는 조산대부의 계급을 내렸다.

그때 관찰사 윤탁연이 문부가 절도사에게 아뢰지 않았음을 성내며 의병의 공적이 자기보다 뛰어난을 시기하여 임금께 공로를 숨기고 거짓말로 아뢰었던 때문에 공에게는 포상이 시행되지 않았다.

오랜 뒤 현종때에 관찰사 민정중과 북평사 이단하가 부로들에게서 듣고 사실을 아뢰어 비로소 문부에게는 찬성, 봉수에게는 지평을 증직하고 남은 사람들에게도 차등있게 관직을 내렸으며, 또 사당을 경성 어랑리에 세워 당시 같이 일한 여러 사람들을 제사케 하고 창렬이라 사액했다.

지금 임금 경진에 창대가 북평사가 되어 의병의 자손들과 함께 연고지를 방문하여, 사적을 자세히 얻어 개연히 제공의 기품을 상상도 하고 또 이른바 임명, 쌍포를 찾아 진치고 싸우던 자리를 거닐고 돌아보며 탄식하면서 떠나지 못하였다.

그리고 부로에게 말하되 ‘섬오랑캐의 전화가 몹시 심하여 세 서울이 함락되고 팔도가 무너졌는데, 이 분들은 죽음을 걸로 외로운 군사를 이끌고서 억센 도적을 무찔러 우리나라의 발상한 옛 땅으로 하여금 마침내 오랑캐 당이 되는 것을 면하게 했으며, 변방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일어나 충의를 서로 권하게 된 것이 그 또한 누구의 힘이더냐. 행주 연안에는 모두 비같이 있어 사적을 적어 공렬을 나타내었으므로 동서로 오가는 이들이 우러러보고 몸을 굽히거니와 관북의 거룩한 공로를 가지고도 비갈 하나가 없으니 어찌 제군의 수치가 아니겠는가.’ 하니 모두 대답하되 ‘그렇소. 그것은 우리들의 뜻이기도 한데 하물며 공의 명령까지 있음이겠소.’ 하며 마침내 돌을 다듬고 재물을 모으고 사람을 시켜 글을 청하건마는 나는 책임자가 아니므로 사양했더니 다시 와서 말하되 ‘이 일은 공이 실로 발의한 사람이니 허락해 주지 않으면 일을 철폐하겠소.’ 하므로, 나는 마침내 그의 사적을 서술하고 노래를 붙인다.

남쪽에는 도적이 와 명나라를 치려드니  
우리는 이웃이 되어 온 나라가 화 입었네.  
높고 높다 북방이여 오랑캐 소굴되니  
어리석은 백성들이 저항 없이 따르도다.  
피 머금은 입으로 흉한 독을 뱉을 적에  
씩씩하다 우리 군사 못 호걸 현걸차다.  
군사란 정의가 제일, 창과 활이 부질없어

반역자 무찌르지 저 도적 못 뒤비네.  
 병정들 북을 치니 산 무너지듯, 바다 끓듯  
 우리 군사 빛난 전술 흉한 적들 무너지네  
 천벌을 내리게 함 사사 아닌 정의거니  
 북쪽 땅 평정되어 누에 치고 농사짓네.  
 임금은 감탄하며 네 공보다 더할 이 뉘냐  
 벼슬 주고 사액하고 한결같은 은혜로다.  
 선비 기풍 열렬하니 백성들도 용감하고  
 임명 바닷가에 우뚝한 돌이 있어  
 찬송을 거기 새겨 영원토록 보이노라.



□ 부 록

智 · 勇 · 仁 겸비한 名牧民官  
鄭 文 孚

이 병 주

※ 이 글은 '길따라 발따라' 이병주의 역사기행(행림출판/1984  
5. 25 발행) 중에 실린 글을 전재한 것이다.

여

백

## 智·勇·仁 겸비한 名牧民官 鄭文學

그날 의정부(議政府)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서울을 떠날 땐 맑은 날  
씨였으나 의정부가 가까워지면서 구름이 짙어지더니, 의정부에 들어  
서자마자 패연(沛然)한 비가 되었다.

여름철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소나기거나 하고 버스 정거장 근처의 다  
방에 들러서 비가 개길 기다렸으나 우세(雨勢)는 좀처럼 멎을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다방에서 이웃 술집으로 옮겨앉았다. 모처럼 충의공  
(忠毅公) 정문부(鄭文學) 선생의 신도비(神道碑)를 보러왔던 것인데  
해질 때까지 비가 멎지 않으면 술이나 마시다가 되돌아가자고 같이  
간 이군과 나 사이에 합의를 본 것이다.

술을 나누고 있는 사이에, 「왜 하필이면 이곳 이름이 의정부일까」하  
는 문제가 화제에 올랐다.

의정부라면 정중하고 위엄있는 이름이긴 하나 고을의 지명(地名)으  
로선 무겁고 조금 어색한 이름이다. 하필이면 왜 그런 이름일까 하는  
의문을 가져볼 만도 하다. 그런데 의정부는 그 본래의 뜻과는 어울리  
지 않게 슬픈 이름이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조선의 태조 이성계(李  
成桂)는 태종(太宗) 방원(芳遠)을 몹시 못마땅해 했다.

방원은 자기의 왕위(王位)를 굳히기 위해 동기간인 방석과 방변을  
모살(謀殺)했다. 아버지인 이성계로선 당연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  
다. 방원은 자기 아들을 둘이나 죽인 원수나 다름없었다.

태조는 그 분을 이기지 못해 멀리 함흥으로 떠나 버렸다. 전형적인

무인(武人)이었던 그는, 가까이에 둔 방원을 죽이고 싶은 살의(殺意)에 견딜 수 없었을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살의를 실행할 수 없었던 것은, 이미 왕위에 오른 방원이 자기의 아들이란 의미 이상을 지닌 임금이었으며, 물샐 틈 없는 자위책(自衛策)을 강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태조가 함흥으로 낙향한 이유 가운데는 방원, 즉 태종으로 하여금 살부(殺父)의 죄까지 범하게 할지 모를 자극을 스스로 피하기 위한 배려가 있기도 했다. 태종은 아버지 태조의 마음을 돌리려고 여러 차례 사신(使臣)을 보냈으나 태조는 그 사신들을 오는 족족 죽여 버렸다. 함흥차사(咸興差使)란 이름이 생겨난 연유이다.

그러다가 얼마 후, 태조는 한성으로 돌아올 결정을 했다. 어느 기록엔 태조의 마음이 다소 풀린 까닭이라고 되어 있지만, 방원을 죽이지 않은 배겨낼 수 없는 심정의 탓이었다. 물론 마음이 풀려 돌아가는 체는 했을 것이다. 당시의 태조는 사분(私憤)의 정도에서 공분(公憤), 즉 인륜(人倫)을 파괴한 자를 왕(王)으로서 긍정하는 관례를 남겨선 나라의 꼴이 아니란 감정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그만큼 생각하는 바와 행동에 여유가 생기기도 했었다.

태종은 앉아서 아버지를 맞이할 수 없었으므로 양주로 영접을 나갔다. 아버지를 모시는 예식을 위해 천막까지 쳤다. 이때 위험을 예견(豫見)한 것이 태종의 심복인 하륜(河崙)이었다. 태조의 궁술(弓術)을 잘 알고 있는 하륜은 천막을 칠 때 필요 이상으로 기둥을 촘촘히 세웠다. 천막 안으로 들어오면 접견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적당히 만들고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어 태종이 서 있는 자리가 기둥으로 가려지도록 배치한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하륜이 예견한 바대로 태조는 천막이 사정(射程)에 들자 돌연 대궁(大弓)에 화살을 실어 쏘았다. 과연 태조는 명사수(名

射手)였지만, 그 화살은 태종 바로 앞에 있는 기둥에 꽂히고 말았다. 그러나 그런 일엔 아랑곳 없이, 이어 환영의 예식이 진행되었다. 그때 응당 태종이 태조에게 몸소 올라야 할 술잔을 하륜이 껌싸게 대행헌수(代行獻酬)하는 방법을 취했다. 그러자 태조는 소매에서 철고(鐵股)를 꺼내 던지며, 「도리가 없구나. 인륜을 파괴한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하는 것인데……」하고 나직이 중얼거렸다. 이것은 태종에 대한 미움의 선언이기도 했지만, 다시는 너를 죽이려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이기도 했다.

그러나 태조는 한성에 들어갈 것을 끝내 거부하고, 양주군 진접면 내각리에 풍양궁(豐壤宮)을 지어 여생을 보내게 되었다. 태종의 신하들은 중대한 국사(國事)가 있을 때마다 이곳까지 와서 태조를 뵈고, 그의 의견을 물었다. 그래서 어느덧 이곳을 의정부라고 부르게 되었다.

어느 정도까지가 사실이며, 어느 정도까지가 꾸민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으나, 태조의 방원에 대한 미움과 이곳에 태조가 눌러 앉았기 때문에 중신(重臣)들의 왕래가 빈번하여 의정부라는 이름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만은 사실일 것 같다.

오후 3시쯤 비가 멎었다. 어느덧 맑은 하늘이 나타났다. 부신 햇살을 쬐며 송산동(松山洞)으로 향했다. 거기에 정문부의 묘소와 신도비가 있다. 정문부는 내가 임진란(壬辰亂)을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알게 된 이름이다.

나는 그의 행적을 밟고 있는 동안, 어떻게 이만한 시인(詩人)이, 이만한 영웅(英雄)이, 이만한 공신(功臣)이, 이만한 지절(志節) 높은 인물인, 대중에 회자(膾炙)되지 않고 문서의 더미 속에서만 묻혀 있었을까 하는 의혹과 아쉬움을 가졌다. 정문부야말로 다산(茶山) <목민심서(牧民心書)>의 필법(筆法)으로 범례(範例)가 될 수 있는 목민관(牧民官)이며, 해전(海戰)에 있어서의 이순신(李舜臣)과 쌍벽을 이룰

수 있는 육전(陸戰)에 있어서의 대승리자이고, 지(智)와 용(勇)에 있어서 제갈량(諸葛亮)을 방불케 할 인재인 동시에, 그 비극적인 생애로 해서 기막힌 드라마의 주인공인 것이다.

우리 역사엔 그 자질과 공훈에 있어서 웅당 빛나야 할 사람이 후인들의 태만과 고루한 타세(惰勢)에 의하여 망각의 먼지에 묻혀버린 예가 수월찮게 있는데, 이 정문부야말로 새롭게 현창되어야 할 인물 가운데 하나이다.

의정부시 송산동은 전엔 양주군 송산이라고 불려졌던 곳이다. 옛적엔 한가하게 들을 바라보던 동산이었던 것이 지금은 시가지가 되어 있었다. 경기도 도문화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넓지는 않아도 묘소는 그런대로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이웃사람들에게 묻었더니 그 묘소나 신도비에 관해 아는 것이 적었다. 바로 가까이에 위대한 인물의 묘소를 두고, 모처럼 문화재로까지 지정되어 있는데도, 이에 관해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정부의 민심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세대(世態)의 각박함을 나타낸 것인지 모른다.

연보에 의하면 정문부는 명종 20년, 서기 1565년 한성 남부 반송방(盤松坊) 남소동(南小洞)의 집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의 이름은 신(愼), 해주(海州) 정도공(貞度公)의 후손이다.

그의 6세 때를 기록하여,

聰穎絕倫 讀書 過目成誦. 隨長者觀捕虎於興仁門外 虎咆哮 觀者無不易 先生 獨安坐微笑 顏色白若 人皆服其膽略.(충명하기가 출중하고 책을 읽을 때 한번 눈을 스치기만 하면 당장 외었다. 어른을 따라 동대문 밖에 잡아놓은 호랑이 구경을 갔을 적에, 호랑이가 포효하자 모두 놀랐는데 선생만은 미소를 띠고 태연히 앉아 얼굴빛이 자약해서 모두들 그 담략에 감복했다.)

고 한 것을 보면 어려서부터 비범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7세 때 시를 지었고, 13세 때 초시(初試)에 합격, 24세 때 명경과(明經科)에 합격하여 27세 때 함경북도 병마평사(兵馬評事)에 임명되어 28세 때 그 자리에서 임진란을 당했다.

일본의 가또오 키요마사(加藤清正)군이 과죽지세로 북방에 침입, 철령(鐵嶺)을 돌파한 것은 6월 12일이었다. 왜군이 함경도로 들어가자, 군민(軍民)은 수습 못할 혼란에 빠졌다. 부령부사(富寧府使) 원희(元喜)가 전사하자 병정들은 태반이나 도망쳐 버려 적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국경인(鞠景仁)의 반란이 있었다.

국경인은 회령군의 역졸(驛卒)인 충경, 친위군 김세언 등과 더불어 작당하여 왕세자(王世子)인 임해군(臨海君)과 순화군(順和君) 두 분을 비롯하여 상락부원군(上洛府院君) 김귀영(金貴榮), 장계부원군(長溪府院君) 황정욱(黃廷彥), 전승지(前承旨) 황혁(黃赫); 宣傳官 조인징(趙仁徵), 남병사(南兵使) 이영(李瑛), 회령부사(會寧府使) 문몽헌(文夢軒), 함흥판관(咸興判官) 이혜(李蕙) 등을 결박하여 가또오 키요마사 앞에 끌어다 주었다. 이어 북도우후(北道虞侯) 이범(李範), 온성부사(穩城府使) 이수(李銖), 병사(兵使) 한극함(韓克誠)도 난민의 손에 붙들려 적진으로 인도되었다.

나머지 수령(守令)과 진장(鎭將)들은 겨우 목숨만 부지, 도망을 쳤다. 이때 정문부도 반란 도당으로부터 총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적을 피해 경성의 해촌(海村)에 숨었다. 정문부가 무사히 피신할 수 있었던 것은 병마평사의 직에 있으면서도 많은 제자에게 글을 가르침으로써 덕을 베풀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때 가또오는 안변(安邊)으로 돌아가 길주(吉州) 이남에만 그들의 군대를 배치하고, 경성(鏡城)은 반도(叛徒) 국세필(鞠世弼)에게, 회

령은 국경인에게 맡겨 군민을 통합하도록 하게 했다.

국경인은 그때 왜적이 준 벼슬로 병조판서로 자처하고 있었고, 국세필은 병사(兵使)라고 자처하고 있었다. 국세필은 국경인의 삼촌이다. 정문부는 경성의 유생 지달원(池達源) 등의 도움으로 의병을 일으켰다. 이때 호응을 얻은 사람으로서 최배천(崔配天), 강문우(姜文佑)가 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경성부사 정현룡(鄭現龍), 경원부사 오응태(吳應台)가 합류했다. 그러자 정문부는 직품이 높은 정현룡에게 의병대장(義兵大將)이 되길 간청했으나 정육품관(正六品官)밖에 안 되고 나이가 어린 정문부를 굳이 의병대장으로 받든 것은 정문부의 인품과 통솔력이 탁월했을 뿐만 아니라 중인들의 축망이 한결 그에게 쏠렸기 때문이다.

9월 16일, 드디어 행동을 개시한 정문부 휘하의 군사들이 경성부(鏡城府)를 향해 진군했다. 이때 반도 국세필은 문을 굳게 닫고 저항할 태세를 갖추었다.

정문부는 사람을 시켜 국세필을 대의와 명분으로써 타이르고, 만일 순응하면 전과(前過)를 용서하는 것은 물론, 후일 크게 포상함이 있을 것이라고 설복했다.

국세필은 이윽고 성문을 열어 의병들을 입성케 하고 그가 지니고 있던 병사의 인장(印章)을 정문부에게 바쳤다. 정문부는 기왕의 비위를 탓하지 않을 뿐더러, 국세필이 병권(兵權)을 그냥 행사 하도록 허하는 바람에 그들은 크게 감동하고 정문부의 명령에 따랐다.

이렇게 되자 전일 이반(離反)되었던 민심이 수습되어 정문부의 격(檄)에 응해 참집한 의병의 수가 천을 넘었다.

길주에 주둔하고 있던 가또오 우마오쥬(加藤右馬丞)라고 하는 왜군의 부장(副將)은 경성이 무혈 점령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1백여명을 파견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다.



성문을 굳게 닫고 이들의 근접을 금하고 있다가, 강문우가 이끄는 결사(決死)의 20기(騎)가 문을 열고 일시에 돌격해 나가는 바람에 적은 기습을 당하여 놀라서 도망쳤다. 도망치는 적병을 영강역(永康驛)에 까지 추격하여 거의 몰살하고 강문우는 적의 수급 수습을 허리에 차고 야반 삼경에 돌아왔다. 병사들 가운데는 적의 칼과 창, 조총(鳥銃)을 노획한 자도 있었고 적의 말을 타고 자기 말은 부마(副馬)로서 끌고 온 자들도 있었다.

이렇게 하여 경성을 완전히 수복했을 적에 정문부는 국세필 이하 13명을 반역죄로 처단하여 대의를 밝히고, 곧 격문을 돌려 반란의 수괴를 추궁케하고, 회령의 유생 신세준(申世俊)이 동지들과 힘을 합하여 국경인을 죽였다.

《제가기술(諸家記述)》이란 책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我國州郡 於壬辰亂戀初 或力屈被陷 或奔潰不守則 有之矣 無一人降附于賊者 唯會寧士兵 鞠景仁 叛據府城執二王子 及 宰臣…….

(우리 나라에선 임진란 초에 혹은 힘이 모자라 함락되고, 혹은 도망치고 규칙을 지키지 못한 일은 있었으나, 단 한 명도 적에 항복하고 부역한 자는 없었는데, 다만 회령의 토병 국경인만이 부성에 반거하여 두 왕자와 재신들을 붙들었다…….)

이런 기록이 없더라도 국경인, 국세필 같은 자는 용서할 수 없는 역적들이다.

정문부는 왜군을 무찌르는 동시 이들을 침멸함으로써 민족의 위신을 세우고 우리의 유음(溜飲)을 내리게 했다. 내가 정문부를 제갈량 같은 지모라고 한 것은 국세필을 설득하여 경성을 무혈 점령하였다는 사실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만일 그런 술책을 쓰지 않고 반도가 점거한 경성을 전투로써 빼앗으려고 했더라면, 왜병의 동원도 있었을 것을 짐작할 때, 적어도 십수일이 걸려 성과는 없고 전선만 더욱 혼란케 했을지 모른다. 정문부의 지모가 있었기 때문에 부하들의 용맹이 보람을 다했고 북방의 민심을 수습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 지장(智將)으로서의 그의 면목은 한층 더 우러러 보인다. 이어 길주(吉州), 장평(長坪), 쌍포(雙浦), 임명(臨溟)의 대첩이 있었고 대소의 전투에 연전연승했다. 그 전적을 살피면 어떻게 이 젊은 문관(文官)이 언제 그러한 전술을 익혔을까 하는 감탄이 인다. 물론 각 전투의 승리는 부하들의 분전에 힘입은 것이라고 하겠으나, 부하제장(部下諸將)이 각기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케 하는 데는 대장군(大將軍)의 관록에 달려 있는 법이다.

그러나 정문부는 그 빛나는 전적으로 해서 적잖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어느 때, 어느 곳을 막론하고 요사스런 사람은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정문부가 당시 꿀탕을 먹은 것은 윤탁연(尹卓然) 때문이었다.

윤탁연은 왕자(王子) 임해군을 모시고 함경도에 들어갔다가 왕자를 반도 국경인의 손에 빼앗겨 버렸다. 곤경에 이른 그는 북청에서 병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삼수갑산을 거쳐 장진(長津)으로 가서 머물러 있었다. 그랬는데 조정에선 그의 죄를 추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함경감사 유영립(柳永立)이 포로가 되자 그 후임으로 임명하였다.

자기의 소위가 불미했던 까닭에 윤탁연은, 도순찰사(都巡察使)의 직위를 겸하게 되자 「평사(評事)가 스스로 대장이라 일컬고, 겸하여 종상관을 거느리니 극히 해괴하다」하여 정문부를 대장직에서 밀어내고 회령부사 정현룡을 대장으로 하는 등 사사건건 정문부의 트집을 잡았다. 정문부가 대장이 된 것은 결코 자기 독단이 아니라 회령부사 정현룡을 비롯한 대중들의 촉망에 의해 된 것이었다.

선조 26년(1593) 1월 12일에 정문부가 올린 장계엔 이런 대목이

있다.

길주 임명에서 쏘아 죽인 적과 성 안의 적이 드나들 때 잡아 죽인 적도 합 백여 명의 왼쪽 귀를 함(函)에 넣어 봉하고, 공로기(功勞記)도 마련하여 장계(狀啓)하려고 하던 차에 도순찰사 윤탁연이 임의로 장계한다 하여 공문으로 추고하고……누구에게서 전해 들은 것인지 군사는 모두 길주목사 정희적(鄭熙績)이 소집한 군사요, 공로는 모두 사절동 권관(權管), 고경민(高擎民)의 공이거늘 패군장(敗軍葬) 원충서(元忠恕)를 논공(論功)에 참여시키고, 정희적, 고경민을 공로자로 아뢰지 않았다하여 명천현감(明川縣監) 장응상(張應祥)을 시켜서 평사(鄭文孚)가 군기를 그르친 양으로 다짐을 받아올리도록 한 것이다…….

길주 전투에 있어서의 원충서의 활약은 뚜렷이 전사에 남아 있기도 하다. 그런데 윤탁연은 이처럼 억지를 쓰고 있었던 것이다.

정문부와 그 부하들은 은성, 종성, 행영, 삼진(三鎭)의 복병(伏兵)으로써 오랑캐의 준동을 막았고, 단천에서 왜적을 물리쳤고 백탑교(白塔橋)에서 왜적에게 대손해를 입혀 왜군이 다시는 북방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공(大功)을 세웠는데도 윤탁연의 농간으로 정문부는 임진란 수습 직후에 있었던 논공행상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이다.

윤탁연의 잘못은 이런 정도가 아니다. 회령부사 정현룡을 대장으로 임명한 지 한 달도 못되어 경원부사 오응태를 대장에 임명했다. 뿐만 아니라 각 진의 장수를 거의 한꺼번에 다 바꾸어 버린 때문에 <장수로 하여금 본직(本職)을 알지 못하고 군졸로 하여금 그 장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게 하여, 군정(軍政)이 흔들리고 사기가 떨어지게 하니 그 까닭을 알지 못하와 염려스럽다>고 정문부는 쓰고 있는 것이다.

비록 논공행상에 참여하진 못했으나, 정문부는 선조 26년 1월에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서(叙)함을 받았다. 29세 때이다.

30세 때에는 영흥부사(永興府使), 이듬해엔 온성부사, 다음해엔 길주목사가 되는 등 계속 북방의 지방관으로 있다가, 선조 32년, 35세 때 장례원판결사(掌隸院判決事)를 배하고, 이어 곧 이조참의(吏曹參議)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내직(內職)보다는 외직(外職)을 좋아했다. 형식만 있고 내실이 없는 고관(高官)보다 백성과 직접 통해 애환(哀歡)을 같이하는 생활을 즐겼던 것이다. 흔히 외직에 있으면 춘향전의 변학도, 동학란 때의 고부군수(高阜郡守) 조병갑(趙秉甲)처럼 되기가 쉬운데 정문부는 시종일관 청빈하고 강직한 목민관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正義)에 의하면 <비극(悲劇)은 정(正)과 정(善)과 선(善)의 대립과 항쟁에서 빚어진 드라마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이 정의가 정당한 것이라면 이 나라엔 비극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된다, 언제 정의(正義)와 정의가 대립이라도 해 보았던가. 항쟁(抗爭)이란 있어보지도 않았다. 정의의 병존(並存)을 용납 하지도 않았고 언제나 반대편은 불의(不義)이고 악(惡)이니, 이를 압살해야 한다는 것이 조선왕조 5백년 이래의 실상(實相)이다. 그런 까닭에 슬픔은 한량이 없고 피는 폭포처럼 쏟아졌으며, 살육(殺戮)과 형륙(刑戮)이 그칠 사이가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비극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계속된다.

「정과 부정의 싸움이 비극일 수 없는 것은 궁극에 가선 정이 이겨야 하기 때문이다. 선과 악의 싸움도 비극일 수 없는 것은 같은 이치이다.」

이럴 때 반문(反問)이 없을 수 없다.

「어떻게 정의 부정에 꼭 이긴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악이 선에게 이

긴 경우가 더 많지 않은가. 이것이 비극이 아니고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들리는 것 같다.

「그것은 오직 참극(慘劇)일 뿐이다」

비극엔 카타르시스(淨化)가 있고, 따라서 교훈이 있다. 그런데 참극엔 교훈조차 없고 카타르시스는 물론 있을 까닭이 없고 원한만 남을 뿐이다.

정문부의 생애는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인생이다.

다음에 노산 이은상(李殷相) 선생의 글을 적어본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비롯해서, 그 당시 국가 민족을 구원해 낸 위대한 공로자들을 수많이 헤아릴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농포(農圃) 선생같이 기이한 공적을 세운 이는 극히 드물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공은 첫째 북으로 들어간 왜장 가등청정(加藤清正)의 억센 군대와 싸워야 했다. 또 둘째 왜적에 부역하여 우리 왕자와 대관들을 사로잡아 주고서 조국에 반역행위를 한 국경인, 국세필 등 악한 무리들을 지혜로써 무찔러야 했으며, 또 셋째 우리의 어려운 틈을 타서 침구해 오는 오랑캐들과도 싸워야 했던 것이다. 이같이 한때에, 한 칼로써, 삼중 전투(三重戰鬪)를 감행하고, 또 능히 모두 다 승첩(勝捷)을 거두었던 것이야말로 임진란 전체 역사를 통하여, 다른 이에게선 찾아 볼 수 없는 특이한 사적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공의 승첩은 국가의 도움이란 추호도 없이 오직 충의로 부르짖어 흠어진 민심 속에서 불러일으킨 민간 의병(民間義兵)에 의해서 된 것이었고, 또 거기서도 옷사람의 시기 질투를 입어 어려운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던 것을 헤아리면, 공이 과연 위대한 인물임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러한 인물이 어떻게 참극의 희생자일 수 있었을까. 농포란 정문부의 호(號)이다(앞으로 농포로서 기명한다).

계사년 2월 1일에 있었던 백탑교(白塔郊)의 전투는 길이 역사에 남을 만한 실로 장렬한 대첩(大捷)이었다. 그런 만큼 명장(名將) 농포의 진면목(眞面目)을 말해 주는 전투이기도 했다.

당연히 농포는 그 전투의 상황과 결과를 행조(行朝)에 알렸다. 그러자 윤탁연이 대노했다. 자기에겐 의논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공로를 기록하여 장계한 것이 못마땅했던 까닭이다. 왕자의 문제로 불미한 과거를 지닌 윤탁연은 농포의 명성에 시기와 질투를 느껴 어찌할 바를 몰랐던 모양이다.

윤탁연은 농포의 부하들을 붙들어 놓고 심한 고문을 가했다. 백탑교의 승리가 농포의 공(功)이 아니라는 것을 농포의 부하들 입으로부터 짜내려는 작정이었다.

그러나 부하들은 갖은 혹형을 당하면서도 농포에게 불리한 말 한마디도 토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윤탁연은 농포를 모함하는 장계를 올렸다. 농포는 참을 수 없었다. 최배천을 시켜 윤탁연의 장계가 그릇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케 했다. 하나 조정에선 감사(監司)인 윤탁연의 장계를 옳다고 채택했다.

당시 농포의 나이는 29세. 감수성이 한창 예민할 시기이다. 농포는 이때 생각한 바가 있었던 것 같다. 조정(朝廷)을 형성하는 세력에 관해서, 당파가 끼친 화(禍)에 대해서, 옳은 일이 옳게만 통할 수 없는 시류(時流)란 것에 관해서, 그리고 인생에 관해서.

농포는 번번이 중앙의 요직에 임명되었지만 취임하지 않고 굳이 외직으로 돌았다. 그는 이미 조정의 생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쟁(黨爭)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당인(黨人)이 되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계(中央政界)를 피해야만 했다.

농포의 나이 44세 때, 선조(宣祖)가 세상을 떠났다. 광해군(光海君)의 시대가 열렸다. 광해군 2년에 사은부사(謝恩副使)로 명나라에 갔다가 돌아온 이후로 그는 줄곧 지방관으로만 돌아왔다. 한때 형조참판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이 무렵에 있었던 일이다. 북인(北人)이 득세하여 이이첨(李爾瞻), 이경전(李慶全)의 천하가 되었는데 정조(鄭造)가 그 무리에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자, 하루는 그를 불러 은근히 타일렀다. 정조는 농포와 같은 해주 정씨일뿐 아니라 가까운 집안이었다.

「무릇 사대부(士大夫)의 몸가짐은 깊은 못에 임하는 것과 같고, 얇은 얼음을 밟는 것같이 해야 하거늘 이제 네가 당인들과 결탁하여 조정의 일을 좌우하는 것을 보니, 옛말에 조상을 욕되게 하고 집안을 망친다는 말이 바로 너를 두고하는 말이로구나」 정조는 무안해 하여 한동안 농포 앞에 나타나질 않았다.

이러한 태도로 미루어 알 수 있듯이 농포는 당인들과 일체 교제하지 않았다. 당시의 권세가(權勢家) 이이첨의 집과는 지척에 있었고, 이이첨이 그와 사귀길 원했는데도 농포는 응하지 않았다. 총체적으로 광해군 시절의 농포는 변두리 지방의 목민관의 위치에 있지 않았을 땐 술과 시(詩)의 세계에 도회(蹈晦)한 생활 속에 묻혀 있었다.

농포의 시재(詩才)는 탁월했다. 그 예(例)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농포 38세 때의 일이다, 차천로(車天輅)가 놀러와서 말하길, 「風無一足行千理(바람은 발이 하나도 없는데 천리를 간다)는 글귀를 얻긴 했는데 한스럽게도 대(對)를 얻지 못했다」

그러자 농포가 즉석에서 응했다.

「月有孤輪轉九天(달은 외바퀴지만 구천을 돈다)」

농포가 시심(詩心)과 기재(機才)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포의 시는 그 분량이 꽤 많다. 그 가운데서 내가 좋아하는 오언시(五言詩) 하나를 적는다.

物我天地間 殊形而一節 松寒解浚霜 竹寒宜帶月 寒梅賢寒士 精神兩  
水雪 - 寒如此哉 相對至白髮 擬作四皓隱 不可無其一 (너와 나 천지  
사이에 모양은 각기 다르지만 절조는 하나이다. 송한은 서리를 이길  
줄 알고, 죽한은 의당 달과 좋은 짝이다. 한매와 가난한 선비, 정신은  
둘 다 얼음 눈이어라. 찬 것이 바로 이와 같으나 흰머리 나도록 같이  
가보자, 우리도 비슷한 상산의 사호(네 은사)가 아닌가. 하나가 빠져  
도 안되는 것이니라.)

사한정(四寒亭)이란 네 한사(寒士)가 모인 정자라는 뜻인데 이 것이  
이 시의 제목이다.

이것은 농포가 50세 때, 친구 이호민(李好愷)과 더불어 사한정에 올  
랐을 때의 시이다.

내친걸음에 하나만 더 인용한다.

晴窓宜讀書 濯足來何晚

塵上十年踪 臨流不盡沈

(창이 밝아 글 읽기가 좋은 곳이다. 어찌서 발을 씻으러 이처럼 늦게  
왔을까. 티끌 세상 십 년 동안 물은 때인지라 시냇물에 왔건만 다 씻  
을 수가 없구나.)



나는 이 시에 농포의 도회심리(蹈晦心理), 추잡한 정계를 염리(厭離)하는 심정을 보는 느낌이다.

광해군의 행패가 차츰 더하여 인목대비를 폐하려고 들었다. 조정에선 농포를 끌어들이어 찬성파로 만들려고 했으나 농포는 병을 빙자하기로 하고 그밖의 이유를 들어 끝내 동조하지 않았다. 당시로선 무척 용기를 필요로 한 일이었다.

1623년 3월 인조반정(仁祖反正)이 있었다. 농포 59세 때의 일이다. 반정의 주모자들은 모두 농포의 친구들이었다. 그런 까닭에 농포는 그 모의에 가담하진 않았으나 대강의 동정은 알고 있었다.

3월 13일 밤이었다. 시첩(侍妾)이 바깥으로부터 들어와 「대궐안에 불빛이 등천하니 괴이한 일이다」고 아뢰었다. 농포는 일어나 의관을 정제하고 앉았다.

「일이 이미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노복들을 시켜 대문과 집 둘레를 엄하게 하고 조정의 명령을 가다렸다. 인조가 즉위하자 농포를 원수(元帥)로서 등용하려고 했다. 농포는, 「이젠 나도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한탄했다.

조정에서는 농포가 광해군 시절에 소외당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장차 크게 등용하려 했던 것인데 농포는 편모(片母) 봉양을 구실로 해서 지방관이 되길 원했다. 대개 지방관이 되었을 때 심하면 춘향전의 변학도, 고부군수 조병감처럼 되거나 심하지 않아도 약간의 착취행위는 있는 법인데 농포는 그야말로 엄결지신(廉潔持身)의 표본 같은 인물이었다.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농포 54세 때, 창원부사(昌原府使)로 있었을 무렵의 일이다. 겨울날 큰아들인 대영(大榮)이 천리 길을 남하하여 아버지께 문안 드리러

왔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아들이 관마(官馬)를 타는 것을 농포는 허락하지 않았다. 아들은 눈과 얼음으로 된 천리 길을 다시 걸어서 돌아가야만 했다.

기록에 이르되 <가법지청엄여차(家法之清嚴如此)>.

농포가 지방관으로 있다가 돌아왔을 때 적의 행리(行李)는 언제나 쓸쓸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그날부터 끼니 걱정을 해야만 했다.

기록에 이르되 <불면가대이위식(不免假貸而爲食)>.

이러한 일화를 주워 모으면 한량이 없다. 심지어는 당대의 세도가 정인홍(鄭仁弘)의 편지를 가지고 청탁하러 온 자를 매로 때려 쫓아 버린 일까지 있었다.

그런 까닭에 농포의 친구 이정구(李廷龜)가 한탄한 적이 있다.

「정자허(鄭子虛 : 농포의 자)는 그 인물과 재능 기량이 참으로 얻기 어려운 사람인데 다만 한스러운 것은 강직함이 너무 지나친 점이다.(鄭子虛 人物才器誠不易得而獨恨其剛直太過).」

인조 원년(仁祖元年) 4월, 농포는 전주부윤에 임명되었다.

전주에 간사한 장사꾼이 있었다. 권문과 귀족과 사귀고 있는 것을 기화로 관(官)의 재물을 많이 빌려 쓰고 갚질 않았다.

농포는 이를 잡아 가두어 당장 변상하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조정의 요직에 있던 박정(朴正)이란 사람이 열흘 동안에 세 번이나 편지를 보내 그 자의 석방을 요구해 왔지만 농포는 단연 거부하고, 관의 재물을 회수한 후에야만 그 자를 풀어 주었다. 이 때문에 박정은 농포에게 앙심을 품었다. 이것이 마침내 화근이 된다.

인조 2년(1624) 정월에 이괄(李适)의 반란이 있었다. 인조는 농포를 부총관(副總官)에 임명했다. 농포는 그때 병이 심해 나가지 못

했다.

임금은 공주(公州)로 가서 농포에게 이괄 토벌의 명령을 내렸다. 농포는 병든 몸을 이끌고 용인(龍仁)까지 가서 임금을 뵙고, 병 때문에 적을 토벌하지 못하겠다고 아뢰었다.

이괄의 난은 이윽고 평정 되었으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하여 농포를 모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그해 10월, 농포는 체포되어 옥에 갇혔다.

당시 박내장(朴來章) 등의 역적 모의가 있었다. 그들은 모의 석상에서 「정모는 문무를 겸전한 사람이니 대장으로 모시자」고 하고, 의원(醫員) 이대검(李大儉)을 중기 치료를 하기 위해 농포의 집에 드나드니 대검을 시켜 그 뜻을 전하도록 하자는 의논이 있었다. 그 사실이 발각되어 농포가 체포되었던 것인데, 대질(對質)의 현장에서 대검이 「그 말을 박내장으로부터 들긴 했지만, 어찌 침이나 놓는 의원이 생소한 대감 어른께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겠소」했기 때문에 농포는 석방되어야 할 것이었다. 그런데 대간(臺諫)들의 문초는 계속되었다. 농포가 창원부사로 있을 때 심심파적으로 역사(歷史)를 읊은 시 십수(十首) 가운데의 하나를 문제 삼은 것이다.

楚雖三戶亦秦亡 未必南公說得當  
一入武關民望絕 孱孫何事又懷王

이것이 문제로 된 시이다.

이 시는 복잡한 사실(史實)이 배경에 깔려 있다.

진(秦)나라가 제(齊)를 칠 계획을 세웠는데 초(楚)나라의 동향이 근심이었다. 그래서 장의(張儀)를 시켜 초와 제가 절교하도록 획책했다.

장의는 진 나라가 초에 6백 리의 땅을 줄 것이라고 거짓을 말하고 초 나라로 하여금 제와 절교하게 했다. 그후 초 회황(懷王)은 부하를 시켜 땅을 받으로 갔더니, 장의는 6리의 땅은 말한 적이 있으나 6백 리의 땅은 말한 적이 없다고 버텼다. 초 회황이 노하여 진 나라를 쳤는데 도리어 초 나라가 대패(大敗)했다.

얼마 후 진의 소왕(昭王)이 초와 통혼(通婚)을 청하고 회황과 만나자고 제의했다. 신하들이 말렸으나 회황은 듣지 않고 무관(武關)으로 들어갔다. 이때 진 나라는 복병(伏兵)으로 에워싸 회황을 포로로 해 버렸다. 회황은 결국 진 나라에서 죽었다. 훗날 범증(范增)이 초 나라 사람들의 인심을 얻기 위해선 회황의 손자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항량(項梁)에게 권해 손자를 세워 회황이라고 불렀는데, 얼마 되지 않아 그 회황은 항우(項羽)에 의해 살해되었다.

그러니 농포의 그 시는 다음과 같이 풀이된다.

초나라가 진나라에 망하여 비록 삼호밖에 남지 않았다고는 하나, 진 나라도 역시 당하고 말았다. 장의의 설득이 옳을 까닭이 없다. 일단 무관으로 들어가 백성들의 희망을 저버렸는데 잔악한 손자를 세워 다시 회황이라고 했으니 터무니 없는 일이다.

이렇게 왕고(往古)의 역사 한 토막을 읊어본 것뿐인데 잔악한 인간들은 이에 트집을 잡고 늘어졌다. 사건의 발단은 최내길(崔來吉)이란 자가 농포를 찾아온 데서 비롯된다. 벽을 바른 종이에서 최내길이 이 시를 유심히 읽고, 가서 박정에게 전했다. 박정은 이 시에 기필 무슨 저의가 있는 것이라고 하여 문제로 삼았다. 아니 문제를 꾸짖었다.

최내길은 농포의 맏아들 대영과 동서로서 익성군(益城君)의 사위였다. 그런데 내길은 간사하고 경솔하여 장인은 그를 무시하고 항상 대

영을 후하게 대접하였다. 그런 까닭에 최내길은 농포와 그 아들에게 감정을 품고 있었던 터였고, 박정은 전주의 간사한 인간 때문에 품은 앙심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런 까닭으로 기회를 노리고 있던 차에 그 시가 걸려든 것이다.

조정 의 고관들도 흑백(黑白)이 가려지겠지, 하는 냉담한 태도로 임했다. 농포를 인조에 대해 소극적인 인물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때 문초관으로 있던 택당(澤堂) 이식(李植)과 포저(捕猪) 조익(趙翼)은 재판관에게, 「이것은 시인이 역사를 읊은 작품일 뿐이고, 무슨 다른 뜻을 내포한 것도 아닌데 어찌 이것으로 이 사람을 죄인 취급할 수 있느냐」고 항변했으나 최내길과 박정 등의 흥계가 워낙 완강했다. 농포는 이윽고 문초 도중에 죽고 말았다. 이른바 장하지사(杖下之死)이다.

임진의 국난을 구한 민족의 영웅이며, 길이 사표가 될 만한 목민관이며, 강직하고도 염결이 청량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시인을 하찮은 죄를 꾸며 때려 죽이고 말았으니 이것이야말로 참극(慘劇)인 것이다. 두 아들과 대영과 대용(大隆)은 상복을 입은 채 진주(晋州)로 내려갔다. 농포가 창원부사로 있을 때, 진주를 둘러보고 그 풍토의 순박하고 아름다움을 사랑하여 일찌기,

「너희들은 벼슬할 생각은 아예 말고 진주에 터전을 잡고 살아라」고 유연한 적이 있었던 것이다.

지금도 진주엔 충의공 농포 정문부 선생의 사당이 있고, 후손들이 가곡리(佳谷理)와 용암(龍岩)에 별족을 이루어 살고 있다.

그가 죽은 지 90년 후에 충의공이란 시호가 내렸다. 환란(患亂)에 있어 나라를 잊지 않음을 충(忠)이라 하고, 과감하게 적을 무찌름을 의(毅)라고 한다는 뜻이다. 이로써 농포는 그 억울한 죽음에 따른 치욕을 역사상으로 말끔히 씻은 것으로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체모

를 중히 여긴 그가 간악한 인간의 매질을 받아 죽은 생신의 원통함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의정부 송산의 농포와 그 아버지의 무덤 사이를 소요하며 내가 문득 상기한 것은 일본 동경의 야스꾸니 신사(靖國神社)에 있는 농포의 공적을 기념한 임명대첩비(臨溟大捷碑)이다. 함경도에 3백 수 년 전 세워진 그 비가 어떻게 일본에 있단 말인가. 연전 최서면(崔書免)씨가 그 사실을 발표한 바 있지만 농포의 운명은 죽어서도 그처럼 기구한 것이다.

## 【參考文獻】

### 〈저서〉

李炯錫 壬辰倭亂史

農圃文集

鄭奎燮·鄭文根 編著, 壬辰倭亂과 忠毅公 農圃 鄭文學 先生

海州 鄭氏 大同譜(上)

王朝實錄(선조, 광해, 인조 현종)

朴弘耆, 獄事文書(四~五)

懲毖錄附 壬辰錄 金鍾權 譯註

李殷相 農圃先生 文集

鷺山 李殷相 國譯 農圃集

韓國史 近世前期篇 震檀學會

燃藜室記述(V) 고사 본말(선조, 광해, 인조, 현종)

大東野乘

李魯 龍蛇日誌

再造藩邦志 卷一

韓國史 論 (22) 壬辰倭亂의 再照明

조중화 다시쓰는 임진왜란사

조중화 바로 잡은 임진왜란

서필량 임진왜란(그것은 그렇지 않았다)

김경인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최병철 공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貫井正之 豊臣政權の 海外侵略と朝鮮義兵 研究  
青柳綱太郎 豊大閣 朝鮮役(文録役の 卷經い)  
青柳綱太郎 豊大閣 征韓戰記

〈論文〉

金文子 豊臣政權의 講和交流에 관한 研究  
李章熙 鄭文孚의 義兵活動  
李章賢 壬亂海西義兵에 관한 研究  
金潤坤 郭再祐의 義兵活動  
金鎮禧 壬辰倭亂의 義兵活動에 관한 一考  
安國承 壬亂義兵將 鄭文孚 研究



## 著 者 安 國 承

### 略 歷

- 弘益大學校 法律學科 卒
- 江西中 養英高 議政府綜高校 教師
- 全谷白鶴中 議政府女高校 校監
- 一東高 抱川高 東豆川 中央綜合中高校 校長
- 弘益大學校 總同門會 事務總長
- 現 抱川高 東豆川 綜合高校 獎學會 創立
- 抱川高 東豆川 綜合高校 獎學會 名譽會長
- 弘益大學校 總同門會 諮問委員
- 弘益大學校 總同門會 獎學會 理事
- 榮錫學院 財團理事
- 議政府文化院 鄉土文化研究 所長
- 京畿道 鄉土文化研究 所長
- 議政府文化學校長
- 東豆川文化院 諮問委員
- 東豆川市政 二十年史 執筆委員(義兵戰爭 三·一運動 分野)

### 著 書

- 새 憲法에 의한 政治와 社會
- 日本 속의 韓國 民族史
- 中國 속의 韓國獨立戰蹟地 踏查記
- 高句麗의 故鄉 集安探訪과 白頭山, 萬里長城 登程記
- 美國 探訪記
- 安重根, 朴殷植, 鄭文孚, 義順公主傳記
- 壬亂과 義兵將 忠毅公 鄭文孚

- 論 文
- 海洋百濟의 後依裔(우리의 뿌리를 찾아서)
  - 京畿史學 論文 1·2·3·4集 發刊 京畿道 (郷土文化研究所)
  - 七支刀 銘文 解讀을 考察해 본 百濟의 對外關係
  - 買肖城 研究
  - 壬亂義兵將 鄭文孚 研究
  - 臨津江 漢灘江 流域과 內陸에 있는 城郭과 百濟 積石塚에 관한 考察
- 칼 럼
- 教育分野
    - 一. 同一視 對象으로서의 스승의 役割 등 多數
  - 歷史分野
    - 一. 歷史散策 등 多數
  - 책읽는 民族이 되자 등 多數

## 임란의병장 충의공 정문부

발행인 / 의정부문화원장 조한영

지은이 / 안국승

발행처 / 의정부문화원

연락처 / ☎ 0351)872-5678

인 쇄 / 1999년 12월 20일

발 행 / 1999년 12월 30일

이책은 국비와 지방비의 지원을 받아 간행되었음.

